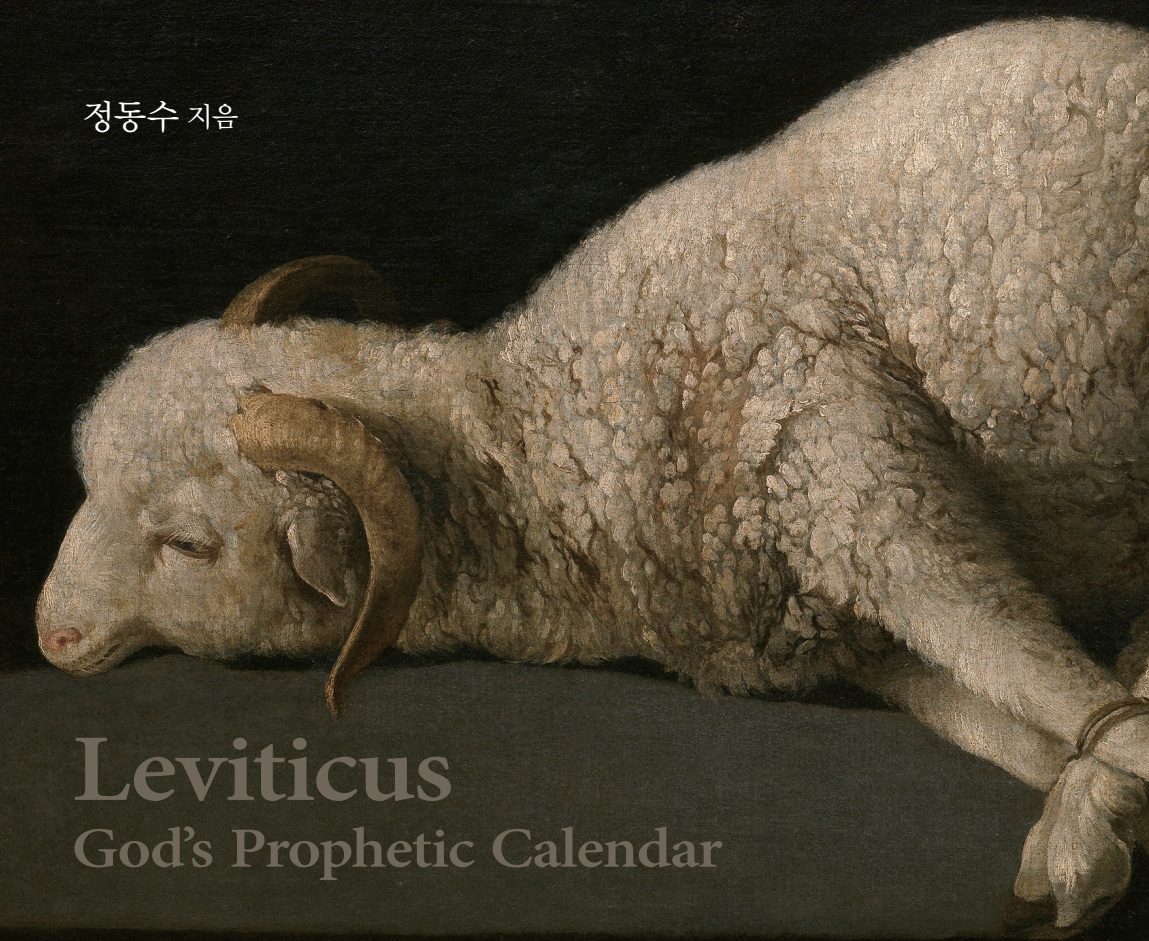
레위기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

정동수 지음



Leviticus

God's Prophetic Calendar

그리스도예수안에

그리스도예수안에

도서출판 '그리스도예수안에'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출간하는 성경 전문 출판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를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과 진리가 훼손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존되고 전파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he King James Bible publishing company, 'In Christ Jesus,' makes all efforts through the grace of God and the leading of the Holy Ghost to preserve and spread the only gospel and truth of the Lord Jesus Christ as revealed in the New Testament without any defect.



레위기: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

지은이 / 정동수

Copyright ©

2026년 5월 15일 발행
발행처 / 그리스도예수안에
발행인 / 정동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 83
웹사이트: www.KeepBible.com
전자우편: webmaster@KeepBible.com

22,000원

이 책의 내용 일부를 인용하는 것 이상으로
무단으로 인쇄해 판매하거나 온라인에 업로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Leviticus: God's Prophetic Calendar
The Way to Worship a Holy God

— D. S. Jung —

목차

서문 5

서론 13

제1장 레위기 개요 22

제2장 레위기의 헌물들 72

제3장 제사장 제도 114

제4장 하나님의 일곱 명절 176

제5장 첫째 명절: 유월절 200

제6장 둘째 명절: 무교절 236

제7장 셋째 명절: 초실절 260

제8장 넷째 명절: 오순절 278

제9장 다섯째 명절: 나팔절 298

제10장 여섯째 명절: 속죄일 322

제11장 일곱째 명절: 장막절 350

제12장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 378

부록

1. 그리스도의 지상 천년 왕국 392

2. 유대인은 누구인가? 415

3.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에 일어난 사건들 438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거룩함 가운데로 부르시는지 보여 주는 책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음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였으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every word)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마 4:3-4)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말씀'(every word)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에는 흥미로운 말씀뿐만 아니라 지루하게 느껴지는 말씀과 기쁜 말씀, 슬픈 말씀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상을 펴 보면, 1장부터 9장까지가 거의 모두 "누가 누구를 낳고…" 혹은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었고…"라는 표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을 읽으며 지루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 또한 분명히 '모든 말씀' 안에 포함시켜 두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러한 양식도 먹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어떤 이는 "성경 읽기는 인생 여정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 늘 좋고 즐거운 날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에 이르면 난해하다고 여깁니다. 헌물과 희생물의 규례, 정결함과 부정함의 구분, 반복되는 절차들이 오늘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흔히 지루하고 따분한 책으로 여겨집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여러 헌물과 명절, 제사장과 성막에 관한 규례가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은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많은 성도가 이러한 내용은 더 이상 우리와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여, 레위기를 깊이 살펴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결코 소홀히 여길 책이 아닙니다. 진부하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레위기 역시 분명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속합니다. 오히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어떻게 거룩함 가운데로 부르시는지를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막연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레 11:45)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도가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지 않는지를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레위기의 핵심은 규칙 그 자체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무분별하게 열려 있지 않다는 사실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거룩함이 요구된다는 진리가 이 책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헌물과 희생물의 규례가 기록되어 있고, 제사장 직무의 책임이 강조되며, 거룩함이 훼손될 경우 생명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냉혹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며, 동시에 자신의 백성을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레위기는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어떻게 단번 속죄와 완전한 희생이 되었는지를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러나 레위기에 대한 이해 없이는 히브리서가 전제하는 논리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으며, 헌물과 희생물, 제사장 직무와 피 흘림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히브리서의 설명 또한 깊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레위기가 예표라면, 히브리서는 그 예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밝히는 책이며, 이 두 책은 결코 분리하여 읽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23장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어떻게 경영하시는지를 보여 주는 '하나님의 달력'과도 같습니다. 이 장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 성령님의 강림과 내주가 있는 신약 시대, 그리고 교회 시대 이후 장차 있을 재림과 메시아 통치의 천년 왕국의 완성 역사를 하나의 흐름으로 조망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묘사된 '주님의 일곱 명절' 가운데 처음 네 명절은 초림 때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으며, 뒤의 세 명절은 재림 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일정표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레위기는 단순한 과거의 종교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시간 속에 배열해 놓은 책입니다.

또한 레위기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배려가 깊이 스며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의 희년 제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영원히 빚과 실패에 묶여 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대인들의 희년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세밀하게 돌보시는 분이신지는 이 제도를 통해 분명히 드러납니다. 레위기는 거룩함만을 강조하는 차가운 책이 아니라 거룩함과 긍휼이 함께 흐르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스트라우스(Lehman Strauss), 라킨(Clarence Larkin), 제프리(Grant R. Jeffrey), 솔타우(Henry W. Soltau) 등의 저서를 근거로 하

여 진행했던 레위기 맥 잡기 강해와 성막 강해의 일부를 글로 정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책을 읽으시면서 동시에 강해 영상을 다시 보실 수도 있고 말씀을 직접 펴 놓고 함께 읽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레위기 성경 강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첫째, 구약의 레위기는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미리 보여 주는 예표의 성격을 지닌 책이다.

둘째,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주님의 명절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이미 성취된 것들과, 장차 재림 때 성취될 것들로 구분되며, 모든 명절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셋째, 성경 말씀은 매우 정확하며 하나님께서는 인간 역사의 모든 일들을 그분 자신의 패턴에 따라 일관성 있게 주관하신다.

넷째, 성도들의 영적 양식이 균형 있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신구약 성경 모두가 함께 읽히고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레위기는 더 이상 생소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저는 성도들이 레위기를 통해 예배가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독자 여러분께서 성경 연구에 조금 더 시간을 들여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고 바른 교리를 정립함으로써,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야 비로소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책은 레위기 관련 강해 설교들을 토대로 정리하였기에, 본문과 부록 사이에 내용과 설명이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각 장과 부록을 독립적으로 읽을 독자를 고려하여, 이해의 흐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반복을 그대로 두었으니, 이 점에 대해 독자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합니다.

이 글은 레위기를 처음 접하는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차례 강해를 통해 함께 살펴본 레위기의 흐름과 핵심을 다시 정리함으로써, 성도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더욱 분명한 안목을 가지도록 돕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진행해 온 '성경 맥 잡기' 강해 역시 같은 방향을 향해 왔습니다.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며,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이 정리를 통해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그분 앞에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더욱 또렷하게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이 성도 여러분의 성경 읽기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거룩함 가운데 세우시는지를 함께 바라보는 여정에 이 책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경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화평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 책을 통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과 존귀가 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3월 인천에서
정동수 목사

레위기를 읽고 공부해야 할 이유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대로 믿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근본주의자들(혹은 보수주의자들)은 신앙과 행위의 모든 문제에서 성경을 최종 권위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주장을 말로만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기를 제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며 결코 그 말씀들을 인위적으로 향상시키려 하거나 보완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위대한 설교자는 "성경은 다시 기록될 필요가 없고 다시 읽힐 필요만 있다."고 말했는데, 저 역시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시 태어난 크리스천이라면 모두 성경대로 믿는 '성경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책을 우리가 시간을 들여 직접 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의무입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병사가 고향에서 온 긴 편지를 받았다고 상상해 봅시다. 과연 그가 편지의 3페이지부터 읽기 시작하겠습니까? 혹은 3페이지를 넘

기고, 4페이지는 대충 읽고, 5페이지는 훑어보고, 6페이지는 반만 읽은 채 덮어 버리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참으로 우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다수의 성도가 성경을 읽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고향과 그곳의 소중한 이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병사라면 상황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그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읽고 또 읽을 것입니다. 그 안에 담긴 말 한 마디 한 마디를 소중히 여기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싸우고 있는 자신의 군사들, 즉 우리에게 '고향으로부터의 편지'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편지를 꾸준히 읽기를 거부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편만 읽으라고 성경 전체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로마서뿐만 아니라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도 읽어야 합니다. 고린도전후서에 영감을 주신 동일한 저자께서 역대기상하에도 똑같은 영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말라기서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일부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읽은 뒤, 마치 임무를 완수하기라도 한 듯 성경을 조용히 덮어 옆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 읽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지 못하게 하는 사건은 오직 두 가지뿐입니다. 바로 죽음과 휴거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다른 모든 이유는 지나치게 나약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깊고도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구절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도록 잠시 기다리다가 이내 '더 나은 번역'이나 성경 주석서를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이는 네 살짜리 아이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태도와 다

르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진심으로 운전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동기는 순수할지도 모릅니다. 아이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으며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자동차를 운전할 자격이 없으며, 심지어 두발자전거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는 세발자전거보다 큰 어떤 것도 다룰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성장한 뒤에야 비로소 그는 더 크고 복잡한 것을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원리는 성경을 읽는 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처음 읽으면서도, 사실은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을 읽어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답을 하나님께 즉시 요구합니다. 물론 우리의 태도는 진지합니다. 우리의 동기는 순수합니다. 우리는 그 답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고 당장 그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열 번째나 열한 번째 성경 읽기에서 주시기로 예비해 두신 바를 첫 번째 읽기에서 우리에게 보여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 하며, 그 성장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성경 주석서나 참고서로 가득 찬 책장은 지름길을 택하려는 시도의 흔적에 불과하며 결국 헛된 수고로 끝나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경 주석서나 참고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경을 제쳐 두고 그것들로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신 성령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태도를 반대할 뿐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닌 단 하나의 최종 권위인 성경 자체를 읽는 시간을 더욱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자 합니다.

사무엘 깁,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레위기: 복음의 뿌리를 더욱 견고히 붙들게 하는 책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에 이르면 속도를 늦추거나 아예 읽기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극적인 서사를 따라오다가 갑자기 등장하는 복잡한 헌물 규례와 반복되는 절차, 정결함과 부정함에 관한 규정, 음식과 생활 전반에 대한 세밀한 지침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요셉의 섭리를 따라가고,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지도력과 홍해의 기적을 목도한 독자들은 레위기에 들어서면 마치 전혀 다른 책을 만난 듯한 당혹감을 느낀다. 번제 헌물, 음식 헌물, 화평 헌물, 죄 헌물, 범법 헌물로 이어지는 헌물의 종류와 각각의 절차들, 제사장의 의복과 위임식,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 나병에 관한 규정들이 연이어 나타나면서 독자는 점점 길을 잃고 만다.

그래서 레위기는 흔히 '읽기 어려운 책', '현대 신앙과는 거리가 먼 책', '굳이 깊이 읽지 않아도 되는 책'으로 오해받고는 한다. 많은 이들이 레위기를 '구약 시대 유대인들을 위한 의식법'으로만 여기고, 신약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실제적인 적용이 없는 책으로 치부한다. 심지어 일부 성경 통독 프

로그램들은 레위기를 간략하게 다루거나 건너뛰도록 권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레위기의 성격과 역할을 근본적으로 오해한 데서 비롯되었다. 레위기는 단순한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종교 규범집이 아니다. 이 책은 결코 고대 근동 지역의 한 부족이 지켰던 낡은 관습의 기록이 아니며, 현대적 의미를 상실한 율법 조항들의 나열도 아니다. 오히려 이 책은 성경 전체, 특히 복음과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핵심적인 책이다. 레위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역시 피상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어린양처럼 끌려가셔서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셨다는 말의 의미,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는 선언, 그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진리는 모두 레위기의 토대 위에서만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

레위기의 중심에는 한 가지 질문이 놓여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시대를 초월하는 '신앙의 핵심 문제'이다. 이는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모든 인류가 직면한 근본적인 딜레마이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지만 인간은 죄인이다. 하나님께서는 빛이시지만 인간은 어둠 속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이시지만 인간은 죽음에 처해 있다. 그렇다면 이 절대적인 간격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가?

레위기는 이 질문에 대해 추상적이거나 철학적인 해설을 늘어놓지 않는다. 이 책은 도덕적 권면이나 영적 격려의 말로 시작하지 않는다. 대신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헌물과 희생물의 질서, 제사장 직분, 성소의 구조, 피 흘림의 원리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답을 제시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이렇게 하면 너희가 내 앞에 설 수 있다."라고 분명히 가르치신다. 다시 말해 레위기는 규칙을 나열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 주는 책이다.

이 책이 제시하는 길은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도권과 은혜로부터 시작된다.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레 1:1)라는 첫 구절이 이를 명확히 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인간이 고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신 것이다. 레위기 전체는 이 진리 위에 세워져 있다.

특히 레위기는 "예배란 무엇인가?"를 가장 깊이 있게 다루는 책이다. 예배는 인간이 마음대로 정해서 드리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에 따라 그분께 나아가는 응답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예배를 인간 중심적으로 만들고 회중을 기쁘게 하거나 편안하게 만드는 것을 예배의 목표로 삼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레위기는 예배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한다.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한다.

레위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어떤 태도로 준비되어야 하는지, 누가 그 헌물을 다루는지, 어떤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가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헌물로 드리는 짐승은 흠이 없어야 했고, 제사장은 정해진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했으며, 헌물을 드리는 자는 자신의 손을 헌물의 머리에 얹음으로써 대속의 원리를 인정해야 했다. 이 모든 세밀한 규정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결코 가볍거나 일상적인 행위가 아님을 분명히 시사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나아오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주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이상한 불'을 드렸다가 즉시 심판을 받는 사건은 이를 극적으로 드러낸다. 이들은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로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선택받은 자들이었다. 그들은 레위 지파 출신이었고 정식으로 위임받은 제사장들이었다. 외형적으로 그들은 모든 자격을 갖춘 듯 보였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방식으로 향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즉시 삼켜 버렸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함이 인간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편의에 의해 다루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예배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과 의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순종으로 표현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보다 우선시했고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감정이나 열심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순종이 필수적임을 보여 준다.

또한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단지 성소 안에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정결함과 부정함의 규례, 음식과 생활에 관한 지침, 공동체 안에서의 윤리 규정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한다는 사실을 가르친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먹고 마시고 살고 이웃을 대하는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야 한다.

레위기가 제시하는 정결 규례들은 단순히 위생적인 목적 때문만은 아니었다. 물론 많은 규정이 질병 예방과 공중 보건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들을 통해 자신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훈련하셨다. 이스라엘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어떤 상태일 때 성소에 들어올 수 있고 어떤 상태일 때는 멀리 있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분별해야 했다. 이러한 일상의 선택들로 인해 그들은 자신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항상 기억하였다.

레위기는 신앙이 개인적 경건함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삶을 형성하는 동력임을 분명히 한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너는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라는 명령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반복해서 인용한 중요 명령이다. 이 명령은 고립된 개인의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웃 사랑으로 구체화되는 공동체적 신앙을 요구한다.

이 점에서 레위기 25장에 등장하는 희년 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희년은 오십 년마다 땅이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가고 종이 해방되며 빚이

탕감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는 경제적 불평등이 고착화되는 상황을 막고 모든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 희년은 또한 땅의 궁극적인 소유주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상기시킨다. "땅은 내 것이니라."(레 25:23)라는 하나님의 선언은 모든 소유권의 상대성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이 제도는 오늘날 문자적으로 적용해야 할 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깊이 배려하시는지 보여 주는 강력한 증언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영구적인 가난과 절망에 갇히는 상황을 원하지 않으셨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셨다. 희년은 단순한 사회 복지 정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제도였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공의롭고 은혜로우신 분임을 삶의 구조 속에서 보여 준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냉혹한 율법주의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약자를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따뜻한 사랑으로 발현된다.

레위기 23장은 이 책의 또 다른 절정이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단순한 명절(절기) 목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제시하신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로 이어지는 이 거룩한 때들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농경 주기나 역사적 사건들을 기념하는 축제가 아니다.

이 명절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성령님의 강림, 교회 시대, 그리고 장차 있을 재림과 천년 왕국까지를 파노라마처럼 보여 준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예표로 보여 주고,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빵이 상징하듯 죄 없으신 그분의 몸이 죄의 영향과 단절된 상태로 장사될 것을 보여 주며, 초실절은 그분의 부활을 미리 보여 주었다. 칠칠절(오순절)은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탄생한 사건과 정확히 연결되며, 이스라엘의 가을 명절인 나팔절과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의 사건들 즉, 주님의 재림,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 그

리고 천년 왕국을 예시한다.

레위기 23장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우연에 맡기지 않으시고, 정하신 때와 질서 속에서 구속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이 그분의 계획대로 정확한 때에 성취된다. 이 명절들을 이해할 때, 우리는 성경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계획 아래 설계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더욱 분명하게 보게 된다.

이 모든 내용을 신약에서 가장 깊이 있게 해석해 주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이다. 히브리서는 레위기의 헌물 제도와 제사장 직분, 성소의 구조와 피 흘림의 원리를 전제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 사역을 설명한다. 히브리서 저자는 레위기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그 토대 위에서 복음의 우월성을 선포하였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단번에 드려진 희생물', '더 이상 반복될 필요 없는 속죄',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신 대제사장'이라는 개념들은 모두 레위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레위기의 희생물과 헌물들은 매일, 매주, 매달, 매년 반복되어 드려져야 했다. 아무리 많은 짐승을 드려도 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대제사장은 일 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조차도 자신의 죄를 먼저 속죄한 후에야 가능하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히 9:12).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항상 살아 계셔서 간구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히 7:25).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히브리서는 난해하고 관념적인 신학 책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레위기를 알고 읽을 때 히브리서는 복음의 깊이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책이 된다. 어쩌면 히브리서는 로마서 못지않게,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 더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와 중보 사역을 설명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로마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선포한다면, 히브리서는 그 의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레위기의 배경 위에서 상세히 보여 준다. 레위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라면, 히브리서는 그

그림자의 실체를 밝히 드러내는 책이다.

그러므로 레위기를 공부한다는 것은 과거의 율법 체계를 연구하거나 단순히 고대사나 종교학을 배우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어떻게 열렸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반드시 필요했는지를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 죄의 심각성을 다시 깨닫게 된다. 죄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피 흘림으로 속죄되어야 함을 배우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배우고, 예배의 무게를 회복하며, 우리를 구속하신 복음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선명하게 보게 된다. 오늘날 많은 교회는 복음을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고 예배를 가벼운 모임으로 만들며 거룩함을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레위기는 이러한 경향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거룩하시고, 예배는 여전히 두려움으로 드려야 하며, 죄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이다.

이 책을 바르게 읽을 때, 신앙은 얕은 감정이나 관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깊이 있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된다. 레위기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신약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더욱 깊이 감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매일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고, 대제사장의 중보 없이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 이 모두가 가능한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레위기가 예표로 보여 주는 바를 온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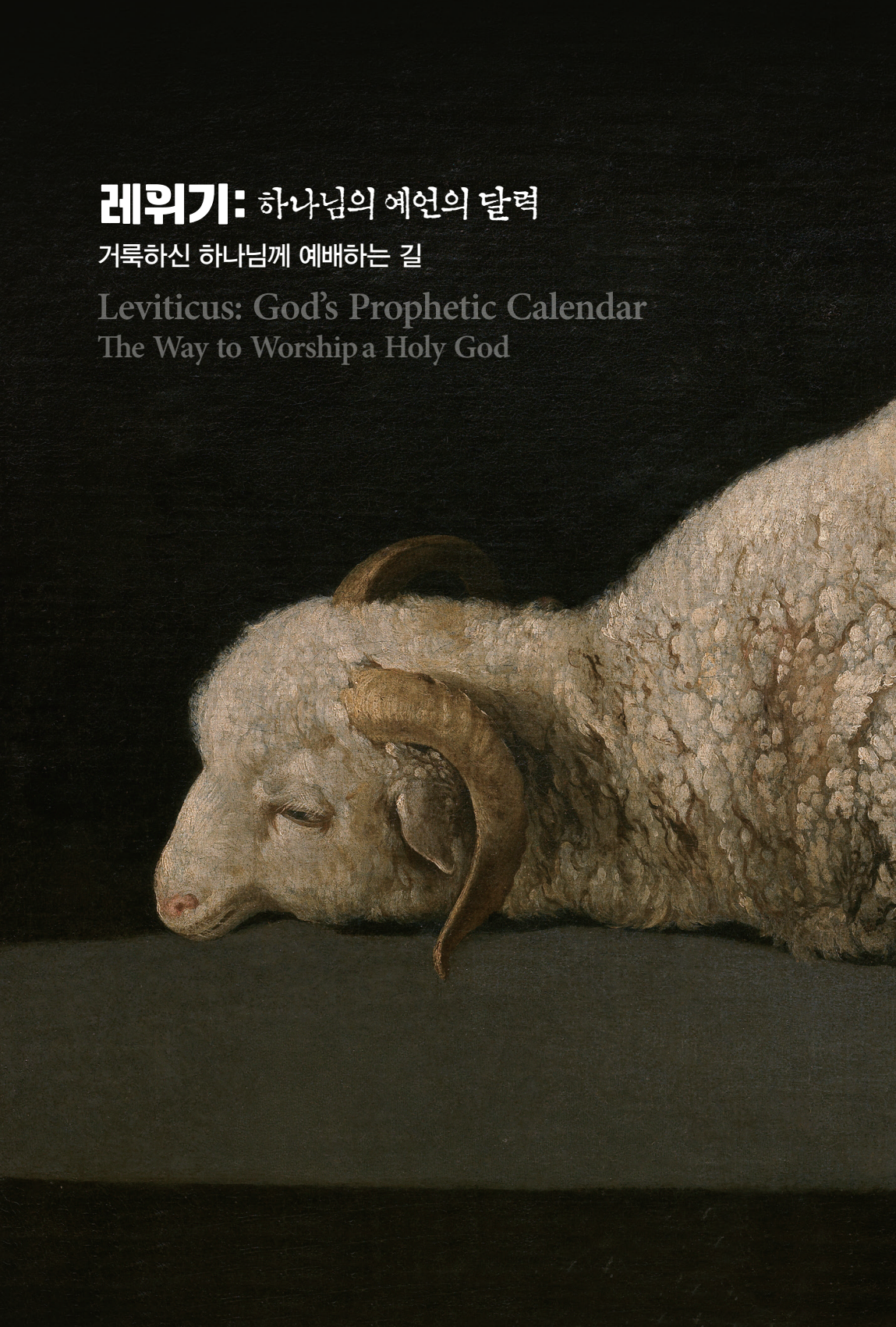
그래서 레위기는 결코 소홀히 지나쳐도 되는 책이 아니다. 이 책은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통일된 계시임을 깨닫게 하며, 복음의 뿌리를 더욱 견고히 붙들게 하는 책이다. 레위기를 읽는 일은 곧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해 가는 여정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동시에 경험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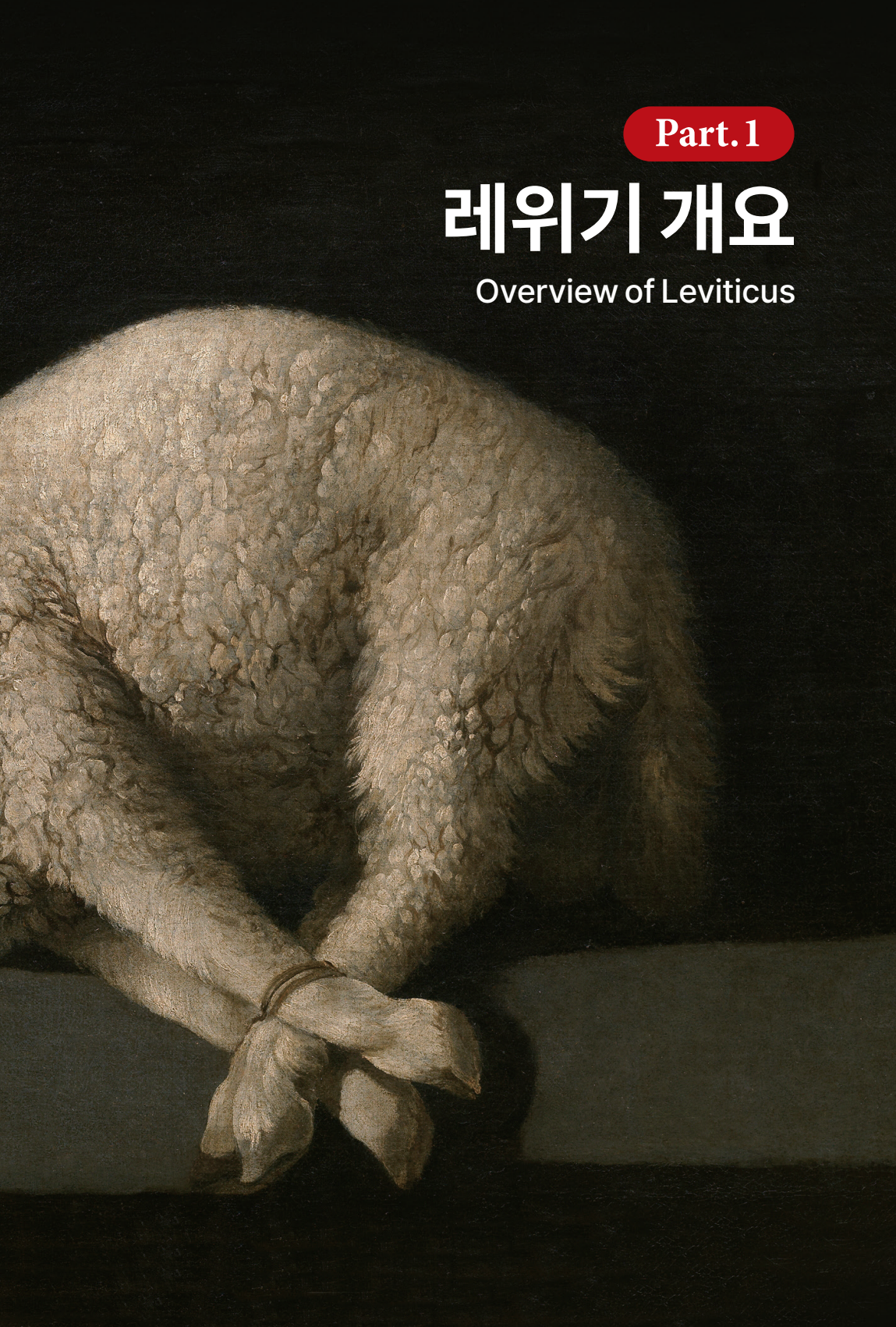
레위기: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

Leviticus: God's Prophetic Calendar

The Way to Worship a Holy God





Part. 1

레위기 개요

Overview of Leviticus

레위기의 배경과 구조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이 순서는 단순한 연대기적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단계적으로 보여 주는 의도적인 구조로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깨어지며, 어떻게 회복되는지가 분명하게 담겨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땅(지구)을 창조하셨다. 이 창조는 우연이나 필요에 의한 산물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계획에 따른 섭리였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이 구원이나 복에만 몰두한 나머지 그 근본적인 목적을 간과하고는 한다.

우주 공간과 지구가 창조되기 이전에는 '영원'이라는 차원의 시간이 존재하였다. 영원은 시작과 끝이 있는 시간 개념에 익숙한 인간에게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다. 3차원의 유한한 존재인 사람은 영원을 부분적으로만 짐작할 뿐,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없다. 영원한 과거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

께서는 하늘에 속한 존재들, 곧 천상의 존재들을 창조하셨다. 그들 가운데에는 루시퍼와 미가엘 같은 높은 등급의 존재들이 있었고, 천사장들과 더불어 신약 성경에 언급된 권력(principality), 권능(power), 강력(might), 통치(dominion), 왕좌(throne) 등 여러 계급과 질서 속에 있는 천사들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도록 창조된 존재들이었다.[1]

그러나 그들 가운데 루시퍼(사탄)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 곧 전체 천사들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무리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을 일으켰고, 그 결과 타락하게 되었다.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끌려 내려가리라. (사 14:13–15)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네가 창조된 날부터 네가 네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네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겔 28:14–15)

또 하늘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일곱 개의 왕관이 있고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는 즉시 그 아이를 삼키려 하더라. (계 12:3–4)

---

1. 에베소서 1장 21절과 골로새서 1장 16절은 여러 등급의 천사들을 보여 준다. "그분을 모든 권력과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으며"(엡 1:21),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들이 왕좌들이든 통치들이든 권력들이든 권능들이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골 1:16).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가 자신들이 창조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자의 자리를 탐내며 자기에게 허락된 위치를 벗어나려 하는 모습을 보셨다. 이것이 천상의 존재들을 타락으로 이끈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그 핵심은 교만, 즉 자신의 자리와 한계를 망각한 데 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 하나님 위에 서려는 마음이 타락을 낳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창건 전에 이미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장차 그들 가운데 존재하게 될 교회를 통해 천상의 존재들에게 자신의 갖가지 지혜와 계획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다.

> 이것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엡 3:10–11)

즉, 연약해 보이는 인간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뜻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주심으로써, 누가 참된 주권자이며 창조자인지를 분명히 밝히시고자 하심이다.[2]

창세기에서 레위기까지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으나, 사탄의 개입으로 인해 사람이 타락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온 사실을 기록한다. 처음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도록 지어졌지만, 불순종으로 인해 그 관계가 단절되고 영적·도덕적 타락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 타락은 개인의 실패에 그치지 않고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죄와 죽음이 모든

2. 천사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안에' 출판사의 「천사와 UFO 바로 알기」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 책은 KeepBible.com 사이트의 상단 자료실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사람에게 이르게 하였다. 그 결과 사람은 더 이상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고 구속(redemption)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장차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구속의 약속을 주셨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 3:15)

이 말씀은 사탄의 권세가 최종적으로 파멸될 사실과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길을 마련하실 것임을 처음으로 선포한 내용이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단순한 기원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더불어 인간의 타락, 그리고 구속의 필연성이 처음으로 제시되는 책이라 할 수 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출하신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실제 역사이면서 동시에 매우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집트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와 세상의 권세 아래 놓인 상태를 상징하며, 파라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사탄의 권세를 대표한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권능으로 구원해 내셨고, 이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람을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예표로 보여 준다.

출애굽기의 중심에는 이 구출의 조건이 분명하게 제시되는데, 이는 대속의 피이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며,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질 때에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원리가 강조된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히 9:22)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단순한 해방의 기록이 아니라 구원이 어떤 대가를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책이다.

레위기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룬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단순한 존재의 영속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인간은 스스로의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정하신 방법, 즉 어린양의 피를 통해 인간을 구속하셨고, 그 구속 위에 예배의 길을 열어 주셨다. 그러므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 자체가 곧 예배가 된다. 레위기는 이 예배가 어떤 질서와 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보여 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얼마나 은혜롭고도 엄중한지를 가르쳐 주는 책이다.

레위기: 거룩함을 강조하는 책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구별된 존재임을 강력히 역설한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별'이라는 주제를 일관되게 다루며,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명히 나눈다.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인지를 반복해서 가르친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에는 거룩함이라는 개념이 끊임없이 등장하며, '거룩하다'라는 단어만 해도 총 94회에 걸쳐 반복된다. 레위기가 총 27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각 장마다 평균 세 차례 이상 거룩함이 강조되는 셈이다. 이러한 빈도는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결과이다. 레위기를 차분히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인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레 19:2)

이 말씀은 레위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목적은 단순히 인간의 삶을 도덕적으로 개선하려는 데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즉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그분과 관계를 맺는 백성 또한 거룩해야 한다. 거룩함은 선택의 사안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거룩함을 반복해서, 끊임없이 요구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레위기는 규칙과 금지로 가득 찬 규례집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핵심을 이해하면 레위기는 예배의 책으로, 은혜의 질서를 설명하는 책으로 읽히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무 준비 없이, 아무 기준 없이 자신의 임재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배척이 아니라 보호이며, 심판이 아니라 질서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과 상태가 필요하다.

성도는 구원받은 순간부터 '예배자'(worshiper)로 살아간다. 예배는 주일에만 드리는 행사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 전반을 관통하는 본질적 정체성이다. 나아가 성도는 이 땅에서만 예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장차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존재이다. 그러므로 예배는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반드시 거룩하게 드려야 하며, 그 거룩함의 기준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다.

레위기는 바로 이 거룩함이 무엇인지, 거룩한 예배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무엇을 가까이할 수 있고 무엇을 멀리해야 하는지, 어떤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의 간극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레위기는 단순

한 율법서가 아니라 예배자의 삶과 태도를 형성하는 근본 교과서라 할 수 있다. 레위기를 통해 성도는 거룩함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길임을 깨닫게 된다.

레위기의 기본 정보

레위기의 기록자는 모세이며, 기록 시기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1,450년 전이다. 레위기는 이집트 탈출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다. 레위기의 성격은 분명히 율법에 해당하나, 단순한 법률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언약적 지침'의 성격을 띤다. 이 책의 일차적인 수신자는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이며, 특히 성막 중심의 예배와 섬김을 담당하던 레위 지파가 직접적인 대상이었다.

레위 사람들은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으로 세워지지 않은 구성원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특별히 구별되어 섬김의 직무를 맡은 자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가족만을 제사장들로 특별히 세우셨고, 나머지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부여하셨다. 이는 혈통이나 개인의 능력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른 결정이었다.

이 사실은 모세의 아들들조차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다른 레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을 돕는 위치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직분과 역할이 사람의 공로나 사회적 지위에서 비롯되지 않음을 밝히셨다. 레위 사람들은 성막 관리에서 나아가 훗날 성전에서도 각종 기구를 관리하고 제사의 질서를 유지하며,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맡은 직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섬기는 일을 담당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이 책을 '레위기'(Leviticus)라고 부르지만, 유대인들은 '주께서 부르셨다'(The LORD called)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바이크라'

(Vayikra)로 불렀다. 이는 책의 첫 단어에서 비롯된 명칭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중의 성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레 1:1)

레위기의 영어 명칭인 '레위티쿠스'(Leviticus)는 그리스어 '레위티콘'에서 유래하였으며, 이는 이 책이 레위 사람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방증한다. 실제로 레위기는 제사장 제도와 그들의 직무 및 책임, 각종 헌물과 희생물에 대한 율법, 그리고 예배의 질서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술한다. 이러한 점에서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어떻게 유지되고 섬겨져야 하는지를 명시하는 '레위 사람들과 관련된 핵심적인 책'이라 할 수 있다.

레위기의 주제와 목적

레위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이 책은 단순히 헌물을 드리는 절차나 규칙을 나열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 핵심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 주는 데 있으며, 그 길은 인간이 스스로 정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과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레위기는 일관되게 강조한다.

또한 레위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책이기도 하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구원받은 삶에는 반드시 변화된 삶의 방식이 뒤따라야 한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하며, 그 구별의 핵심이 바로 거룩함이다. 레위기는 일상생활, 예배, 공동체 생활 전반에 걸쳐 거룩함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지를 보여 준다. 다시 말해, 레위기는 믿음이 추상적인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체현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그러므로 레위기는 오늘날의 성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만족이나 자기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레위기가 기록된 목적이며,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해 자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분명한 방향이다.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하였느니라. (벧전 1:16)

이 말씀은 레위기의 정신을 신약 성경의 맥락에서 다시 확인해 주는 선언이며, 시대와 언약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변함없이 주어지는 부르심이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관계

성경을 펴서 연속적으로 읽다 보면 많은 독자들이 가장 먼저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에 이르는 구간이다. 이 대목에는 하늘에 있는 모형을 따라 하나님께서 친히 지시하신 성막의 규례가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각 기구의 치수를 큐빗 단위로 정밀하게 명시함은 물론, 소요되는 재료와 구체적인 형태 및 구조적 설계를 반복하여 상술한다. 이러한 서술이 총 16장에 걸쳐 방대하게 이어지다 보니, 성경을 체계적으로 독파하려는 독자일지라도 이 부분에서 지루함을 느끼고 통독을 중단하기 쉽다.

이러한 고비를 힘겹게 넘어가면 곧바로 레위기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또다시 현대 독자에게 생소한 규례들이 등장한다. 각종 헌물 제도와 희생물 규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 부정함에 대한 정결 예식 등이 총 27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날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성경 읽기가 또다시 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를 간신히 지나 민수기에 접어들어도, 1장부터 11장까지 12지파별 인구 조사 기록이 방대하게 이어져, 이 또한 성경 통독의 큰 장애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간을 인내로 돌파하면, 민수기 11장 이

후와 신명기를 거치면서 다시금 역동적인 역사적 서술과 강력한 영적 메시지가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성경의 구조는 마치 인생의 궤적과도 닮아 있다. 삶에는 언제나 이해하기 쉽고 흥미로운 구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답답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시기가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깊은 깨달음과 성숙에 이르게 된다. 특히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 교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신약의 히브리서 역시 피상적으로 읽는 데 그치게 된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관계는 사복음서와 서신서의 상관관계와 매우 비슷하다.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구속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기록한다면, 이어지는 사도행전과 서신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그 구속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친다. 이와 마찬가지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된 역사서이며, 레위기는 그 구속을 받은 백성이 어떠한 질서와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책이다. 즉, 출애굽기가 구원의 출발점을 보여 준다면, 레위기는 구원 이후의 삶과 예배의 지향점을 제시한다.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구조 또한 심오한 의미를 지닌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 시내 산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구속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 준다. 이어지는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짓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막 건립의 목적은 분명하다. 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다. 출애굽기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인 성막을 준비하는 과정을 다룬다면, 레위기는 그 성막 안에서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를 통해 마련된 성막이라는 예배의 기초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섬김과 예배의 직무를 실제로 행하게 된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말씀하셨다. 당시 그 산은 불과 연기와 나팔

소리로 가득한 두려운 장소였고, 그 장엄하고 무서운 광경 앞에서 모세조차 떨 수밖에 없었다. 백성들은 그 두려움으로 인해 산 가까이에 나아가지 못하고, 모세에게 홀로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오라고 간구하였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의 거리와 단절을 여실히 보여 주는 장면이다.

> 그분께서 이르시되,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고 (출 3:5)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인간이 그분께 쉽게 접근할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그러나 레위기에 이르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제 성막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성막은 하나님의 처소인 셋째 하늘을 모형으로 삼아 지어진 곳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성막의 패턴을 따라 땅에 세우게 하셨다.

>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 하나님께 권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이는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네게 보여 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시기 때문이라. (히 8:5)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셋째 하늘에 계시지만 동시에 땅에 세워진 성막 가운데 친히 머물러 계셨다.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산 위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는 그분의 백성이 나아갈 수 있는 성막 가운데서 말씀하신다. 이는 구속받은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따라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 주는 중요한 변화이다.

레위기의 율법적 내용

레위기의 내용은 전적으로 율법적 성격을 띤다. 이 책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시민법을 비롯하여, 예배와 관련된 의식법, 삶의 기

준을 제시하는 도덕법, 그리고 종교적 규례와 각종 정결례에 관한 법규들이 체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러한 율법들은 성격과 목적에 따라 크게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록 성경 자체가 명시적으로 이러한 분류를 제시하지는 않으나, 레위기의 율법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매우 유익한 해석의 틀이 된다.

이 가운데 의식법과 시민법은 대부분 특정한 시대와 상황 속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의식법은 희생물 제도와 정결 규례, 일곱 명절과 같은 공동체 모임과 예배 질서를 규정하며,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로 보여 주는 역할을 했다. 시민법은 신정 국가로서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회적·사법적 질서를 유지하도록 돕는 규범이었다. 이러한 법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목적이 성취되었기에, 그 형태 그대로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규정이나 특정한 정결 규례들은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레위기 안에 담긴 모든 법이 동일한 방식으로 폐기된 것은 아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도덕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보편적 기준으로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여 여전히 유효하다. 이 도덕법은 특정 민족이나 시대에 국한된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모든 백성에게 요구되는 삶의 기준이다. 그 가운데 안식일 준수 명령 역시 더 이상 토요일이라는 특정 날짜를 문자적으로 지키는 규례로 적용되지는 않으나, 일주일 가운데 한 날을 구별하여 안식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한다는 본래의 의미는 지금도 변함없이 유지된다.

이처럼 레위기의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더 이상 문자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영역과,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의 성도에게도 계속해서 적용되는 도덕적 원리로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레위기의 율법이 현대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레위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붙잡아야 할 중요한 신학적 교훈을

제시한다.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무엇보다도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에 있다. 여러 헌물 규정과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철저히 구분하는 법규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거룩함의 기준을 제시하신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종교법과 의식법이다. 이러한 법들은 단순한 종교적 형식이나 의례를 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결코 가볍거나 임의적일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

의식법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와 예식을 따라야 함을 의미한다. 레위기에는 다양한 희생물, 명절, 그리고 여러 의식과 예식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 주는 예표요 그림자이다. 즉, 레위기의 의식과 희생물 제도는 장차 올 더 좋은 것들, 곧 완전한 구속을 미리 비추는 그림자에 해당하며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드러난다.[3]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러한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히 10:1)

이 말씀은 레위기에 기록된 모든 희생물과 헌물, 그리고 의식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 준다. 반복되는 희생은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고,

3. 구약과 신약은 서로 분리된 두 이야기가 아니라 예표(type)와 실체(antitype)로 이어지는 하나의 구속 역사이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물과 사건과 제도를 통해 장차 이루실 구원을 예표로 미리 보여 주셨는데, 이는 그림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며 더 크고 완전한 성취를 가리킬 뿐이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예표가 실제로 이루어졌는데 그분이 바로 실체(antitype), 곧 몸(body)이시다. 성경도 이를 분명히 말한다.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골 2:17). 그러므로 구약은 신약을 준비하고, 신약은 구약을 성취하며, 성경 전체는 그림자에서 몸으로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는 하나의 증언이다.

오직 장차 오실 완전한 희생을 기다리게 할 뿐이었다.

특히 레위기 16장과 17장에 기록된 피와 속죄에 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한 뒤 히브리서를 읽어 보면, 두 책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히브리서는 구약—특히 레위기의 율법과 희생 제도—에 대한 이해 없이는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책이다. 단번 속죄가 무엇인지, 성막과 제사장 제도가 왜 중요한지, 또 예수님과 멜기세덱이 왜 반복해서 언급되는지에 대한 해답은 모두 레위기를 배경으로 한다.

레위기에서 반복적으로 드리던 희생 헌물이 신약 시대에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다고 해서, 구속의 효력이 약화되었거나 희생 제도의 가치가 사라졌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희생 헌물을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어진 이유는 구속이 불완전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완전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이다.

구약의 희생은 아무리 반복했더라도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었기에, 계속해서 드려야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희생은 단 한 번으로 충분했으며, 더 이상 보충이나 반복이 필요 없는 완전한 구속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희생물을 드리는 것이 중단된 현상은 오히려 그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는 표지(標識)[4]이다.

> 이는 그분께서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써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히 10:14)

이 말씀은 레위기의 모든 희생물과 헌물이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를 분명히 밝혀 준다.

4. 표지는 사전적으로 표시나 특징으로 어떤 사물을 다른 것과 구별하게 하는 것, 또는 그 표시나 특징을 뜻한다. 이 말은 신학적으로는 단순한 식별 표시를 넘어, 하나님의 구속 경륜 안에서 어떤 사건이나 제도가 지니는 의미와 방향을 가리키는 신적 지시(sign)를 의미한다. 특히 성경이 설명하는 사건 속의 표지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크고 완전한 실체와 성취를 가리키며,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레위기는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이며, 히브리서는 레위기를 풀어 설명해 주는 주석서라 할 수 있다. 두 책을 함께 읽으면 예표와 실체를 나란히 비교하며 깊은 통찰을 얻게 된다. 레위기를 통해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성도는 예배의 본질과 구속의 은혜에 대해 훨씬 더 깊은 영적 유익을 누리게 된다.

레위기의 구조와 핵심

레위기는 구조가 분명한 책이며 그 중심에는 분명한 핵심 메시지가 있다. 레위기 전체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정중앙에 위치한 핵심 장이 바로 16장이다. 레위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해마다 반드시 지켜야 했던 속죄일, 곧 7월 10일(티쉬리 월 십일)에 관한 규례를 다룬다. 이날은 한 해 동안 쌓인 모든 죄를 속죄하는 날로서 레위기 전체의 신학적 중심축을 이룬다. 죄가 어떻게 처리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가가 이 장에 집중되어 있다.

레위기 19장 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은 레위기의 핵심 명령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그리고 이 명령은 신약 성경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라고 말한다. 성도들의 거룩함은 특정 시대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요구가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보편적 삶의 기준이다.

레위기의 핵심 단어는 단연 거룩함이다. 레위기 전체에서 '거룩히 구별하라', '거룩히 구별되었다', '거룩할지니라' 등의 표현을 합하면 152회에 달할 만큼 빈번하게 반복된다. 이는 27장으로 구성된 레위기에서 각 장마다 평균 5-6회 이상 거룩함이 강조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반복은 우연이 아니라 레위기가 무엇을 말하려는 책인지를 분명히 보여 준다. 레위기 11장 44절도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

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너희는 땅에서 기어 다니는 것 즉 어떤 형태의 기는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라고 성도들의 거룩함을 재차 강조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반복적인 명령을 통해 거룩함을 요구하신다.

레위기의 구성과 전개

레위기는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주시는지를 다룬다. 11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한 삶의 구체적 실천, 즉 성화의 원리를 제시한다.

이 두 부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장부터 7장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다섯 가지 헌물이 정리되어 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헌물은 개역성경에서 '번제'라고 불린 '태우는 헌물'(burnt offering)이다. 말 그대로 이는 희생물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헌물이다. 그다음은 개역성경에서 '소제'라고 불린 '음식 헌물'(meat offering)이다. 이어서 개역성경에서 '화목제'로 번역된 '화평 헌물'(peace offering)이 나온다. 그다음은 개역성경에서 '속죄제'라고 불린 '죄 헌물'(sin offering)이고, 마지막으로 '범법 헌물'(trespass offering), 곧 개역성경에서 '속건제'라 불리는 헌물이 나온다. 개역성경의 어려운 말들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훨씬 단순하다. '태우는(번제) 헌물', '음식 헌물', '화평 헌물', '죄 헌물', '범법 헌물'이다. 명칭 자체가 기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 헌물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레위기에는 '피'라는 단어가 88회 이상 등장한다. 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피 흘림은 핵심 요소이다. 희생물을 드리는 행위는 곧 그 희생물을 죽인다는 뜻이고, 죽음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따른다. 그렇게 드리는 희생 헌물은 여러 종류로 구분된다. 비록 음식 헌물은 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이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8장부터 10장은 제사장 체계를 다루며, 특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겨진 제사장 직무가 세워지는 과정을 설명한다.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을 대표할 수 있는지, 제사장이 어떤 방식으로 구별되고 세워지는지가 여기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11장부터 24장은 분리(separation)에 대한 교훈, 즉 거룩함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체적인 지침들로 구성된다. 이 단락의 핵심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성화'(sanctification)라고 부른다. 이집트 탈출은 구원, 곧 결정적인 한 걸음을 내딛는 사건이다. 그러나 이집트를 나온 이후 광야에서 이어지는 삶은 평생 동안 죄의 누룩을 제거해 나가는 성화의 과정이다. 레위기는 구원 이후 성도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 주는 책이다.

마지막으로 25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온다. 25장에서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 자세히 다루는데, 이는 땅과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며 쉼과 회복을 누리게 하는 제도이다. 26장에서는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복과 징계가 명확하게 제시되고, 27장에서는 서원에 관한 중요한 원칙들이 정리된다. 이 모든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의 선택과 헌신으로 드러나야 함을 가르친다. 이로써 레위기는 총 27장에 걸쳐,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으로 마무리된다.

거룩한 민족이 지킬 규정들

11장부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민족, 즉 하나님께 구분된 민족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그 거룩함이 삶의 실천적 영역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특히 11장부터 15장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명하신다. 이는 단순한 위생 규칙이 아니라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

는 교육적 장치이다. 짐승도 새도 정결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으며,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는지가 분명히 구분된다. 이는 일상적인 식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어 살아야 함을 가르친다.

또 출산과 관련된 규정도 등장한다. 아이를 낳는 것은 분명 큰 복이지만 출산 이후 일정 기간 여인이 부정한 상태로 여겨지는 규정이 주어진다. 이는 생명과 피,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동시에 드러내는 장치이다. 이어서 나병에 대한 규정이 자세히 나온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곳에는 나병이 존재하였다. 성경적·역사적으로 보면, 이 나병은 이집트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입된 질병으로 추정된다. 이 병은 인체뿐만 아니라 집 같은 건물에도 생길 수 있었으며,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킬 위험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병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나병과 관련된 것들을 격리하며, 어떻게 제거해야 하는지에 대해 매우 상세한 규정을 주신다. 나병 환자가 병에서 나았을 경우에도 곧바로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결 예식을 거쳐야 했다. 또한 몸에서 여러 가지 유출이 있을 때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규정도 함께 다루는데, 이 모든 내용은 거룩함이 삶의 아주 현실적인 영역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16장과 17장은 레위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부라 할 수 있다. 특히 7월 10일, 속죄일에 관한 규정은 레위기의 심장부이다. 이날은 이스라엘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지난 1년 동안 축적된 모든 죄를 속죄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날이다. 레위기 17장 11절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림으로*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혼을 위해 속죄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왜 피 흘림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설명한다. 이는 짐승의 피가 죄를 실제로 제거하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죄의 대가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이 모든 제도와 규정은 예표에 불과하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죄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 준다. 따라서 속죄일 규정은 장차 있을 완전한 속죄를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이다.

18장부터 20장까지는 분리에 관한 규정이 집중적으로 나오며, 특히 성적 윤리와 관련된 내용이 상세하게 다루어진다. 어떤 성적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죄를 범하였을 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를 분명히 제시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며, 거룩함이 인간의 가장 사적인 영역까지 포함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21장과 22장에는 제사장의 행동 지침이 나온다. 제사장은 백성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 아래 살아야 했으며, 그들의 삶 자체가 거룩함의 본이 되어야 했다.

23장에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이 한눈에 드러난다. 이스라엘과 교회, 더 나아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달력 안에 일곱 명절의 형태로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 명절들은 단순한 종교 행사 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 주는 시간표이다. 레위기 후반부는 이처럼 거룩한 삶, 거룩한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의 유기적인 흐름으로 연결해 준다.

하나님의 일곱 명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일곱 명절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열쇠이다. 유월절을 시작으로 무교절과 초실절이 이어지며, 초실절 이후 오십 일이 지나 오순절이 이어진다. 그다음으로 유대인들의 종교력 7월에 이르러 나팔절, 속죄일(속죄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막절이 배치되어 있다. 이 일곱 명절은 단순한 종교적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 구속의 역사를 시간의 흐름 속에 체계적으로 배치해 놓으신 예표들이다.

전반부의 네 명절, 즉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예수님의 초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유월절은 어린양의 피로 구원이 이루어짐을 가리키며, 무교절은 죄 있는 삶과의 분리를,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오순절은 성령님의 강림과 교회의 시작을 예표로 보여 준다. 이 네 명절은 예수님의 초림 사역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으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증언한다.

반면 후반부의 세 명절, 즉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은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다. 나팔절은 장차 있을 '이스라엘의 부르심과 모임'을,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민족적 회개를, 장막절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며 완전한 안식을 이루시는 때를 가리킨다. 특히 장막절은 이 땅에서 인간 구속 역사의 완성을 상징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시사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일곱 명절을 예표로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일정표를 담아 두셨다. 한 사람의 일정표를 보면 그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듯이, 이 명절들의 일정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속하시고 어디까지 인도하실지를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장막절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리고 천년 왕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떤 단계로 일하시는지가 이 명절들 안에 담겨 있다. 이처럼 이 일곱 명절은 단순한 종교 행사를 넘어 결정적인 구속사적 지표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레위기를 통해 배워야 할 교훈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할 중요한 교훈들이 있다. 이 책은 단순히 희생물과 헌물을 드리는 규정이나 율법 조항을 모아 놓은 책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인식하게 만드는 책이다. 레위기를 바르게 읽으면 신앙의 기초가 다져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분명해진다.

첫째, 우리는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두려움의 부재이다. 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없다. 심지어 죽음을 앞두고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는 죄와 죽음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방증이다. 죄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마음이 더 굳어지기 마련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미 버린 몸인데, 이제 와서 무엇을 바꾸겠는가?"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닫아 버린다. 그러므로 죄와 지옥과 죽음에 대한 바른 인식을 어릴 때부터 교육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태도는 어릴 때부터 형성되어야 한다. 그래야 신앙이 뿌리내리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자랄 수 있다. 성인이 된 후 변화되려면 대개 극적인 계기가 필요하다. 큰 사고나 생사의 기로에 서는 사건처럼,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야 비로소 마음이 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오랜 세월 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뒤늦게 예수님을 믿기란 매우 어렵다. 레위기는 이러한 점에서 죄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준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깊이 느껴야 한다. 레위기 곳곳에 반복되는 거룩함에 대한 요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드러낸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준에 맞추어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도 가볍게 넘길 수 없다. 그분의 거룩함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레위기는 명확히 가르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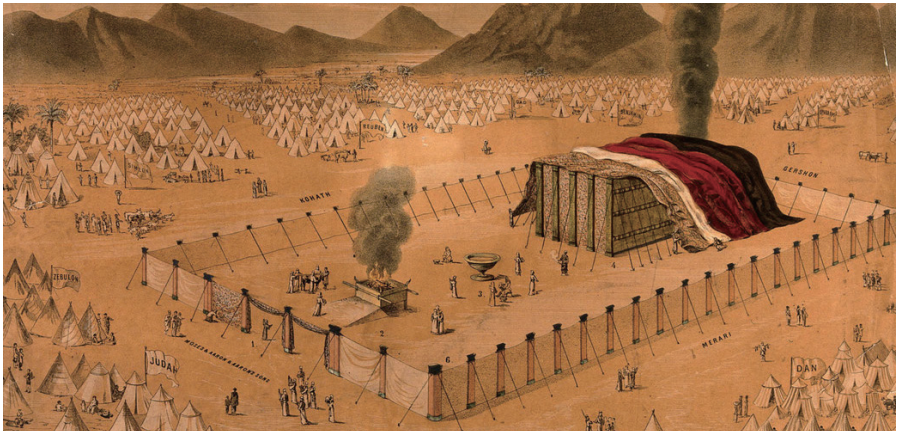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 레위기는 율법서인 동시에 은혜의 책이다. 죄를 드러내는 법규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덮어 회복시키는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셨기 때문이다. 희생물과 헌물을 통한 대신 속죄 제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동시에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성도는 율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품으시는지를 깊이 깨닫게 된다.

성막에서 드린 헌물

성막에서는 여러 헌물을 드렸다. 성막의 구조를 보면, 안쪽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바깥뜰에는 번제 헌물을 드리는 제단이 놓여 있다. 이 제단에서 날마다, 그리고 특별한 때마다 끊임없이 헌물을 드렸다. 그렇다면 이 헌물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짐승을 희생물로 바치는 종교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 이 헌물들은 모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요 예표였다. 눈에 보이는 희생물이 실체가 아니라, 그 이면의 참된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구약의 성막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 주고 그분의 성품과 사역을 미리 보여 주는 모형이었다면, 성막에서 드린 헌물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더불어 구속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



쳐 준다. 즉, 헌물은 단지 예수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보여 준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에서 드린 헌물들을 단순한 희생물 목록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그 안에 숨겨진 영적 의미와 진리를 깊이 묵상해야 한다.

레위기에 기록된 성막의 헌물은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이다. 첫째는 태우는(번제) 헌물이고 둘째는 음식 헌물이다. 셋째는 화평 헌물, 넷째는 죄 헌물, 다섯째는 범법 헌물이다. 이 다섯 가지 헌물은 제각기 고유한 목적과 의미를 지니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양한 측면을 보여 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헌물의 종류를 여섯 가지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들은 레위기 7장을 근거로 하여 한 가지 헌물, 즉 제사장들의 위임과 관련된 헌물을 하나의 독립된 범주로 보고 이를 포함시킨다. 이 헌물은 제사장들이 처음 세워질 때 드린 특별한 헌물로 일반적인 헌물들과 구별되는 성격을 지닌다. 단 한 번 드렸다는 점에서 다른 헌물들과 다르지만, 그 의미 자체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헌물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견해이다.

헌물의 목록과 관련하여 레위기 7장 37절을 보면, 번제 헌물, 음식 헌물, 죄 헌물, 범법 헌물, 거룩히 구분한 것들(성별 헌물, 레 6:19–23; 출 29:1–37), 그리고 화평 헌물로 정리되어 있다. 이처럼 제사장들이 처음 위임될 때 드린 성별 헌물이 명시되어 있기에, 헌물을 총 여섯 가지로 보는 견해 역시 충분한 타당성을 지니며, 이를 틀렸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 위임 헌물은 일회적인 사건이며 제사장들에게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헌물이고, 나머지 헌물들은 일반 백성과 관련된 규정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그러므로 전체 구조를 설명할 때는 여섯 가지 분류를 수용해도 무리가 없지만,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헌물은 다섯 가지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사와 헌물의 구분

한국 성도 중에는 '제사'(祭祀)와 '헌물이나 희생물을 드리는 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까? 가장 큰 이유는 성경 번역, 특히 개역성경이 이 구분을 흐려 놓았기 때문이다.

개역성경이나 개역개정성경에는 '제사하다', '제사를 드리다'는 말이 80여 구절에 나온다.

>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출 3:18, 개역)

>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신 32:17, 개역)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이러한 구절에서 제사(祭祀)로 번역된 말은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냄. 또는 그러한 의식'을 뜻한다. 이 정의는 분명히 샤머니즘적이며 조상 숭배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의미의 제사가 아니라 '헌물이나 희생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성경이 '태우는 헌물(burnt offering)을 주님께 드리다'라고 말하는 것을 기존 성경은 '번제를 드리다'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의미가 분명한 표현이 아니다. 정확하게는 'burnt offering'은 말 그대로 '태워서 드리는 헌물'이므로, '태우는 헌물'로 번역하였어야 마땅하다.

문제는 이러한 용어들로부터 시작된다. '번제'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한국 사람들에게는 종교적 제사의 이미지로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영어 성경에서는 'burnt offering', 곧 '태워서 드리는 헌물'이라는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반면, 이 헌물이 한국어 번역 과정에서는 '제사'라는 개념으로 오인될 소지가 다분해졌다. 실제로 '제사'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익숙한 한 장면이 떠오른다. 많은 한국 사람의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추석 명절의 제사상이 연상된다. 조기와 밥을 올리고, 과일과 나물을 차려 놓은 뒤 절을 하는 장면이다. 그렇다면 그 제사 현장에 누가 온다고 생각하는가? 대

개는 '귀신이 온다'고 여긴다. 물론 흔히 '귀신이 아니라 조상이 온다'고 말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이 역시 죽은 사람의 영, 곧 떠돌아다니는 영이라는 관념으로 귀결된다.

표준국어대사전 역시 귀신을 '죽은 사람의 넋, 떠돌아다니는 넋'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는 전형적인 샤머니즘적 세계관을 반영한다. 이토록 토착 신앙 색채가 짙은 언어 환경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고전 10:20, 개역)

이러한 구절을 접하는 순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신앙의 기초가 약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아,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구나."라고 이해하게 된다. '제사'라는 말이 나오고, 그 곁에 '귀신'이라는 말이 함께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콩나물도 바치고 밥도 바치는 이러한 행위들과 성경에 나오는 '제사'를 모두 같은 제사라고 생각해 버리게 된다.

이러한 인지 과정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헌물과 희생물은, 어느새 조상 제사나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와 같은 범주 안으로 끌려 들어가게 된다. 그 결과 다수의 한국 성도들은 헌물과 희생물을, 옛날에 귀신들에게 혹은 조상들에게 드리던 제사와 본질적으로 비슷한 것으로 오해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이나,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본질적으로 비슷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뒤따른다.

하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이다. 성경의 희생물과 헌물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구속과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차이를 분명히 구분하지 못한다면, 레위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 사안은 단순히 표현 하나를 고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더 나아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느냐와 직결된 문제이다. 용어 하나가 바

뀌는 데 그치지 않고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해석의 틀이 달라진다.

그래서 제사와 헌물을 구분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는 우상 숭배와 참된 경배의 경계를 흐리느냐, 분명히 하느냐의 문제이며, 레위기와 성경 전체를 복음으로 이해하느냐, 오해 속에서 읽느냐의 문제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속죄와 대속의 희생으로 보느냐, 종교적 의식으로 왜곡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이는 복음과 샤머니즘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선이다.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 즉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느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고전 10:20)

이처럼 성경에서 샤머니즘적 요소들을 제거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본래의 의미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문제는 결코 사소하지 않다. 성경 번역, 신학 교육, 설교, 그리고 신앙생활 전체를 관통하는 기초 중의 기초이다. 이 구분은 반드시 바로 세워져야 하며, 계속해서 분명하게 알려야 할 문제이다.

속죄와 희생 제도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 있다.

"헌물은 왜 드리는가?"

레위기가 말하려는 핵심은 무엇인가? 레위기가 반복해서 말하는 중심 주제는 분명하다. 바로 속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속죄란, 죄를 없앤다는 의미인데 영어로는 'atonement'이다. 이 단어를 풀어 보면 'at-one-ment',

즉 '쪼개진 둘이 하나가 되게 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졌고 둘이 분리되었다. 하나님과 인간은 더 이상 하나가 아닌 상태가 되었다. 이 둘을 다시 하나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atonement', 즉 속죄이다. 원래 하나였던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다. 그러나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의 용어로 'atonement'를 '속죄'로 번역한 것이다.

이 개념을 성경적 원리로 표현하면, 속죄의 피를 통해 분리된 둘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다. 피를 통해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속죄의 본질이다. 성경은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원수 된 상태라고 말한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죄 가운데 태어나 마귀의 권세 안에서 마귀를 기쁘게 하며 사는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다. 즉,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원수 된 관계를 회복하여 다시 하나가 되게 하려면 반드시 속죄가 필요하다. 레위기는 그 속죄가 피 없이는 불가능함을 분명히 말한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이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 원리이다.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 분명하다.

죄 있는 존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100% 완전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시라고 할 때, 그 '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전적으로 올바름'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올바르신 분이다.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곧바르고 완전하며 거룩하다. 바로 이 100%의 거룩함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마더 테레사나 교황, 혹은 인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 죄인일 뿐이다. 인간의 선함이나 노력만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해결책이 '대신 속죄'(vicarious atonement)이다. 대신 속죄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속 방법이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뒤, 그들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무화과 잎으로 가리려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죄와 수치를 가릴 수 없다고 선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짐승을 희생시켜 그것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짐승의 희생이 필요하다. 무언가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했다.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으로 볼 때 아마도 양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무죄한 존재가 대신 죽음으로써, 죄인의 수치가 가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보여 주셨다.



호세파 데 아얄라 〈희생양〉

가인과 아벨의 사례도 동일한 원리를 보여 준다. 가인은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받지 않으신 이유는 분명하다. 피가 없는 헌물이었기 때문이었다. 에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통이 큰 사람이었다.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넘길 만큼 호방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모든 것이 자기 힘, 자기 판단일 뿐이었다.

반면 아벨은 달랐다. 그는 부모로부터 배운 교훈, 즉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피를 가진 희생물을 가지고 나아갔다. 히브리서가 말하듯,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드렸고, 그 결과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피 흘림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가르친다. 특히 히브

리서 9장과 10장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자신의 피를 흘리셨음을 분명히 증언한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히 9:22)

희생물을 드리는 것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정 국가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었다. 죄를 지었거나 범법했을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동체 안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다. 희생물은 영원한 구원 이전에, 이 땅에서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그러나 희생물을 드렸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졌다.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속죄를 이룬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간 사람만이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두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십일조를 했다고, 안식일을 지켰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아벨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한 자들만이 구원받았다.

로마서 4장 11–12절은 이를 분명히 보여 준다.

이방인들의 칭의:

그가[아브라함이]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받지 않은 때에 자기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식*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전가되게 하려 함이요.

유대인들의 칭의:

또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받지 않은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따라서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규례는 이스라엘 신정 국가 안에서 백성들이 그 나라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했던 질서였지만 구원 자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주어졌다. 이 사실을 놓치면 레위기는 율법주의 책이 되고, 이 사실을 붙잡으면 레위기는 복음의 그림자가 된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희생 제도의 역사

희생 제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양으로 예정하시고, 그분을 대신 속죄 희생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 속한다. 다시 말해 희생 제도는 인간의 죄에 대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던 구원의 뜻이 역사 속에 드러난 방식이다.

성경은 이를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계 13:8)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시간 속에서 우연히 결정된 사건이 아니라 창세 이전에 이미 예정된 구속의 중심이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희생 제도는 율법 시대에 처음 등장한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 인류 역사 초창기부터 이미 실행되었던 규례였으며, 장차 완전히 성취될 실체를 미리 가리키는 예표적 제도였다. 그러므로 희생 제도를 단지 율법적 장치로만 이해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축소하여 바라보는 셈이다.

아벨도 그러했고, 노아 역시 같은 방식으로 희생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 때는 예표의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 없는 생명이 대신 피를 흘려야 했다. 식물이나 곡식에는 생명도 피도 없어 대

속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했겠는가? 결국 짐승뿐이어야 했으며, 그마저도 아무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짐승이어야 했다. 죄가 없는 짐승이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해 죽고 피를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죄를 덮어 주셨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셨다. 대신 해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죄를 덮어 주셨다. 이는 예표의 시대가 지닌 한계이자 고유한 특징이다. 모세의 율법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시점을 약 6,000년 전으로 본다면, 그 이전 약 2,500년 동안 아담과 그의 아들들, 노아와 그의 아들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그리고 욥이나 멜기세덱과 같은 인물들은 율법 없이도 이미 희생 헌물을 드리고 있었다. 그들은 율법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함을 알았다.

이 시기에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은 공식적인 제사장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율법 이전 시대에 성경이 명시적으로 제사장이라 부른 인물은 멜기세덱뿐이다(창 14:18). 그때는 각 사람이 직접 희생물을 가지고 나아와 제단을 쌓고 스스로 짐승을 죽여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다. 레위기에 기록된 세밀한 규례에 따라 드리지는 않았지만, 대신 속죄의 원리를 믿고, 피를 흘려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은 모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아브라함도 제사장이었고, 이삭도 제사장이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즉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써 상황이 바뀌었다. "이제 나에게 나아올 때는 이렇게 하라. 이러한 죄를 지었을 때는 이렇게 하라. 범법했을 때는 이렇게 하라. 화평을 원할 때는 이렇게 하라."라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희생물과 헌물의 종류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아론의 아들들만이 성막에서 희생 헌물을 드릴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셨다. 제사장 직분이 특정 가문으로 제한되었고, 희생물을 드리는 것이 더 이상

개인의 뜻에 맡겨지지 않았다. 이는 질서를 세우기 위함이었고, 동시에 장차 오실 참된 대제사장을 향한 예표를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다.

성막과 성전에서의 예배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장소에서만 희생물을 드려야 했다. 그 지정된 장소가 처음에는 성막의 제단이었고 이후에는 성전에 마련된 하나님의 제단이었다. 이 제도는 개인 신앙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로 서게 하기 위한 장치였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그 한 장소에 모여 하나님께 공적으로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희생물과 헌물을 드렸다. 다만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신 왕이나 대언자, 혹은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따라 다른 장소에서 희생물을 드린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보편적인 규범이 아니라 특별한 계시와 목적이 있는 예외적 사례였다.

성막은 본래 텐트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했다. 이는 광야를 유랑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에 맞춘 하나님의 지혜였다. 성막은 쉽게 세웠다가 해체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이 진영을 옮길 때마다 함께 옮겨 다녔다. 하나님께서는 특정 장소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과 함께 이동하며 동행하시는 분임을 성막을 통해 보여 주셨다. 광야 생활 내내 성막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였다.

그러나 다윗 시대에 이르러 상황이 달라졌다. 왕국의 영역이 확장되고 정치적·군사적 안정이 이루어지자,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여전히 이동식 장막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다. 자신은 견고한 왕궁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텐트에 거하시는 현실에 마음의 부담을 느꼈던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영구적인 처소인 성전을 짓고자 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전사이므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사명을 그의 아들에게 위임하셨다. 이에 따라 다윗

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였다.

이 성전은 아무 곳에나 세울 수 있는 건물이 아니었다. 반드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모리아 산에 세워져야 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할 희생물을 준비하셨던 장소로, 대속과 구속의 의미가 깊이 새겨진 곳이다. 솔로몬은 바로 이 모리아 산에 성전을 세웠고 이후 바빌론 포로 생활로 성전이 파괴된 뒤에도, 성전은 동일한 장소에 다시 세워졌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은 여전히 모리아 산에 있었으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논쟁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면, 그 장소는 반드시 모리아 산이어야 한다. 다른 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없다. 이는 장소 자체가 신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 속에서 그 장소를 선택하고 사용하셨기 때문이다. 모리아 산은 희생물과 대속, 하나님의 약속이 집중된 장소로서,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이다.

헌물과 희생물의 차이

헌물과 희생물을 구분하기 위해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개역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어 볼 필요가 있다.

개역성경: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킹제임스 성경:

아니라. 오히려 나는 *이것을* 말하노라. 즉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느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이 두 번역은 전혀 다른 의미를 전달한다. 이 구절에서 핵심 단어는 '희생물'이다. 당시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고린도에는 신전이 있었고, 그곳에서 이방인들은 짐승을 잡아 죽여 피를 흘렸다. 오늘날에도 네팔 등 일부 지역에서는 닭의 목을 비틀어 피를 흘려 바치는 광경을 여전히 목격할 수 있다. 희생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바로 피가 있어야 한다. 희생물이라는 개념에는 피 흘림이 필수이다.

이를 '제사'로 번역하면 한국인의 의식 속에는 자연스럽게 '제삿밥'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즉, 밥과 나물, 과일 따위의 제수를 자연스럽게 연상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희생물이 아니다. 여기에서 개념의 중대한 왜곡이 발생한다. 희생물과 헌물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희생물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합법적으로 세워진 사역자가 하나님께 바치는 특별한 헌물로서, 엄밀하게는 생명을 죽여 피를 흘려 드리는 헌물만을 가리킨다.

반면 헌물은 보다 넓은 개념이다. 대개의 경우 이 용어는 단순한 봉헌물, 예물을 의미한다. 밀가루를 드리는 것도 헌물이고, 곡식이나 첫 열매를 드리는 것도 헌물이다. 희생물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하지만, 헌물은 반드시 피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희생물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태우는 헌물(번제 헌물), 죄 헌물(범법 헌물 포함), 그리고 화평 헌물이다.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반드시 피가 흘려야 한다는 점이다. 피 흘림이 없으면 결코 희생물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개념을 분명하게 'sacrifice'라는 단어로 표현한다.

반면 '헌물'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offering'이다. 히브리어로는 '민카'(minchah)가 이에 해당한다. 희생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본래 '제바'(zebach)이다. 헌물은 본래 피가 없는 봉헌물을 가리킨다. 다만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공통점 때문에, 피를 포함한 헌물과 포함하지 않은 헌물 모두에 'offer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헌물은 피의 포함 여부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희생물의 피

를 수반하는 헌물도 있고, 음식 헌물처럼 피가 없는 헌물도 있다. 음식 헌물은 밀가루를 드리는 것이고 피와는 무관하다. 십일조와 첫 열매 역시 헌물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헌물은 반드시 의무로 드려야 했고 어떤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도록 되어 있었다.

이상의 원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희생물은 헌물이지만, 모든 헌물이 희생물은 아니다. '음식 헌물'은 헌물이지만 희생물은 아니다. 피를 흘리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성경을 읽다가 '희생물'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것은 피 흘림이 있는 헌물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서 'sacrifice'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5] 반면 '헌물'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 안에는 피를 흘린 헌물도 있고 피를 흘리지 않은 헌물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 반드시 정리해야 할 개념이다. 영어권 사람들에게는 'sacrifice'와 'offering'의 차이가 자연스럽게 이해되지만, 한국어 환경에서는 모든 용어가 '제사'라는 단어로 뭉뚱그려져 왔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도들이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헌물의 종류

헌물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의 죄로 인해 드리는 헌물이다. 이러한 구분은 레위기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헌물의 목적이 무엇인가,

---

5. 히브리서 13장 15-16절에도 '희생'이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더욱이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희생 역시 'sacrifice'라는 단어가 사용되며, 이는 피를 흘리는 희생물과 무관한 가벼운 표현이 아니다. 피 흘림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값비싼 헌신과 실제적인 헌신의 행위로 이해되어야 한다. 만일 이를 기존 개념처럼 단순한 '제사'로 받아들이면, 본문이 말하는 의미와 무게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받으시는가에 따라 성격이 분명히 갈리기 때문이다.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면, 인간의 눈과 감각으로는 고기가 타는 냄새로 느껴진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를 전혀 다르게 받으신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헌물을 향기로운 냄새로 기쁘게 흠향하셨다. 이는 냄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에 따라 믿음으로 드려졌기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헌물들이 바로 태워서 드리는 번제 헌물, 음식 헌물, 그리고 화평 헌물이다. 이 헌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 교제를 표현하는 성격을 지닌다.

반면, 죄로 인해 드려야 하는 헌물도 있는데 죄 헌물과 범법 헌물이 이에 해당한다. 이 헌물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감사나 헌신의 표현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었던 것들이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하며, 그 대가는 바로 피 흘림이다. 그래서 이 헌물들은 죄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해결책을 보여 준다.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우리 주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이 이 헌물의 개념으로 매우 분명하게 설명된다.

> 그러나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고통에 두셨으니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할 것이며 또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사 53:10)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헌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선언한다.

주목할 점은, 그렇게 드려진 죄 헌물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는 점이다. 그 헌물은 죄를 대신 짊어진 헌물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는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완전한 죄 헌물이 되셨다.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죄 헌물과 범법 헌물은 이 사실을 예표로 보여 주는 그림자였고,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점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헌물들은 각각의 의미를 가진 채 차례대로 정리되어 있는데, 이 순서 자체도 의미를 지닌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쁨의 헌물과 죄를 다루는 헌물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 각각의 헌물이 무엇을 요구하며, 어떤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레위기를 통한 영적 교훈

레위기는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예배 규정을 모아 놓은 문헌이 아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기록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레위기는 단지 헌물의 절차나 제사장 직무를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인간의 죄가 무엇이며 그 죄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체계적으로 드러낸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제시하는 교리적 토대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레위기를 통해 우리는 반드시 세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죄에 대한 두려움

레위기는 죄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님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죄는 언제나 죽음을 동반한다는 진리가 레위기 전체를 관통한다. 오늘날 많은 이가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은 채 살아간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아

간다. 심지어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죄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무엇을 바꾸겠느냐, 이미 늦었다.'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매우 위험한 자기기만이다. 그래서 죄와 심판, 죽음에 대한 바른 인식은 어릴 때부터 교육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죄를 경계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어린 시절부터 심길 때, 믿음은 깊이 뿌리내리고 끝까지 유지될 수 있다.

특별한 계기, 즉 교통사고나 큰 질병처럼 삶을 뒤흔드는 극적인 사건이 오지 않는 한, 오랫동안 죄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없이 살아온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은 대단히 어렵다. 마음이 굳어지고, 죄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레위기는 이러한 현실을 직면하게 하며, 죄를 두려워해야 함을 강하게 일깨운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죽음을 불러오는 영적 실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새겨야 한다.

둘째, 하나님의 거룩함

레위기에서 '거룩하다'는 단어가 총 94회 반복된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강조하시는지를 잘 보여 준다. 거룩함에 대한 이 요구는 특정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레 19:2)

사도 베드로 역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신약의 성도들에게 선언한다.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하였느니라. (벧전 1:16)

하나님의 거룩함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기준이다. 레위기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질이며, 동시에 성도가 추구해야 할 삶의 기준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절대적 거룩함 앞에서 인간의 노력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길이어야 한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곧 십자가의 희생이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

레위기는 겉으로 보면 율법서이지만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희생 제도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실현하셔서,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길을 친히 열어 주셨다.

레위기의 희생 제도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순간부터 시작된 대속의 원리를 구체화한 것이다. 구약 시대의 모든 희생 제도는 이러한 은혜의 원리를 반복해서 보여 주었다. 그러나 짐승의 피는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고 단지 덮어 줄 뿐이었다. 해마다 반복되는 속죄일과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은 인간의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달랐다. 단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다. 레위기에 등장하는 모든 희생물과 정결 규례는 단순한 율법 조항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가리키는 예표이자 그림자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이며 레위기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구속의 완성이다.

레위기와 신약 성경

레위기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 성경, 특히 히브리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히브리서는 신약 가운데서도 가장 레위기적인 책이며, 레위기에 담긴 모든 상징과 예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전히 성취되었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책이다. 그러므로 레위기와 히브리서는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라 서로를 해석해 주는 한 쌍의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레위기를 대충 훑어서는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 없다. 레위기를 꼼꼼하게 읽고—특히 레위기 16장과 17장에 나오는 피와 속죄에 관한 규례를 충분히 이해한 뒤에—히브리서를 읽으면, 두 책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을 확연히 알게 된다. 신약에서 말하는 '단번 속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히브리서에서 성막과 제사장 이야기가 그렇게 자주 반복되는지, 그리고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왜 갑자기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등장하는지에 대한 모든 해답의 근거는 레위기에 있다. 이러한 배경지식이 없으면 히브리서의 논지는 난해하고 관념적인 신학으로 남게 된다.

앞에서 살펴봤던 대로, 레위기에서는 해마다 반복해서 짐승의 피를 드려야 했다. 그 희생물들은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덮어 주는 역할만을 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과 10장은 예수님의 희생이 레위기에 규정된 모든 희생 제도를 완성하고 종결지었음을 선언한다. 이제 반복이 필요했던 옛 제도는 끝났고, 단번에 이루어진 완전한 속죄가 시작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레위기를 깊이 있게 읽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발견하게 된다.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헌물과 규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다. 태워

서 드리는 번제 헌물은 예수님의 전적인 헌신과 순종을 보여 주고, 음식 헌물은 예수님의 순결하고 흠 없는 삶을 예표로 보여 준다. 화평 헌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진 화목을 가리키며, 죄 헌물과 범법 헌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속죄 사역을 보여 준다.

아론을 비롯한 인간 제사장들은 일 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 백성을 위해 속죄를 행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죄인이었기 때문에, 백성을 위한 중보에 앞서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한 희생물을 드려야만 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 하늘의 참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 점이 인간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다.

성막 자체도 예수님의 몸을 예표로 보여 주는 모형이었으며, 지성소 안에 있던 긍휼의 자리(mercy seat)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결정적인 사건을 가리킨다. 성막에서 반복적으로 드렸던 모든 짐승 희생물은 결국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양을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였다. 레위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바라볼 수 있을 때, 신약 성경은 더 이상 어려운 책이 아니라 이미 예비된 해답을 밝히 드러내는 완성의 책으로 읽히게 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라

레위기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라'는 것이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은혜로 그 관계를 회복할 길을 친히 마련하셨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단번 희생을 통해 그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게 하셨

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

속죄의 참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속죄의 본질적인 의미이다. 이 회복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 성경은 이를 분명히 선언한다.

>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요 1:12–13)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단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구원은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지만, 그 회복된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뒤따라야 한다. 그래서 구원 이후에는 거룩한 삶, 곧 성화의 삶이 요구된다. 레위기는 바로 이 성화의 삶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책이다.

>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레 19:2)

이 명령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요구이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단번에 주어지지만, 성화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성화는 평생을 통해 계속되는 과정이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순종하는 삶이다.

이집트 탈출(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경험한 결정적인 첫걸음이었다. 그러나 이집트 탈출 이후의 광야 생활은 단번의 사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이어진 성화의 과정이었다. 그들은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훈련을 받아야 했

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에 순종하며, 이전의 삶의 방식과 결별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오늘날 성도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다.

레위기는 이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매우 실제적으로 보여 준다. 무엇이 깨끗한 것이고 더러운 것인지를 분별하는 법,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법,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핵심이다. 거룩함이란 특별한 사람들만의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일상 속에서 실천해야 할 삶의 방식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우고, 죄의 심각성을 깊이 깨닫고, 동시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레위기에 담긴 모든 예표와 그림자 뒤에 계신 실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한다.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을 기억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레위기는 고대의 낡은 율법책이 아니다. 이 책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성화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된다.

레위기 연구를 위한 제언

레위기를 깊이 연구하고자 하는 성도라면 몇 가지 분명한 방법과 지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레위기는 단순히 읽고 지나간다고 해서 그 의미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책이 아니다. 구약의 여러 책 가운데서도 레위기는 특히 상징과 예표가 풍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1. 성막 강해와 레위기의 연결

'성막'을 반드시 함께 공부해야 한다. 성막의 구조와 기물들, 그리고 그 안

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의식들을 이해하면 레위기의 내용이 훨씬 입체적이고 생생하게 다가온다. 성막은 단순한 이동식 예배 처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신 모형이었다. 성막에 배치된 각 기물에는 고유한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으며,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예표로 보여 준다.

예를 들어 금등잔대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보여 주고, 보여 주는 빵들을 배치한 상은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나타낸다. 언약궤와 그 위에 놓인 긍휼의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분명히 드러낸다. 이러한 연결 고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레위기에 기록된 규례들은 복잡한 율법 조항에 불과해 보이기 쉽다. 그러나 성막의 구조와 함께 읽으면, 레위기의 모든 규정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렷하게 드러난다.

2. 히브리서와 함께 읽기

레위기와 히브리서를 병행하여 읽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레위기 16장과 17장에 나오는 속죄일과 피에 관한 규례를 깊이 묵상한 후 히브리서를 읽으면, 구약의 예표가 신약에서 어떻게 실체로 성취되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히브리서는 단순한 신약 서신에 머물지 않고, 사실상 레위기의 신약적 주석이라 할 수 있다.

히브리서 9장과 10장은 레위기에 나타난 희생 제도의 한계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단번 속죄가 어떻게 그 모든 제도를 완성하고 종결지었는지를 논리적으로 풀어낸다. 이 두 책을 함께 비교하며 읽을 때, 구약과 신약이 단절된 두 권의 책이 아니라 하나의 일관된 구속사라는 사실이 더욱 선명해진다.

3. 레위기 23장의 일곱 명절 연구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일곱 명절을 깊이 연구해야 한다. 유월절·무교절·초실절·오순절, 그리고 나팔절·속죄일·장막절로 이어지는 이 일곱 명절은 단순한 종교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간의 흐름 속에 배열된 '하

나님의 달력'이다. 앞의 네 명절은 예수님의 초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뒤의 세 명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다.

유월절은 십자가에서의 대속을, 초실절은 부활을,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가리킨다. 이어지는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은 예수님 재림의 선포,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천년 왕국의 완성을 예표로 보여 준다. 그러므로 이 명절들을 연구함으로써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명절 문화를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를 얻게 된다.

4. 다섯 가지 헌물의 깊은 의미

레위기에 기록된 다섯 가지 헌물을 자세히 공부해야 한다. 태우는 번제 헌물, 음식 헌물, 화평 헌물, 죄 헌물, 범법 헌물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의 다른 측면을 예표로 보여 준다. 번제 헌물은 예수님의 전적인 헌신과 순종을, 음식 헌물은 그분의 흠 없고 거룩한 삶을, 화평 헌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진 화목을 보여 준다. 나머지 두 헌물인 죄 헌물과 범법 헌물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속죄 사역을 분명하게 가리킨다.

이 헌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레위기가 결코 인간 중심의 율법책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헌물 연구를 함으로써 성도의 눈이 열려 레위기를 바르게 읽게 되고,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고히 인식하게 된다.

레위기와 현대 교회

레위기는 고대 이스라엘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도 여전히 살아 있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시대와 문화는 달라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변

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거룩하심과 구속의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첫째,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력하게 상기시킨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속화의 압력 속에서 점점 인간 중심적 신앙으로 기울어 가고 있다. 성공, 편의, 감정, 만족이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레위기는 분명히 선언한다.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레 19:2)

교회는 세상을 닮으라고 부름을 받은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닮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이다.

둘째, 레위기는 '예배의 본질'을 분명히 가르친다. 레위기에 기록된 수많은 규정과 절차는 형식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오늘날의 교회 예배 역시 형식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이다. 예배는 단순한 순서나 익숙한 형식의 반복이 아니라, 믿음과 진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주일 한 시간의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하고 산 헌물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롬 12:1)

셋째, 레위기는 '죄의 심각성'을 분명히 일깨운다. 현대 사회는 죄를 사소한 실수나 개인적 취향의 문제로 축소시키고 심지어 죄라는 개념 자체를 희석시키려 한다. 그러나 레위기는 죄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님을 보여 준다. 죄는 반드시 죽음을 낳으며 속죄 없이는 결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다. 이 사

실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왜 유일하고 절대적인 해답인지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그분의 희생만이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레위기를 통한 영적 성장

레위기를 바르게 연구할 때 성도는 실질적인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첫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욱 깊이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며 우리는 그분 앞에 설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이 인식은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하고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인정하게 한다. 이처럼 신앙의 출발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희생 제도를 살펴볼수록,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얼마나 완전하고 충분한지 분명히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으므로, 더 이상 반복되는 희생 제물은 필요하지 않다. 이 진리는 성도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준다.

셋째, 거룩한 삶을 향한 열망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레위기의 수많은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요구하였다. 오늘날 성도 역시 동일하다. 세상과 동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감사와 응답이며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결론

레위기는 현대인이 처음 읽을 때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다. 수많은 규정과 의식, 깨끗함과 더러움에 대한 세밀한 구분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

나 그 모든 규정의 중심에는 한 가지 위대한 주제가 흐르고 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이다.

레위기를 통해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으며, 동시에 그분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예표와 그림자 뒤에 계신 실체, 곧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에 이른다.

레위기의 메시지는 단순하면서도 분명하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라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화해는 오직 피를 통한 속죄로만 가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완전한 해답이다.

>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셔서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 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써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히 10:12–14)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성막에서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가 강조하는 거룩함의 요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레 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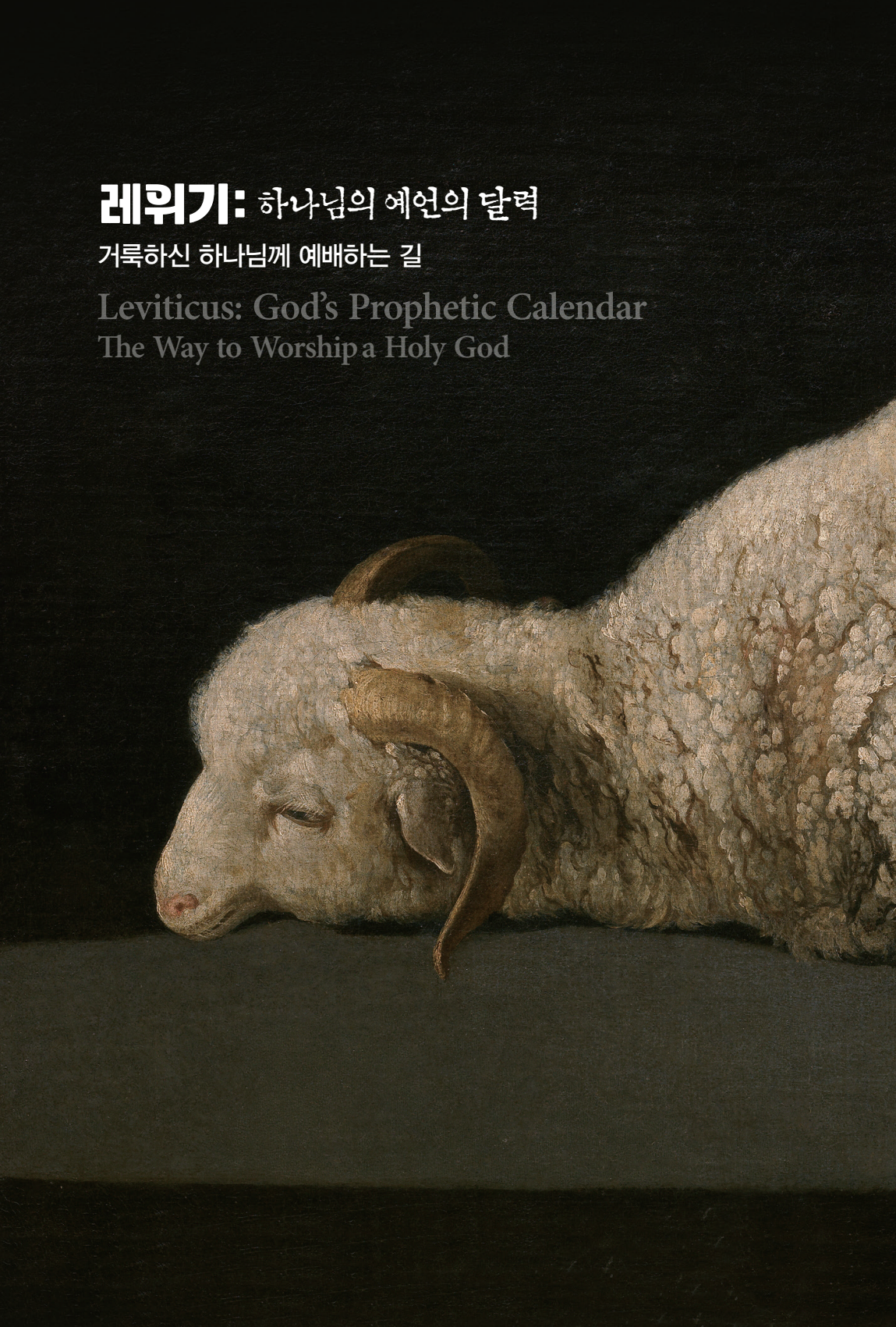
레위기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에 감사하며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한다. 이것이 레위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며, 성도가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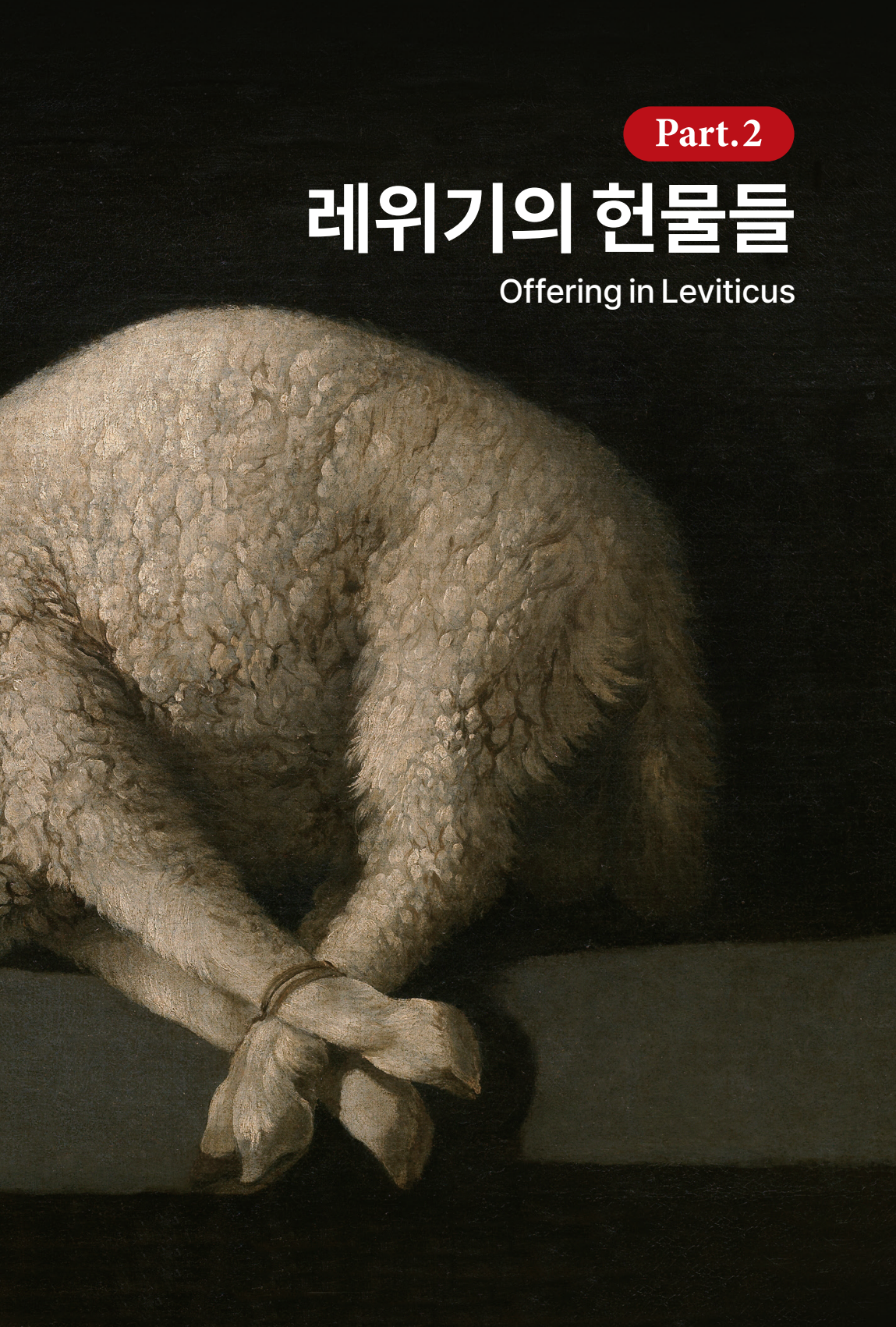
레위기: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

Leviticus: God's Prophetic Calendar

The Way to Worship a Holy God





Part.2

레위기의 헌물들

Offering in Leviticus

제2장 레위기의 헌물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다섯 가지 대표적인 헌물을 다룬다. 일부 학자들은 제사장 위임과 관련된 특별한 헌물을 포함하여 여섯 가지로 분류하기도 하나, 해당 헌물은 제사장 위임식이라는 특정한 사건에 국한된 것이었고 모든 백성과 일반적으로 관련된 헌물은 아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관련된 보편적인 헌물은 다섯 가지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이 다섯 가지 헌물은 번제 헌물(레 1:3–17), 음식 헌물(레 2:1–16), 화평 헌물(레 3:1–17), 죄 헌물(레 4:1–35), 범법 헌물(레 5:1–13)이다. 이 헌물들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마련하신 통로였다. 동시에 이 헌물 제도는 인간 편에서 만들어 낸 종교적 장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방식이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이 헌물들은 죄를 근본적으로 제거하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히 10:3–4)

헌물들은 죄를 완전히 없애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잠시 덮어 주는 기능을 했을 뿐이다. 그래서 이 헌물 제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의 속죄 사역을 미리 보여 주는 예표적 제도였다. 죄를 영원히 제거하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만 가능하였다.

번제 헌물 - 온전한 헌신(레 1:3-17)

번제 헌물의 정의와 명칭

레위기에서 첫 번째로 다루어지는 헌물은 번제 헌물(Burnt offering)이다. 이는 레위기 전체 헌물 체계의 출발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의 첫걸음에 해당한다. 개역성경은 이를 단순히 '번제'라고 번역하였으나 원래 의미는 '태워서 드리는 헌물'이다. 즉, 희생물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불로 태워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헌물이다.

영어 성경은 이를 'Burnt offering'이라 번역하며, 유대인들은 이 헌물을 '홀로코스트'(Holocaust)라고 불렀다. 이 단어에는 '완전히 태워 없애다', '남김없이 소멸시키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정권하의 독일이 유대인을 조직적으로 학살한 사건을 홀로코스트라고 부른 것도 동일한 어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어원적 배경은 번제 헌물이 지닌 전면적이고 철저한 헌신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번제 헌물의 성격과 의미

번제 헌물은 자원적 성격을 지닌다. 즉,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규정된 헌물'이 아니라 예배자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바치는 헌물'이었다. 히브리어 원어 '태우다'에는 '위로 올라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제물이 불에 태워져서 연기가 되어 위로 올라가듯, 예배자의 마음과 헌신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으로 올려진다는 뜻이다.

그가 그것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전부를 제단 위에서 태워, 태우는 희생물 곧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화제(火祭) 헌물로 삼을지니라. (레 1:9)

희생물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지듯, 예배자는 자신의 시간과 소유, 의지와 삶의 방향까지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로 임해야 했다. 즉, 번제 헌물은 선택적인 신앙이나 조건부 순종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신앙의 표현이었다.

번제 헌물의 역사적 배경

번제 헌물은 모세의 율법 이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날짐승 중에서 취해 제단 위에 번제 헌물을 드렸더니 (창 8:20)

홍수 이후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번제 헌물을 드렸다. 이는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께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었고 감사와 헌신의 표현이었다. 생명을 보존해 주신 하나님께 자신을 다시 맡긴다는 고백이기도 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명하셨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너는 네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네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일러 줄 산들 중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시니 (창 22:2)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은 장차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 희생을 예표로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 헌물로 바치라는 시험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대신할 숫양을 미

리 준비해 두셨다. 이 사건은 번제 헌물이 생명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임을 보여 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대신할 헌물을 친히 준비하신다는 대속의 원리를 극적으로 예표로 보여 준다.

번제 헌물로 드릴 수 있는 제물

번제 헌물로 드릴 수 있는 제물에는 소(레 1:3-9), 양이나 염소(레 1:10-13), 그리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레 1:14-17)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경제적 형편에 따라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였다. '소 떼'(herd)에서 헌물을 드릴 수 있는 부유한 자부터 '양이나 염소 떼'(flock)에서 헌물을 취할 수 있는 자뿐만 아니라, 가난하여 새를 잡아야 하는 자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하나님께 헌신을 표현할 수 있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함께 길렀기 때문에 '플록'(flock)은 두 짐승을 아우르는 표현이다. 특히 가난한 자들도 드릴 수 있었던 비둘기 헌물은 하나님께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시는 배려의 구체적 표현이었다.

번제 헌물의 절차

레위기 1장 2절부터 9절은 개인이 번제 헌물을 드리는 절차를 매우 자세하게 기록한다.

>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 중에 누가 **주**께 헌물을 가져오려거든 너희는 가축에서 곧 소 떼나 양과 염소 떼에서 너희 헌물을 가져올지니라. 만일 그의 헌물이 소 떼의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는 흠 없는 수컷을 드리되 자원하여 자기 의지대로 회중의 성막 문에서 **주** 앞에 그것을 드릴 것이요, 그는 번제 헌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러면 그를 위해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그를 대신하여 그것을 *내가* 받으리라. (레 1:2-4)

예배자는 자신의 손으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죄와 삶을 무죄한 제물에게 전가하는 상징적 행위였다. 이어서 그는 직접 제물을 죽였다.

그는 **주** 앞에서 그 수소를 잡을 것이요 (레 1:5)

그 후 제사장이 피를 받아 제단 주위에 뿌렸고 예배자는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몸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었으며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었다. 제사장은 그 모든 것을 제단 위에 올려 전부 다 태웠다. 이 과정은 예배자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겁고 두려운지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게 하는 교육적 장치였다. 죄는 반드시 피 흘림을 요구하며, 불에 태워지는 제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기시키는 상징이었다.

개인의 번제 헌물과 국가의 번제 헌물

번제 헌물은 레위기 1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개인이 자원하여 드리는 헌물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국가적으로 '항상 드리는 헌물'도 있었다.

이제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 *너는* 날마다 계속해서 일 년 된 어린양 두 마리를 드릴지니라. 너는 한 어린양은 아침에 드리고 다른 어린양은 저녁에 드릴 것이며 어린양 한 마리에 밀가루 십분의 일 *에바*와 찧은 기름 사분의 일 힌을 더하고 음료 헌물로 포도즙 사분의 일 힌을 드리며 (출 29:38–40)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흠 없는 어린양을 드렸다. 이는 이스라엘 전체가 날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는 공동체적 고백이었다. 이때 밀가루와 기름과 포도즙이 함께 포함되었으며, 이는 국가적 예배의 성격을 분명히 보여 준다. 개역성경은 이를 '상번제'라고 번역하였는데, 이는 성전이 존재하는 동안 날마다 드려야 하는 헌물이라는 뜻이다.

번제 헌물의 완성

모든 번제 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부를 태우는 모든 번제 헌물과 희생물보다 더 나으니이다, 하매 (막 12:33)

예수님께서는 한 서기관과 나누신 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헌물보다 전심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셨다. 번제 헌물은 바로 이 전적인 사랑과 헌신을 미리 보여 주는 예표였다.

약 1,500년의 율법 시대 동안 번제 헌물은 반복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신 바는 언제나 예배자의 마음을 다한 헌신이었다. 번제 헌물이 예표하던 전적인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 이제 성도는 짐승을 드릴 필요가 없으나,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며 살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롬 12:1)

음식 헌물 -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레 2:1-16)

번제 헌물 다음에 등장하는 두 번째 헌물은 음식 헌물(Meat offering)이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Meat offering'이라고 번역하였는데, 1611년 출간 당시 영어권에서 'meat'라는 단어는 오늘날처럼 고기만을 가리키는 의미가 아니었다. 당시 'meat'의 1차 의미는 '음식 전반을 가리키며, 사람이나 동물을 위해 영양으로 사용되는 모든 것. 보통은 마시는 것과 구별되는 고형 음식'을 뜻하였다. 그래서 이 표현을 현대적 의미로 오해하여 '고기를 드리는 헌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곡식을 드리는 헌물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 영어 성경들은 'Meal offering' 혹은 'Grain offering', 곧 곡식 헌물로 번역한다.

음식 헌물은 본질적으로 피를 흘리는 희생물이 아니라 곡식과 기름으로 드리는 헌물이었다.

음식 헌물은 자원하는 성격을 지녔다. 이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헌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물이었다. 이처럼 죄를 속하기 위해 반드시 피 흘림이 요구되는 희생물과 달리, 음식 헌물은 구원 이후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는 헌물이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 그 관계 안에서 드리는 신앙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레위기 2장 1절에 따르면 음식 헌물은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헌물이며,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열매와 양식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데 있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신 점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인간이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기도이다. 음식 헌물은 바로 이 믿음을 눈에 보이는 행위로 표현한 것이었다.

음식 헌물의 내용

음식 헌물은 주로 고운 밀가루에 기름과 유향을 더하여 드렸다.

어떤 사람이 **주**께 음식 헌물을 드리려거든 그는 고운 밀가루를 자기 헌물로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은 뒤 (레 2:1)

광야에서 사십 년의 세월을 보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식 헌물은 매우 귀중한 헌물이었다. 당시는 사막과 같은 척박한 광야 환경에서 밀가루 등의 곡물을 구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운 밀가루를 얻으려면 값비싼 대가를 치르거나 상인을 통해 어렵게 구해야 했다. 이처럼 귀한 밀가루를 자신이 먹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점은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실제적인 희생과 헌신을 수반한 감사의 표현이었다.

음식 헌물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명확한 요건들이 있었다. 성경은 음식 헌물에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명령한다.

너희가 **주**께 가져오는 음식 헌물은 누룩을 넣어 만들지 말지니 너희는 **주**의 화제 헌물 안에 누룩이나 꿀을 *넣어* 태우지 말지니라. (레 2:11)

누룩은 발효를 일으키는 성질을 지녔으며, 성경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부패와 변질의 상징으로 사용된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가식적인 태도를 '위선의 누룩'이라 하셨고(눅 12:1), 사도 바울 역시 교회 안의 죄를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이라 표현하였다(고전 5:8).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 헌물에는 거짓이나 부패, 위선이 섞여 있어서는 안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꿀 역시 넣지 못하게 하셨다. 꿀은 달콤하여 인간의 입맛에는 좋으나 쉽게 발효되기 때문에 헌물로는 부적합하였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인간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임을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는 달콤함보다 순결함을, 감정적 만족보다 거룩함을 요구하신다. 이와는 반대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소금이었다.

너는 네 음식 헌물의 모든 봉헌물에 소금을 칠 것이니라. 너는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네 음식 헌물에서 빠지지 않게 할지니 너는 네 모든 헌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 (레 2:13)

소금은 고대 사회에서 매우 귀중한 물질이었다. 소금은 음식이 부패하지 않도록 보존하는 기능을 했고, 실제로 급여나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영어 단어 'salary'(급여)가 라틴어로 소금을 뜻하는 '살라리움'(salarium)에서 유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성경에서 소금은 변하지 않는 언약, 부패하지 않는 성품, 지속성과 신실함을 상징한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소금 언약이니라."

(민 18:19; 대하 13:5)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 결코 변하지 않음을 선언하신 것이다. 음식 헌물에 반드시 소금을 넣으라는 명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영속적인 언약 위에 서 있음을 상기시키는 의미를 지녔다.

이처럼 음식 헌물을 고운 밀가루와 기름, 유향, 그리고 소금을 더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의 언약이 변하지 않음을 다시 확인하는 예배 행위였다.

음식 헌물의 신학적 의미

음식 헌물은 피 흘림이 없는 헌물이라는 점에서 번제 헌물이나 죄 헌물과 명확히 구별된다. 이는 음식 헌물이 죄를 속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는 헌물임을 보여 준다.

이 헌물은 사람이 수고하여 얻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였다. 곡식은 땅을 갈고 씨를 뿌려 기다린 뒤 거두는 과정을 거쳐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음식 헌물은 노동과 인내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며, 성도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이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헌물이기도 했다.

레위기가 강조하는 음식 헌물의 의미는 단순히 곡식을 바치는 데 있지 않다. 음식 헌물은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감사의 태도이며,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였다.

음식 헌물의 현대적 교훈

오늘날 우리는 성막이나 성전에서 곡식을 태워 드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음식 헌물의 정신은 여전히 교회와 성도의 삶 속에 살아 있다. 우리가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은 음식 헌물과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 억지로 하거나 형식적으

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태도가 중요하다.

>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후 9:6–7)

또한 음식 헌물은 물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는 시간과 재능, 수고의 결과물 역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직장에서의 노동, 가정에서의 섬김, 학문과 연구의 성과, 예술과 문화의 열매까지도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드릴 때 음식 헌물의 정신이 실현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마 5:13)고 말씀하셨다. 소금은 부패를 막고 본래의 가치를 보존한다. 이는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음식 헌물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함을 뜻한다.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해 갈수록,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거룩함과 진리를 지켜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음식 헌물 요약

음식 헌물은 단순한 곡식 헌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매일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었고, 동시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변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신앙의 행위였다. 누룩과 꿀을 배제하고 소금을 반드시 넣으라는 규정 속에는,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순결함, 그리고 지속되는 언약의 의미가 담겨 있다.

오늘날 성도는 물질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음식 헌물처럼 드려야 한다. 이는 레위기가 가르쳐 주는 중요한 교훈이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도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자세이다.

화평 헌물 - 하나님과의 교제(레 3:1-17)

세 번째로 등장하는 헌물은 화평 헌물이다. 이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살린 영어 표현 'Peace offering'이다.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이를 직역하여 '화평 헌물'이라 번역한 반면, 개역성경은 이를 '화목제'라고 옮겼다. 화평 헌물에 대한 규정은 레위기 3장과 7장 11-21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헌물 역시 자원하여 드리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니었고,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자유롭게 드릴 수 있었다. 이 점에서 화평 헌물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발성과 기쁨이 강조된 헌물이었다.

화평 헌물을 드리는 때

화평 헌물은 특정한 상황과 계기가 있을 때 드렸다.

첫째, 하나님께 서원한 일이 성취되었을 때 감사의 표시로 드렸다.

둘째,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나 곤경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경험했을 때 감사하며 드렸다.

셋째, 특별한 헌신이나 자발적인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드리기도 했다.

사무엘기상 1장에는 한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아이를 낳지 못해 깊은 고통을 겪던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서원하였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을 때 그 은혜에 감사하여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일 에바와 포도즙 한 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있는 주의 집으로 올라가 수소를 잡아 헌물로 바쳤다(삼상 1:24-25). 성경은 이를 명시적으로 '화평 헌물'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한 서원이 성취되었을 때 감사의 표시로 드린 헌물

이라는 점에서 화평 헌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사례는 화평 헌물이 단순한 의무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헌물임을 잘 보여 준다.

또한 민수기 6장 13-17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나사르 사람의 서원 기간을 채운 사람들이 서원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도 숫양을 화평 헌물로 드렸다. 이는 자신들의 헌신을 마쳤다는 사실보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의미가 컸다. 따라서 화평 헌물은 죄를 속하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뻐하며 교제하는 성격이 두드러진 헌물이었다.

화평 헌물의 특징

화평 헌물의 주요한 특징은 선택의 자유와 참여의 즐거움에 있다. 화평 헌물로 드릴 수 있는 희생물은 소, 양, 염소였으며(레 3:1, 6, 12), 헌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 단, 흠 없는 짐승이어야 한다는 유일한 조건이 따랐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에는 결함이나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보여 준다.

번제 헌물은 제물 전체를 태워 하나님께만 드렸기 때문에 헌물을 드린 사람이 취할 몫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화평 헌물은 구조가 달랐다. 레위기 7장에 있듯이, 제물의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30-31절), 일부는 제사장의 몫이 되었으며(32-34절), 나머지는 헌물을 드린 사람과 그 가족, 그리고 초청된 이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었다(15-16절). 이는 하나님과 제사장, 그리고 백성이 함께 교제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제도였다.

레위기 3장을 보면 화평 헌물의 절차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먼저 헌물을 드리는 사람이 성막 문에서 희생 짐승의 머리에 안수한다. 이 행위는 자신의 죄와 서원,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그 짐승에게 전가하는 의미를 지녔다. 이어서 헌물을 드리는 자가 직접 짐승을 죽이고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 제단 위 사방에 뿌린다. 그다음 내장, 콩팥, 간과 간 위의 꺼풀, 그리고 그것들을 덮

는 기름은 제단 위에서 태워 하나님께 드렸다.

흔드는 헌물과 들어 올리는 헌물

화평 헌물에는 다른 헌물과 구별되는 독특한 절차가 포함되어 있었다. 제사장은 희생물의 가슴 부분을 헌물을 드린 자의 손에 들려주어 사방을 향해 흔들게 했는데, 이를 '흔드는 헌물' 혹은 요제 헌물(Wave offering)이라고 한다. 개역성경은 이를 '요제'라고 번역하였다. 사방으로 흔드는 행위는 이 헌물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상징적 동작이었다.

>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기의 화평 헌물 희생물을 **주**께 드리는 자는 자기의 화평 헌물 희생물 중에서 자기 봉헌물을 **주**께 가져오되 **주**의 화제 헌물을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는 그것 즉 기름을 가슴과 함께 가져와 그 가슴을 **주** 앞에서 흔들어 요제 헌물로 삼고 (레 7:29–30)

또한 '오른쪽 어깨'는 위로 들어 올려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는 들어 올리는 헌물, 곧 '거제 헌물'(Heave Offering)이라고 불렀다. 히브리어에서 이 표현은 '높이 들어 올리다'라는 뜻을 지니며, 개역성경은 이를 '거제'라고 번역하였다.

> 또 너희는 오른쪽 어깨를 제사장에게 주어 너희 화평 헌물 희생물의 거제 헌물로 삼을지니 (레 7:32)

요제 헌물과 거제 헌물을 드리는 것은 헌물이 하나님께 바쳐졌음을 명확히 드러내는 의식이었다.

이렇게 '흔드는 가슴'과 '들어 올리는 어깨'는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졌고 (레 7:34), 나머지 고기는 헌물을 드린 사람과 그 가족, 친구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다. 이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기쁨을 공동체

가 함께 누리는 거룩한 잔치였다.

한편 제사장의 위임식에서도 화평 헌물을 드렸는데, 이는 특별 헌신의 의미를 내포하였다.

> 너는 아론을 거룩히 구분하는 숫양의 가슴을 취해 **주** 앞에서 흔들어 요제 헌물로 삼을지니 그것이 네 몫이 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숫양 곧 거룩히 구분하는 숫양에서 취해 흔든 것과 들어 올린 것 즉 요제 헌물의 가슴과 거제 헌물의 어깨를 거룩히 구별할지니라. 그것은 거제 헌물이므로 영원한 법규에 의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취할 몫이 될지니라.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취한 거제 헌물 곧 그들의 화평 헌물 희생물 중에서 취한 헌물로서 **주**께 드리는 그들의 거제 헌물이 될지니라. (출 29:26–28)

화평 헌물의 의미

화평 헌물은 단순히 짐승을 바치는 행위가 아니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기뻐하며 선포하는 신앙의 표현이었다.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이에 따라 하나님과 평안하고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나타냈다. 동시에 화평 헌물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와 교제, 그리고 감사까지 포함하는 의미를 지녔다.

신약 성경은 이러한 화평 헌물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분명히 말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선언한다.

>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롬 5:1)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그 화해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설명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고후 5:18)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희생되심으로써,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헌물이면서, 동시에 참된 화평 헌물이 되셨다. 구약의 모든 화평 헌물이 가리키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다.

화평 헌물의 현대적 적용

오늘날 신약 시대의 성도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 화평 헌물을 드리지 않는다. 그러나 화평 헌물이 담고 있는 교훈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사람은 이웃과도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화평 헌물이 공동체의 잔치였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감사와 나눔, 그리고 진정한 교제가 회복되어야 한다. 신약 성도는 주의 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시에 믿음의 형제자매와 하나됨을 확인한다. 이 모든 것은 구약의 화평 헌물이 지녔던 의미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화평 헌물은 과거의 제도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영적 교제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르쳐 주는 중요한 교훈이다.

죄 헌물 - 알지 못하여 지은 죄의 속죄(레 4:1-35)

레위기에 기록된 네 번째 헌물은 죄 헌물(Sin Offering)이다. 말 그대로 죄를 다루기 위해 주어진 헌물이다. 죄 헌물은 레위기 4장에 걸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본 번제 헌물이나 화평 헌물이 자원하는 헌신과 감사

의 성격을 지녔지만, 죄 헌물은 전혀 다른 성격의 헌물이다. 이 헌물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죄가 드러났을 때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적인 헌물이었다.

즉, 죄 헌물은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싶어서 드리는 헌물이 아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필연적으로 요구된 속죄의 수단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볍게 넘기지 않으시며, 죄가 드러나는 순간 반드시 그것을 다루셔야 했다. 죄 헌물은 바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혼이 알지 못하여 마땅히 해서는 안 될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겨 죄를 짓고 그중에서 하나라도 어겨 행하되 (레 4:2)

그러나 죄 헌물은 모든 죄를 자동으로 해결해 주는 만능 장치가 아니었다. 죄 헌물은 주로 무지하거나 부주의하여 율법을 어긴 경우, 즉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알고도 의도적으로 거역한 죄, 다시 말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한 죄에 대해서는 죄 헌물로도 해결할 수 없었다.

민수기 15장 30절과 31절은 이를 분명히 선언한다. 알면서도 자기 뜻대로 행하여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속죄의 길이 아니라 끊어짐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 그러나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타국인이든지 조금이라도 자기 뜻대로 행하는 혼, 바로 그 혼은 **주**를 모욕하나니 그런즉 그 혼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가 **주**의 말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깨뜨렸으므로 그 혼은 완전히 끊어질 것이며 그의 불법이 그에게 돌아가리라. (민 15:30–31)

이는 간음이나 살인과 같은 중대한 죄를 범하고서도, 단순히 헌물 하나를 바치면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임을 의미

한다. 따라서 죄 헌물은 죄를 가볍게 만들거나 면죄부처럼 남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죄를 무겁게 여기도록 만드는 제도였다.

죄 헌물이 요구된 대상과 구분

레위기 4장은 죄 헌물을 드려야 하는 상황을 여러 경우로 나누어 설명한다. 먼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지었을 경우, 그는 반드시 흠 없는 수소를 죄 헌물로 바쳐야 했다(레 4:3–12).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는 직무 수행자였으므로, 그의 죄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함께, 알지 못하여 죄를 범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어린 수소를 가져와 죄 헌물을 드려야 했다(레 4:13–21). 또한 통치자와 같이 권위를 가진 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지었을 때는 숫염소 새끼를 드렸고(레 4:22–26), 일반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는 암염소 새끼나 어린양을 드리도록 규정되었다(레 4:27–35).

이러한 구분은 계급이나 신분에 따라 죄의 기준이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누구든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속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구조였다. 동시에 책임의 크기에 따라 요구되는 헌물의 무게가 달라졌다는 점에서, 죄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보셨는지도 보여 준다.

죄 헌물의 절차와 상징

죄 헌물의 절차는 매우 엄중하고 교육적인 성격을 지녔다. 헌물을 드리는 자는 먼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였다. 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전가와 대속이 이루어져야 했다.

안수는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이 무죄한 존재에게 옮깁니다."라는 신앙고백의 행위였다.

그는 그 수소를 회중의 성막 문으로 **주** 앞에 끌고 가서 그 수소의 머리에 안수한 뒤 **주** 앞에서 그 수소를 잡을 것이요 (레 4:4)

그다음 단계에서 짐승을 죽이는 일은 제사장이 아니라 헌물을 가져온 사람이 직접 해야 했다. 이는 죄인이 자신의 손으로 죄 없는 짐승을 죽이게 함으로써, 죄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몸으로 체험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은 죄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며, 반드시 생명의 대가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과정이었다.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 성막 안으로 가져가 성소의 휘장 앞에서 일곱 번 뿌렸고, 분향 제단의 뿔들에도 발랐다. 이는 속죄와 예배가 분리될 수 없음을 나타냈다. 남은 피는 번제 헌물 제단 바닥에 쏟아, 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다루어졌음을 상징하였다(레 4:6–7).

죄 헌물의 처리 방식은 다른 헌물들과 확연히 달랐다. 번제 헌물이나 화평 헌물처럼 제단 위에서 태우지 않고, 죄 헌물은 반드시 진영 밖으로 가져가 정결한 곳에서 불살라야 했다(레 4:11–12).

이는 죄가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없으며, 반드시 제거되고 분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주는 상징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며, 죄와 공존하지 않으신다.

죄 헌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이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분명하게 예표로 보여 준다. 히브리서 13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 곧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구약의 죄 헌물이 진영 밖에서 불살라졌던 규례를 그대로 성취하신 것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기 위해 성문 밖에

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히 13:12)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헌물이 되어 단번에 자신을 드리심으로, 반복이 필요 없는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다.

죄 헌물이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 교훈은 분명하다.

첫째, 죄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무거운 실재이다. 알지 못하고 지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엄중하게 다루어져야 했다.

둘째, 죄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킨다.

셋째, 죄 헌물은 대속의 원리를 분명하게 가르친다. 죄의 전가, 피 흘림, 그리고 완전한 제거는 모두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그림자였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 죄 헌물을 드리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자신을 죄 헌물로 드리심으로써 구속의 경륜을 완성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 헌물이 주는 교훈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며, 성령님의 조명으로 드러나는 죄를 즉시 회개해야 한다. 우리의 행위나 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속죄의 근거가 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일 1:9)

결국 죄 헌물은 고대 이스라엘의 헌물 규례를 넘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사역을 깊이 이해하게 하는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레위기의 죄 헌물을 깊이 묵상할수록, 성도는 죄의 심각성을 더 분명히 인식하게 되고 십자가를 더욱 붙들며 회개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범법 헌물 - 범법에 대한 속죄(레 5:1-13)

레위기에 기록된 마지막 다섯 번째 헌물은 범법 헌물(Trespass offering)이다. 레위기 5장 1절부터 6장 7절은 범법 헌물에 대해 자세히 다룬다. 범법 헌물은 자원해서 드리는 헌물이 아니라 반드시 바쳐야 하는 의무적인 헌물이었다. 번제 헌물, 음식 헌물, 화평 헌물이 자원 헌물의 성격을 지녔다면, 죄 헌물과 범법 헌물은 죄나 잘못이 드러났을 때 반드시 드려야 했다.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범법이 확인되었을 경우 이 헌물을 통해서만 속죄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범법 헌물은 죄 헌물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레위기 5장에서는 범법 헌물이 죄 헌물과 분리된 별개의 체계이면서도, 동시에 죄를 다루는 속죄적 성격을 함께 지닌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5장 6절은 같은 범법 상황에서 범법 헌물과 죄 헌물이라는 용어가 함께 사용되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두 헌물 사이에는 강조점의 차이가 존재한다. 죄 헌물이 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죄, 즉 율법을 알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죄를 다루었다면, 범법 헌물은 두 영역의 범법을 다룬다. 첫째는 공동체적 책임과 정결 문제를 포함한 범법으로, 5장 1절부터 13절은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 즉 증언의 의무를 저버리거나 부정한 것에 접촉하는 등의 사회적 범법을 다루며, 6장 1절부터 7절은 이웃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실제적인 피해를 끼친 경우를 다룬다. 둘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범한 경우이다(5:14–16). 따라서 범법 헌물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반드시 수반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범법 헌물을 드려야 하는 경우

레위기 5장은 범법 헌물을 드려야 하는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예를 들어 증언해야 할 자리에서 알고 있는 사실을 숨기거나 침묵한 경우, 그는 범법자가 되었다.

만일 어떤 혼이 맹세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보거나 안 일에 증인이면서도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여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 불법을 담당할 것이요 (레 5:1)

이 외에도 부정한 것에 접촉했을 때(레 5:2), 무심코 맹세하여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했을 때(레 5:4), 다른 사람에게 실제적인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범법 헌물을 드려야 했다. 즉, 범법은 단순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구체적인 책임을 동반하는 문제였다.

레위기 6장은 범법자의 책임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한다.

그는 죄를 지어 유죄이므로 자기가 폭력으로 빼앗은 것이나 속여서 얻은 물건이나 지키도록 넘겨받은 것이나 자기가 찾은 유실물이나 혹은 자기가 거짓으로 맹세하며 잡아뗀 모든 것을 돌려주되 참으로 그것을 원래대로 돌려주고 그것에다 오분의 일을 더해 범법 헌물을 드리는 날에 그것이 속한 사람에게 그것을 줄지니라. (레 6:4–5)

범법 헌물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반드시 피해자에게 원래의 물건이나 손해액을 돌려주고 여기에 그 가치의 오분의 일, 즉 20%를 더해 배상해야 했다. 이는 참된 회개가 말과 의식을 넘어 구체적인 책임과 보상으로 이어져야 함을 분명히 보여 준다.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

하나님께서는 범법 헌물의 규정 속에서도 가난한 자들을 세심하게 배려하셨다. 소나 양을 드릴 형편이 되지 않는 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두 마리 혹은 밀가루를 헌물로 드릴 수 있었다(레 5:7–13). 밀가루를 드릴 경우에는 기름과 유향을 섞지 않고 순수한 상태로 드리게 하셨는데(레 5:11), 이는 죄와 관련된 헌물이므로 장식이나 꾸밈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제사장은 그 밀가루 중 한 움큼을 제단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자신의 몫으로 취할 수 있었다(레 5:12).

이 규례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길을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열어 두셨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용서는 헌물의 크기가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과 책임 있는 태도에 달려 있었다.

범법 헌물의 신학적 의미

범법 헌물이 지니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 의미는 참된 회개가 반드시 '관계 회복'을 동반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물이 아무리 정성스럽다 해도 이웃에게 끼친 잘못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것을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하신 말씀은 바로 이 원리를 분명하게 보여 준다.

> 그러므로 네가 네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네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네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네 길로 가서 먼저 네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네 예물을 드리라. (마 5:23–24)

이 말씀은 레위기의 범법 헌물 규례가 신약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범법 헌물은 단순한 종교적 절차가 아니었으며, 죄가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도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제도였다. 참된 회개는 말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범법 헌물은 하나님 앞에서의 용서와 더불어, 깨어진 인간관계의 회복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동시에 드러내는 헌물이었다.

새를 희생물로 드리는 경우

하나님께서는 소나 양을 드릴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새를 희생물로 드릴 수 있는 규례를 마련해 두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배제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나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 두셨다는 은혜의 배려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재산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았고, 마음과 태도에 달려 있었다.

새를 희생물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된 경우는 세 가지였다. 이 규정은 단순한 예외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어떻게 품으시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가르침이다.

첫째, 죄를 지었으나 가난하여 소나 양과 같은 대형 짐승을 드릴 수 없는 경우였다(레 5:7-8). 여기에는 레위기에 기록된 다섯 가지 헌물 가운데 죄 헌물과 번제 헌물이 해당된다. 본래 죄를 지었을 때는 흠 없는 짐승을 죄 헌물로 드려야 했지만, 경제적 형편상 그것이 불가능한 자에게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허락하셨다. 그중 한 마리는 죄 헌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 헌물로 드렸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난하다고 해서 죄의 문제를 가볍게 넘기신 것이 아니라 같은 속죄의 원리를 동일하게 적용하시되,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길을 열어 주셨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심각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다.

둘째, 여인이 출산 후 정결 예식을 행할 때였다(레 12:6-8). 출산은 죄가 아니지만 율법 아래에서는 피 흘림과 관련된 부정 상태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출산한 여인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기 위해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다. 원래 규정은 번제 헌물로 어린양을, 죄 헌물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리는 것이었으나, 가난한 경우에는 어린양 대신 새 두 마리로 대신 드릴 수 있었다. 이때에도 한 마리는 번제 헌물, 한 마리는 죄 헌물이라는 구조는 동일하였다. 이는 출산이라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리적 사건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결함과 회복의 과정을 거쳐야 함을 보여 주는 동시에, 가난한 자라도 결코 예배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를 분명히 드러낸다. 누가복음 2장 22-24절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산비둘기 한 쌍을 드렸다는 기록은, 바로 이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셋째, 나병에서 나은 사람이 정결 예식을 행할 때였다(레 14:4-7, 49-53).

나병은 단순한 질병을 넘어, 공동체와 예배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상태를 의미하였다. 나병 환자는 살아 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취급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도 나아갈 수 없었다. 따라서 나병에서 나았다는 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공동체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는 사건이었다. 이 정결 예식에서 두 마리의 새가 사용되었는데, 한 마리는 죽임을 당하고 다른 한 마리는 산 채로 들판에 놓아주었다. 이는 죄와 부정함이 제거되고 생명이 회복되어 자유롭게 풀려나는 것을 상징한다. 이후에도 번제 헌물과 죄 헌물이 이어지지만 새 희생물은 이 회복의 출발점에서 중요한 상징적 역할을 한다.

이 세 경우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죄 자체이든, 죄로 인한 부정 상태이든,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경우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기 때문에 나아오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가난한 자라도 동일한 회복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새 희생물'이라는 길을 열어 두셨다. 새 희생물은 값싼 대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작동하는 은혜의 통로였다.

따라서 새를 희생물로 드리는 규정은 레위기의 부차적인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 주는 장치 가운데 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에 죄와 부정함을 반드시 다루신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기에 그 누구도 그분께 나아오는 길에서 밀어내지 않으신다.

이 은혜의 원리는 신약 성경에서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로 확인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누가복음은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의 출산 후 정결 예식을 위해 산비둘기 한 쌍을 드렸다고 기록한다.

> 또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이 차서 그들이 아이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니… 또 *주께서* 주의 율법에 이르신 것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로 희생물을 드리려 함이더라. (눅 2:22–24)

이 기록은 예수님의 가정이 부유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가난한 자의 자리로 오셨다는 사실을 조용히 증언한다.

새를 드리는 방법

레위기 1장에 따르면, 새를 희생물로 드릴 때의 절차는 소나 양과는 달랐다. 제사장은 새의 머리를 비틀어 죽이고 그 피를 제단 옆에 짜내었다. 또한 날개를 찢되 둘로 나누지는 않았다. 크기가 작아 큰 짐승처럼 조각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 만일 그가 **주**께 헌물로 바치는 태우는 희생물이 날짐승이면 그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중에서 자기 헌물을 가져올 것이요,… 그는 그것의 날개들과 함께 그것을 찢되 둘로 쪼개지는 말지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 위의 나무 위에서 태울지니 그것은 태우는 희생물 곧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화제 헌물이니라. (레 1:14–17)

이 절차는 희생물의 크기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피 흘림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준다. 짐승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심지어 작은 새일지라도 생명은 반드시 희생되어야만 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죄와 부정함이 결코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음을 시사하는 엄격한 원칙이다. 희생물의 가치는 크기에 있지 않으며, 피 흘림을 통해 생명이 요구된다는 데 그 본질이 있다.

창세기 15장의 올바른 이해

새 희생물과 관련하여 창세기 15장을 잘못 이해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므로, 여기에서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암송아지와 암염소와 숫양을 각각 둘로 쪼개어 서로 마주 보게 놓았으나, 새들은 쪼개지 않았다.

>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해 삼 년 된 암송아지와 삼 년 된 암염소와 삼

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하시니라. 그가 이 모든 것을 그분께 가져다가 그것들을 한중간에서 둘로 쪼개고 각각의 조각을 서로 마주 보게 놓았으나 새들은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창 15:9–10)

일부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새들을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고난을 겪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성경 전체의 맥락과 희생물 규례를 모두 벗어난 주장이다. 레위기의 규례를 살펴보면, 새는 본래 쪼개지 않고 드리는 희생물로 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 대형 짐승과 달리 새를 쪼개지 않는 방식은 희생물 규례의 결함이나 불완전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창세기 15장에서의 아브라함의 행위는 실수나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희생물 규례에 합당한 행위였다.

이에 대해 성경은 이스라엘이 겪게 될 고난의 이유를 바로 그 문맥에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그들은 네 번째 세대*의 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창 15:16)

이스라엘의 400년 고난은 희생물의 절차 문제나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이 아니었다. 그 기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을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해 가시는 시간이었으며, 동시에 가나안 땅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심판받을 만큼 충만해지기를 기다리신 과정이었다. 따라서 이 400년은 우연한 지연이나 징벌의 시간이 아니라, 구속의 역사와 공의로운 심판이 정교하게 맞물려 진행된 하나님의 시간표였다.

그러므로 창세기 15장을 근거로 새 희생물 처리 문제를 고난의 원인으로 결부시키는 해석은, 희생물 규례와 언약 본문의 성격을 혼동한 결과이다. 창세기 15장의 핵심은 희생물의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언약을 책임지시고 성취하신다는 절대적 주권에 있다. 이 언약은 인간의 실수로 흔들리는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진 영원한 약속이다.

새 헌물의 현대적 적용

이 규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준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지만, 동시에 누구에게나 회개의 길을 열어 두신 분이시다.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작은 희생물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행위를 귀하게 받으셨다. 핵심은 제물의 크기나 값어치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과 상한 심령이었다.

이 원리는 신약에서 더욱 분명하게 완성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열려 있다. 레위기의 새 희생물 규례는 바로 이 복음의 원리를 미리 보여 주는 예표였다.

오늘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요구되는 것도 동일하다. 능력이 크든 작든, 가진 것이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나아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새 희생물 규례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분임을 분명히 보여 주며, 그 긍휼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다.

헌물의 본질적 의미

레위기에 나오는 다섯 가지 헌물, 곧 번제 헌물, 음식 헌물, 화평 헌물, 죄 헌물, 범법 헌물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나 형식적인 예배 절차가 아니었다. 이 헌물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신앙 훈련의 도구였으며,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몸으로 체득하게 하는 교육적 제도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할 때마다 자기들의 무력함과 한계를 깨닫게 하셨고, 동시에 죄를 덮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셨다. 이 헌물 제도는 당시의 종교 문화에 맞춘 임시방편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를 미리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심오한 교육적 장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헌물이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그리고 해마다 희생물을 드렸지만 죄책은 사라지지 않았고 죄는 계속해서 기억되었다. 헌물은 죄를 잠시 덮어 줄 뿐, 죄의 뿌리를 제거하지는 못하였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있었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이 중단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히 10:1–4)

이 말씀은 구약의 희생 제도가 가진 한계를 분명히 드러낸다. 만일 짐승의 희생이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었다면, 반복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반복을 통해 죄의 심각성을 끊임없이 상기시키셨고,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 주셨다. 구약의 모든 희생 제도는 그림자였으며, 그 그림자가 가리키는 실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다음과 같이 외쳤다.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 (요 1:29)

이 선언은 단순한 상징적 표현이 아니다. 요한은 구약 전체의 희생 제도, 곧 레위기에 기록된 모든 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선포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번제 헌물은 예수님의 전적인 헌신과 순종을, 음식

헌물은 흠 없고 순결한 삶을, 화평 헌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죄 헌물과 범법 헌물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대속과 속죄를 각각 예표로 보여 주었다.

결국 레위기의 다섯 가지 헌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장차 오실 구원자를 향한 표지판으로 삼은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헌물들을 통해 죄의 무게를 가르치셨고, 동시에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 주셨다. 그 모든 준비와 그림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실체가 되었으며, 더 이상 희생을 반복할 필요가 없는 길을 열어 주었다.

단번 속죄와 천주교의 오류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분명한 핵심 교리가 자리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단번 속죄'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심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으며, 그 희생은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사역은 완전하고 충분했으며, 하나님 앞에서 더 보태야 할 것도, 다시 드려야 할 것도 남겨 두지 않았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 진리를 단호하게 선언한다.

> 바로 이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히 10:10)

여기에서 '한 번'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횟수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예수님의 희생이 완결적이며 최종적이라는 뜻이다. 구약의 모든 헌물과 희생 제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었고, 그 반복 자체가 불완전함을 드러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끝내셨다. 이는 죄를 일시적으

〈그림 1〉 헌물 제도

종류	성경 구절	내용	의미
번제 헌물 (번제물) 태우는 헌물	레1; 레6:8-13	수소, 숫양, 숫염소, 수컷 집비둘기 혹은 산비둘기(제물은 모두 흠 없는 수컷이어야 하고 바치는 사람의 재정 능력에 따라 헌물이 정해짐)	자원해서 드림 죄로 인한 화해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복종을 의미함
음식 헌물 (소제물)	레2; 레6:14-23	고운 밀가루, 빵이나 과자(기름과 소금으로 만든 음식으로서 반드시 누룩이 없어야 하고 유향을 더하기도 함)	자원해서 드림 첫 열매로 인한 감사
화평 헌물 (화목제) 감사 헌물, 서원 헌물, 자원 헌물 포함	레3; 레7:11-36; 레22:17-30; 레27	흠 없는 짐승(암수에 상관없고 바치는 사람의 재정 능력에 따라 헌물이 정해짐)	자원해서 드림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함 (1) 특별한 복에 대한 감사 (2) 서원에 대한 표현 (3) 일 년에 세 차례 모이는 명절에 감사를 표시하는 것
죄 헌물 (속죄제)	레4; 레6:24-30; 레12:6-8	흠 없는 짐승(수컷이나 암컷) 제사장, 회중: 어린 수소 치리자: 숫염소 새끼 보통 사람: 암 염소 새끼나 어린 양 암컷	필수적으로 드림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은 자가 바치거나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려고 바침
범법 헌물 (속건제)	레5:1-6:7; 레7:1-6; 레14:12-18	어린양 암컷이나 염소 새끼 수컷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고운 밀가루 십분의 일 에바 흠 없는 어린 숫양 어린 숫양과 기름 일 로그	필수적으로 드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했거나 거룩한 것을 더럽게 한 사람이 바치고 나병 환자들도 정결하게 되기 위해 바침
거제 헌물 (거제) 들어 올리는 헌물	출29:27-28; 레7:12-14, 32; 민6:20; 민15:19-21; 민18:11-13	화평 헌물 중 하나 오른쪽 어깨 빵 반죽의 처음 것 기름 · 포도즙 · 밀의 첫 열매	원래 이것은 **주**께 드린 것의 일부를 제사장이 들어 올림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보여 주는 데서 유래됨
요제 헌물 (요제) 흔드는 헌물	출29:23-26 레7:30; 레8:27, 29 민6:20; 18:11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하는 숫양의 가슴	원래 이것은 희생물의 가슴을 **주** 앞에서 흔들어 일단 **주**께 바친 헌물을 제사장에게 주는 데서 유래됨

주를 기쁘게 하는 음료 헌물(전제)은 날마다 혹은 안식일이나 월삭(매월 초하루) 등에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과 함께 누구나 드릴 수 있었다(민15:1-10; 28:7-10, 14; 29:6).



로마 카톨릭의 미사

로 덮는 희생이 아니라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희생이었기 때문이다.

이 단순하고도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로마 카톨릭교회는 심각하게 왜곡하였다. 카톨릭주의는 오늘날까지도 '미사'라는 명칭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본질은 예배라기보다 또 다른 제사에 가깝다. 카톨릭 교리는 사제[1]가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면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가르치는데, 이를 '화체설'(Transubstantiation)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변한 빵과 포도주, 즉 예수님의 몸과 피를 사제가 하나님께 다시 제물로 드린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단순한 의식의 차이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완전했다면, 왜 다시 희생이 필요하

1. 사제는 영어로 'priest'이며, 성경에서는 이를 제사장이라 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단번 희생으로 구약의 제사장 제도를 완전히 성취하고 끝내셨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는 예배를 집전하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인간 제사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신약 교회는 교회를 이끄는 사람을 제사장이 아니라 목사(pastor)라고 부르며, 이는 양들에게 꼴을 먹이는 목자를 의미한다. 인간 제사장이 아직 존재하거나, 목사가 제사장 노릇을 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교회가 아니다.

겠는가? 만일 죄가 이미 영원히 제거되었다면, 왜 매일같이 반복되는 희생 제사가 요구되는가? 성경은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고 증언하지만, 카톨릭은 희생 제사가 계속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불충분하다고 선언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히브리서 9장 26절은 이 점을 더욱 분명하게 말한다.

> 그래야 했다면 그분께서 세상의 창건 이래로 반드시 자주 고난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시려고 이제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히 9:26)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톨릭주의는 여전히 제사장을 두고, 제단을 세우며, 미사를 신앙의 중심에 둔다. 그러나 성경은 신약 교회의 지도자를 '제사장'이 아니라 '목자' 혹은 '말씀의 사역자'로 부른다. 신약 교회에는 더 이상 구약적 의미의 제사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 그런데 카톨릭교회는 사제를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위치에 두고, 사제를 통해서만 은혜가 전달된다고 가르친다. 이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딤전 2:5)라는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교리이다.

카톨릭 미사가 가진 문제점은 여러 측면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첫째, 예수님의 단번 속죄를 사실상 무효화한다.

둘째, 성도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사제 제도에 종속시키는 구조를 만든다.

셋째, 구원이 전적으로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미사라는 반복적 행위에 의존하도록 만든다.

넷째, 이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이 교황 제도와 성직 체계에 귀속된다.

결국 미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완전한 구속'이 아닌 '보충이 필요한 희생'으로 격하시킨다. 그러나 성경의 증언은 단호하다. 예수님의 희생은 완전하며 단 한 번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제단도 필요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으며 반복되는 희생도 필요 없다. 성경적 교회는 십자가 위에서 이미 완성된 구속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 위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진리야말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며, 성경이 증언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것이 참된 복음이다.

대신 속죄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

레위기의 모든 희생 제도는 한 가지 핵심 원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대신 속죄, 즉 대속(代贖)의 원리이다. 구약 시대의 죄인은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안수함으로써 전가하였고 그 짐승은 죄인을 대신하여 죽었다. 죄 있는 자가 직접 죽지 않고, 죄 없는 존재가 대신 죽음으로써 죄인이 용서받는 구조이다. 이 원리가 레위기 전체를 관통한다. 이러한 대속의 원리는 단지 레위기에만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일관되게 흐르는 구속의 핵심 원리이다.

> 그는 번제 헌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러면 그를 위해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그를 대신하여 그것을 *내가* 받으리라. 그는 **주** 앞에서 그 수소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중의 성막 문 옆에 있는 제단 위 사방에 그 피를 뿌릴 것이며 (레 1:4–5)

여기에서 안수는 단순한 형식적 행위가 아니었다. 이는 "이 헌물이 나를 대신한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었다. 죄인은 자신의 손을 짐승의 머리 위에 얹음으로써,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과 죽음을 무죄한 희생물에게 전

가하였다. 더 나아가 그는 직접 그 짐승을 죽이며 그 생명이 끊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다. 이 모든 과정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교육적 장치였다.

그러나 짐승의 피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것은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단지 일시적으로 덮어 줄 뿐이었다. 그래서 희생은 반복될 수밖에 없었고, 그 반복 자체가 이미 완전한 속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처럼 구약의 희생 제도는 스스로 완결된 구원 체계가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예표로 보여 주는 그림자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율법 안에서 희생을 요구하시면서도, 동시에 대언자들을 통해 참된 속죄가 결국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올 것임을 점진적으로 계시하셨다. 레위기 17장 11절은 피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림으로*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혼을 위해 속죄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레 17:11)

피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생명을 상징하였다. 그리고 죄의 삯은 죽음이기에, 속죄를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이 요구되었다.

>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히 9:22)

이 원리는 신약에 이르러 더욱 분명해진다. 이 대속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성취를 이룬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고,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어떤 희생물을 드리는 행위나 종교적 의식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속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수용이 아니

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언제나 순종과 행동으로 나타났음을 보여 준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으며, 모세는 믿음으로 이집트의 부귀와 권세를 거절하였다. 그들의 믿음은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으로 증명되었다.

이 원리는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결코 열매 없는 상태로 머물지 않는다. 야고보는 이 점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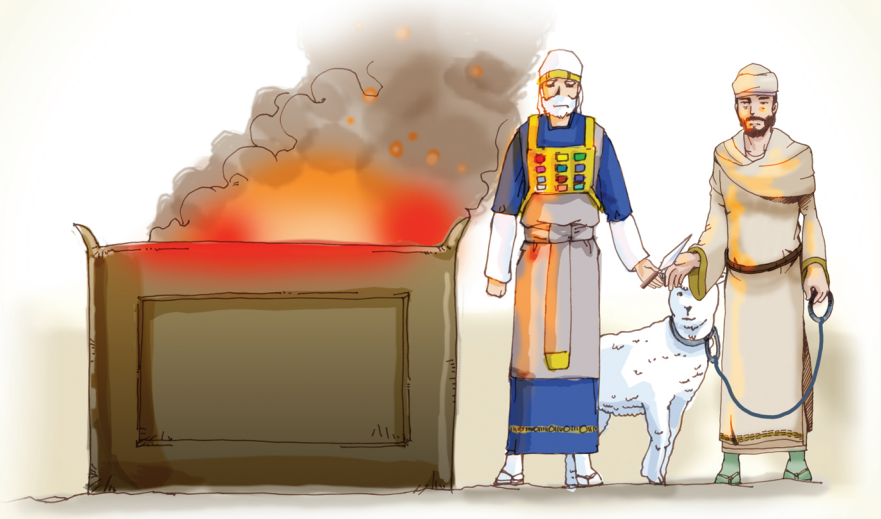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그렇게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약 2:26)

이 말씀은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뜻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와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변화도, 순종도 없다면 그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살아 있는 믿음이 아니다. 따라서 대신 속죄의 원리와 믿음의 원리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삶 속에서 순종과 거룩한 열매로 나타난다. 대신 속죄와 믿음의 원리, 그리고 삶으로 드러나는 순종, 이것이 레위기에서 시작되어 십자가에서 완성되고, 신약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증언되는 성경적 구원의 길이다.

희생물보다 순종이 중요하다

헌물과 희생물 제도는 본래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죄인에게 은혜로 나아갈 길을 보여 주는 거룩한 도구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제도는 점차 형식화되었고, 결국 심각하게 타락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의 회개와

〈그림 2〉 대신 속죄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 하니라(요1:29).

하나님은 눈이 심히 정결하시므로 악을 보지 못하신다(합1:13). 그러므로 누구라도 죄가 있는 존재는 그분 앞에 설 수 없다. 성경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의 수치를 가리도록 옷을 만들어 주신 이후로(창3:21)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 죄 없는 희생물을 대신 죽이고 피를 흘려서 속죄를 이루어야만 함을 보여 준다. 특별히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점을 시청각 교육으로 잘 보여 주셨다. 이스라엘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는 소나 양 등의 짐승을 끌고 성막 앞의 제사장에게로 간다(레1:2-9).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여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칼로 직접 짐승의 목을 찌른다. 그가 칼을 양의 목에 꽂는 순간 양은 비명을 지르고 피가 몸에서 튀겨 나온다. 이로써 죄인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피를 흘리는 희생물이 있어야만 함을 뼈저리게 느낀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는 이 제물을 여러 조각 내서 번제 헌물 제단에 던져 태워야 한다. 이것을 통해 죄인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뜨거운 지옥 불의 정죄가 있어서 불의 고통을 받아야 함을 깨닫는다. 이런 일은 또 유월절(출12)과 속죄일(레23:27-32)에도 이루어져서 사람의 죽음을 막기 위해 흠 없는 어린양이나 소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했다. 그러나 이런 짐승의 희생은 죄를 제거하지 못하고 잠시 덮는 역할을 하며 예표의 기능을 했을 뿐이다(히10:4).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창조 세계의 외부에 계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희생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지옥의 고통을 다 담당해서 단 한 번에 영원 한 대신 속죄를 이루셨다(히9:12). 구약시대에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이라는 중보자가 있었으나 우리 주님께서 죽으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마27:51; 히6:19-20). 그분께서 단 한 번에 세상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제거하셨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희생물이나 제사장이 필요 없다(히10:18).

삶의 변화 없이 짐승만 바치면 충분하다고 착각하였고, 헌물은 마침내 회개의 표현이 아니라 책임을 떠넘기는 종교적 행위로 전락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왜곡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들을 보내어 그들의 가증한 종교 행위를 반복해서 경고하셨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 그들은 사람들같이 언약을 범하며 거기서 나를 대적하여 배신하였도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호 6:6–7; 마 9:13)

이는 헌물 제도 자체를 부정하신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헌물이 가리키는 본질은 긍휼과 사랑, 회개와 순종이며, 그 본질 없이 드리는 희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신 것이다. 즉, 헌물이 마음을 대신할 수 없고 의식이 순종을 대체할 수 없다는 선언이었다.

사무엘 역시 사울 왕에게 엄중하게 선포하였다.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뒤, 그것을 덮기 위해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앞세웠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의 위선을 단호하게 책망하였다.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하는 것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으니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삼상 15:22–23)

이 말씀은 매우 엄중하다.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을 마술 죄와 우상 숭배와 동일시하였기 때문이다. 아무리 많은 희생물을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완고함이 그대로라면, 이는 오히려 죄를 더하는 행위가 된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드리는 헌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이는 마음이었다.

다윗 역시 시편을 통해 동일한 고백을 한다. 그는 간음과 살인의 큰 죄를 범한 후, 단순히 헌물을 드리는 해결책으로 문제를 덮으려 하지 않았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희생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 51:17)

여기에서 다윗은 헌물보다 앞서는 것이 '상한 영'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임을 고백한다. 헌물은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왔음을 나타내는 표지이지, 마음을 대신하는 수단이 아니었다. 이것이 모든 헌물 제도의 핵심이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 이러한 진리는 더욱 분명해진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희생은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한 희생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 성도의 희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더욱이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히 13:15–16)

희생은 제단 위에서 흘리는 피가 아니라 삶 속에서 드리는 찬양과 감사로 나타나야 한다.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고 삶으로 선을 행하며 소유를 이웃과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이다. 이는 일시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일상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다. 사도 바울이 말한 '살아 있는 희생물'(living sacrifice)의 개념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롬 12:1)

이제는 더 이상 죽은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 있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야말로 참된 희생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는 순종과 사랑의 열매로 이어진다. 레위기가 헌물 제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진리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희생은 제단 위에 바쳐지는 짐승이 아니라, 말씀 앞에 꺾이는 마음과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순종의 삶이었다. 이 진리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며, 오늘날 성도의 삶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요구된다.

결론

레위기에 기록된 모든 헌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로 보여 주는 그림자였다. 번제 헌물, 음식 헌물, 화평 헌물, 죄 헌물, 범법 헌물은 각기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가 있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며, 피 흘림 없이는 죄들의 용서가 있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원칙이 바로 그것이다. 이 모든 헌물 제도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드러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길로만 속죄가 가능함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그림자는 십자가에서 마침내 그 실체를 드러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복되어야 했던 수많은 짐승의 희생을 단번에 끝내시기 위해 오셨다. 그분은 흠 없는 어린양으로서 자신을 드리셨고,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더 이상 제단 위에 피가 흘러야 할 이유는 없다. 더 이

상 제사장이 매년 지성소의 긍휼의 자리에 들어갈 필요도 없다. 예수님의 피가 이미 완전하고 충분하게 모든 죗값을 지불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짐승의 피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의 모든 죄는 행위의 반복으로 덮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제거되었다. 이 속죄는 일시적인 덮음이 아니라 영원한 제거이다. 믿음으로 그분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며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다. 이는 인간의 감정이나 종교적 체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확정된 객관적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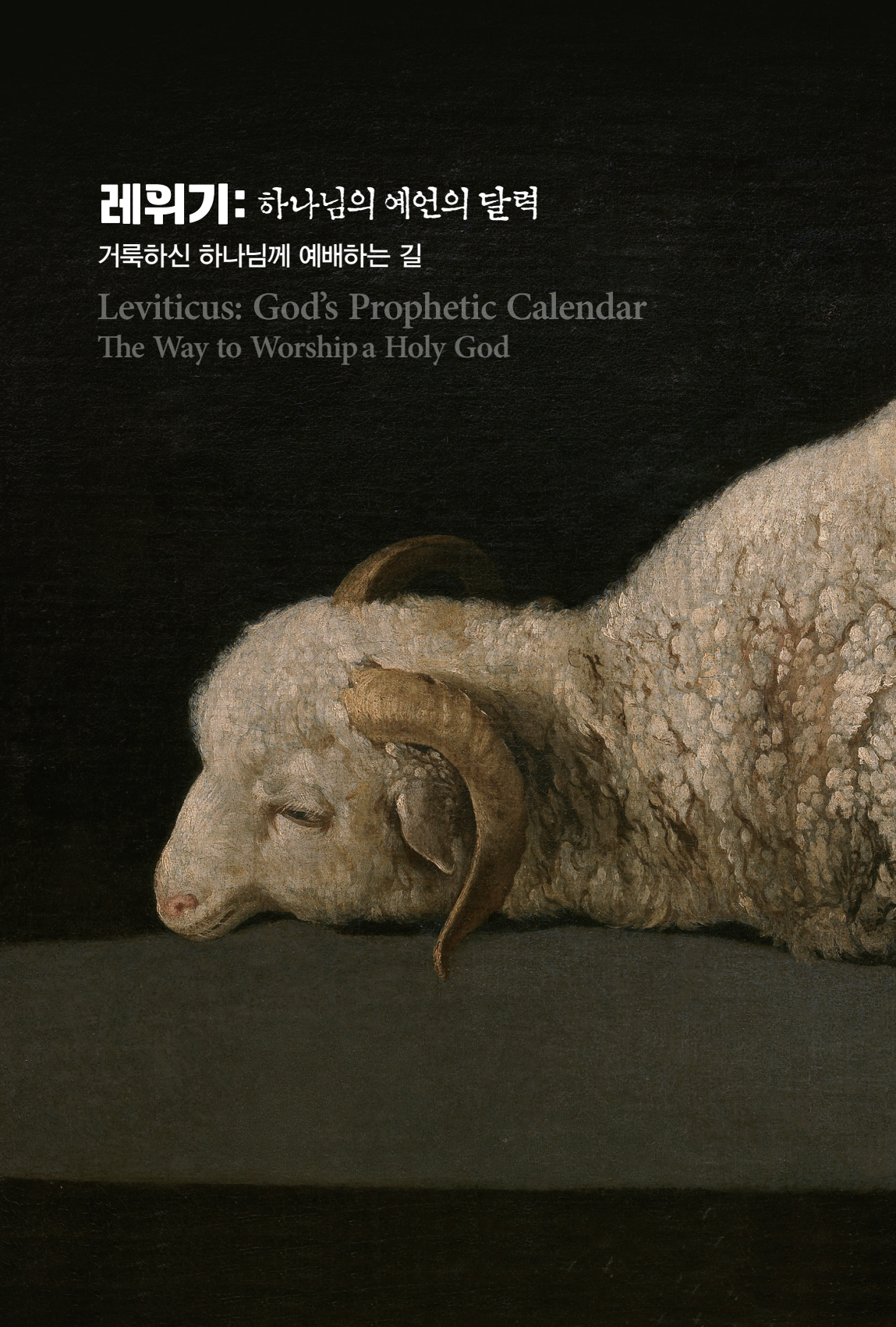
이러한 진리야말로 바로 레위기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복음의 핵심이다. 헌물 제도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헌물이 가리키던 본질은 지금도 살아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단 위에 올려지는 또 다른 피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이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순종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물이다. 레위기의 희생과 헌물 제도는 이미 그 역할을 완성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복음의 진리는 여전히 살아 있으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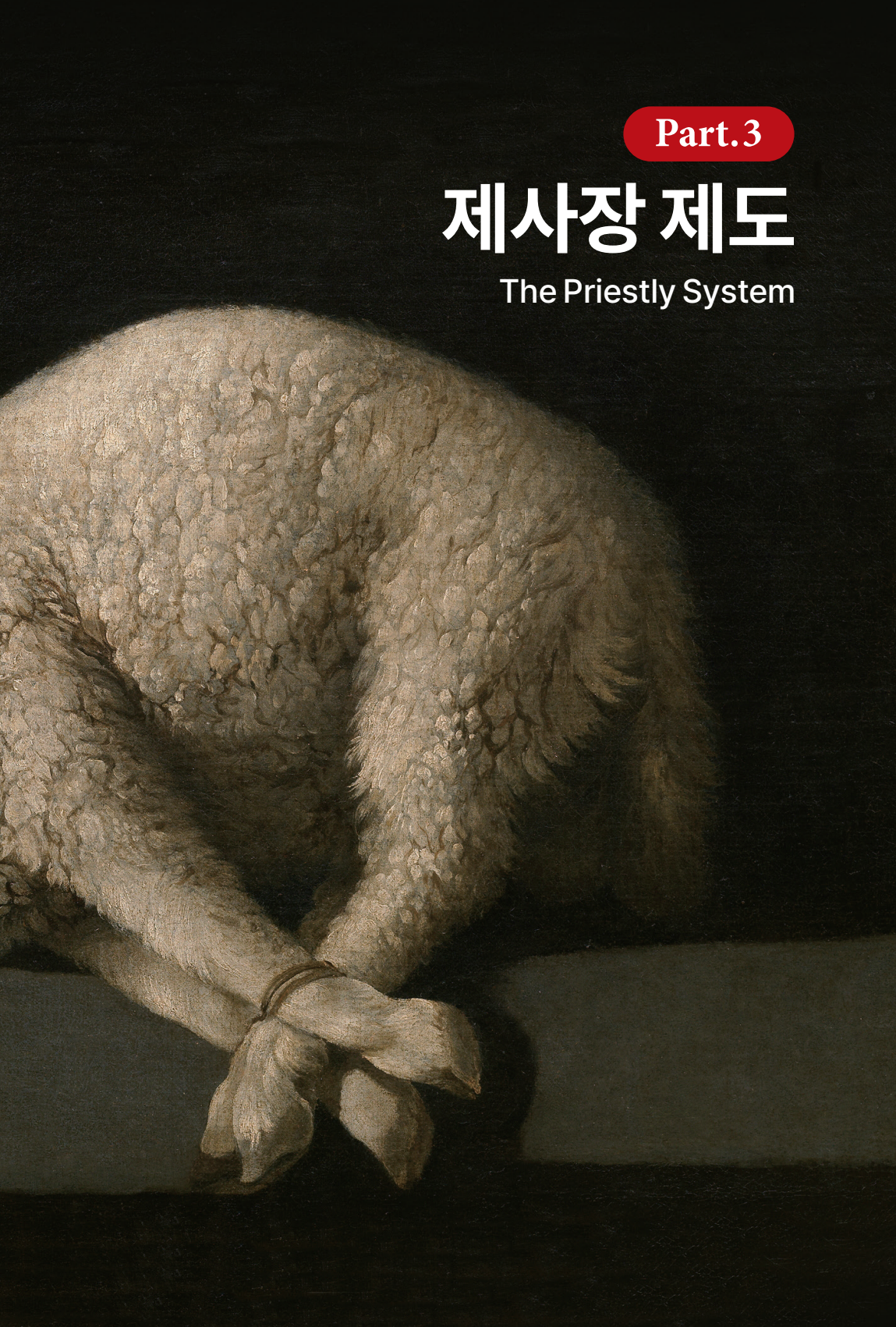
레위기: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

Leviticus: God's Prophetic Calendar

The Way to Worship a Holy God





Part. 3

제사장 제도

The Priestly System

제3장 제사장 제도

신약 성경 가운데 교리적으로 가장 풍성하고 심오한 책을 꼽자면 단연 히브리서이다. 로마서가 논리적이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설명한다면,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오가며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던 진리를 풀어내는 책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제대로 읽다 보면 "이토록 깊은 의미가 이미 구약에 담겨 있었구나!" 하는 감탄에 이르게 된다.

다만 그 놀라움의 깊이는, 독자가 레위기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헌물 제도, 제사장 직무, 속죄일 규례, 그리고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일곱 명절의 의미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히브리서가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와 대제사장 사역을 이해하는 깊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레위기에 대한 기초 이해 없이는 히브리서는 물론 신약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대속의 구조를 깊이 있게 파악하기 어렵다. 앞에서 우리는 레위기 전체의 구조와 목적을 개괄했고, 이어 레위기 1–7장에 기록된 다섯 가지 헌물, 곧 번제 헌물, 음식 헌물, 화평 헌물, 죄 헌물, 범법 헌물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이제 시선을 레위기 8–10장으로 옮기고자 한다. 이 단락은 하나님께서 '특정 인물'을 거룩함으로 구별하셔서, 이미 정해 놓으신 헌물 제도를 실제로 집

행하게 하시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도록 세우신 제사장 제도의 출범 기록이다. 하나님께서는 헌물을 거룩하게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헌물을 하나님 앞에서 집행할 '사람'도 거룩함으로 따로 떼어 놓으셨다. 아무리 정교한 헌물 규례가 있어도 그것을 집행하고 백성을 대신해 중재할 제사장이 없다면 예배 체계는 성립될 수 없다.

제사장은 희생 제도를 집행하고 백성을 가르치며 거룩함의 경계를 지키는 존재로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중심축을 이룬다. 레위기 8–10장이 보여 주는 제사장 제도는 인간이 임의로 만든 종교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엄중한 질서 위에 세워진 거룩한 직분이다. 이는 단순한 임명 절차를 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를 통해 열린다."라는 원리를 역사 속에 각인시키는 구속사적 이정표이다. 이제 이 직무가 누구에게 어떻게 맡겨졌는지, 제사장이 감당한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는지 차례로 살펴보자.

제사장 제도

제사장 제도는 레위기 8장부터 10장에 자세히 나와 있다. 이 단락은 이미 규정된 헌물 제도가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집행되기 시작했는지를 보여 주는 출범 기록이다. 하나님께서는 헌물 규례를 주시는 데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 규례를 맡아 집행할 사람을 세우시는 것으로 예배 체계를 완성하셨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신앙 체계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었고, 그 예배는 두 요소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하나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고, 다른 하나는 예배를 집행하는 직무였다. 예배 장소는 성막이었고, 그 직무는 제사장이 감당하였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도를 주셔서 세우게 하신 거룩한 처소였으며, 제사장은 그 성막 안에서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명을

맡은 존재였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은 성막의 구조와 기구에 대한 하나님의 상세한 지시를 기록하고 있고, 레위기 1장부터 7장은 그 성막 안에서 드리는 헌물 규례를 제시한다. 이어지는 레위기 8장부터 10장은, 이 모든 규례를 실제로 집행하고 관리할 제사장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보여 준다. 이로써 성막, 헌물, 제사장이라는 예배의 세 요소가 하나의 일관된 체계로 통합된다.

이러한 점에서 제사장은 단순히 의식을 주관하는 종교적 실무자가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서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며, 거룩함의 경계를 지키고 예배가 하나님의 뜻대로 유지되도록 책임을 맡은 존재였다. 다시 말하자면, 제사장 제도는 사람이 만들어 낸 종교 장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예배 질서의 핵심 축이었다.

오늘날 신약 교회에는 더 이상 구약과 같은 희생 의식이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구약적 의미의 제사장 직무 또한 반복되지 않는다. 그러나 구약 시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막과 제사장은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요소였다. 레위기 8–10장은 바로 이 제사장 직무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위임되었는지를 기록하며,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참된 중보 사역을 예표로 보여 주는 중요한 전환점을 이룬다.

제사장 제도의 의미

레위기 8장부터 10장에 기록된 제사장 제도는, 그 자체로 완결된 종교 제도가 아니라 장차 드러날 온전한 실체를 가리키는 예표였다. 구약 성경 전반이 그러하듯, 제사장 제도 역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구속 사역을 미리 보여 주는 그림자의 역할을 맡았다.

이 단락의 핵심은 제사장의 직무를 나열하거나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 구조를 역사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방식으로 제사장을 세우셨는지, 그리고 그 제도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는지를 분별하는 데 있다.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중보의 통로였다. 죄인인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이 통로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그 중보는 반복되는 희생과 제한된 직무를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었으며, 그 자체로는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이러한 불완전성 자체가, 장차 오실 더 나은 제사장, 곧 영원하며 단번에 완성되는 중보 사역을 수행하실 분을 기다리게 하였다.

그러므로 레위기 8–10장을 살피는 목적은 제사장 제도를 자체적으로 완결된 제도로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완성되는지를 바라보기 위함이며, 히브리서가 증언하는 참된 대제사장 사역을 이해하기 위한 토대를 놓기 위함이다. 이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접할 때, 레위기 8–10장은 과거의 제도가 아니라 복음의 깊이를 열어 주는 살아 있는 말씀으로 읽히게 된다.

제사장의 정의와 역할

제사장이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공적으로 주관하며, 특히 죄를 속하기 위한 희생 헌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직무를 맡은 사람을 말한다. 그는 자기 의지로 그 자리에 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서 직접 취하시고 세우셔서 공동체 전체를 섬기도록 임명하신 자였다. 히브리서 5장 1절은 이를 명확히 정리한다.

>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 대제사장마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관하여 사람들을 위해 임명을 받나니 이것은 그가 죄들로 인해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게 하려 함이라.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시대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구약 시대'라고 할 때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곧 창조 이후 약 4,000년에 이르는 전체 기간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러한 넓은 정의에 따르면,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의 족장 시대 역시 구약 시대

에 포함된다.

그러나 신약, 곧 '새 상속 언약'(New Testament)과 대비되는 '옛 상속 언약'(Old Testament)이라는 언약적 관점에서 엄밀히 말하면, 구약 시대는 모세가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전의 기간은 아직 율법 언약이 공식적으로 수립되기 전의 시기로서, 구약의 옛 상속 언약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의 배경이자 준비 단계에 해당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약 1,500년 전, 이스라엘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공식적으로 세워진 시점이 언약적 의미에서의 구약 시대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약 2,500년에 달하는 긴 기간이 존재하였다. 이 시기에도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고 예배를 인도한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이는 아직 율법에 의해 규정되고 공동체적으로 제도화된 제사장 체계가 수립되기 이전의 모습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들은 모세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율법에 따라 세워진 제사장 제도와는 분명히 구별하여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일반적으로 율법 수여 이후, 곧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도적으로 세우신 제사장 직분을 가리킨다. 이 명확한 구분 위에서 레위기 8장부터 10장에 기록된 제사장 제도의 성립과 의미를 살펴볼 때, 그 신학적 의도와 구속사적 방향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율법 수여 이전의 제사장 역할

그렇다면 율법 이전에는 제사장이 존재하지 않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다만 그 형태가 제도화되지 않았을 뿐이다. 율법 수여 이전에는 제사장이 특정 지파나 가문으로 국한되지 않았다. 레위 지파나 아론의 자손이어야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도 없었다.

이 시기에는 각 가정이나 부족의 대표자, 즉 족장이나 통치자의 맏아들이

제사장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였다. 즉, 제사장 직무는 특정 가문에 국한되지 않고 가정과 족장 단위에서 자연스럽게 수행되었다.

노아는 홍수 이후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을 취하여 하나님께 번제 헌물을 드렸다. 이는 명백한 제사장적 행위였으나, 성경은 노아에게 '제사장'이라는 공식 칭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다.

성경에서 공적으로 제사장이라는 칭호를 받은 인물은 아브라함 시대의 멜기세덱이 거의 유일하다. 그는 살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창 14:18). 모세의 장인 이드로 역시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율법 수여 이전 시대에는 전반적으로 '제사장'이라는 호칭이 제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가인과 아벨, 노아, 아브라함, 욥, 이삭, 야곱 등은 모두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고 경배를 주관한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공식적인 제사장 직함을 지니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율법 이전 시대에도 제사장 개념은 분명히 존재하였으며, 다만 그것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지 않았을 따름이다.

제사장 직분의 고정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원하시고 시내 산으로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셨다. 이 과정에서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출애굽기 24장 5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젊은 사람들을 택하여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게 하셨는데, 이는 아직 공식적인 제사장 제도가 정착되기 전에 취해진 임시 조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 된 이후, 하나님께서는 엄격한 예배 질서

를 세우셨다. 열두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고, 그중에서도 아론의 집을 구별하여 제사장 직무를 맡기셨다. 민수기 16장 39-40절은 제사장 직무가 아론의 후손에게만 허락되었음을 분명히 밝힌다.

>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향을* 드릴 때 사용한 놋향로들을 취한 뒤 제단 덮개로 쓸 넓은 판들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것은 아론의 씨가 아닌 낯선 자는 **주** 앞에 향을 드리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려 함이며 또 그가 고라와 그의 무리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더라. *이 일이*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제 제사장 직무는 더 이상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보편적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문에 속한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직분이 되었다. 이로 인해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이자 대언자였으나 그의 자손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었다. 그들은 레위 사람으로서 제사장을 돕는 역할만 수행하였다. 반면 아론의 가문은 제사장 직분을 세습적으로 이어갔다. 이는 희생 제도가 인간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의해 유지되도록 하신 조치였다.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사가랴는 이러한 제사장 제도의 마지막 시대를 보여 주는 인물이다. 그는 아론 가문에 속한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예수님 당시에도 구약의 제사장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1] 정리하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

1.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순간부터 곧바로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신약(New Testament)이라는 말 자체가 '새 상속 언약'을 뜻하며, 상속 언약은 반드시 '상속 언약을 세운 자'(testator)의 죽음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히브리서 9장이 분명히 말하듯이, 상속 언약은 이를 세운 자가 죽은 뒤에야 확정되며 살아 있는 동안에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탄생이나 공생애 기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이후부터 시작된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야 비로소 새 상속 언약이 발효되었고 그때부터 신약 시대가 실제로 유효하게 되었다. 이러한 구분을 명확히 기억하지 않으면 복음서의 배경과 히브리서가 말하는 언약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다리와 같은 존재였다. 율법 이전에는 가정과 족장 단위에서 제사장의 기능이 수행되었으나, 율법 이후에는 그 직무가 아론의 후손에게 고정되었다. 이는 제사장 제도가 인간이 만들어 낸 종교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택과 명령에 의해 제도화되었음을 보여 준다. 동시에 이 모든 제도는 장차 오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 주는 그림자였음을 분명히 드러낸다.

레위 지파와 아론 가족의 선택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 직무를 아론의 집안으로만 제한하셨는지에 대한 배경은 이집트 탈출(출애굽) 사건에서 찾을 수 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으로 이집트 땅 전역의 처음 난 것을 치셨다. 그러나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집은 그 재앙을 면하였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맏아들(장자)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원리가 세워졌다.

민수기 3장 40절에서 4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 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남자들 중에서 처음 난 모든 자를 계수하되 *난 지* 한 달 이상 된 자를 계수하고 그들의 이름들 수를 세라. (나는 **주**니라.) 너는 나를 위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자 대신 레위 사람들을 취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가운데서 모든 첫 새끼 대신 레위 사람들의 가축을 취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의 처음 난 모든 자들을 대신하여 레위 지파를 택하겠다."고 선언하셨다. 이로써 레위 사람들은 다른 지파와 달리 상속 유업을 받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전담해야 했다. 그들의 삶은 온전히 성막 봉사와 희생 제도와 관련된 직무에 바쳐졌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음을 뜻한다.

그러나 레위 지파 전체가 제사장이 된 것은 아니었다. 레위에게는 게르솜, 므라리, 고핫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가계는 성막 봉사에서 각기 다른 직무를 맡았다.

먼저 게르솜 자손은 성막의 휘장과 덮개, 곧 성막 위를 덮는 본체 천막, 회중의 성막 문 휘장, 뜰의 휘장과 줄들을 맡아 성막을 둘러싸는 구조물을 관리하였다. 이는 성막의 외형과 경계를 책임지는 중요한 봉사였다(민 3:25–26; 4:24–26).

다음으로 므라리 자손은 성막의 널빤지, 띠, 기둥, 받침, 곧 뼈대와 하중을 받는 부분을 담당하였다. 이는 성막이 견고히 서 있도록 지탱하는 역할을 하며, 눈에는 덜 띄지만 반드시 필요한 직무였다(민 3:36–37; 4:29–33).

고핫 자손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성막 봉사에서 가장 엄중한 임무를 맡았다. 그들의 직무는 성막의 거룩한 기구들, 곧 언약궤, 상, 등잔대, 제단과 성소의 각종 기구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이었다(민 3:31; 4:4–15; 7:9). 이 기구들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와 직접 연결된 것들이었기에, 고핫 자손은 다른 레위 가문과 달리 수레를 사용하지 않고 어깨에 메어 이것들을 운반해야 했다. 이는 거룩함을 손쉽게 취급하지 말라는 분명한 상징이었다.

이처럼 고핫 자손의 임무는 성막 봉사 가운데서도 가장 영광스러우나 동시에 지극히 두려운 사명이었다. 성막의 거룩한 기구들을 직접 다루고 운반하는 직무는 하나님 임재의 중심부와 맞닿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고핫 자손은 레위 지파 안에서도 특별한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하다.

고핫 자손 가운데 일부가 제사장이 된 사실이 있으나, 고핫 자손 모두가 제사장이 된 것은 아니었다. 제사장직은 고핫 가문 전체에 자동으로 부여된 특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고핫의 후손 가운데서도 오직 아론의 가문만을 따로 구별하셨다. 번제 헌물과 속죄 희생의 집례, 백성을 향한 축복 선포,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라는 핵심 직무는 아론의 혈통에 속한 자들만 담당하도록 정하

신 것이다. 나머지 고핫 자손들은 비록 거룩한 기구를 맡은 영광스러운 사역을 수행했지만, 제사장직 그 자체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성막 봉사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고핫 자손은 성막의 거룩한 기구들을 맡는 특별한 봉사를 수행했으나 그 가운데서도 오직 아론의 가문만이 제사장으로 구별되어 희생과 중보의 사역을 전담하였다. 이는 제사장 직분이 단순히 레위 지파에 속했다거나 거룩한 일에 가까이 있었다는 이유로 주어진 직분이 아님을 보여 준다.

제사장직은 레위 사람 가운데서 자동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혈통에 속한 자에게만 허락된 직분이었다. 이는 모세의 경우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모세 역시 레위 지파 출신이었으나 아론의 가문에 속하지 않았기에, 그의 후손은 레위 사람으로 봉사할 수는 있었어도 제사장이 될 수는 없었다. 이 제도는 제사장 직분이 인간의 선택, 능력, 공로, 또는 영적 위대함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구별에 의해 엄격히 제한된 직분임을 명확히 보여 준다.

고라의 반역과 하나님의 확인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적 선택은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 도전받았다. 그 대표적 사례가 민수기에 기록된 고라의 반역이다. 고라는 레위 지파 출신이자 고핫 자손으로 성막 봉사에 참여하는 직분에 있었다. 그는 다단과 아비람, 온과 함께 무리를 모아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저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도다. 온 회중 곧 그들이 각각 거룩하며 **주**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자신을 **주**의 회중보다 높이느냐? 하매 (민 16:3)

이는 표면적으로 평등과 거룩함을 외친 말처럼 보였지만 그 핵심은 고핫 자손 중에서 아론의 가문만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적 구별'을



귀스타브 도레 〈고라, 다단, 아비람의 죽음〉

부정하려는 반역이었다.

고라의 문제는 단순한 직분 갈등이나 지도력 경쟁이 아니었다. 그는 "우리도 레위 사람이고 고핫의 후손으로 성막 봉사를 하는데, 왜 아론의 집안만 제사장이 되어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제사장 직분을 권리와 자격의 문제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제사장 직분은 자격 경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적 질서였다. 민수기 16장 11절은 이 반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 이런 까닭으로 너와 네 온 무리가 **주**를 대적하려고 다 함께 모였도다. 아론이 누구이기에 너희가 그에게 불평하느냐? 하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이면서도 단호했다. 땅이 갈라져 고라와 그의 무리를 산 채로 삼켰고, 동시에 불이 나와 다른 무리를 멸하였다(민 16:31–35). 이는 레위기 10장에서 '이상한 불'을 드린 자들을 심판하신 방식과 연결되며, 거룩함의 경계를 넘는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중히 다루시는지를 보여 준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향해 이 사건의 의미가 분명히 각인되도록 또 하나의 표징을 주셨다. 민수기 17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열두 지파 우두머리들의 막대기들을 성막 안에 두게 하신 뒤 오직 아론의 막대기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며 열매가 맺히게 하셨다. 생명이 없는 마른 막대기에서 생명이 솟아난 이 사건은, 제사장 직분이 사람의 주장이나 다수의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정해짐을 명확히 알려 주는 표지였다.

이 사건의 교훈은 명확하다. 제사장 직분은 명예직도 아니고, 권력을 얻기 위한 자리도 아니며, 스스로 올라설 수 있는 직분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과 대상에게만 맡기신 거룩한 직분이었다. 고라의 반역은 "왜 나는 안 되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그 끝은 "하나님께서 정하

신 바를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그 심판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향한 경고의 본보기가 되었다.

이 모든 맥락 속에서 우리는 제사장 직분이 철저히 하나님의 선택과 질서 위에 서 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레위 사람이라 해도, 고핫 자손이라 해도, 심지어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가문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어 제사장 직분을 취할 수는 없었다. 제사장 직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아론의 가문에 위임하신 거룩한 부르심이었으며, 그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

제사장 규정을 어긴 사울 왕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론의 가문에만 국한된 규정이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스스로 제사장 직무를 대행하려 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지만, 제사장 직분의 경계를 지키지 못함으로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번제 헌물을 드리는 일은 제사장을 통해 이루어질 예배였고, 왕은 그 예배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했다. 그러나 사울은 상황이 급박해 보이자 인내하지 못했고, 결국 제사장 직무를 스스로 넘겨받아 번제 헌물을 드리고 말았다.

사울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눈앞의 군사적 위기와 백성의 동요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즉, 예배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자리로 보지 않고 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였다. 그 결과 사울은 세속 권력인 왕권으로 제사장 직무의 경계를 침범하였다.

성경은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왕이 **주**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친히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

의 왕국을 영원히 세우려 하셨으나 이제 왕의 왕국이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것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셨으며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사 자신의 백성을 다스릴 대장이 되게 하셨나이다, 하고 (삼상 13:13–14)

이후 사울의 왕권은 즉시 폐위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버림받은 왕으로 판결되었다. 그의 통치는 계속되었으나 더 이상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통치가 아니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는 그 결과가 즉각적이지 않더라도 결코 가볍게 넘어가지도 않음을 보여준다.

사울의 죄는 단순한 조급함이나 상황 판단의 착오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질서와 직분의 구별을 신뢰하지 못한 채, 왕권으로 그 경계를 대신하려 한 명백한 불순종이었다. 이는 기다림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운 교만이었으며, 그 순간 사울은 왕으로서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의 대표로서도 실패하였다.

제사장 규정을 어긴 웃시야 왕

사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다의 웃시야 왕 역시 제사장 규정을 어김으로써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였다. 웃시야는 통치 초기에 선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나라를 강성하게 세웠다. 그러나 세력이 커지자 마음이 교만해졌고, 끝내 거룩한 경계를 가볍게 여기게 되었다. 그는 어느 날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 향을 드리겠다며, 제사장의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시도하였다. 분향은 하나님께서 엄격히 제사장에게만 맡기신 직무로서, 어떠한 왕권으로도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성경은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그때에 웃시야가 화를 냈더라. *그가* 분향하려고 손에 향로를 들고 있었는데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분향 제단 옆에서, **주**의 집에 있는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솟았더라. (대하 26:19)

웃시야는 즉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병에 걸렸다. 이로 인해 그는 더 이상 공적으로 왕 노릇을 할 수 없었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인간이 제멋대로 침범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또한 아무리 막강한 권세가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창조물에 불과하며, 거룩한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은 곧바로 심판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웃시야의 죄는 단순한 월권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구별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성소를 자기 권력으로 점령하려 한 교만이었다. 이 일을 통해서도 제사장 직분이 단순한 종교적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 아래 위임된 자리임을 알 수 있다.

제사장 규정을 어긴 벧세메스 사람들

사울과 웃시야가 왕의 신분으로 제사장 직무를 침범했다면, 벧세메스 사람들의 죄는 일반 백성이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영역을 무시하고 침범한 사례이다. 블레셋 땅에 있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벧세메스 사람들은 기뻐하며 주께 번제 헌물을 드렸다. 그러나 그 기쁨은 곧 거룩함에 대한 경외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따르지 않고,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죄'를 범하였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극히 거룩한 물건으로서, 지정된 제사장 외에는 접근하거나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영역이었다. 그러나 벧세메스 사람들은 안일한 호기심으로 그 경계를 가볍게 여겼다. 성경은 이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기록한다.

벧세메스 사람들이 **주**의 궤를 들여다보았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치시되 곧 그분

께서 백성 중에서 오만 칠십 명을 치시니 **주**께서 큰 살육으로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을 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삼상 6:19)

이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상황이나 감정, 기쁨의 순간에 따라 완화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 언약궤의 귀환이라는 은혜의 사건조차,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는 태도 앞에서는 심판의 자리로 변할 수 있었다. 벧세메스 사람들의 죄는 단순한 실수나 무지의 문제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경계를 존중하지 않고,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영역을 평범한 호기심의 대상으로 끌어내린 불경이었다.

이 사건을 통해 성경은 분명히 증언한다.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의 감정이나 선의로 함부로 다룰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과 질서 안에서만 가까이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거룩함을 가볍게 여길 때, 그 결과는 언제나 치명적이었다.

제사장의 등급과 대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임명을 받은 거룩한 직분이었으며 그 안에서도 엄격한 위계가 존재하였다.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일반 제사장이었다. 이들은 성막 봉사와 희생 제도 집행을 맡았다. 그 위에는 부제사장이 있었으며, 그들 위에는 여러 명의 '수제사장'(Chief Priest)이 존재하여 대제사장을 보좌하였다. 수제사장은 오늘날의 구역 책임 지도자층에 비견할 수 있다.

이 모든 제사장들 위에 오직 한 명의 '대제사장'(High Priest)이 있었는데, 이 직분은 종신직이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는 한 번 임명되면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단 한 차례,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중요한 사명을 수행하였다. 그는 제사장

체계의 정점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신약 성경 원문에서 명확히 구분되는 두 용어, 즉 대제사장과 수제사장을 기존 한글 성경은 모두 대제사장으로 번역함으로써 중요한 직분상의 차이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원문상 두 용어는 엄격히 구별되며, 실제로 한 구절 안에서 함께 등장함으로써 서로 다른 직분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6장 3-4절을 보자.

그때에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함께 모여 예수님을 교묘히 붙잡아 죽이려고 협의하였으나 (마 26:3-4, 킹제임스 흠정역)

그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마 26:3-4, 개역)

위에서 알 수 있듯이, 킹제임스 성경은 '수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을 명확히 구별한다. 또한 대제사장은 단수로, 수제사장들은 복수로 나타난다. 그런데 기존 한글 성경은 이 구별을 살리지 못하고 두 표현을 모두 '대제사장'으로 번역하였다. 그 결과 본문에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었고, 독자는 마치 한 해에 여러 명의 대제사장이 존재했던 것처럼 오해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구약 율법에 근거한 이스라엘의 제사장 제도와 명백히 어긋난다.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언제나 한 명이며, 그 직분은 아론의 계열 가운데서만 세워졌다.

자기 형제들 가운데서 기름 부음에 쓰는 기름으로 머리에 부음을 받고 거룩히 구분되어 의복들을 입은 대제사장은 자기 머리를 드러내지 말며 자기 옷을 찢지도 말고 (레 21:10)

이처럼 대제사장은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단일한 최고 직분으로 구별되었으며, 복수의 대제사장이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는 성경적 제도와 명백히 배치된다. 따라서 기존 한글 성경의 '대제사장들'이라는 번역은 본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성경 번역 과정에서 발생한 개념적 혼란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번역상의 문제는 단순한 용어 차이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신약 시대 종교 지도층의 실제 구조, 즉 단 한 명의 대제사장과 그를 보좌하며 성전 행정과 의사결정에 관여하던 수제사장 집단의 관계를 왜곡한다. 결과적으로 독자는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 구조와 책임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게 되며, 본문이 드러내고자 하는 역사적·신학적 맥락 역시 희미해진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제사장 제도는 단순한 종교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거룩한 구별을 드러내는 장치였다. 고라의 반역 사건이나 사울과 웃시야의 사례는 이러한 질서를 무시하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잘 보여 준다. 따라서 제사장 직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식과 질서 안에서만 수행될 수 있었다.

대제사장의 중요성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대제사장은 단순한 예식 집행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영적 관계를 이어 주는 중재자였다. 왕이 군사·정치·행정의 질서를 세우는 역할을 맡았다면, 대제사장은 민족 전체의 죄를 속죄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켜지도록 중재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즉, 영적 차원에서 민족의 생존을 보장하는 자가 대제사장이었다. 그는 모든 종교 행사의 최고 책임자였고, 희생물과 헌물 제도와 관련된 분쟁이나 어려운 문제를 판결하는 최종 권위자였으며, 사회 정의와 공의의 구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였다(신 17:8–12; 19:17; 21:5; 33:8, 10; 겔 44:24). 율법 사회에서는 종교와 시민 질서는 분리되지 않았으므로, 대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이자 공동체 질서의 수호자였다.

특히 대제사장이 중요한 까닭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속죄 사역이 그의 직무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개인의 죄는 각종 헌물로 다루어졌으나 온 회중의 죄에 대한 속죄는 오직 대제사장이 속죄일, 즉 7월 10일에 지성소로 들어가 긍휼의 자리에 피를 뿌릴 때에만 성취되었다(레 16장). 만일 대제사장이 없거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속죄를 받지 못해 심각한 영적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대제사장의 존재와 사역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


대제사장의 복장

대제사장의 상징과 복장은 그의 직무와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냈다. 에봇과 흉패, 겉옷과 아마포 속옷, 띠, 관 등은 그가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자임을 나타냈으며, 관의 금패에는 "**주**께 거룩한 것"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출 28장). 흉패에 박힌 열두 보석은 열두 지파의 이름을 상징했고, 어깨 위 두 개의 줄마노 보석에는 이스라엘(야곱)의 열두 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의미를 강조하였다. 겉옷 가장자리에 달린 방울과 석류 장식은 그가 성소에서 봉사할 때 울리는 소리를 내어 그의 접근을 알리게 했고, 성소 봉사 전체가 두려움과 경외 속에 이루어져야 함을 상기시켰다(출 28:33-35).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의 색채(청색·자주색·주홍색)와 소재(고운 아마 실)는 하늘과 왕권과 희생과 정결을 상징하며, 그의 직무 전반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도록 설계되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 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정확히 보존하고 분별하며 백성에게 책임 있게 전달하도록 위임받은

사람이었다. 그는 흉패에 속한 우림과 둠밈을 통해 공동체의 중대한 사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 응답은 전쟁과 평화, 외교와 사법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대제사장은 성소 봉사와 속죄 예식만이 아니라 교훈과 판단의 영역까지 아우르는 총괄적 직무를 맡았다(레 10:10–11; 말 2:7). 그는 가르침 면에서는 거룩함과 속됨, 정결함과 부정함을 분별하게 했고, 판단 면에서는 율법의 적용 원리를 제시하여 판결의 기준을 세웠다. 나아가 명절과 안식년·희년의 공포와 감독, '주님께 바치는 거룩한 것들'과 성전 재정의 정결한 관리까지도 그의 책임 아래 있었다.

대제사장의 자격

이처럼 막중한 사역을 감당하기에 대제사장은 아무나 맡을 수 없었다. 반드시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 선발되어야 했고, 혈통과 가정사에서 흠이 없도록 처녀와 혼인하여야 했다(레 21:13). 더 나아가 과부나 이혼녀, 더럽혀진 여인과의 혼인을 금함으로써 가문의 거룩함을 지키도록 하였다(레 21:14–15). 또한 신체적 결함이 없는 온전함도 요구되었다. 일반 제사장 가운데 흠이 있는 자는 제단 봉헌과 보여 주는 빵을 바꾸는 일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없었는데(레 21:17–22), 대제사장에게는 더욱 엄격한 온전함이 요구되었다.

이 규정들은 구약의 신정 체제에 한정된 것이며, 신약 시대 교회의 직분에 문자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오늘날 사역자는 외형과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님의 선물(은사)로 세워진다.

경제적 질서에서도 대제사장은 특권을 누렸다. 백성이 드린 십일조는 레위 지파의 생계가 되었고, 레위 사람들은 그 십일조의 십분의 일을 다시 대제사장에게 드렸다(민 18:28). 성막·성전의 재정과 물자 관리, '주님께 바치는 거룩한 것들'의 성결 유지에서도 대제사장은 감독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서원과 그 해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들이 함부로 섞이지 않도록 용도와 사용 범위를 정확히 나누어 관리하는 일, 부정하거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다른 사

람이나 '주님께 바치는 거룩한 것들'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에 대한 배상을 판정하는 일 등 실무적 판단에서도 그의 판결이 공동체의 최종 기준이 되었다.

이러한 모든 규정과 직무는 장차 오실 '흠 없고 점 없는'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였으며 그분 안에서 실체로 온전히 성취되었다.

대제사장의 특별한 역할

대제사장의 역할은 희생 제도와 속죄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공동체를 인도하는 중재자였으며, 교훈과 판결, 중재와 감독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신앙과 질서를 책임지는 중심인물이었다. 성전 재판소와 장로·관리들의 회합에서 그는 율법의 수호자로서 해석과 적용의 기준을 제시하였고, 백성에게 거룩함과 속됨, 정결함과 부정함을 가르쳤다(레 10:10–11). 또한 성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감독하고, 향과 등잔, 보여 주는 빵과 번제 헌물 제단의 질서를 유지하였다. 명절 질서의 선포와 시행, 안식년과 희년의 공포, 땅과 종의 자유 선언도 그의 관할 아래 진행되었다. 또한 그는 성소 모독이나 '주님께 바치는 거룩한 것들' 남용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징계와 정결 의식을 주관하여 공동체가 다시 예배로 돌아오도록 길을 열었다.

대제사장은 철저히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요구받았다. 그는 머리에 부음받은 기름의 표징을 지니므로 머리를 드러내거나 옷을 찢는 등의 통상적인 애도 행위를 할 수 없었고, 심지어 부모의 죽음 앞에서도 자신을 부정하게 하지 않도록 장례 장소에 들어갈 수 없었다(레 21:10–12). 이는 그가 인간적 정과 감정을 넘어 오롯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보존되어야 함을 뜻하였다.

또한 그는 성소 봉사에 앞서 술을 멀리하여 정신을 맑게 유지해야 했고(레 10:9 참조), 예배의 시간과 공간을 거룩히 구별하도록 삶 전반에서 절제를 실천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는 대제사장 개인을 억압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속죄'라는 공적 사명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

그의 생애와 직분은 공동체 법질서에도 뚜렷한 영향을 미쳤다. 살인자가 도피 도시(도피성)에 피신했을 때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살인자는 귀향할 수 있었다(민 35:25, 28). 이는 대제사장의 생애가 공동체의 죄책과 안전, 사회적 화해와 긴밀히 맞물려 있었음을 시사한다.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는 제사장 계보의 정당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제사장들의 족보(등록부)가 엄격하게 심사되었다. 그 결과 제사장임을 증명할 수 없는 자들은 제사장 직무에서 제외되었고, 우림과 둠밈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도록 조치되기도 했다(스 2:61–63; 느 7:63–65 참조). 이는 제사장직의 순수성과 공적 신뢰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노력의 일환이었다.

요약하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종교·사회·법 질서를 아우르는 최고 권위자였으며 그의 직무는 민족 전체의 영적 생존을 좌우하였다. 그는 아론의 계열에서 엄격히 선발되어 거룩함과 온전함의 표징을 지니며, 가르치고 판단하며, 중재하고 감독하는 등 전 영역의 사역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모든 규정과 직무는 장차 오실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였으며 그분 안에서 실체로 온전히 성취되었다.

제사장들의 직무

레위기 8–10장에는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제사장들을 임명하고 그들에게 직무를 맡기시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수행했으며, 그 일을 위해 어떻게 임명을 받았는지를 살피려면 이 세 장을 차례로 읽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레위기의 서술 흐름을 따라 제사장들이 수행한 핵심 임무를 정리한다.

제사장들의 주요 직무

첫째, 제사장은 제단에서 희생물과 헌물을 드리는 핵심 사역을 수행하였다. 그들은 희생 짐승을 직접 잡아 죽이기도 했고, 경우에 따라 레위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기도 하였다(레 9:7-15).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헌물 규례를 보면, 개인이 헌물을 드릴 때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제외하고는, 헌물을 바치는 자가 직접 안수하고 스스로 그 희생 짐승을 잡아 피를 내고, 도살과 분해를 진행하였다. 제사장은 피를 제단에 뿌리는 일과 같은 핵심 의식을 집행했을 뿐, 많은 절차는 헌물을 가져온 당사자가 책임졌다. 이는 죄의 무게와 속죄의 실재를 '내 손으로' 직접 체감하도록 하는 교육적 장치였다. 동시에 제사장은 그 과정이 규례대로 진행되도록 감독하고, 공동체 안에 부정함이 들어오지 않도록 살피며, 하나님께 속한 거룩함의 경계를 분명히 지키는 역할도 함께 감당하였다.

둘째, 제사장은 번제 헌물 제단의 불을 항상 유지하는 지속적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들은 번제 헌물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불을 지폈다(레 6:12-13). 성막 뜰의 번제 헌물 제단의 불은 결코 꺼져서는 안 되었고, 이를 유지·관리하는 일이 제사장의 상시적 임무였다. 불이 꺼지는 일은 곧 섬김의 중단을 뜻하므로, 제사장은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점검하고 보충하여 연속성을 유지하였다. 이처럼 '항상 유지하는 리듬'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봉사가 하루도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신앙 고백을 삶의 시간표에 새긴 실천이었다.

셋째, 제사장은 회중의 성막 곧 증언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금 등잔대의 등불을 상시 관리하였다. 그들은 올리브로 찧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보충하여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다(출 27:20-21; 레 24:2-4). 등잔대의 빛은 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상징하였다. 이 빛 역시 '항상 유지하는 리듬'의 신앙 고백을 시간표로 새긴 실천이었다.

넷째, 제사장은 금으로 된 분향 제단에서 규례대로 향을 사르는 의식을 담

당하였다. 그들은 매주의 시작에 제비를 뽑아 배정된 계열의 순서대로, 날마다 아침과 저녁에 분향 제단에서 향을 사르며 섬겼다(대상 24:5, 19; 눅 1:9). 향을 사르는 일은 성소 봉사에서 항상 하는 의식이었고, 제사장들은 정해진 시각에 분향 제단의 등잔들을 정비하고 거룩한 조제법대로 만든 향을 피워 하나님께 올려 드렸다(출 30:7–9, 34–38). 임의로 만든 향이나 임의의 불을 사용하는 행위는 거룩함과 속됨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간주되었으므로, 제사장은 향과 불의 출처를 철저히 구별하여 관리하였다. 이처럼 제사장들의 섬김은 정성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에 대한 순종으로 비로소 완성되었다.

다섯째, 제사장은 보여 주는 빵을 반죽하여 굽고 성소의 상에 배치하는 일을 담당하였다(출 25:23–30; 레 24:5–9). 그들은 안식일마다 그 빵들을 새것으로 교체하였으며, 각 줄마다 유향을 두어 하나님 앞의 기념물로 삼았다(레 24:7). 이 빵들은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먹어야 했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억됨을 상징하였다(레 24:5–9). 즉, 상에 빵들을 배열한 것은 단순한 음식 준비가 아니라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놓여 있다."라는 언약의 표시였다.

여섯째, 제사장은 율법을 가르치고 거룩함과 속됨, 정결함과 부정함을 분별하도록 이끄는 교육 사역을 담당하였다. 그들은 정결함과 부정함, 거룩함과 속됨을 분별하게 하고, 주님의 율법과 판단을 백성에게 가르쳐 삶의 기준을 세웠다(레 10:10–11). 말라기 대언자는 제사장의 이상적 표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그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나니 이는 그가 군대들의 **주**의 사자이기 때문이니라. (말 2:7)

명절과 안식일의 의미, 서원과 구별의 법도, 부정함과 정결함에 관한 세밀한 규정—이 모든 것이 실제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지도하는 일은 제사장 교육 사역의 핵심이었다. 다윗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계열을 조직하여(대상 23–26장), 가르침·찬양·문지기·창고 관리 등 기능별로 배치했고, 이 '24계열' 체계는 신약 시대까지 이어져 사가랴가 '아비야 계열'로 봉사하던 배경이 되었다(눅 1:5, 8–9). 이는 제사장 사역이 일회적 활동이 아니라 질서와 연속성을 가진 제도적 사역이었음을 보여 준다. 제사장은 제단에서 희생 헌물과 예식을 직접 집행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생활 전체를 거룩함으로 이끄는 안내자였다.

일곱째, 제사장은 정결과 보건에 관한 판정과 예식을 주관하였다. 백성이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정결례 관련 문제들—출산 후 정결 예식(레 12장), 피부 질환과 의복·가옥의 나병에 대한 판정과 정결 절차(레 13–14장), 몸의 유출과 접촉으로 인한 부정 문제(레 15장)—은 모두 제사장이 최종 판단권을 가졌다. 특히 나병에 대한 판정은 사회적 격리와 복귀 절차를 포함했기에 제사장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공동체 보건과 격리의 관리자' 역할도 하였다. 이러한 판정은 질병 진단을 넘어서, 예배 참여 자격과 공동체 복귀를 결정하는 신학적·사회적 판단이었다. 이는 단순한 보건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구별됨'이 무엇인지 백성의 삶 전체에 새기는 신학적 교육이었다.

여덟째,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파송하는 사역을 담당하였다. 이른바 '아론의 축복'은 제사장의 입을 통해 공식적으로 선포되었다.

> **주**께서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네게 빛을 비추사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네 위로 드사 네게 화평을 주시기 원하노라. (민 6:24–26)

그들은 정해진 공식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 가운데 임하신다는 표징을 드러냈다. 이 축복은 예배의

마침표이자 하나님의 이름이 백성 위에 놓이는 공적 행위였다. 이와 동시에 성소에서 받은 은혜가 삶의 자리로 이어지도록 하는 파송의 선언이었다. 구약에서 축복은 감정적 덕담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자신의 임재를 공식적으로 선포하시는 행위였다.[2]

아홉째, 제사장은 명절들과 안식일에 백성을 대표하여 공식적으로 희생물과 음식 헌물을 드렸다. 그들은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에 지정된 수효와 방식에 따라 희생물을 드리고(민 28–29장), 온 나라가 하나님의 달력에 맞추어 살도록 봉사의 리듬을 마련하였다. 제사장의 손은 시간과 예배를 연결하는 매개였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명절들은 민속 행사가 아니라 제사장의 집례를 통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중심의 시간 질서로 재정렬되는 장치였다.

제사장의 부차적 직무

첫째, 제사장은 송사와 논쟁의 해결에 관여하고 어려운 재판을 처리하였다. 일반적 분쟁을 넘어서는 어려운 사건은 제사장과 재판관에게 올라왔고 그 판정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최종 효력을 지녔다(신 17:8–12). 재산·혼인·상속·서원과 관련된 평가 금액을 산정하는 일(레 27장) 역시 제사장의 직무였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시대에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함께 '주님의 재판' 체계를 구성하여 예루살렘에서 중대한 송사를 처리하였다(대하 19:8–11). 이는 제사장이 예배뿐만 아니라 공의의 질서를 세우는 일에서도 핵심 역할을 했음을 보여 준다. 그들은 지파 간, 개인 간의 첨예한 분쟁에서 율법이 가르치는 바를 판정하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판단 아

2. 구약 시대 제사장의 축복을 그대로 적용하여 신약 시대 목사가 축도권을 가진 제사장처럼 행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신약에서는 제사장 계급이 폐지되었으며, 목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할 권세를 위임받은 존재가 아니다. 모든 신약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며, 복은 특정 직분자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다. 이러한 이유로 침례교를 비롯한 여러 복음주의 전통에서는 목회자를 제사장과 같은 위치에 두는 축도 행위를 하지 않는다.

래 질서를 회복하도록 도왔다(신 17:8-12). 따라서 제사장의 사역은 제단에만 머물지 않고 공동체의 공의와 정의 구현으로 확장되었다. 예배의 질서와 사회의 질서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있었고 그 연결 지점에 제사장의 판정이 놓여 있었다.

둘째, 제사장은 질투의 법과 나사르 사람(나실인)의 서원과 같은 특수 의식을 주관하였다. 남편이 아내의 간음을 의심할 경우, 제사장은 성막의 흙과 거룩한 물로 만든 '질투의 물'을 사용해 의식을 집행하고 판정을 내렸다(민 5:11-31). 또한 나사르 사람의 서원을 감독하며, 기간이 끝나면 헌물과 머리털을 제단에서 처리함으로써 그 서원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였다(민 6:1-21). 이러한 절차는 개인의 도덕 문제와 서원이 사적인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는 공적 질서 안에서 다루어졌음을 보여 준다.

셋째, 제사장은 십일조와 '거룩한 것들'의 관리를 맡았다.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온 십일조 중 '거룩한 십일조'를 다시 '주님께 들어 올리는 헌물'로 드리면 그것은 제사장의 몫이 되었고(민 18장), 그들은 서원 헌물과 구별된 헌물, 첫 열매와 첫 소산, 첫 새끼 등의 규정을 따라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쓰이도록 구분하고 보관하였다(레 27장).

제사장이 다루는 모든 것은 사용 목적이 분명히 구별되어야 했고, 제사장은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것들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했다. 거룩한 것은 단지 '많은 것'이 아니라 '따로 떼어 둔 것'이기에, 그것의 합당한 관리는 곧 신앙의 한 부분이었다.

넷째, 제사장은 전쟁과 국난의 순간에 백성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였다. 전쟁과 국난이 있을 때, 제사장은 선두에 나섰다. 그들은 은나팔을 불어 회중을 소집하고 진영 이동과 전투의 신호를 주었으며(민 10:8-10), 전쟁에 앞서 백성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였다(신 20:2). 사울 시대에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처럼(삼상 23:9-12), 대제사장의 우림과 둠밈은 국가적 중대 사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통로였다(출 28:30). 이는 점술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주권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다.

제사장 직무의 특징과 상징

이 모든 사역의 태도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지속적으로 항상 일하는 책임'이며, 다른 하나는 '거룩한 것과 일상적인 것을 섞지 않고 분명히 구별하는 책임'이다. 제사장은 일을 멈추지 않는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였다. 제사장의 '의복과 자세' 자체가 사역의 의미를 드러냈다.

제사장은 정결한 옷으로 단장하되 성소 봉사에는 '앉는 일'이 없었다. 그들은 서서, 끊임없이 섬겼다. 상징적으로도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쉬는 장면이 강조되지 않는다. 성막 규례 어디에도 봉사를 하다가 쉬기 위한 '의자'가 언급되지 않으며, 이는 섬김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성격'을 지녔음을 상징한다. 히브리서 기자인 사도 바울은 이 대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려도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셔서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 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히 10:11–13)

구약의 제사장은 끝나지 않는 '반복' 속에 서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을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서 있음'과 '앉아 있음'의 대비는 구약 봉사의 한계와 신약에서의 완성, 곧 사역의 종결과 성취를 선명히 드러낸다.

제사장의 복장에 관한 세부 규례는 출애굽기 28장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제사장은 정결함과 구별을 표지하는 의복을 갖추고 성소 봉사에 임했는데, 이 의복은 단순한 제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 방식을 눈에 보이게 드러내는 상징 체계였다. 에봇과 흉패, 겉옷의 석류와 금방울, 관의 맨 앞

에 있는 패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는 "**주**께 거룩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선포하도록 의도되었다(출 28장; 특히 28:36–38). 제사장의 의복은 외적 치장을 위한 장식이 아니었으며, 성소 봉사가 인간의 임의나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함의 질서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몸으로 증언하는 표식이었다.

이처럼 제사장은 제단 사역의 집행자일 뿐만 아니라 교사·재판관·보건 관리자·축복하는 자·전시의 격려자·시간과 질서의 관리자였다. 그들의 삶과 사역은 "주께서 그들의 몫이 되신다."는 신학적 토대 위에서 공동체의 십일조와 첫 소산, 거룩한 몫, 그리고 48개 레위 사람들의 도시를 통해 지속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제도는 거룩함이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예배·경제·법·시간·공동체 구조 전반에 스며든 실제적 질서였음을 분명히 증언한다. 따라서 제사장의 일은 단순한 의식 집행이나 행사 진행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백성이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삶 전체로 보여주는 공적 섬김이었다.

레위 지파의 생활 기반

제사장 직분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중보 사역을 맡았다면, 그 직무가 온전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이를 실제로 뒷받침할 인력과 구조가 필요하였다. 제사장은 제단과 성소의 핵심 직무를 담당했지만, 성막과 예배 전반에 수반되는 수많은 봉사를 혼자 감당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돕는 별도의 지파, 즉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셨다. 레위 지파의 존재는 제사장 직분이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공동체적 질서 속에서 수행되는 거룩한 사역임을 보여 준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뒤 열두 지파는 각기 상속 유업을 분배받았으나, 유일하게 레위 지파만은 독립된 토지 상속을 받지 않았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몫이요 상속 재산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이다. 민수기 18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또 **주**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니라. 너는 그들의 땅에서 상속재산도 갖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서 아무 몫도 갖지 못하리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네 몫이요, 네 상속재산이니라. (민 18:20)

신명기도 동일한 원리를 반복해서 말한다.

>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온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과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재산을 갖지 못하리니 그들은 **주**의 화제(火祭) 헌물과 그분의 상속물을 먹을 것이니라. (신 18:1)

즉, 레위 지파는 땅으로 생계를 꾸리는 대신, 주님께 속한 봉사를 전담하며 '주님 자체가 그들의 몫'이라는 정체성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는 특권이면서 동시에 책임이었다. 땅이 없다는 사실은 의지할 기반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였으므로 레위 지파는 더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야 했다.

따라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은 나머지 열한 지파가 드리는 십일조와 첫 열매, 각종 헌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거룩한 몫'의 세부 항목은 레위기 7장 6-34절과 신명기 18장 3-4절 등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번제 헌물의 가죽은 제사장에게 돌아가고(레 7:8), 흔드는 가슴과 들어 올리는 오른쪽 어깨는 제사장의 몫이 되며(레 7:31-34), 곡식·기름·포도즙의 첫 열매(민 18:12-13), 그리고 사람의 처음 태어난 자의 대속물(민 18:15-16)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생활 기반이 되었다. 이 체계는 단순한 '급여 지급'이 아니라 예배와 공동체 경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백성이 드리는 것은 단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순종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거

룩한 흐름 속에서 레위 지파의 삶을 유지하게 하셨다. 반대로 '누룩'이 섞이거나(레 2:11), 부정하게 된 것은 거룩한 용도로 사용될 수 없었다. 거룩함은 '좋은 것'이 아니라 '구별된 것'이며, 섞임과 오염은 곧 질서의 붕괴를 의미하였다.

토지 상속 유업 대신 '거주 기반'을 보장하기 위해, 가나안 정복 이후 하나님께서는 전국에 48개의 레위 사람들의 도시를 정하셨다(수 21:41). 그중 6개 도시는 우발적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보복을 피하여 재판을 기다릴 수 있는 도피 도시였고(민 35:6; 수 20:7–8), 13개 도시는 아론 계열 제사장에게(수 21:4, 19), 나머지는 레위 사람들의 거주지로 지정되었다(수 21장; 민 35장 참조). 이 배치는 단순한 거주 분배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가 한 지역에 모여 '자기 땅'을 형성하지 못하게 하시는 한편,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게 하여 온 나라에 율법 교육과 예배 질서가 퍼지도록 하셨다. 각 도시에는 도시 밖으로 일정 범위의 초지가 함께 부속되어(민 35:4–5) 가축을 기르고 최소한의 자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완전한 농경 기반은 없지만, 그들이 봉사에 전념하다가 굶주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생계 기반이 갖추어졌다.

광야에서 행군할 때에는 레위 사람들이 성막을 둘러 진을 치며 운반과 설치·해체를 전담했고, 그들은 전쟁에 징집되는 일반 계수(민 1:47–53)에서 제외되어 '거룩한 직무를 맡은 전문 인력'의 역할만 담당하였다. 그들은 성막의 기구를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경계를 관리하고, 정해진 방식대로 이동시키며, 백성 전체가 예배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했다.

이렇게 보면 레위 지파에게 '상속 유업을 허락하지 않으신 조치'는 단순한 박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동체 한가운데 두어 거룩함의 질서를 지키게 하신 배치였다. 결국 제사장 의복의 정밀함, 레위 지파의 상속 유업 제한, 레위 사람 도시들의 전국적 분포는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킨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임의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함의 구조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십일조의 의미와 역할

이스라엘의 예배 체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공적 재정 구조가 필요했다. 그들은 토지 상속을 받지 않는 대신 성막과 성전 봉사, 율법 교육, 거룩한 질서의 유지를 전담했으므로, 생계 문제를 개인의 노력이나 자발적 헌신에 맡길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공동체 전체가 함께 책임지도록 제도화하셨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십일조는 이스라엘의 신정 국가 질서 안에서 단순한 개인적 경건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유지하기 위한 공적 제도였다. 열두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전적으로 주님의 일을 맡았으므로, 나머지 열한 지파가 소득의 대략 십분의 일을 떼어 레위 사람들을 부양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공동체 운영의 필수 장치였다. 다시 말해 십일조는 오늘날의 개념으로 말하면 '종교세'에 가까운 성격을 띠었으며, 예배와 율법 교육, 성막과 성전 봉사가 지속되도록 하는 재정적 토대였다.

민수기 18장은 이 구조를 분명하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십일조는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레위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다시 십분의 일을 '거제 헌물'로 주님께 돌려 제사장의 몫이 되게 해야 했다(민 18:24–28). 즉, 백성 → 레위 사람 → 제사장으로 이어지는 이중 구조는, 성소 봉사 체계가 재정적으로도 끊어지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였다. 여기에 더해 기름과 곡식과 포도즙의 처음 것, 짐승의 처음 난 것, 사람의 처음 난 자의 대속물, 서원 헌물과 '주님께 드린 물건'(레 27장) 가운데 일부가 제사장에게 귀속되었다. 이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세속적 생업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율법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보호 장치였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구약의 십일조가 단일 제도가 아니라 세 종류의 십일조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흔히 '십일조를 10%'라고 단순화하지만, 실제 구약 시대의 율법 체계는 훨씬 더 정교하였다.

첫째, 레위 사람들을 위한 십일조이다. 이는 매해 모든 수확과 소득의 10%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제도로, 성막과 성전 봉사를 전담하는 레위 지파의 생계를 책임졌다(민 18장). 이 십일조에서 다시 10%가 제사장에게 돌아갔다.

둘째, 축제 성격의 십일조이다. 신명기 12장과 14장에 따르면, 백성은 또 다른 십일조를 떼어 정해진 곳,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로 가져와 매해 정해진 때에 가족과 함께 먹으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했다(신 14:22-27). 이는 단순한 음식 소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와 감사, 공동체적 기쁨을 제도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장치였다.

셋째, 가난한 자를 위한 십일조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 삼 년째 되는 해에 이 십일조를 도시 안에 쌓아 두어, 레위 사람과 나그네, 고아와 과부가 먹고 배부르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신 14:28-29; 26:12). 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약식 복지 제도였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매해 평균적으로 자기 수입의 약 23.3%에 해당하는 몫을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 따로 떼어 드린 셈이 된다. 즉, 해마다 레위 사람들을 위한 10%의 십일조와 10%의 축제 십일조가 있었고, 여기에 3년에 한 번 10%의 구제 십일조가 추가되므로,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약 23.3% 수준이 된다. 따라서 구약의 십일조는 오늘날 흔히 말하는 '10% 헌금'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공공성이 강한 제도였다.

한편 헌물에는 거룩함의 등급이 있었다. 죄 헌물과 범법 헌물처럼 '지극히 거룩한 것'은 성소 뜰 안에서 제사장 남자들만 먹을 수 있었고, 화평 헌물의 일부나 음식 헌물과 같은 '거룩한 것'은 제사장 가족이 정결함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함께 먹을 수 있었다(레 6-7장). 이는 재정과 음식, 생활 전반이 예배 질서와 분리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대언자 말라기는 이 체계가 무너질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예리하게 지적한다. 그는 '창고'에 십일조 헌물을 들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공동체를 책망한다.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십일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검증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아 놓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말 3:10)

이 말씀의 핵심은 개인의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과 공동체 질서가 유지되는가 하는 문제였다.

역사적으로도 이 원리가 무너지면 곧바로 레위 사람들의 직무가 흔들렸다. 느헤미야는 십일조가 끊겨 레위 사람들이 생계를 잃고 밭으로 흩어졌음을 지적하며, 성전 창고와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 예배 질서를 회복하였다(느 13:10–14). 십일조의 붕괴는 곧 예배의 붕괴였다.

이처럼 구약에서 십일조는 신정 국가의 공적 질서를 위해 '강제로 부과된' 제도였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동일한 비율이 법으로 강제되지는 않는다. 헌금은 명령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려야 하며, 억지나 압박으로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3]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후 9:7)

그렇다고 해서 신약 성도의 책임이 구약보다 가벼워진 것은 아니다. 교회가 말씀 사역과 구제, 선교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성도들의 자발적이고 꾸준한 헌금이 필요하다. 구약의 십일조가 공동체를 유지하는 구조였다면, 신약의 헌금은 은혜에 대한 자발적 응답이다.

이 점에서 수입의 10%는 '율법적 의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경 전체가 제

3. 어떤 이들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신약 성도들에게도 구약의 십일조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말씀은 십자가 사건 이전, 즉 아직 구약 체제 아래에 있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부터 시작되며, 그 이전의 말씀을 신약 교회에 법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맥을 벗어난 해석이다.

시하는 책임 있는 기준선으로 삼을 수 있다. 오히려 은혜 아래 있는 신약 성도는 '얼마나 적게 드릴 수 있는가'가 아니라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적어도 수입의 10%나 그 이상을 드리는 헌금은 성경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으며, 많은 경우 은혜에 합당한 최소한의 응답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헌금의 가치는 비율 그 자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과 책임 있는 참여에 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공동체 전체가 기꺼이, 그러나 책임 있게 참여할 때 지속되어 왔다.

제사장들의 24계열 구분

제사장들의 24계열 구분은 '성막' 시대에서 '성전' 시대로 넘어가며 예배 봉사를 질서 있게 조직화한 제도였다. 유목과 행군의 리듬 속에서 성막을 해체·운반·재건해야 했던 광야 시대에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상황에 맞추어 비교적 탄력적으로 섬겼다.

그러나 다윗 왕국이 공고해지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예배는 더 이상 이동 중심의 방식이 아니라 정착된 질서 속에서 드리게 되었다. 다윗은 제사장을 24개의 '계열'로 나누어 봉사 일정을 연중 배치함으로써, 성전 예배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신학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대상 24장).

각 계열에 속한 이들은 1년 가운데 자기들에게 정해진 주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일주일 동안 봉사한 뒤 다음 계열 사람들과 교대하였다. 이로써 제사장 개인에게 과중한 부담이 집중되는 일을 막고, 동시에 예배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과 같은 대축제 기간에는 모든 계열이 총동원되어 성전 업무를 감당했는데, 이는 명절이 지닌 공동체적·구속사적 중요성을 반영한 조치였다.

이 24계열은 단순한 근무표가 아니라 '거룩함'의 시간표였다. 제사장들은 제비뽑기를 통해 일일 임무—분향, 등잔 손질, 보여 주는 빵 교체, 번제 헌물 제단 보조, 제물의 피를 뿌리는 일 등—를 공정하게 배분하였다. 이는 직무 배정에 사람의 사사로운 의지나 권력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 제도를 통해 예배는 개인의 열심이나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해진 질서와 규례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 체계는 예배의 연속성과 엄정성을 동시에 담보하며, 성소 봉사가 '항상' 유지되도록 하였다.

제사장들의 이러한 계열 제도는 레위 사람들의 거주 구조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전국 48개 도시에 분산하여 살며(수 21장), 정해진 주기에 맞추어 예루살렘에 올라와 봉사하고, 봉사를 마치면 다시 자신의 지역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지역 사회 안에서 율법 교육과 정결 판별, 송사에 대한 자문, 신앙 지도를 담당하며 일상 속에서 거룩함의 질서를 세우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는 성전 예배와 일상 신앙을 분리하지 않고, 중앙 성소와 지방 공동체를 유기적으로 잇기 위한 구조였다.

이처럼 촘촘하게 짜인 제사장들의 조직, 그들에게 주어진 일정, 복장과 업무 절차는 결코 우연한 장식이 아니었다. 구약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봉사 전체는 장차 올 실체를 가리키는 그림자이자 예표였다. 날마다 서서 반복되는 희생은 죄의 무게와 속죄의 절실함,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피 흘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공동체의 기억 속에 각인시키는 교육적 언어였다.

그러나 그 반복은 동시에 한계를 드러냈다.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서서 봉사하였지만, 그들이 드린 희생은 죄를 제거하지 못했고 오히려 날마다, 해마다 죄를 다시 생각나게 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어 이 반복을 끝내셨다. 그러므로 24계열이 유지한 반복과 연속성은 교육적으로 필요한 과정이었으나, 그 효력은 오직 그리스도의 단번 사역에서 완결된다.

그리스도는 어떤 제사장인가?

아론의 계열은 율법과 혈통에 근거한 땅의 제사장 계열이다.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셨기에 아론의 계열을 따르실 수 없다. 히브리서는 이에 대해 멜기세덱의 신비로운 계통으로 설명한다. 생애의 시작도 끝도, 족보도 기록되지 않은 멜기세덱은 시간과 혈통의 제약을 초월하는 영원한 제사장 질서를 상징한다(히 7장).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로 들어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장 – 희생 헌물 – 성전' 구조는 그리스도의 '몸 – 피 – 하늘 성소' 안에서 종말론적으로 완결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이루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단순한 초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완전히 열렸음을 결정적으로 선언하는 신학적 사건이다. 마태복음은 이 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마 27:50–51)

이 휘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던 상징적 경계였으며, 대제사장만이 정해진 날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표지였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권한은 더 이상 특정 계층이나 직분에 제한되지 않게 되었다. 히브리서는 이 사실을 분명히 설명한다.

>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의거하여 새롭고 살아 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

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히 10:19–20)

따라서 성전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구약의 제사장 체제가 끝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표지이다. 이는 구속 사역의 완성과 함께, 접근 방식이 제도에서 은혜로, 제사장에서 그리스도로 전환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 사건은 마태·마가·누가, 곧 모든 공관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완결은 신약 교회 안에서 '전 성도 제사장직'으로 구현된다. 이집트 탈출 직후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출 19:6)라고 하신 약속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 공동체로 확장된다. 베드로는 교회를 가리켜 "살아 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이며, 영적 희생물을 드릴 거룩한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말한다(벧전 2:5, 9). 이는 피 흘리는 희생물을 반복해서 드리라는 뜻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를 기초로, 성도 자신을 거룩하고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고(롬 12:1), 찬양과 나눔의 희생을 계속 올려 드리는 삶의 방향을 가리킨다(히 13:15–16).

여기에서 신약의 핵심 변화가 드러난다.

첫째, 접근 방식의 변화이다.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만이 정해진 날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백성은 그 접근 자체를 직접 누릴 수 없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으므로 성도는 더 이상 인간 제사장을 통할 필요가 없다. 성경은 우리가 '위대하신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며, 은혜의 왕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긍휼과 은혜를 얻으라고 권면한다(히 4:14–16). 이는 접근 권한이 특정 직분자에게 제한되던 체제가 끝나고, 모든 믿는 자에게 열렸음을 의미한다.

둘째, 공간 이해의 변화이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특정 장소에 상징적으로 머무는 공간이었으며, 헌물과 희생물을 바치는 것이 그 중심을 이루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배당 자체가 성막이나 성전이 되지 않는다. 예배당은 성도들이 모여 말씀을 듣고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구별된 장소일 뿐이다. 따라서 강단은 제물이 올려지는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이다.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 이후에는 더 이상 제단 중심의 공간 개념이 아니라 말씀과 공동체 중심의 예배가 요구된다.

셋째, 직분 이해의 변화이다.

신약에서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라 목자이다. 그는 속죄를 집행하거나 제사를 드리는 집례자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양 떼를 돌보는 사역자이다. 신약 성경은 목회자를 양 떼를 먹이고 보호하며 인도하는 자로 묘사하지, 죄를 속하거나 희생물을 반복해서 드리는 자로 묘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특정 인물을 제사장으로 부르며, 제사를 계속해서 드린다고 말하는 체계는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와 구속의 완결을 전제로 하는 신약 교회의 질서와 어긋난다. 신약 교회의 모든 직분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사역을 증언하고 섬기는 역할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상의 세 가지 변화는 신약 교회의 실천적 방향으로 이어진다. 제사장들의 24계열이 시간과 조직 속에서 거룩함을 구현했듯이, 신약 교회도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해야 한다(고전 14:40). 그러나 그 질서는 완결된 속죄를 대체하지 않으며, 의식은 은혜의 수단이지 속죄의 근거가 아니다. 또한 '전 성도 제사장직'은 가정과 일터, 일상으로 확장된다. 성도는 위기와 고통의 순간마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특권과 책임을 가진다. 가정의 식탁에서 말씀을 읽고 감사와 중보를 드리며,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는 삶이 곧 신약 교회의 기본 질서이다.

결국 다윗이 정비한 24계열의 제사장 체계는 거룩한 질서의 역사적 구현이었고, 그 질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결로 전환되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서

서 섬겼고, 그리스도는 앉으셨다. 구약의 반복되는 희생은 교육이었고,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는 구원이었다. 이제 교회는 과거의 그림자에 머무르지 않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완결 위에서 모든 성도가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가정과 교회, 일터와 삶 가운데서 드리는 말씀 순종과 찬양, 나눔과 긍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희생이다. 그리고 그 희생은 오직 하나의 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희생에 근거해 영원히 유효하다.

나답과 아비후 사건의 교훈

레위기의 제사장 제도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단지 그 제도의 '구조'를 아는 데에서 그쳐서는 부족하다. 제사장의 자격과 직무, 위임 절차와 규정, 의복 등을 아무리 자세히 안다 해도 그 모든 규례가 '왜' 그토록 엄격하게 정해졌는지, 그리고 그것을 벗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지 못한다면, 제사장 제도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

나답과 아비후 사건은 제사장 위임 기사(레위기 8–9장)의 절정 바로 뒤에 배치되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와 '사람이 자의로 꾸민 예식'의 차이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다. 레위기 9장은 제사장 위임 행사가 마무리되고 '주님께서 받아 주심'이 공적으로 확인되는 장면이며, 레위기 10장은 그 은혜의 자리에서조차 사람이 '자의'를 섞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 주는 경고이다. 즉, 8–9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나아갈 때 임하는 영광'을, 10장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신 길로 나아갈 때 임하는 심판'을 한 흐름 안에 담고 있다. 따라서 제사장 제도를 논할 때 이를 다루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사건이야말로 레위기 제사장 제도 전체의 핵심 원리를 분명하게 확증하는 사례이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로서 훗날 대제사장 직분의 계승이 기대되

던 인물들이었다. 더구나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함께 시내 산에 올라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자들이었다(출 24:1–2, 9–10). 다시 말해, 그들은 규례와 경고를 '알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두신 자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게 하신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세우신 직무의 자리에서 그들은 '주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이상한 불'을 드렸다. 본문이 부각하는 비극은, 그들이 규례를 알지 못하는 초보자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가장 먼저 불순종'을 범하였다는 데에 있다.

본문은 사건의 핵심을 압축한다.

>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은 뒤 **주**께서 그들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지 아니하신 이상한 불을 그분 앞에 드렸더니 불이 **주**로부터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주** 앞에서 죽으니라. (레 10:1–2)

레위기 9장에서 '주님께서 받아 주심'을 보여 준 불은 속죄 제물을 삼키며 은혜의 표징이 되었으나, 10장에 이르면 동일한 '주님으로부터 나온 불'이 불순종을 삼키며 심판의 표징이 된다. 본문은 의도적으로 9장의 '은혜의 불'과 10장의 '심판의 불'을 서로 마주 세워, 예배의 수용과 거절이 '분위기'나 '열심'이 아니라 '명령과 순종'에서 갈린다는 사실을 가르친다.

모세는 즉시 사건의 신학적 의미를 선언한다.

>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내게 가까이 오는 자들 가운데서 내가 거룩히 구별되며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론이 침묵하니라. (레 10:3)

여기에서 핵심은 '가까이'와 '거룩히 구별되며'라는 말에 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은 '창의'나 '자의'로 열리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함의 방식으로만 열린다. 그리고 "아론이 침묵하니라."라는 짧은 문장은



이상한 불을 드린 나답과 아비후

지도자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보인 절제와 복종,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수용적 태도를 드러낸다. 그 침묵은 무기력한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으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침묵이다.

두 제사장의 과오는 여러 차원에서 드러난다.

첫째, 이상한 불의 출처 문제이다. 분향 제단에서 드리는 향은 아무 불로나 할 수 없었다. 번제 헌물 제단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유지되는 불을 취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원리가 전제되어 있다(레 16:12 참조). 출애굽기에서는 이미 '이상한 향'과 '임의의 집례'를 경고한 바 있다.

너희는 그 위에 이상한 향을 드리지 말고 태우는 희생물이나 음식 헌물도 드리지 말며 그 위에 음료 헌물을 붓지 말지니라. (출 30:9)

'이상한 향'과 '이상한 불'은 본질상 같은 범주에 속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예배의 '원천'(출처)과 '방식'(절차)을 모두 무시하였다.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행위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길' 위에서만 가능하다.

둘째, 동선과 시점의 문제이다. 레위기 16장은 바로 이 사건을 배경으로, 대제사장조차 '아무 때나'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 아론의 두 아들이 **주** 앞에 헌물을 드리다가 죽으매 그들이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말하여 그가 아무 때나 성소 안으로 휘장 안쪽의 궤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 앞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래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긍휼의 자리 위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니라. (레 16:1–2)

본문이 말하는 바는 간단하다. 예배에는 '허락된 때'와 '허락된 길'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과 허락하지 않으신 것의 경계는 직분이 높을수록 더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단지 불만 잘못 가져온 것이 아니라 절차·시점·접근의 경계를 함께 흐렸을 가능성이 크다.

셋째, 정신적 맑음과 분별의 문제이다. 사건 직후 하나님께서 곧바로 포도주·독주 금지를 제사장 규정으로 주셨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 너나 너와 함께하는 네 아들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것은 너희가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그러면 너희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아니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사이에 구별을 두고 이로써 **주**가 모세의 손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 모든 법규들을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레 10:9–11)

문맥상 이 구절은 단순한 건강 수칙이 아니라 두 사람의 실패가 '분별의 붕괴'와 연결되어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제사장은 단지 의식을 수행하는 사

람이 아니라 거룩함과 속됨의 경계를 '판단'하고 '가르치는' 자이다. 대언자 에스겔도 같은 원리를 언급하였다.

> 어떤 제사장이든 안뜰로 들어갈 때에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또 그들은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를 가르치고 그 *백성*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하게 할지니라. (겔 44:21, 23)

술 취함은 단순히 술의 문제가 아니라 분별을 흐리고 경계를 무너뜨리는 상태 전체를 가리키는 경고로 이해해야 한다.

사건 직후의 처리 또한 거룩함의 엄정성을 더욱 분명히 보여 준다. 미사엘과 엘사반이 시신을 진영 밖으로 옮겼고(레 10:4–5), 아론과 남은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으며 슬픔을 나타내는 일반 관습을 행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었다(레 10:6–7). 이는 '성소의 기름 부음' 아래 있는 자의 공적 직무는 개인감정보다 먼저 거룩함의 보전을 요구받는다는 원리를 보여 준다.

이어지는 단락에서 모세가 '죄 헌물'의 고기가 규정대로 처리되지 않은 일을 문제 삼지만, 아론이 그날의 비상 상황을 근거로 양심과 정직함으로 설명하자 모세가 이를 좋게 여겼다는 결말(레 10:16–20)은 중요한 균형을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자의적 변형'이 아니라 규정 안에서 드러나는 성실함과 진심이다. 규정은 임의로 바꿀 수 없는 질서이지만, 그 목적은 사람을 짓누르는 형식주의가 아니라 거룩함을 지키는 순종에 있다.

구약의 거룩함의 흐름을 살펴보면, 언약 공동체의 '기초'가 세워지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엄중히 개입하셨다. 성막 희생 제도가 막 출범할 때의 나답과 아비후 사건(레 10장), 공동체 권위가 도전받을 때의 고라 사건(민 16장), 언약궤를 사람의 방식으로 다루다 죽은 웃사 사건(삼하 6:6–7), 그리고 교회 출범기에 성령님을 속인 아나니야와 삽비라 사건(행 5장)은 모두 같은 계열의 경고이다.

이 사건들에서 드러난 공통 교훈은 명확하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백성일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식은 더욱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여야 한다는 점이다. 말라기는 제사장 직분의 본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그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나니 이는 그가 군대들의 **주**의 사자이기 때문이니라. (말 2:7)

즉, '하나님께 가까이 있음'은 특권이면서 동시에 위험한 자리이기도 하다. 가까이 갈수록, 거룩함의 기준도 더욱 분명하고 더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배 신학의 언어로 옮기면, 이 본문은 이른바 '예배의 규정성 원리'(regulative principle)를 강조하며 가르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의해 규정되며,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신 것'을 핵심 요소로 들여오는 자의성은 위험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다만 이것이 모든 형식의 변화나 기술의 사용을 일괄 정죄한다는 뜻은 아니다. 문제는 '핵심 명령의 변경'이다.

무엇이 복음의 제단에서 온 불이고, 무엇이 사람이 피워 올린 이상한 불인지 분별해야 한다.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즉흥성과 과시가 실제로는 경계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다. 시편의 언어대로 예배는 '떨며 기뻐서' 드려야 한다(시 2:11). 기쁨은 방종이 아니고 떨림은 억압이 아니다. 거룩한 기쁨은 순종의 울타리 안에서 가장 밝게 빛나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레위기 10장의 '술' 규정은 단순 금주 조항을 넘어 '분별을 흐리는 모든 것'에 대한 경계로 확장된다. 물리적 음주뿐만 아니라 감정 조작, 권력욕, 번아웃(과도한 피로와 심신이 지친 상태), 분노와 경쟁심 같은 '영적 취기' 역시 공예배의 분별을 흐릴 수 있다. 공적 직무 수행자는 맑은 정신과 절제로 섬겨야 하고, 공동체는 지도자의 카리스마—개

인적 권위, 인격적 매력이나 역량—보다 '말씀에 따른 공적 규정'을 신뢰해야 한다.

예배의 중심이 '사람이 만들어 낸 분위기'로 전락하는 순간, 제단에서 온 불이 아니라 '자의적인 이상한 불'이 예배를 지배하게 된다. 반대로, 규정에만 매달리면서 교만하고 이웃 사랑을 멸시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삼상 15:22). 본문이 요구하는 것은 '자의'를 제거하는 일이지, '마음'을 제거하는 일이 아니다.

끝으로 이 사건은, 늘 서서 봉사한 구약의 제사장과 대비하여 '자리를 정하고 앉으신 대제사장'의 복음을 더욱 밝게 비춘다. 공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그분의 단번 속죄와 중보 위에 있어야 하며, 예배의 불은 언제나 '제단'—곧 복음—에서만 취해 사용해야 한다. 사람이 피운 불이 아니라 주님께서 붙이신 불만이 하나님의 회중을 살린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예배가 규정에서 벗어나는 순간 곧 심판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엄중한 경고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열렸고(히 10:19-22), 그 길을 걷는 방식 또한 그분이 정하신 규례 안에서의 순종과 분별이어야 한다.

절제의 교훈

위에서 살펴본 나답과 아비후 사건은, 예배의 자리에서 흐트러진 분별과 자의적 행위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를 분명히 보여 준다. 문제의 핵심은 '이상한 불'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데 있었다. 예배는 인간의 열심이나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에 순종하는 자리이다.

이 사건 직후 제사장들에게 곧바로 내려진 금주 규정(레 10:9)은 우연한 덧붙임이 아니다. 이는 나답과 아비후가 판단과 분별이 흐려진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는 취함이나 감정의 고조 속에서가 아니라, 맑은 정신과 깨어 있는 경외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한다.

성경이 요구하는 기쁨은 방종이 아니며, 자유는 무질서가 아니다. 성도는 언제나 거룩함의 질서 안에서 예배드려야 한다. 그러므로 성도는 분별을 흐릴 수 있는 요소를 멀리하고,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삶 전체에서 절제를 훈련해야 한다. 예배는 한 시간의 행사가 아니라, 깨어 있는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니시며, 기쁨 없는 예배를 요구하지도 않으신다. 절제와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그분은 동시에 자녀를 깊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도 하다. 그러므로 나답과 아비후 사건에서 드러난 엄중한 심판조차,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도록 이끄시는 사랑의 징계로 이해할 수 있다.

주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히 12:6)

술과 담배에 대하여

나답과 아비후 사건은 단지 고대 이스라엘 제사장에게만 해당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신약의 모든 성도를 '왕가의 제사장'이라 선언한 이상, 구약 제사장에게 적용되던 원리는 오늘날 모든 성도에게도 영적으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나답과 아비후 사건에서 제기되는 술 문제 역시, 단순히 고대 제사장의 일회적 실수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 오늘날 '왕가의 제사장'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실제적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더 나아가 이는 단순히 술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담배를 비롯하여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할 수 있는 모든 요소에 대한 원리적 기준을 제시한다.

나답과 아비후 사건에서는 술 문제가 함께 언급되기는 하지만, 이 본문은

단순히 '술을 마셨는가, 마시지 않았는가'를 따지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다. 이 주제를 다룰 때마다 "술이 죄인가?", "음주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문화적 음주는 괜찮은가?",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인가?"와 같은 질문이 뒤따른다. 그러나 성경은 이를 단순한 허용·금지의 목록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성경이 문제 삼는 대상은 술 자체라기보다 술이 사람의 판단과 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이다. 핵심은 행위의 외형이 아니라,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의 분별력과 거룩함을 무너뜨리는가에 있다. 그래서 성경적 접근은 "마셔도 되는가?"라는 질문에서 멈추지 않고,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이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이 본문을 토대로 술과 담배 문제를 차분히 살펴보고자 한다.

술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술은 일관되게 경계의 대상으로 등장한다. 술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의 수단으로 제시하는 본문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술이 가져오는 분별 상실, 절제의 붕괴, 도덕적 추락을 경고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노아이다. 믿음의 조상인 노아는 방주를 지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술 앞에서는 무너졌다.

> 노아가 농부가 되기 시작하여 포도원을 세우고 포도주를 마신 뒤 취해 자기 장막 안에서 덮지 않은 채 있었더니 (창 9:20–21)

이 본문은 술이 사람을 넘어뜨리는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술이 죄의 직접적 '원인'이라기보다, 죄를 드러내고 촉진하는 촉매였다. 술이 노아의 인격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던 연약함을 드러낸 통로가 된 것이다. 지혜 문학인 잠언은 이 점을 더욱 분명하게 말한다.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이므로 누구든지 그것들에 의해 속는 자는 지혜롭지 아니하니라. (잠 20:1)

여기에서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사람을 속이는 존재로 묘사된다. 술의 위험은 바로 이 점에 있다. 술을 마시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판단력이 서서히 흐려진다. 이러한 이유로 잠언은 특히 지도자와 책임 있는 자들에게 술 문제를 더욱 엄격하게 다룬다.

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마시는 것은 통치자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잠 31:4)

지도자에게는 판단과 분별이 생명과 같다. 술은 이 핵심 자질을 직접적으로 침식한다. 잠언 31장은 고통 속에 있는 자에게 일시적으로 독주를 주는 예외적 상황을 언급하지만, 이는 의료적·극단적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지 일상적 음주를 정당화하는 근거는 아니다.

독주는 망하려는 자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무거운 자들에게 주라. (잠 31:6)

대언서를 보면, 술은 개인 윤리를 넘어 사회적 악과 연결된다. 이사야서 5장은 술을 즐기는 자들이 정의를 굽게 하고 약자를 억압하는 현실을 고발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되 밤이 될 때까지 계속 *따라가* 마침내 포도주로 붉게 된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사 5:11)

포도주를 마시는 데 용감한 자들과 독주를 섞는 힘센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사 5:22)

신약 성경은 이 흐름을 더욱 분명하게 이어 간다. 술은 성령 충만과 정면으

로 대비된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엡 5:18)

여기에서 술과 성령님은 단순 비교가 아니라 지배권의 대조를 이룬다. 술은 감각을 마비시키지만 성령님은 영을 깨우신다. 또한 신약은 성도의 기본자세를 '맑은 정신'과 '깨어 있음'으로 규정한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벧전 5:8)

교회 지도자의 자격에서도 같은 기준이 반복된다. 장로와 감독, 즉 목사는 절제하고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딤전 3장; 딛 1장). 이는 지도자만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지향해야 할 삶의 모범을 보여 준다. 따라서 술 문제는 '합법인가 불법인가'가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성경은 술을 단순한 생활 습관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술은 종종 더 큰 죄로 들어가는 문이 되기 때문이다. 작은 허용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대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전 5:6)

와인(wine)

술에 대해 말할 때 성경에는 '와인'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이 말이 가리키는 범위가 넓다 보니 오해가 생기기 쉽다. 성경의 와인 관련 용어인 히브리어 야인과 그리스어 오이노스는 문맥에 따라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가리키기도 하고, 발효된 포도주를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논의의 출발점은

"이 단어는 항상 술을 뜻한다."라거나 "항상 포도즙만 뜻한다."라는 식의 단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핵심은 각 본문이 놓인 문맥과 성경 전체의 상징 체계를 함께 살피는 데 있다. 성경의 전반적 흐름을 보면, 술은 축복의 핵심 요소로 제시되기보다 반복적으로 경계의 대상으로 등장한다. 특히 잠언 23장은 포도주가 지닌 유혹의 작용을 매우 생생하게 묘사한다.

> 너는 포도주가 붉거나 잔에서 제 빛깔을 내거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에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마침내 그것이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며 (잠 23:31–32)

이 본문은 술의 미적·감각적 매력이 어떻게 판단을 흐리고 파국으로 이끄는지를 보여 준다. 그래서 성경의 기본 태도는 허용선을 넓히는 데 있지 않고, 분별을 지키기 위한 경계를 세우는 데 있다.

이러한 경계 의식은 구약의 예배와 명절 구조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성경에서 '누룩'은 반복적으로 부패, 혼합, 교만의 상징으로 사용되며, 무교절은 누룩을 제거하는 명절이다. 이 상징체계 안에서 보면 발효와 부패의 이미지를 지닌 요소를 거룩한 예식의 중심에 두는 일은 구조적으로 긴장을 일으킨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주의 만찬에서도 누룩 없는 빵과 함께, 누룩으로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사용하는 것이 상징의 일관성을 지키는 선택이 된다. 이는 예수님의 순수한 살과 피를 가리키는 표징과도 조화를 이룬다.

또한 성경에서 '포도즙 틀'(winepress)은 포도를 압착해 즙을 얻는 장소로 묘사된다. 이는 처음부터 발효된 술을 생산하는 시설이 아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포도즙 틀은 바위를 깎아 만든 고정 구조로, 위에서 포도를 밟으면 나오는 즙이 아래 웅덩이로 흘러 모이도록 되어 있었다. 이곳은 발효 이전의 포도즙을 얻는 장소로서 수확의 기쁨과 하나님의 공급을 상징하였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가져온 것도 빵과 포도즙이며(창 14:18), 성경에서 축복의 상징은 일관되게 '생명'과 '공급'이지 술 취함이 아니다.

이 지점에서 흔히 "약한 와인은 괜찮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도 와인을 마

시지 않았느냐?" 등의 반론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용어와 문화적 배경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데서 비롯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은 누룩 없는 빵과 함께 등장하며(마 26:29), 유월절과 무교절의 상징 구조 안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 명절 맥락에서 발효된 술이 예식의 중심에 놓이는 것은 앞서 살펴본 상징 구조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마신 것이 알코올이 포함된 술이 아니라,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이었다고 보는 해석이 문맥과 상징의 일관성에 부합한다.

실제로 오늘날 요르단 강 인근을 비롯한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주의 만찬 용도로 알코올이 전혀 없는 포도즙이 판매되고 있으며, 제품에는 '0% 알코올 와인'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현대적 타협이 아니라, 유대 명절과 예배 전통 안에서 포도즙이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지를 보여 주는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문제는 도수의 강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에서 무엇이 판단과 분별을 흐릴 수 있는가에 있다. 성경은 "얼마나 약한가"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거룩함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결론적으로 성도는 "얼마나 마셔도 되느냐"를 묻기보다, "왜 굳이 가까이하려 하는가"를 스스로 물어야 한다. 영적 분별을 흐릴 가능성이 있는 영역에서는 그러한 가능성을 유발하는 요소를 멀리하는 것이 지혜이다.

담배

술 문제와 더불어 흡연 문제 역시 교인들 사이에서 자주 제기되는 관심사 가운데 하나이다. 담배는 성경에 직접 언급되지 않으므로, "담배를 피우면 곧바로 죄이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위험이 있다. 동시에 "성경에 없으니 문제없다."라고 말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

성경은 이러한 사안들을 개별 규정으로 다루기보다 사람의 상태와 방향을 분별하는 원리를 통해 판단하도록 이끈다.

첫째,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전 6:19–20)

담배가 몸에 해를 끼친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입증된 의학적 결론으로, 개인의 취향이나 기호의 문제가 아니다. 흡연이 호흡기와 심혈관계에 심각한 부담을 준다는 사실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둘째, 이웃 사랑의 원리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너는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 22:39)

흡연자가 내뿜는 연기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계 위험을 높이므로,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다. 특히 스스로 환경을 선택하기 어려운 가족과 아이들, 노약자와 같은 약자들에게 간접흡연은 더 큰 부담이 된다.

셋째, 절제의 원리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의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고전 6:12)

담배는 강한 중독성을 통해 사람을 점차 나쁜 습관의 지배 아래 두게 만든다. 처음에는 선택처럼 보이지만, 반복될수록 의지는 약해지고 행동은 자동화된다. 니코틴 중독은 단순한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보상 체계를 자극하여 스스로 멈추기 어렵게 만드는 생리적 의존성을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이 담배를 통제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담배가 일상의 리듬과 감정 상태를 좌우하게 된다. 긴장과 피로, 쉬는

시간의 리듬, 심지어 감정의 기복까지도 흡연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상태에 이르면, 습관은 더 이상 중립적인 반복이 아니라 사람을 지배하는 힘이 된다. 성경이 경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태이다.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보다 붙들어 매고, 의지를 강화하기보다 약화시키는 요소는 신앙의 방향과 어긋난다. 결국 담배의 중독성은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를 넘어, 지금 나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육신의 욕구인지를 묻는 신앙적 질문으로 이어진다.

이 모든 점을 고려할 때, 담배는 구원을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거하시는 몸을 귀히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어떤 것에도 지배받지 않는 자유를 추구하는 성도에게 금연은 분명히 지혜롭고 경건한 선택이다.

실제적 적용

정리하면 이 문제는 구원 여부를 가르는 1차 기준이 아니라 성화와 순종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성화를 가볍게 여기면 신앙은 반드시 병든다. 술과 담배 문제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나는 지금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성경은 성도를 중독에서 자유로, 혼탁에서 맑음으로, 자의에서 순종으로 부르신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는 내 자유보다 형제의 유익을 우선해야 한다.

>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네 형제를 쓰러뜨리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하니라. (롬 14:21)

끊기를 원하는 이들을 위해 몇 가지 실천 원칙을 덧붙인다.

첫째,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의 공백을 채워야 한다.

술과 담배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외로움·긴장·피로를 달래는 대체물이

되기 쉽다. 마음이 비어 있을수록 다른 무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일은, 습관이 차지하던 자리를 성령의 위로로 채우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

둘째, 동행자와 책임 동반자를 두어야 한다.

혼자 결심하면 쉽게 무너지지만, 함께 점검하면 지속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가족이나 소그룹, 또는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과 자신의 상태를 나누고 정기적으로 점검받는 일은 큰 도움이 된다. 이는 감시가 아니라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 붙들어 주는 동행의 지혜이다.

셋째, 일상 루틴을 바꾸어야 한다.

흡연이나 음주는 대개 특정 시간, 장소, 감정이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 순간을 인식하고, 산책을 하거나 물을 마시며, 짧게라도 기도하는 등 다른 행동으로 대체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습관은 의지만으로 끊기보다 새로운 반복으로 대체될 때 약해지기 때문이다.

넷째, 필요하다면 전문적 도움을 받아야 한다.

금연 보조제나 상담, 의료적 도움을 받는 것은 믿음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선택이다. 몸의 문제를 몸의 방식으로 돕는 일이 신앙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성경은 언제나 무모함보다 지혜로운 행동을 권한다.

다섯째, 넘어졌을 때 즉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실패했다고 모든 일이 끝나지 않는다. 중요한 점은 포기하지 않는 태도이다.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다시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좌절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과정 자체가 성화이며 믿음의 성장이다.

성경적 원칙과 방향

술과 담배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성경은 술에 대해 일관되게 경계하며, 특히 판단과 분별을 흐리게 하는 상태를 엄중히 다룬다. 그러므로 술은 가능하면 멀리하는 편이 지혜이며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 담배의 경우 성

경에 직접적인 언급은 없기에 곧바로 죄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담배가 몸을 해치고 중독을 낳으며, 이웃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인적 몸의 관리와 이웃 사랑, 그리고 절제의 원리에 따르는 차원에서 끊는 일이 분명히 바람직하다.

>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후 7:1)

무엇보다 핵심은 개별 행위의 허용 여부를 따지는 데 있지 않다. 복음은 언제나 "어떤 것의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말라."라는 자유로 우리를 부르며, 그 자유를 자기중심이 아니라 사랑의 방향으로 사용하라고 가르친다(고전 6:12).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와 이웃을 향한 책임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늘 함께 점검해야 한다.

>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전 10:31)

이처럼 절제와 자유의 균형을 배우고 훈련해 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의 길이다. 이는 단순히 무엇을 끊느냐 마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삶 전체가 성령의 다스림 아래 정돈되어 가는 길이며, 예배를 더욱 맑고 거룩하게 지켜 가는 실제적인 열매라 할 수 있다.

목회적 질문과 균형

현실적인 질문에 대해 살펴보자.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교회에 올 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더 자주 와야 한다. 예배는 의인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이기 때문이다. 상한

마음과 연약함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다만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다. '계속 마시는 습관'과 '계속 피우는 습관'은 성숙함의 증표가 아니다. 성경은 습관이 주인이 되는 삶을 경고한다. 동시에, 외적 습관 하나만으로 신앙의 깊이를 재단하는 태도 역시 경계해야 한다. 교만과 비판, 정욕과 미움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용에는 균형이 필요하다. 자신에게는 엄격하되, 다른 이에게는 은혜로워야 한다.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권면해야 한다. 스펄전과 같은 위대한 설교자도 한때 담배를 피웠다는 사실은 담배가 유익하거나 정당화하는 근거가 아니라 외적 습관 하나로 영적 깊이를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4]

공동체 차원의 지침 역시 분명해야 한다. 흡연실을 따로 마련하여 흡연을 용인하거나 장려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중 보건과 이웃 사랑의 원리에 따라 건물 내 흡연을 제한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사람을 밀어내어서는 안 된다. 교회의 역할은 배척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유와 절제를 배우도록 돕는 데 있다.

'술'의 경우도 동일하다. 회식이나 가족 행사에서의 선택은 각자의 신앙 양심과 이웃 배려의 원리로 판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 기준을 잊지 말아야 한다.

---

4. 찰스 스펄전이 20대 초반, 런던 사역 초기에 잠시 담배를 피웠다는 사실은 종종 오해를 낳지만, 그것이 담배를 옹호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는 담배를 교리적으로 정당화하거나 본보기로 삼지 않았고, 오히려 무엇이든 사람을 지배하면 죄가 된다는 원리를 분명히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자신의 습관이 다른 성도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곧 담배를 끊었다. 당시에는 담배의 해로움이 오늘날처럼 분명히 알려지지 않았던 시대적 배경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스펄전의 사례는 담배의 허용이 아니라 연약함을 인식하고 절제와 책임 있는 결단으로 나아간 성화의 본보기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전 10:31)

요약하면 술과 담배의 문제는 단순한 생활 규칙을 둘러싼 논쟁이 아니다.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금지할지를 따지는 차원을 넘어,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영적 질문 앞에 서야 한다. 다시 말해, 이 문제는 외형적 행위의 옳고 그름을 재단하기보다 우리의 판단과 욕구, 습관과 선택이 무엇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돌이켜 살펴야 한다.

성경은 이러한 사안을 언제나 분별과 절제의 방향으로 이끈다. 더 나아가, 신앙인의 삶이 어떤 물질이나 습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다스림 아래 놓여야 함을 분명히 한다. 그래서 술과 담배의 문제는 규칙을 지키느냐 어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며 누구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지를 드러내는 척도이다. 기준은 언제나 거룩함이며, 그 거룩함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의 자유로운 순종으로 완성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론

레위기 8장부터 10장에 기록된 제사장 제도는 단순한 종교 의식의 집행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백성 사이를 잇는 구속사적 다리였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서 친히 취하시고 세우신 자로서, 희생 제도를 집행하고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였다(히 5:1).

율법 수여 이전에는 각 가정과 족장 단위에서 제사장의 기능을 담당하였으나, 시내 산 언약 이후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오직 아론의 가문만을 제사장들로 구별하셨다. 이는 제사장 직분이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근거함을 분명히 보여 준다.

고라의 반역과 사울 왕, 웃시야 왕에게 임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거룩한 질서를 침범하는 행위가 얼마나 엄중한 결과를 낳는지를 역사 속에 각인시켰다. 여기에 더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예배의 자리에서 자의적 판단과 흐트러진 분별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 주는 또 하나의 경고였다.

특히 이 사건 직후 제사장들에게 내려진 금주 규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요구되는 태도가 단순한 열심이나 감정이 아니라 맑은 정신과 절제된 분별임을 분명히 한다. 이는 술 자체의 허용 여부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의 판단과 태도를 흐릴 수 있는가를 묻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술이나 담배처럼 분별을 흐릴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을 멀리하는 태도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거룩함을 지키려는 신앙적 경계라고 할 수 있다.

제사장들은 제단에서 희생물을 드리고 성소의 불과 등불을 관리하며, 보여 주는 빵을 배치하고, 향을 사르는 일상적 봉사뿐만 아니라 거룩함과 속됨을 가르치고, 정결 여부를 판정하며, 백성을 축복하고, 어려운 재판에 참여하는 등 공동체 전반의 영적 질서를 책임졌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 민족 전체의 죄를 속하는 유일한 중보자였으며,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직분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제도는 실체 그 자체가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 사역을 미리 보여 주는 그림자였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날마다 서서 같은 희생물을 반복해 드렸으나 죄를 제거할 수 없었다. 반면 그리스도께서는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서 있음'과 '앉으심'의 대비는 구약 제사의 한계와 신약에서의 완성을 선명히 드러낸다.

따라서 신약 시대 교회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의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다.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 모든 믿는 자가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하나님께 나아

갈 수 있게 되었고, 전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질서가 수립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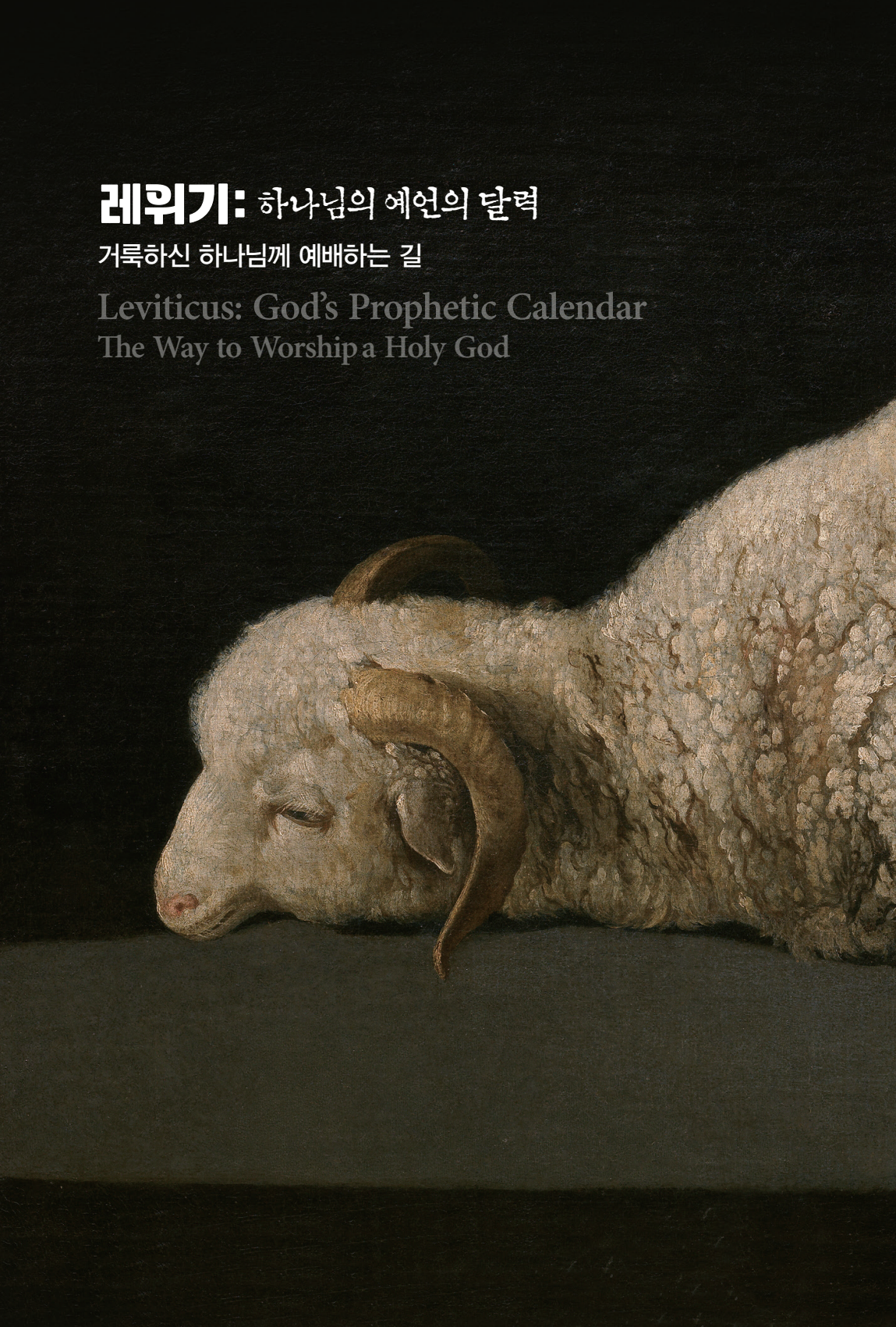
이제 우리는 과거의 반복되는 희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 위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며, 찬양과 나눔의 예배를 계속 올려 드려야 한다. 구약 제사장 제도를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신약의 복음을 더욱 깊이 감사하게 되며,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특권만 아니라 거룩함과 절제의 책임 또한 분명히 인식하게 될 것이다.

레위기: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

Leviticus: God's Prophetic Calend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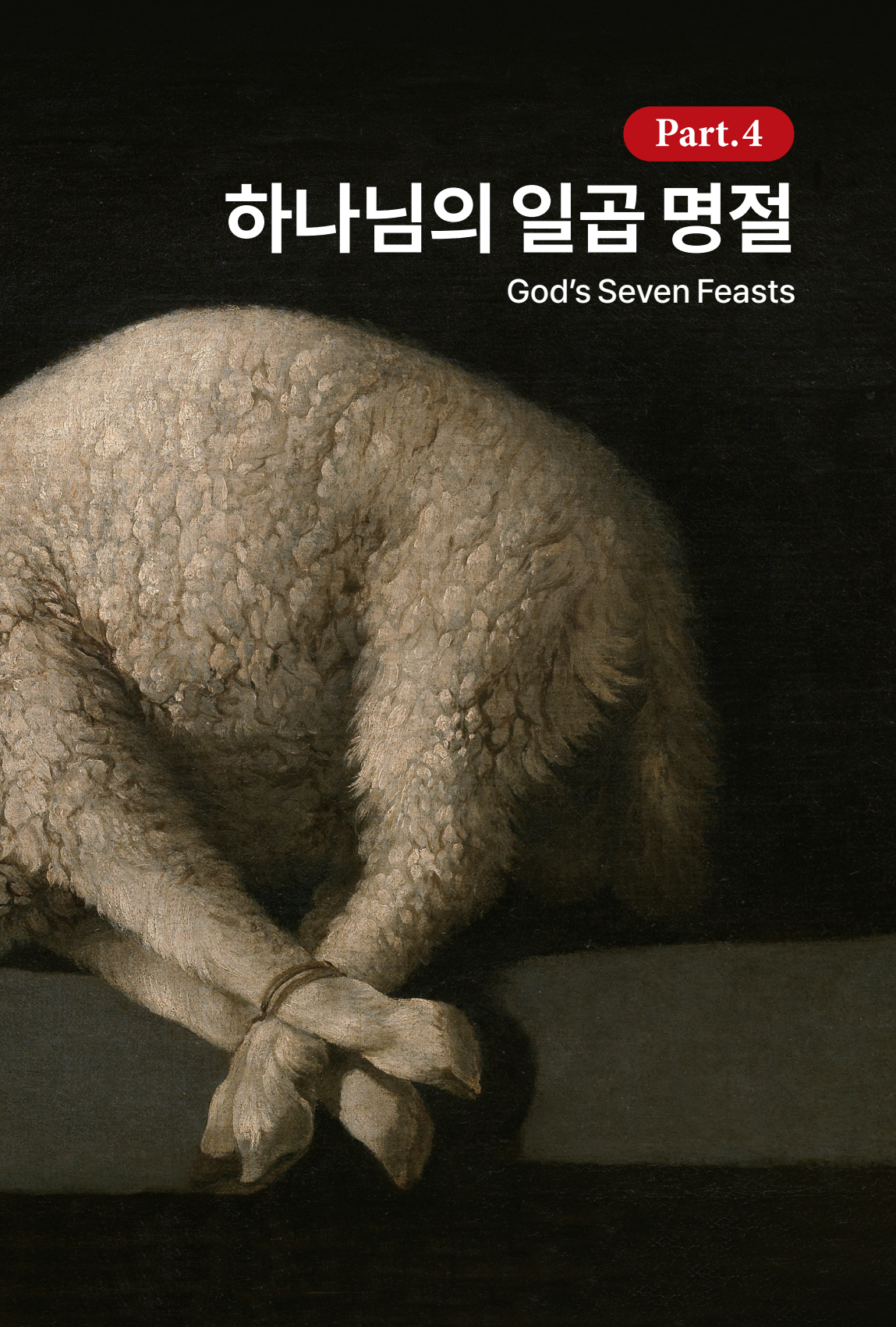
The Way to Worship a Holy God



Part.4

하나님의 일곱 명절

God's Seven Feasts



제4장 하나님의 일곱 명절

레위기 23장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구속받은 백성이 예배의 리듬 안에서 살아가도록 정해 두신 '하나님의 달력'이다. 이 장은 단순한 의식 규정의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하신 만남의 때들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와 예언과 예배를 하나로 묶는 신학적 시간표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라는 '공간'과 제사장이라는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시간' 또한 거룩함으로 따로 떼어 놓으셨다. 이 삼중의 구별은 예배가 특정 장소와 특정 순간에만 갇힌 행위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배열하는 삶의 고백임을 드러내 준다. 시간을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하루와 한 해의 모든 흐름을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 아래 새롭게 배열하는 것을 의미한다.

레위기 23장이 제시하는 일곱 명절은 우연히 모인 기념일이 아니다. 그것은 구속사의 큰 줄거리를 시간 속에 새겨 둔 하나님의 서사이며, 동시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부르시고 모으시는 약속된 만남의 때이다. 이 장을 따라가며 우리는 이 명절들이 어떤 구조로 배열되어 있는지, 이스라엘이 그것을 어떻게 지켰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복음과 교회 시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차례대

로 살펴보려고 한다. 이 일곱 명절을 이해하는 일은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의 리듬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시간 사용을 다시 배우는 과정이다.

정해진 때와 거룩하게 소집된 모임

레위기 23장의 핵심 낱말은 '명절들'과 '거룩한 집회'이다.

명절들을 *지킬* 시기에 너희가 선포할 **주**의 명절들 곧 거룩한 집회 *날*은 이러하니라. (레 23:4)

명절로 번역된 히브리어 '모에딤'(moedim)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약속된 만남'을 뜻하고, 거룩한 집회로 번역된 '미크라 코데쉬'(miqra qodesh)는 '거룩함으로 소집된 공적 모임'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소유와 주도권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날들을 '주의 명절들'이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내 명절들'이라고 거듭 못 박으신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주**의 명절들에 관한 한 너희는 그것들을 선포하여 거룩한 집회 *날*로 삼을지니 곧 이것들이 내 명절들이니라. (레 23:2)

이는 이날들이 인간이 임의로 꾸며 낸 기념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지정하시고 일방적으로 초청하신 '하나님의 시간'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 인간이 시간을 마련해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을 내려 주시며 "그때, 그 자리에서 나와 만나자."라고 부르시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역전된 구조야말로 은혜의 본질이다. 우리가 때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신다. 이와 같이 명절들은 본질상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며, 백성은 그 시간에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시

간 주권을 고백하게 된다. 시간은 우리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빌려 쓸 뿐이며 마침내 주인께 돌려드려야 한다.

'거룩한 집회'(holy convocation)라는 말 역시 단순한 모임 공지가 아니다. 그것은 목적을 따라 구별된 부르심이며, 하나님을 위해 따로 떼어 둔 모임을 의미한다.

>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곧 거룩한 집회 *날*이니라. 너희는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주**의 안식일이니라. (레 23:3)

거룩함은 단지 도덕적 무결점을 뜻하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거룩함은 '하나님을 위한 구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명절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 따로 떼어 놓은 시간'이며, '거룩한 집회'는 그 시간에 백성이 실제로 모여 그 구별을 몸으로 증언하는 예배 행위이다. 모이지 않는 명절은 참된 명절이라고 할 수 없다. 모임은 예배의 공공성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가 사적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의 공적 고백임을 선포하는 것이다. 개인의 경건함이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동체의 고백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 신앙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이며, 그 관계는 모임 속에서 눈에 보이게 드러난다.

'절기'가 아니라 '명절'

기존 한글 성경의 '절기'는 '한 해를 스물넷으로 나눈, 계절의 표준이 되는 것'을 뜻하며 자연의 순환과 계절표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레위기 23장이 말하는 '명절들'(feasts)은 '기쁨 가운데 준수하도록 지정된 종교적 기념일', 곧 '하나님께서 정해 두신 만남의 때들'을 뜻한다. 이는 자연의 달력이 아니라 '만남'과 '소환'이 강조된 신학적 달력이다. 일반적인 달력은 계절의 흐름을 표시하지만, 하나님의 명절들은 은혜의 이정표를 세운다. 시간표는 사람

이 만들지만, 이 명절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소유하신다. '절기'라는 표현에는 자칫 인간 중심의 뉘앙스가 스며들 수 있으나, '명절'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더 분명히 드러낸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처럼 'feasts'는 '명절들'로 표현해야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이는 성도의 신학적 시선을 '은혜의 약속된 시간'으로 바로잡아 줄 수 있다. 결국 용어 하나가 본문을 읽는 신학적 방향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일곱 명절의 시간 구조

레위기 23장에 제시된 일곱 명절은 무작위로 나열된 기념일이 아니라 구속사의 흐름을 따라 치밀하게 배열된 하나의 시간 구조이다. 이 명절들은 인간이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사후에 만든 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을 초대하시고 만나 주시기로 미리 정해 두신 거룩한 때였다. 그날들에 공동체는 의도적으로 모여 기뻐하면서 안식을 누리고, 예비한 헌물을 화제(火祭)로 응답함으로써 시간과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공적으로 고백하였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거룩한 집회'와 '정해진 때'라는 표현은 단순한 달력상의 안내가 아니라 시간 자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신학적 선언이다. 하나님께서는 공간만이 아니라 시간도 거룩함으로 구별하시고, 그 구별된 시간 속에서 백성을 만나 다스리신다. 시간의 거룩함은 공간의 거룩함과 더불어 예배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을 이룬다.

명절들의 연간 배열을 살펴보면, 먼저 봄의 네 명절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그 사이에 긴 여름의 공백이 놓인 뒤 가을의 세 명절이 뒤따른다. 이 구조는 단순한 계절 구분이 아니라 구속사와 종말론을 하나의 문장처럼 엮는 시간의 서사이다. 봄의 연속체는 유월절에서 시작해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오순절)로 이어지며 구속의 시작과 죄로부터의 구별, 부활의 첫 열매, 성령님

의 강림과 충만이라는 단계를 차례로 새긴다. 구원은 한순간에 주어지지만, 그 의미는 시간 속에서 점진적으로 펼쳐진다는 사실을 이 네 명절이 함께 증언한다. 이어서 달력에 의도적으로 비워진 여름의 시간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시기이면서 동시에 기다림과 증언 사역의 시기임을 암시한다. 이 침묵의 구간은 정체의 시간이 아니라 열매를 향해 자라가는 인내의 시간이다. 가을의 연속체는 이스라엘을 향한 깨어나라는 부르심, 속죄의 마침, 하나님과의 동거라는 소망을 단계적으로 보여 주며, 구속의 역사가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를 분명히 드러낸다.

봄의 문을 여는 것은 1월 14일의 유월절이었다. 이집트 탈출의 밤, 문설주에 바른 피 아래에서 심판이 넘어간 사건은 '피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원리를 역사의 첫머리에 분명히 새겼다. 이스라엘은 해마다 그 밤을 기억하며, 식탁에서 구속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 주었다. 시간의 중심에 놓인 이 피의 표지는 훗날 하나님의 어린양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유월절의 기억은 단순한 역사적 회상이 아니라 매 세대가 새롭게 참여하고 체험해야 할 구속의 현재성을 품고 있다.

곧바로 다음 날 시작되는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누룩을 제거하는 규례를 통해, 구속받은 백성이 죄의 발효력을 삶에서 몰아내고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함을 훈련시켰다. 가정의 부엌과 식탁, 집 안의 곳곳을 정돈하는 이 일주일은 구원이 한 번의 사건인 동시에, 거룩한 삶의 출발점임을 몸으로 배우게 하는 시간이었다. 제단에서는 '불로 예비한 헌물'이 계속 드려졌고, 백성은 '노역'(勞役), 즉 '몹시 괴롭고 힘들게 노동하는 것'을 멈춤으로 그날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다. 안식은 믿음의 표현이었고, 드림은 감사의 고백이었다.

무교절 가운데 지켜진 초실절은 첫 단을 흔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었다. 이때 흔들어 올린 첫 단은 보리 수확의 시작을 알리는 표지였으며, 모든 수확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고백이었다. 신약의 증언은 이 상징을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실체로 해석한다. 첫 열매가 성소에 봉헌되면 이후의 모든 열매도 역시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 그러므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의 부활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이다. 이 고백이 교회의 믿음이다.

초실절로부터 칠 주(seven weeks)를 더해 오십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곧 칠칠절이었다. 이날은 밀 수확의 마침을 기뻐하는 절정이자, 레위기 23장에서 유일하게 '누룩 있는' 두 덩이의 빵을 흔들어 드리라고 명한 독특한 날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누룩은 대개 제거되지만, 이날의 두 덩이는 하나님께서 누룩 많은 인간 공동체를 은혜로 받으셔서 같은 제단에서 하나로 기쁘게 받으신다는 표징처럼 서 있다. 이는 불완전한 인간을 받아 하나로 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 주는 복음의 예표이다.

이렇게 봄의 네 명절이 구속과 거룩함, 부활과 충만의 의미를 새기고 나면, 달력은 비교적 긴 여름의 공백을 지나 가을로 넘어간다. 전승적으로 초실절에서 오순절까지는 50일, 오순절에서 7월의 나팔절까지는 113일 남짓의 간격이 놓인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간극이 교회 시대, 곧—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기간을 상징한다고 해석해 왔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님의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휴거의 나팔 소리로 교회의 모든 구성원을 불러 모으실 때까지는 긴 기다림과 증언의 시간이 이어진다는 뜻이다.[1] 이 기간은 달력상 비교적 긴 공백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여백의 시간 속에서 '주의 만찬'과 '주의 날'의 예배로 기억을 되새기며, 복음을 들고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한다.

가을의 문은 7월 1일의 나팔절이 연다. 과거 이스라엘에서 나팔 소리는 깨

1.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휴거와 관련된 나팔 소리는 나팔절의 나팔 소리와 동일하지 않다. 나팔절의 나팔은 일곱 명절의 질서 속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울리는 부르심을 뜻하는 반면, 휴거의 나팔은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다. 그러므로 휴거의 나팔은 나팔절 이전에 울리며, 종말론적 시간표로 볼 때 환난기가 시작되기 전, 곧 약 7년 앞선 시점으로 보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나팔절의 모습

어나 모이라는 하나님의 소환을 알리는 신호였다. 들판과 도시, 골짜기마다 울려 퍼지는 그 소리는 "모이라, 깨어나라, 주께서 부르신다!"라는 공적인 부르심이었다. 즉, 나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때를 정해 모이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향해 공적으로 부르시는 날이다. 이 나팔의 상징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 백성임을 분명히 드러낸다. 그러므로 나팔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백성에게 선포하는 도구였다.

이어지는 속죄일은 7월 10일에 지켜졌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언약궤의 긍휼의 자리 앞에 그것을 뿌렸다. 백성은 스스로를 낮추고 금식하며, 애통하고 죄를 슬퍼하며 허물을 고백하였다. 이 날은 죄의 문제가 하나님 편에서 종결되는 날이었고, 장차 오실 대제사장의 사역—단 한 번으로 영원히 이루실—을 예표로 보여 주는 장엄한 그림이었다. 동시에 대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이 언젠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보고 애통하며 민족적으로 회개하게 될 날의 전망과도 맞닿아 있다. 속죄일의 규례는 사회적 함의도 지닌다. 속죄일에 "어떤 노역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종과 나그네, 고아와 과부에 이르기까지 공동체의 가장 약한 지체에게도 동일한 안식과 긍휼을 보장하라는 정의의 요청이었다. 그러므로 속죄일은 신학적으로 엄숙하면서도 사회적으로 평등을 구현하는 날이기도 하다.

가을의 절정을 이루는 장막절은 7월 셋째 주간에 일주일 동안 지켜졌다. 백성은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광야에서의 나그네 시절을 기억하였다. 성전 뜰에서는 물을 길어 올리는 의식과 큰 등잔에 불을 밝히는 의식이 이어졌는데, 물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을, 빛은 메시아 임재의 영광을 상징하였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신다."는 약속을 초막의 기쁨 속에서 미리 맛볼 수 있었다. 대언자 스가랴는 장차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이 명절을 지키게 될 날을 내다보았고, 이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예표로 읽힌다. 신명기 16장은 장막절을 두고 "크게 기뻐하라."라고 명하며, 그 기쁨의 범위를 가족과 종, 레위 사람, 나그네, 고아와 과부까지 확장한다. 명절의 기쁨은 제단 앞 의식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나눔과 정의의 축제가 되어야 했다. 장막절의 기쁨은 배타적이지 않고 포용적이며, 개인적이지 않고 공동체적이다.

이처럼 레위기 23장의 일곱 명절은 시간의 흐름 속에 구속사의 문장을 새긴다. 봄의 네 명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중심으로 피로 말미암은 구속과 누룩 없는 거룩함, 부활의 첫 열매와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으로 성취되었고, 가을의 세 명절은 재림의 지평을 향해 이스라엘의 깨어남과 모임, 속죄의 마침, 하나님과의 동거라는 종말론적 완결을 소망하게 한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명절 사이의 긴 간극은 교회가 지금 살아가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시간—복음을 들고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증언하는 사명의 시간—을 상징하는 여백이다.

이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아우르는 '하나

님의 달력'을 주셨고, 교회는 이를 율법적 의무가 아니라 복음의 리듬으로 배운다. 유월절의 은혜로 시작해 무교절의 거룩함으로 걸음을 옮기고, 초실절의 부활 생명과 오순절의 성령 충만으로 현재를 살며, 나팔절·속죄일·장막절이 가리키는 재림의 소망 속에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만찬과 주의 날의 예배 안에서 이 리듬을 현재적으로 살고, 나그네 같은 세월 속에서도 거룩함으로 시간을 구별하며, 장차 울릴 나팔과 하나님과 함께할 장막의 날을 바라보며 기다린다. 명절의 신학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재의 지침이며 미래의 소망이다. 각 명절의 구체적 규례와 신학적 의미, 그리고 성도의 삶에 주는 실제적 적용은 이어지는 장들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준수 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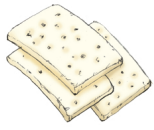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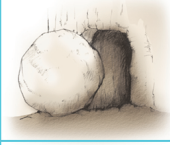
레위기 23장은 각 명절 앞에 거의 예외 없이 세 가지 명령을 붙인다. "거룩한 집회로 모이라", "아무 노역도 하지 말라", "화제 헌물을 드리라." 이 세 가지가 명절의 뼈대를 이룬다. 모임은 공적 고백이며, 안식은 주권 고백이고, 드림은 은혜 고백이다.

모임: 공적 고백

첫째 날에는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그날에는 아무 노역도 하지 말 것이며 (레 23:7)

모이지 않는 명절은 참된 명절이 아니다. 모임은 예배의 공공성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가 사적 감정이 아니라 공적 고백임을 선포한다. 개인의 경건함은 공동체의 고백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림 3〉 이스라엘의 일곱 명절

	구약	내용	신약
1. 유월절 니산월 14일 (레23:4-5; 출12:1-14; 고전5:7)		이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속하셨고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양으로 구약의 예표를 완전히 성취하셨음.	
2. 무교절 니산월 15-21일 (레23:6-8; 출12:15-20; 고전5:6-8)		이 날 이집트의 속박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이 이집트 탈출 여정을 시작했고 신약시대에 유월절 어린양의 영원한 희생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삶에서 죄의 누룩을 제거하며 성화의 여정을 시작함.	
3. 초실절 니산월 17일 (레23:9-14; 창8:4; 수5:10-12; 고전15:20-23)		이 날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 산에 안착했고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으며 또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첫 열매를 먹었음.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날 부활하심으로 구약의 예표를 완전히 성취하셨음.	
4. 오순절 시반월 6일 (레23:15-21; 행2:1)		이 날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과 선물이 새롭게 주어진 날로서 그분께서는 구약시대의 이 날에 시내 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고 신약시대의 이 날에 교회에게 성령님을 주셨음.	
5. 나팔절 티쉬리월 1일 (레23:23-25; 스3:1-6; 느8:2-3; 욜2:1-2)		이 날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날 새로 지은 제단에 첫 예물을 드렸고 구약성경의 대주제인 크고 무서운 주의 날이 이 날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	
6. 속죄일 티쉬리월 10일 (레23:26-32; 출30:10; 슥12:10-11; 슥13:1)		이 날 구약의 첫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했으며 미래에 자기들의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이 이 날 자기들이 찌른 메시아를 바라보며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민족적으로 속죄를 받을 것임.	
7. 장막절 티쉬리월 15일 (레23:33-34; 대하5:2-3; 슥14:16-19)		이 날 솔로몬 성전이 봉헌되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거처를 정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속죄하시기 위해 이 날 오셨으며 미래에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과 민족들이 이 명절을 지킬 것임.	

(유월절부터 오순절까지는 이미 성취되었고 앞으로 나팔절부터 장막절이 성취될 것임)

안식: 주권 고백

첫째 날에는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그날에는 아무 노역도 하지 말 것이며 (레 23:7)

안식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왕권, 즉 주권의 선포이다. 생계와 안전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손을 멈출 수 있다.

일을 멈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주신다."라는 고백이면서, 동시에 "나는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선언하는 것과 같다.

드림: 은혜 고백

제단에서는 '불로 예비한 헌물', 즉 화제 헌물이 계속 드려졌다. 백성은 수확의 첫 열매와 헌물을 통해 "모든 생명과 소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였다. 안식은 믿음의 표현이었고, 드림은 감사의 고백이었다.

이렇게 '모임 – 안식 – 드림'이 하나의 흐름을 이루며 명절의 구조를 형성한다. 백성은 함께 모여 안식함으로써 "시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선포하고, 드림으로써 "생명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한다.

실제로 이 명령들은 경제와 사회, 신앙을 하나로 묶는다. 손을 멈출 수 있는 용기는 믿음에서 나오고, 드림의 너그러움은 은혜의 기억에서 흘러나오며, 모임의 기쁨은 형제 공동체를 세워 준다. 그러므로 명절의 거룩함은 개인 영성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 질서로 구현된다. 신앙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백하는 삶이며, 그 고백은 시간 사용이라는 구체적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 명절들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기쁨이다. 구속을 기억하는 기쁨,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장차 주어질 영광을 소망하는 기쁨이 하나의 리듬으로 엮인다.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즐거운 잔치, 이것이 명절의 본래 모습이다.

순례와 집회의 리듬

레위기 23장의 일곱 명절 가운데 세 명절—무교절, 칠칠절(오순절), 장막절—은 특별히 '순례 명절'로 지정되었다. 신명기 16장은 이 세 명절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반드시 주 앞에 '자신을 보이기 위해' 올라오라고 명한다.

네 모든 남자는 한 해에 세 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주** 네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분 앞에 나타나되 **주** 앞에 빈손으로 나타나지 말고 (신 16:16)

순례 명절은 개인의 신앙을 공동체의 고백 안에 두라는 하나님의 요구이다. 믿음은 사적인 정서가 아니라 공적인 합창이며 백성의 신분은 '모인 회중' 가운데서 확인된다. 예루살렘 성전 시대에는 전국 각지에서 순례 행렬이 이어졌고 레위 사람들의 찬양과 나팔 소리, 백성의 서원과 감사 헌물이 성전 뜰을 가득 채웠다. 순례의 발걸음 자체가 신앙 고백이었으며 함께 모인 회중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 표현이었다.

순례의 발걸음과 여정 자체가 교리를 몸으로 기억하게 하는 역할도 하였다. 그들은 해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며 자신들이 구속받은 백성임을 새롭게 되새겼다. 또한 순례는 세대 간 신앙 전승의 통로였다. 순례길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묻고 부모는 이집트 탈출 이야기를 들려주며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하였다. 이처럼 명절은 교육의 장이 되기도 하였다.

신명기 16장은 장막절을 두고 "기뻐하라."라고 명하며 그 기쁨의 범위를 확장한다.

너는 네 명절에 기뻐하되 너와 네 아들딸과 남종과 여종과 네 성문들 안에 있는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가 *기뻐할지니라*. (신 16:14)

명절의 기쁨은 제단 앞 의식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나눔과 정의의 축제가 되어야 했다. 종과 나그네, 고아와 과부에 이르기까지 공동체의 가장 약한 지체에게도 동일한 기쁨과 안식을 보장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그래서 순례 명절의 기쁨은 배타적이지 않고 포용적이며, 개인적이지 않고 공동체적일 수 있었다.

무교절은 봄의 보리 수확을, 칠칠절은 여름의 밀 수확을, 장막절은 가을의 포도·무화과·올리브 수확과 함께 지켜졌다. 씨 뿌림과 거둠의 전환점마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시간과 열매가 자기 손에 있지 않음을 공동체적으로 고백하였다. 명절은 농사의 성공을 자랑하는 날이 아니라 수확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감사를 드리는 집회였던 것이다.

유대인들의 달력 체계

이스라엘의 달력은 하늘의 달이 차고 기우는 리듬, 곧 음력에 근거해 운용되었다. 한 달은 새로운 달이 처음 보이는 월삭부터 다음 월삭까지의 주기로 계산되었으며 평균 길이가 약 29일 반이었기 때문에, 실제 운용에서는 30일 달과 29일 달을 번갈아 배치하였다. 이로 인해 30일이 되는 달은 '완전한 달', 29일이 되는 달은 '불완전한 달'로 불렸다. 그러나 음력 열두 달의 길이는 약 354일 6시간으로 태양력 한 해보다 10일에서 12일가량 짧았기에 계절과 어긋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통해 이스라엘의 달력은 단순한 날짜 계산표가 아니라 창조 질서의 리듬과 명절의 계절성을 함께 보존하려는 신앙적 시간 체계였음을 알 수 있다.

하루의 경계 또한 오늘날의 자정이 아니라 해가 질 때였다.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니라."(창 1:5 등)라는 창세기의 질서처럼, 유대인의 하루는 해가 지면서 시작되어 다음 날 해 질 때 끝난다. 이러한 시간 감각은 유월절 저녁이

나 무교절 첫날 저녁과 같은 표현이 예배의 리듬과 정확히 맞물리도록 한다. 하루가 저녁에서 시작된다는 원리는 안식과 예배가 노동보다 앞선다는 신학적 순서를 담고 있기도 하다.

달의 시작인 월삭(月朔) 즉, 초하루는 단순한 날짜의 변화가 아니라 시간의 새 출발을 알리는 신앙적 표지였다. 월삭에 나팔을 불고 특별 헌물을 드렸던 관습은, 시간이 우연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새롭게 열림을 증언한다. 달력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날짜를 계산하는 행위가 아니라 시간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신앙의 실천이었다.

이스라엘 달력의 양력 대응은 대략적인 범위에서 이해해야 한다. 종교력의 첫째 달인 니산은 보통 오늘날의 3–4월 무렵에 해당하고, 일곱째 달 티슈리는 9–10월 무렵에 자리한다. 다만 이러한 대응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 이는 달의 주기로 계산하는 음력과 태양의 계절을 맞추기 위해 윤월을 삽입하기 때문이다. 고대에는 천체 관측과 공동체의 공식 선포를 통해 월삭과 윤달이 정해졌고, 후대로 갈수록 계산에 근거한 체계가 점차 정착되었다. 달력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날짜를 계산하는 일이 아니라 창조 질서 안에서 시간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신앙 훈련과 마찬가지였다.

초기 히브리인들은 각 달에 고유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첫째 달, 둘째 달과 같이 숫자로 불렀다. 오늘날 알려진 달 이름들은 주로 바빌론·페르시아 포로기 이후에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유대 달력은 음력을 사용하고 현대 사회는 태양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두 체계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대응은 가능하다. 니산(혹은 아빕, 출 12:2; 13:4)은 3–4월, 이야르(혹은 시브, 왕상 6:1)는 4–5월, 시반(에 8:9)은 5–6월, 담무스(겔 8:14)[2]는 6–7월, 아브는 7–8월, 엘룰(느 6:15)은 8–9월, 티슈리(혹은 에다님, 왕상

2. 담무스(Tammuz)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숭배되던 신으로,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 신화에 등장하는 풍요와 생명의 신이다. 그의 이름은 달(月)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동시에 특정 신적 존재를 지칭하는 우상의 이름으로도 사용되었다. 따라서 '담무스' 는 달을 의미하는 표현이 되기도 하고, 숭배의 대상이 된 우상의 이름이 되기도 한다.

8:2)는 9–10월, 불(왕상 6:38)은 10–11월, 기슬르(슥 7:1)는 11–12월, 데벳(에 2:16)은 12–1월, 스밧(슥 1:7)은 1–2월, 아달(에 3:7)은 2–3월에 대략 대응하게 된다.

음력과 태양력의 계절 사이의 어긋남을 보정하기 위해 윤달이 도입되었다. 전통적으로는 몇 해마다 한 번씩 윤달을 추가하여 봄과 가을의 계절을 제자리에 맞추었으며, 그 과정에서 '둘째 아달'(아달 베트)이 삽입되었다. 후대로 갈수록 이러한 보정은 임의적 판단을 넘어 19년 주기 안에 일곱 번 윤달을 넣는 계산 체계로 정착되었다. 그 결과 음력의 달과 태양력의 계절이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유지될 수 있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달력은 계절을 맞추기 위한 기술적 장치에 그치지 않고 명절들이 제자리를 잃지 않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통치의 기억을 시간 속에 보존하는 신앙적 장치였다. 윤달의 삽입은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들을 창조 질서 속에서 지켜 나가기 위한 신앙적 선택이었다.

종교력과 민간력의 변화

이집트 탈출 사건은 이스라엘의 시간 체계를 새롭게 재편한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이전 관습에서는 가을, 곧 티슈리를 해의 시작으로 삼는 민간력이 중심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넌 직후 "이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라."(출 12:2)라고 선언하시며 봄의 달 니산을 종교력의 첫째 달로 세우셨다. 그 결과 민간력과 종교력 사이에는 여섯 달의 차이가 생겼고 레위기 23장에 규정된 하나님의 명절들은 모두 종교력, 곧 니산을 1월로 삼는 체계를 기준으로 배열되었다. 이 조정은 단순한 달력 개편이 아니라 구속을 시간의 중심에 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이 두 달력은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 오히려 분명한 역할 분담 속에서 함께

작동한다. 종교력은 니산을 시작점으로 삼아 구속을 기억하고 명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었고, 민간력은 티슈리를 시작점으로 하여 토지 안식년과 희년, 왕들의 즉위 연도와 같은 사회·사법·토지 제도를 관리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봄의 첫째 달은 구속의 기억을, 가을의 첫째 달은 왕권과 심판, 회복의 주제를 상기시킨다. 이렇게 시간의 두 축은 서로의 의미를 밝혀 주며, 창조와 구속, 은혜와 통치라는 하나님의 큰 서사를 입체적으로 드러내 주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종교력은 복음의 시간을, 민간력은 통치의 시간을 담당하는 셈이다.

이러한 조정은 행정적 편의가 아니라 구속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였다. 해마다 달력이 새로 시작될 때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피로 구속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시간의 출발점에서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그래서 유월절은 종교력 1월 14일 해 질 무렵에 자리하고, 곧이어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이 이어진다. 무교절 기간의 한가운데인 1월 17일에 초실절이 놓인다. 이러한 시간 배열을 신약의 사건들과 포개어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시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초실절 새벽에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 교회가 주의 만찬에서 누룩 없는 포도즙을 사용하는 것도 이 흐름과 맞닿아 있다. 성경에서 '와인'(wine)은 문맥에 따라 발효 이전의 포도즙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과 거룩한 예식에서는 누룩과 부패의 그림자가 의도적으로 배제된다(레 2:11). 이러한 봄 명절들은 죄와 부패에서 벗어난 새 생명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부활절이 해마다 유월절 시기, 곧 같은 계절 무렵에 돌아오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음력과 양력의 차이로 날짜는 이동하더라도 구속과 부활의 계절이 봄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날짜 계산의 정확성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신학적 의미이다.

초실절로부터 일곱 주(이레)를 헤아려 오십 일째 되는 때가 오순절, 곧 칠칠절이다. 교회는 이날을 성령님의 강림과 복음의 첫 수확을 기억하는 시간으

로 이해해 왔다. 그 이후 달력의 흐름은 긴 숨을 고르듯 여름을 지나 가을로 넘어간다. 종교력의 7월, 곧 티슈리에 배치된 나팔절 – 속죄일 – 장막절의 삼중 구조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집과 회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나라에 대한 소망을 차례로 불러일으킨다. 특히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해마다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의 죄를 덮는 날이며, 장막절은 광야의 장막 생활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심을 기뻐하는 명절이다.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놓인 약 113일의 간극은 많은 신학자들이 '교회 시대'로 비유해 온 시간대이기도 하다.

이런 점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시간들 사이를 믿음으로 살아가며, 장차 이스라엘을 위해 다시 울릴 나팔과 장막절의 기쁨을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기다림 속에서도 신앙은 멈추지 않으며, 지금 이 기다림의 시간도 단순한 공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시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현시대 교회적 적용

디아스포라와 기억: 성전 없는 시대의 명절 신학

명절의 본질은 특정한 성소나 건물에 있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와 헌물을 드리는 데 있다. 다시 말해 명절은 공간 중심의 제도가 아니라 시간 중심의 신앙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때'에 백성이 순종하여 모일 때, 그곳이 어디이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모임 – 안식 – 드림'의 신학은 처음부터 장소보다 시간에 더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주후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 파괴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계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의 시대가 시작된 이후에도 명절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성전은 무너지고 희생물 제도는 중단되었지만, 백성은 하

나님을 기억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회당과 가정에서 율법을 읽고 기도하며 명절마다 모였다. 희생 제도의 형식은 사라졌으나, 하나님을 향한 기억과 고백은 계속되었다. 형태는 달라졌지만 본질은 보존된 것이다. 이는 명절의 생명이 건물이나 제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드는 믿음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

오늘날 교회 또한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더 이상 성전 의식이나 의례적 희생 헌물을 드리지 않지만, 복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함께 모인다. 우리의 예배와 주의 만찬, 곧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모든 신앙 행위는 다 '모임 – 안식 – 드림'이라는 동일한 신학 위에 서 있다. 결국 신앙의 깊이를 결정하는 것은 공간의 화려함이나 건물의 규모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시간을 어떻게 거룩하게 사용하느냐가 훨씬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이다. 그러므로 성전은 무너질 수 있어도 명절은 남는다. 건물은 사라져도 하나님과의 만남은 계속된다. 명절의 중심은 돌과 나무로 지은 구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백성의 믿음이기 때문이다.

시간 사용이 신앙 고백이 되는 것

현시대 교회는 이스라엘의 명절들을 율법적 의무로 그대로 재현할 필요 없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 이상 특정한 날을 지킴으로 의로움을 얻는 백성이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명절들의 신학적 의미까지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명절들이 가리키는 구속의 질서와 '복음의 리듬'을 배우고 삶에 적용해야 한다.

구약의 명절들은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간 속에 새겨 놓은 표지들이었다. 유월절은 어린양의 피로 시작되는 구속의 은혜를 보여 주었고, 무교절은 죄의 누룩을 제거하는 거룩한 삶을 요구했으며,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 주었다. 이어지는 칠칠절은 성령님의 강림과 새 언약 공동체의 탄생을 가리킨다. 그리고 나팔절

과 속죄일과 장막절은 장차 완성될 재림과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천년 왕국의 기쁨을 바라보게 한다. 이처럼 명절들은 과거의 구원, 현재의 성화, 미래의 영광을 하나의 시간표 안에 담아 놓은 복음의 달력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리듬에 따라 오늘의 삶을 정렬한다. 시간 사용은 단순한 생활 방식이 아니라 곧 신앙 고백이다. 무엇을 기억하며, 언제 모이고 무엇을 중심에 두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낸다. 우리는 주일마다 모여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 만찬을 통해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침례를 통해 죽음과 부활에 연합했음을 고백한다. 또한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사건을 기억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기를 다짐한다. 이렇게 우리의 시간은 복음의 리듬에 맞추어 다시 배열된다.

이것은 날과 명절을 지켜 의를 얻으려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로 반응하는 복음적 자유의 훈련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레위기 23장이 보여 주는 성도의 삶의 원리이다.

결국 명절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은 형식을 그대로 모방하는 일이 아니다. 그 안에 담긴 복음의 리듬을 마음과 삶에 새기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일이다.

주의 만찬: 명절 신학의 중심적 기억

교회가 반복하여 지키는 주의 만찬(Lord's supper)은 명절 신학의 심장과 같다. 이는 단순한 상징 의식이나 추억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정해 두신 구원의 질서에 교회가 순종하여 드리는 거룩한 행위이다. 우리는 이 식탁 앞에서 과거의 구속,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현재의 은혜, 즉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며, 미래의 영광, 즉 다시 오실 그분을 소망 가운데 기다린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고백하는 삼중의 시간이 명절 신학이라는 한 식탁 위에 응축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의 만찬은 구약 명절들의 흐름을 복음 중심으로 모아



놓은 결정체라 할 수 있다. 어린양의 피로 시작된 유월절의 구속, 누룩을 제거하는 무교절의 거룩함, 첫 열매의 생명을 선포한 초실절의 부활 소망이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성취되었고, 그 성취가 바로 이 식탁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복음 전체를 몸으로 체험하는 시간이다.

동시에 이것은 교회가 '모임 – 안식 – 드림'의 방식으로 시간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대표적인 순종이기도 하다. 우리는 바쁜 일상의 흐름을 멈추고 정해진 때에 함께 모여, 빵과 잔을 나누며 감사와 예배를 드린다. 이 행위 자체가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신앙 고백이다. 주의 만찬은 예배가 인간의 편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두신 거룩한 때임을 몸으로 배우는 시간이다.

빵을 떼고 잔을 나누는 그 순간, 교회는 레위기 23장이 가리킨 모든 명절의 정신을 하나로 모은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 식탁에서 만나고,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의 몸으로 묶인다. 각자의 신앙이 흩어진 채 머물지 않고 한

주님 안에서 한 고백으로 연결된다. 이처럼 주의 만찬은 명절 신학이 신약 교회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가장 분명한 자리라고 할 수 있다.

결론

레위기 23장은 단순히 명절들의 규정을 나열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네 시간표는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는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필요한 '공간'과 '사람'뿐만 아니라 '시간'도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성도는 '모임 – 안식 – 드림'의 리듬으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예배의 시간은 개인의 여가를 떼어 드리는 선택이 아니라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공적 고백이며,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며 신분에 대한 공적 선언이나 다름없다.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일곱 명절은 이스라엘의 달력 위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새겨 놓은 거룩한 시간표와 같다. 그 명절들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들을 해마다 반복하여 기억하게 하는 복음의 질서였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통해 구원을 가르치셨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교회가 복음의 리듬에 따라 한 해와 한 주를 배열할 때, 공동체의 정체성은 더욱 견고해진다. 우리는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고, 현재의 은혜를 누리며, 미래의 영광을 소망한다. 이렇게 반복되는 예배의 리듬 속에서 성도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인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간다.

의미 없이 형식만 남으면 신앙은 율법주의로 굳어진다. 반대로 이러한 명절들이 가르치는 복음의 리듬마저 잃어버리면 삶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살지 못한 채 세상의 시간표에 끌려가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의 날과 주의 만찬, 침례와 같은 반복되는 은혜의 자리를 통해 해마다, 주마다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다시 맞추게 된다. 이는 의무가 아니라 은혜의

훈련이며, 우리의 삶 전체를 복음의 질서 안에 두려는 믿음의 순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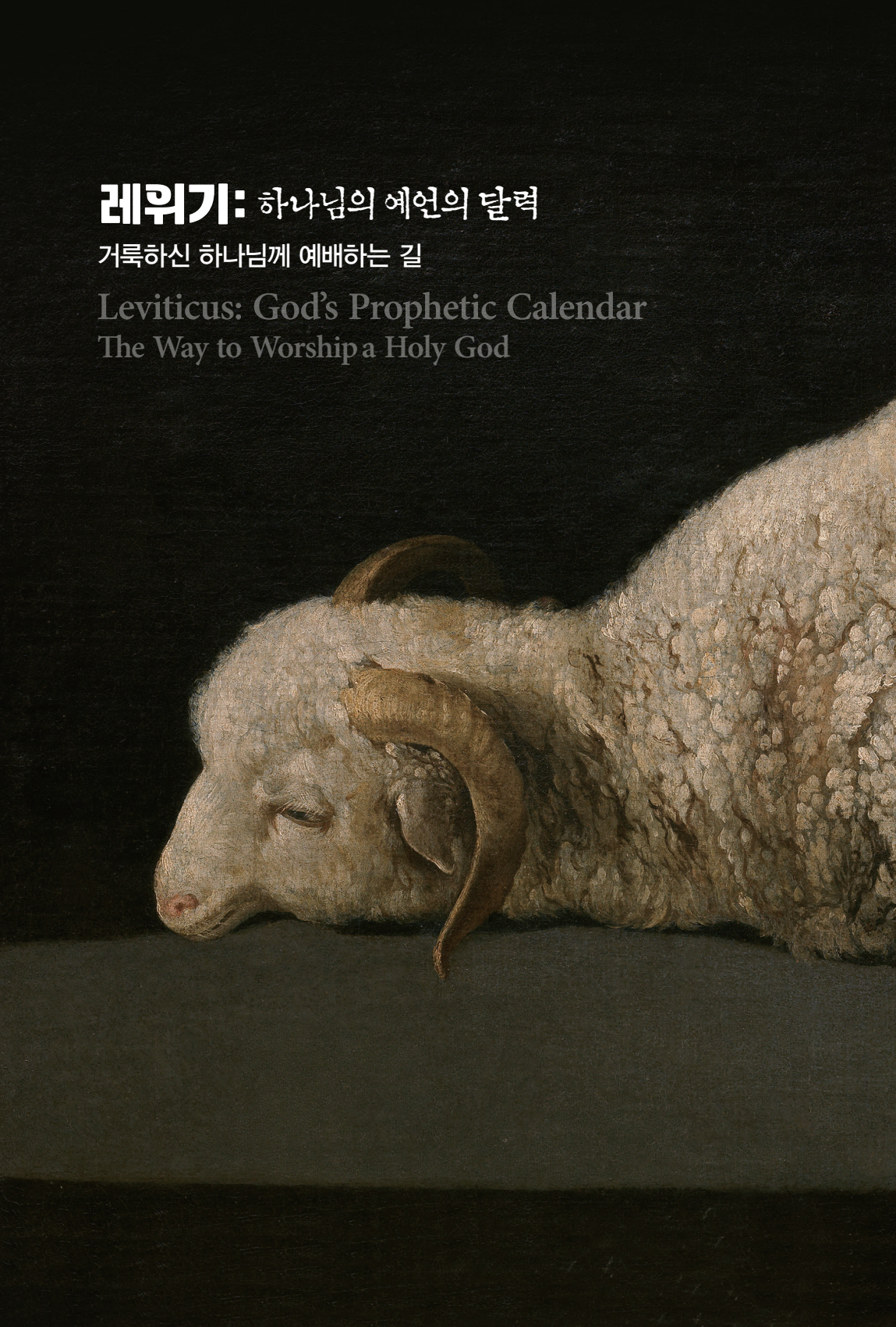
따라서 명절의 신학은 옛 이스라엘의 유산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정해 두신 거룩한 때들은 오늘 우리의 시간 사용과 시간표 전체가 누구를 향해 열려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게 한다. 성도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를 보면 그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섬기는지 알 수 있다. 시간표는 단순한 일정표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소유이며,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신앙 고백서이다. 레위기 23장이 보여 주는 하나님의 명절들은 지나간 제도가 아니라, 지금도 성도에게 시간을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거룩한 시간 질서이다. 성도는 자신의 시간표를 하나님 앞에 두고 그 질서에 맞추어 날마다 새롭게 정렬해야 한다.

레위기: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

Leviticus: God's Prophetic Calend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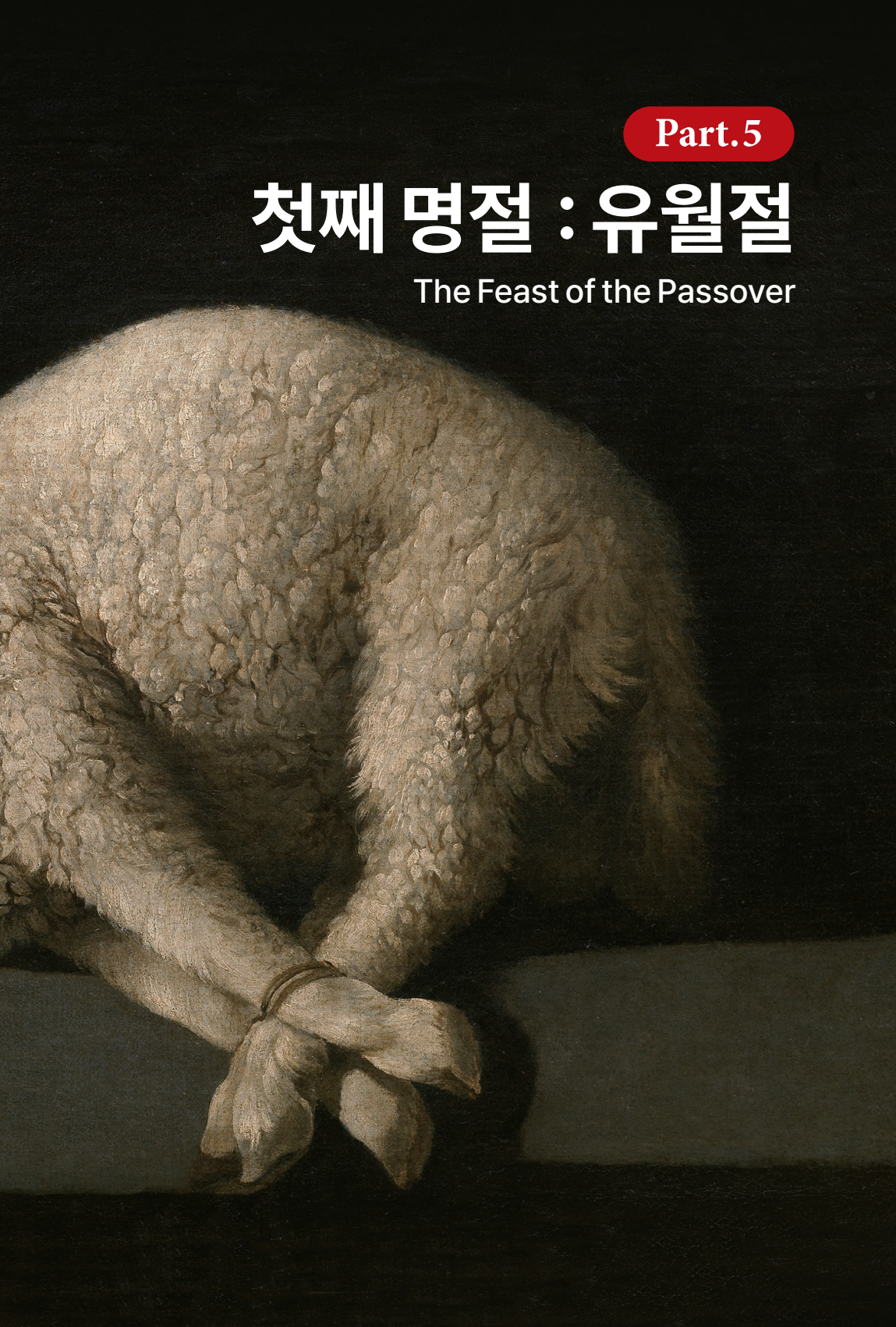
The Way to Worship a Holy God



Part.5

첫째 명절 : 유월절

The Feast of the Passover



제5장 첫째 명절: 유월절

첫째 달 십사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요. (레 23:5)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레위기 23장의 일곱 명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속 역사를 시간 속에 새겨 두신 '하나님의 달력'이다. 봄의 네 명절은 피로 시작된 구원, 죄에서의 분리, 부활의 첫 열매, 성령님의 충만이라는 초림의 리듬을 보여 준다. 가을의 세 명절은 이스라엘을 향해 깨어나라는 부르심, 속죄의 마침,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장막의 기쁨이라는 재림의 지평을 가리킨다. 그 모든 흐름의 출발점이 되는 첫 번째 명절이 바로 유월절이다.

이 장에서 다루는 유월절은 단순히 이집트 탈출을 기념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명절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왜 '어린양의 피'라는 길을 택하셨는지, 그 길이 어떤 시간표와 절차에 따라 준비되고 시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실체로 성취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구속의 첫 장면이다. 유월절 밤에 흐른 피는 단지 한 시대를 지나가게 한 표식이 아니라 이후 모든 시대의 죄인들이 "첫째 출생에서 둘째 출생으로 옮겨 가는" 복음의 원리를 배우게 하는 모형이었다.

그래서 이 장은 먼저 이집트 속박과 맏아들 심판이라는 배경 속에서 하나

님께서 왜 어린양의 피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셨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이어서 유월절 규례의 날짜와 절차와 상징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정확히 맞물리는지 추적해 본다. 그다음에는 유월절이 '첫째 아담 안에서 시작된 삶'에서 '둘째 아담, 즉 마지막 아담 안에서 다시 시작되는 삶'으로의 전환, 다시 태어남의 복음적 원리를 어떻게 드러내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성도 각자의 삶에서 '나의 유월절'이란 무엇을 뜻하는지, 또 언제·어떻게 유월절이 나 자신의 이야기로 들어오는지를 구체적으로 묻고자 한다. 유월절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구원 사건과 그 이후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달력 위에서 다시 정렬하는 첫걸음이다.

유월절 - 성도들의 구원

이집트 탈출의 배경

이집트 탈출이 시작될 무렵, 이스라엘은 약 400년 동안 속박과 노예 생활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에서 크게 번성하였으나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이 일어나면서 상황은 급격히 변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였고, 그 두려움은 곧 압제로 이어졌다. 이스라엘은 노예라는 멍에 아래 놓였고 파라오는 그들을 약화시키기 위해 점점 더 가혹한 명령을 내리기 시작하였다(출 1:8).

먼저 그는 혹독한 노동으로 이스라엘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여긴 그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전례 없는 명령을 내렸다. 국가 권력이 생명의 탄생 자체를 저주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었다. 이러한 극심한 억압 속에서 이스라엘은 신음하며 부르짖었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아기 모세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를 준비시키셔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이끌어 내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으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확증하신 무조건적인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를 이루기 위해, 자신이 결코 버릴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므로 이집트 탈출은 단순한 정권 교체나 압제자의 변경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언약의 신실하심을 걸고, 자신의 백성을 심판에서 구별해 내시는 구속 사건이다.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의 명령, 곧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를 완전히 뒤집으셨다. 이스라엘을 향했던 파라오의 명령은, 이제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뀌었다. 아홉 재앙을 통해 이집트 신들의 허망함이 드러난 뒤, 마침내 처음 난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 선고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 이집트 땅의 처음 난 모든 것은 왕좌에 앉아 있는 파라오의 처음 난 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처음 난 자까지 죽고 짐승들의 처음 난 모든 것도 *죽으리라*. (출 11:5)

이집트 전역에 닥친 죽음은 파라오가 주관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이 아니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기 때문이다. 심판은 공정하게 온 땅을 덮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한쪽에서는 죽음이 지나가게 하시고 다른 한쪽에서는 생명이 보존되는 대속의 길을 마련하셨다.

이집트 전역에 내려진 죽음의 선고는 의로운 것이었다. 죄와 죽음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창 2:17; 롬 5:12; 6:23).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의로우시며 변하지 않으시기에, 그분께서 선고하신 심판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자신의 무조건적인 언약 때문에 이 죽음의 선고 속에서 자기 백성을 구출하셔야 했다.

하지만 이 구출은 의로움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의롭게 하는 분이시며, 동시에 자신의 거룩한 요구를 스스로 만족시키

실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는 분이다. 그 길의 중심에 어린양과 피가 놓여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이다. 심판과 구원은 같은 밤, 같은 시간에 동시에 진행되었다.

유월절 시간표와 신학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절차까지도 모두 자신이 정하신 방식대로 명확히 제시하셨다. 첫째 달 10일에 각 집은 어린양 한 마리를 택하여 집 안에 두어야 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흘 동안 그 양을 살펴 흠이 없음을 확인해야 했다. 14일 해 질 무렵에 각 집은 그 어린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뿌려야 했다. 각 가정은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되, 허리를 띠로 묶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손에 든 채 급히 먹어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백성에게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피 아래 머물라는 엄중한 경고가 주어졌다.

이 모든 세부 절차는 장차 올 실체,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정교하게 정렬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우연히 정하지 않으셨으며 모든 세부 사항이 복음을 가리킨다. 요한복음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은 사실을 특별히 기록함으로써, "뼈를 꺾지 말라."라는 유월절 규례가 그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증언한다(요 19:36).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느니라."(고전 5:7)라고 해석하였고,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래와 같이 선포하였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 (요 1:29)

그러므로 유월절은 한 민족의 탈출기가 아니라 인류 구원의 청사진이다. 시간(10일, 14일, 해 질 무렵)과 절차(선정 – 검증 – 도살 – 피 뿌림 – 식사 – 출발)가 모두 구속사의 질서 안에서 하나로 묶여 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 예표를 새기시고, 때가 차매 그 예표를 정확히 성취하셨다.

유월절의 심장: 어린양과 피

어린양과 피, 이 두 요소가 빠지면 유월절은 껍데기만 남는다. 성경은 바로 이 두 축을 따라 유월절의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명칭, 곧 '어린양'이라는 표현이 처음 본격적으로 사용된다. 성경에서 '어린양'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22장 7-8절에 처음 등장하지만, 그 교리적·예언적 중요성은 출애굽기 12장에 이르러 비로소 명확히 드러난다.

첫째, 어린양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준비되어야 한다

>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십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출 12:3)

구원 문제에서 인간의 창의성은 아무 효력이 없다. 하나님께서 "어린양을 취하라."고 명령하셨다면 다른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값비싼 재산도, 눈물겨운 결단도, 선행의 목록도 죽음의 문턱을 넘게 하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희생물만이 그 문을 통과한다. 구원은 은혜이되 계시된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외의 다른 길은 결코 구원으로 이끌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죽음을 피할 방안을 생각해 낼 수는 있었을지 모르나 그 선택권은 그들에게 있지 않았다. 생명과 죽음의 주권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속해 있기 때문이다.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고전 2:14)라는 말씀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스스로 알 수 없다. 출애굽기 12장이 다

루는 문제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이다. 생명을 주시고 유지하시는 분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정하실 수 있다.

출애굽기 12장 3절의 '어린양'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이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던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셨다. 성경에서 처음 '어린양'이 언급될 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어린양을 예비하실 것이다."라고 말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이렇게 그들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창 22:8)

그 어린양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존재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창건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이셨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해진 어린양"이셨다.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계 13:8)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벧전 1:20)

둘째, 어린양은 흠이 없어야 한다

너희의 어린양은 흠 없고 일 년 된 수컷이 될지니라. (출 12:5)

이 규정 속에서 우리는 완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다. 성령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어린양을 증언하게 하셨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

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벧전 1:18–19)

속죄는 '죄 있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신할 수 없다'는 원리 위에 세워진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세 갈래로 증언한다. 그분은 죄를 알지 못하셨고(고후 5:21), 죄를 짓지 않으셨으며(벧전 2:22), 그분 안에는 죄가 없었다(요일 3:5). 이는 단순한 도덕적 찬사가 아니라 대속의 자격에 대한 법정적 판결이다. 흠 없는 어린양만이 흠 있는 죄인을 대신할 수 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 단 하나의 허물이라도 있었다면, 그분은 죄를 위한 희생물로 합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어린양이셨다. 그분은 다른 이들의 죄가 용서되도록 기도하셨으나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그분 안에는 죄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분은 자신을 위해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셨고 오히려 세상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자신을 죄 없는 희생물로 내어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니산 월 제십일에 유월절 어린양을 선택하여 같은 달 제십사일까지 그 양을 살펴 흠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출 12:3, 6). 이 기간은 검증의 시간이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 역시 그러했다. 그분은 단지 죽으심으로만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다. 죄 없는 생애 자체가 대속의 죽음을 가능하게 했다. 만일 그분 안에서 거룩함에서 벗어난 어떤 흔적이라도 발견되었다면, 그분은 결코 유월절 어린양의 실체로서 죄인을 구원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그분의 생애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높은 기준 아래 놓여 있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어린양을 예비하실 것이다."(창 22:8)라는 아브라함의 말은 장차 하나님께서 친히 참된 어린양을 마련하실 것을 예표로 보여 준다.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마 3:17)라고 하신 선언은 그분

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양이심과 그 희생에 대한 하나님의 만족을 확증한다.

사탄과 마귀들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아노니 곧 하나님의 거룩한 자시니이다."(막 1:24; 눅 4:34)라고 고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무죄성을 인정하였다. 이 점에서 그들은 많은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정확한 증언을 남겼다. 광야에서 이루어진 사탄의 시험 역시 그분이 흠 없는 어린양이심을 드러내는 장면이었다(마 4:1–11).

가룟 유다 역시 마지막 순간에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써 죄를 지었노라."(마 27:4)라고 증언하였다. 이 고백은 그에게 구원을 가져다주지는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증언하는 데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예수님을 사형에 넘긴 로마 총독 빌라도와 그의 아내도 같은 증언을 남긴다. 빌라도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눅 23:4)라고 말했고, 물로 손을 씻으며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마 27:24)라고 선언하였다. 그의 아내 또한 "그 의로운 사람과 조금도 상관하지 마소서."(마 27:19)라고 경고하였다. 불의로 악명 높던 총독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할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

유월절의 어린양이 흠이 없어야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신, 하나님의 참된 어린양이셨다.

셋째, 어린양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죄의 삯은 사망이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다는 원리는 유월절 밤에 구체화된다. 살아 있는 양의 온전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반드시 죽어야 한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생명을 드려야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 '유월절 어린양'에 집약되어 있다. 흠이 없다는 것이 완전히 판명된 후에 그 어린양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만 했고, 그 피가 뿌려

져야만 했다. 그 죽임당한 유월절 어린양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확실히 "신약은 구약 안에 숨겨져 있고 구약은 신약 안에서 그 의미가 드러난다." 대언자 이사야는 "그는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양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사 53:7)라고 기록하면서, 죽임당한 그 어린양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침례자 요한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요 1:29)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함으로써,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말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유월절 어린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느니라."(고전 5:7)라고 말했을 때에도,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구약의 그 유월절 어린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기 전, 그 땅에서 행해진 첫 번째 유월절 저녁에 수많은 어린양들이 죽임을 당하였다. 그러나 출애굽기 12장은 죽임을 당한 '어린양'을 복수인 '어린양들'(lambs)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단지 단수인 '어린양'(a lamb)으로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그 '어린양'이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살아 있는 어린양은 아무리 흠이 없을지라도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죄가 없고 흠이 없었으나, 그 삶 자체가 죄를 대속하지는 않았다.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도 죄를 대속하지는 않는다. 엄밀히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아들의 완전한 삶에 의해 구속받은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양의 피에 의해 구속받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복음을 가장 간결하게 요약한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 3절은 이 사실을 정확히 기록한다.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성경은 그 '어린양'이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만 했다고 분명히 말한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사도 요한은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손에 두루마리 책을 들고 계신 모습을 본다. 그 책에는 땅에 대한 소유권이 담겨 있었다. 이에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누가 그 책을 펴고 그것의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외친다. 이는 곧 누가 땅에 대한 합법적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었다.

그러나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어디에서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존재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요한은 그 책을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아무도 없음을 보고 크게 울었다. 바로 그때 한 장로가 요한에게 말한다.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께서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시고 그것의 일곱 봉인을 떼시리라. (계 5:5)

요한은 그 사자, 곧 왕권을 가진 정복자를 보려고 왕좌를 바라보았으나, 그곳에서 본 것은 사자가 아니었다. 요한 앞에 서 계신 분은 죽임을 당한 어린양처럼 보이는 분이었다(계 5:6). 요한이 목격한 하늘의 실상은 분명하였다. 하나님의 어린양께서는 죽임을 당하셨고, 그 죽음의 흔적을 지닌 채 살아계셨다. 그렇다. 그 어린양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임을 당한 어린양'으로 서 계셨을 때, 구속받은 자들을 대표하는 스물네 장로들은 새 노래를 불렀다.

주께서는 그 책을 취하여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계 5:9–10)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또 다른 무리가 등장한다. 이들은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 가운데서 나온 자들로, 교회가 휴거된 이후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은 이른바 '환난 성도들'이다. 그들은 어린양의 피로 자기 예복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 속한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든 채 왕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께 있도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계 7:9–14)

이 모든 말씀은, 영원 전부터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류가 죄로 인해 파멸에 이를 것을 아셨으며, 세상의 창건 이전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피를 통해 인류의 구속을 이루실 계획을 미리 세우셨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

넷째, 그 죽음은 대신의 죽음이어야 한다

어린양은 자기 죄로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해 죽는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양을 정하실 때, 그분은 그 어린양의 죽음이 남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되도록 이미 뜻을 세우셨다.

대속물의 필요성은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분명히 드러난다.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아담과 이브를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앞치마로 덮지 않으셨다. 그것은 죄를 가릴 수 없었고 오히려 수치를 드러낼 뿐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대속물을 죽이시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을 입히셨다(창 3:21).

시간이 흐른 뒤 가인과 아벨이 헌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가인은 땅의 열매를 가져왔고, 아벨은 자기 양 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을 가져왔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헌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은 받지 않으셨다(창 4:3–5). 아벨은 죽임을 당

한 대속물을 가져왔고, 하나님께서는 그 헌물을 기쁘게 받으셨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에서 예비된 양 역시 이 원리를 미리 보여 준다. '대속'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원리이며,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다. 신약 성경은 이를 반복하여 증언한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롬 5:8)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고전 15:3)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같이 하라. (엡 5:25)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려고 우리 죄들로 인해 자신을 주셨으니 (갈 1:4)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 2:20)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마 20:28)라고 말씀하셨다. 대속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진리를 다음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고전 5:7)

어떤 죄인이 자기 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유월절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개인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것은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각 개인의 문제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갈 2:20)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다. 각 사람은 이 사실을 믿고, 자기 자신의 고백으로 응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는 뿌려져야만 한다

"양을 잡았다."라는 사실만으로는 그 집을 지키지 못한다. 그 양의 피가 문설주와 인방에 뿌려져야 한다.

그들은 피를 취해 그 양을 먹을 집의 양옆 기둥들과 문 상인방에 뿌리고 (출 12:7)

약이 병상 곁에 놓여 있다고 해서 병이 낫지 않듯, 피의 공로도 믿음의 순종으로 적용될 때 효력이 나타난다.

신구약 성경에는 피를 뿌리는 행위가 반복해서 등장한다. '던지다'(cast)와 '뿌리다'(sprinkle)라는 표현은 공통적으로 '적용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 어린양의 피는 먼저 흘려져야 했고, 각 사람은 사망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 그 피를 믿음으로 자기 집의 문기둥들과 상인방에 뿌려야만 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의 효력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에게 닥쳐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 1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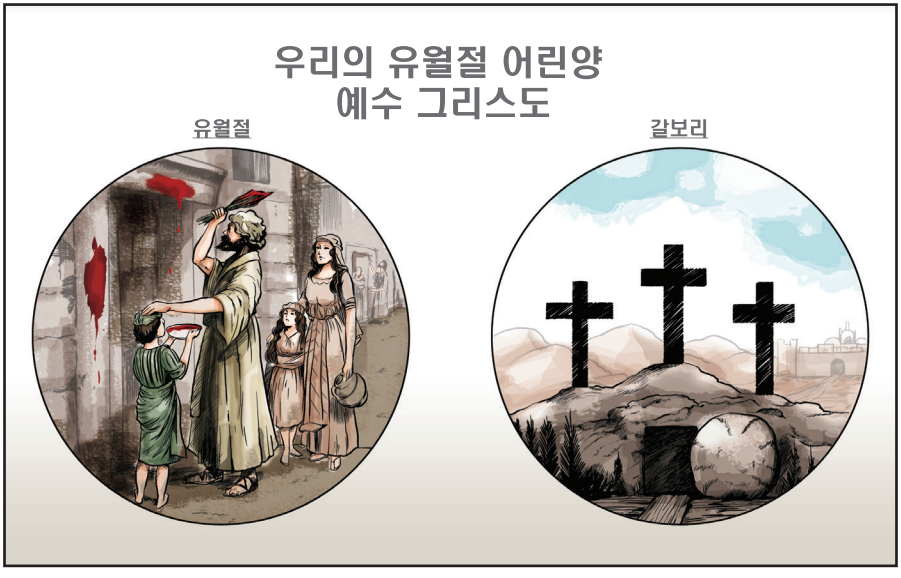
유월절이라는 이름, 곧 '넘어감'(pass over)이라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피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표식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보이

도록 뿌려진 표지였다. 이는 구원의 확신이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표지에 근거해야 함을 분명히 가르친다.

히브리 사람 아버지들이 어린양을 죽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기둥들과 상인방에 어린양의 피를 뿌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그대로 지켜져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그들은 안전하였다. 파멸시키는 자, 곧 죽음의 천사는 피가 뿌려진 모든 집을 넘어갔고, 그 피는 그 집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출 12:7, 13; 레 8:30; 9:12, 18 참조).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로 불린다(벧전 1:2). 이는 그리스도의 피가 객관적으로 흘려졌고,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개인에게 주관적으로 적용되었다는 뜻이다. 객관적 성취와 주관적 적용이 함께 있을 때 구원은 완성된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림 4〉 유월절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



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린양의 피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구원과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

어린양의 피와 복음

유월절은 우연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방식으로 성취된 구속 사건이다. 어린양의 선택, 검증, 죽음, 피의 적용은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로 보여 주며, 구원은 객관적 성취와 믿음의 적용이 함께 있을 때 완성된다.

유월절과 새로운 시작

출애굽기 12장 2절은 유월절의 상징을 한 문장으로 나타낸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달력을 새롭게 시작하게 한 날이었다.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출 12:1–2)

하나님께서는 노예의 달력을 끊고 구속의 달력을 여신다. 그날 이후 이스라엘은 과거의 시간표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는다. 해방이 시간의 원점을 바꾸어 놓았다. 동일한 원리가 복음 안에서 개인에게도 적용된다. 죄인이 '유월절 어린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시간의 원점을 새로 찍으신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후 5:17)

유월절은 단지 압제에서 한 걸음 물러선 정도가 아니라 존재론적 전환을 의미한다. 종이 아들이 되고, 정죄 아래 있던 자가 은혜 아래로 옮겨지고, 사망의 통치가 끝나며 생명의 통치가 시작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달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출 12:2)라고 선포하신다. 구속이 시작되면 달력부터 바뀐다. 성도의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순간, 과거의 실패와 굴레가 더 이상 궁극적인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 인생의 참된 1월 1일이 그때 열린다. 새로운 시작은 단순히 마음을 고쳐 결심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간표를 주시는 은혜이다.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이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제정된 유월절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어린양'께서 새로운 시작을 주신 날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가 처음 태어날 당시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죽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실제 '사는 것'은 우리가 두 번째 태어날 때 시작된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순간,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지워진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보소서, 평안을 얻으려고 내가 큰 쓰라림을 겪었으나 주께서 내 혼을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그것을 구출하셨으니 주께서는 내 모든 죄들을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사 38:17)

시편 기자 다윗 왕은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그분께서 우리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시 103:12)라고 적고 있다. 미가 대언자도 "그분께서 다시 돌아서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 불법들을 짓밟으시리니 주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바다의 깊음들 속에 던지시리이다."(미 7:19)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예언의 달력에 친히 기록하신 대로 예정하신 이 첫 번째 일을 이루셨다. 이 유월절은 일곱 명절의 기초가 된다.

니산 월 10일에서 14일까지 구속의 리듬

유월절 규례는 상세 부분까지 복음의 리듬을 들려준다. 니산 월 10일에 각 집은 흠 없는 어린양을 택하여 나흘 동안 살피고(출 12:3-6), 14일 저녁에 죽였다. 선택 – 검증 – 도살 – 표식의 흐름이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동안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 종교·사회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통해 흠 없으심을 드러내신 뒤(마 21-22장; 요 18:38; 벧전 1:19), 정해진 때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양처럼 죽으심(사 53:7)을 미리 보여 준 예표였다. 양의 뼈를 꺾지 말라는 명령(출 12:46; 민 9:12)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뼈가 꺾이지 않은 사실로 성취되었다(요 19:36; 시 34:20). 하나님의 계획은 세밀하며, 모든 상세 사항이 의미를 담고 있다.

식탁의 구성도 메시지를 지닌다. 불에 구운 양은 심판의 불을 몸으로 받으신 대속을, 누룩 없는 빵은 죄와 위선의 제거를, 쓴 나물은 속박의 쓰라림을 기억하게 한다. 허리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는 자세는 구원이 정착의 의식이 아니라 출발의 의식임을 가르친다. 유월절이 칭의의 문이라면, 곧바로 이어지는 무교절은 성화의 길이다.

>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고전 5:8)

구원받은 자는 즉시 거룩함의 여정을 시작한다. 구원과 성화는 분리될 수 없다.

유월절과 그리스도: 날짜·사건·의미의 합일

니산 월 14일 해 질 무렵이라는 시간표, 뼈를 꺾지 말라는 명령, 누룩을 제거하라는 명령은 모두 그리스도의 고난 주간에 정확히 맞물린다. 복음서가 보여 주듯,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시기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어린양처럼 검증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흠 없는 희생으로 죽으셨다. 요한은 병사의 창

이 옆구리를 찔렀으나 뼈가 꺾이지 않았음을 기록함으로써, 유월절 규례가 역사 속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증언한다. 바울은 이 모든 진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고전 5:7)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이시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연히 일치한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 예정된 때에 예정된 방식으로 성취된 언약의 사건이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시며, 모든 예표를 정확히 성취하신다.

어린양의 피: 객관적 성취와 주관적 적용

유월절 밤, 양이 죽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피는 문설주와 인방에 뿌려져야 했다. 즉, 객관적 성취(어린양의 희생)와 주관적 적용(피의 표지)이 함께 있어야 한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출 12:13)

십자가에서도 이 이중 구조는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을 위한 속죄를 단번에 완성하셨다(요일 2:2). 그러나 그 효력은 믿음으로 피를 '뿌린(바른)' 자에게만 구원의 안전으로 임한다. 오늘날의 언어로 말하면, '피를 뿌린다(바른다)'는 표현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 예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께 자신을 의탁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복음의 세 축이 맞물린다. 대속(substitution: '나 대신' 죽으심), 구속(redemption: 값을 치르고 건져내심), 화목/만족(propitiation: 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심)이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

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롬 3:25)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은 자신의 감정의 변화에 달려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피의 표지, 곧 복음에 대한 믿음의 순종에 근거한다.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지만, 그 효력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개인에게 임한다.

첫째 출생에서 둘째 출생으로

모든 인간은 첫째 출생 안에서 죄와 사망 아래 놓여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위로부터의 둘째 출생이 필요하다. 성경 전체는 자연의 순서가 아니라 은혜의 순서, 첫째가 아니라 둘째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원리를 반복해서 증언한다.

첫째 출생과 둘째 출생: 죽음의 사자와 넘어감

첫째 출생만 가진 인간은 모두 장자(맏아들) 심판의 범주 안에 있다. 죽음의 사자는 누구에게나 온다. 그러나 피의 표지를 본 사자는 넘어간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위해 피를 흘리셨고, 그 피가 내 마음의 문설주에 적용될 때 심판은 나를 지나간다. 이것이 다시 태어남의 실제이다. 생물학적 탄생이 나를 세상 안으로 들여보냈다면, 성령님으로 인한 탄생은 나를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여보낸다.

히브리서는 이 원리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믿음을 통해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을 지켰으니 이것은 처음 난 것들을 파멸시킨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히 11:28)

첫째 출생은 죽음으로 향하지만, 둘째 출생은 생명으로 향한다. 모든 인간은 두 번 태어나든지, 두 번 죽는다.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육체의 죽음과 둘째 사망),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는다(육체의 죽음뿐이며 영과 혼은 영생).

우리는 첫째 아담 안에서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다.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엡 2:1)

그래서 두 번째 출생이 필요하다. 이는 육적 출생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영적 출생이다. 유월절의 어린양은 처음 난 것들, 곧 장자들을 죽음에서 구속하기 위해 죽임을 당하였다. 우리가 유월절 어린양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마지막 아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

니고데모의 밤: '다시'는 '위로부터'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남, 곧 중생을 말씀하신다. 니고데모는 이것을 물리적으로 태에 다시 들어가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다시'(ἄνωθεν)의 본래 의미는 '위로부터'이다. 첫 번째 출생은 땅에서, 어머니의 태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출생은 첫 사람 아담 안에 있는 출생이어서 이미 죽음의 선고 아래 있다(롬 5:12; 엡 2:1).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을 보고 들어가려면, 위로부터 오는 두 번째 출생, 즉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새 생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딛 3:5)

그때에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새 마음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며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겔 36:25–26)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고 (벧전 1:3)

다시 태어남은 도덕적 결심의 강화가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창조이다.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달력을 새로 열었듯, 다시 태어남은 성도의 존재·시간·방향을 새롭게 연다. 다시 태어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라고 반문하였다(요 3:3, 9). 이에 예수님께서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요 3:10)라고 다시 물으셨다.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 교육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달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만 했음을 알 수 있다.

둘째의 원리

이스라엘은 죄와 세상의 속박 아래에서 이집트에 살고 있었다. 그것이 첫째 출생의 자리이다. 그러나 유월절 밤, 하나님께서는 피 아래 선 그들을 건져 내시며 달력의 원점을 바꾸라고 명하셨다. 더 이상 첫째 출생에 매인 백성이 아니라 둘째 출생에 속한 백성으로 살라는 선언이었다. 유월절이 시간을 새롭게 정렬한 것처럼, 복음은 인간의 존재와 시간, 정체성 전체를 다시 배열한다.

이 원리는 성경 전체를 가로지르는 하나님의 구속 방식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적 질서와 장자권의 당연함을 뒤집으시고, 인간의 서열이 아니라 은혜의 선택으로 역사를 이끄신다. 구약은 첫 사람 아담 안에서 시작된 세대를 기록

하고, 신약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린 새 세대를 선포한다. 하나는 흙에서 난 생명의 연대기로서 결국 죽음으로 닫히는 족보이며, 다른 하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시작으로 죽음을 꺾은 새 창조의 출발점이다.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은 시대가 달라도 한 세대를 공유하는 형제자매가 된다. 복음은 혈연과 연대를 넘어서는 영적 동시대성을 만들어 낸다.

성경은 구조 자체로 이 진리를 증언한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첫째 아담의 세대를 다루는 책(the book of the generation of Adam)이며, 신약 성경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를 다루는 책(the book of the generation of Jesus Christ)이다.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창 5:1)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마 1:1)

첫째 아담의 세대와 마지막 아담의 세대, 구약과 신약, 이 두 책은 서로 다른 시작과 다른 결말을 말한다.

하나님의 선택이 '둘째'에게 기울어 있는 장면은 성경 곳곳에서 반복된다. 이와 함께 한 가정에 두 형제가 있을 때, 첫째 아들은 첫 번째 출생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불신자의 자리에 서고, 둘째 아들은 두 번째 출생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도의 자리에 선다는 점도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 원리는 성경의 맨 처음,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부터 분명히 드러난다. 첫째 아들 가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부한 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 반면 둘째 아들 아벨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받아들였고, 하나님께서 그의 희생물을 받으셨다(창 4:1–9; 히 11:4; 요일 3:10–12).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처음 두 아이도 모두 남자아이였다. 첫째 아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수태된 아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상속자로 받지 않으셨다. 둘째 아들 이삭은 성령님에 의해 초자연적으로 수태된 아들이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자가 되었다(창 16:1–6; 17:18–19; 21:1–12; 갈 4:22–31).

이삭이 사십 세가 되어 리브가와 결혼했을 때, 그에게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아들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창 25:19–23).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관습과 기대를 따르지 않으시고 자신의 뜻대로 첫째 아들에서는 거절하시고 둘째 아들 야곱을 택하셨다(롬 9:10–14; 말 1:1–3).

요셉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다. 므낫세는 첫째였고, 에브라임은 둘째였다(창 46:20). 요셉은 자연스럽게 첫째 아들 므낫세가 야곱에게 축복받기를 원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야곱의 손을 인도하셔서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이 임하도록 하셨다.

요셉은 열한째 아들이었고, 다윗은 막내였으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세상은 첫째를 높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둘째를 택하신다.

이처럼 '둘째가 선택되는' 은혜의 역설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 창조론적·구원론적 차원에서 더욱 깊어진다. 첫 사람은 흙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였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이다(고전 15장). 첫 창조는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지만, 새 창조는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시작되었다. 첫 언약은 돌판과 짐승의 피 위에 세워져 반복되는 희생 속에 사람을 붙들어 두었으나,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들 위에 서서 단번에, 영원히 유효한 피로 죄를 제거한다(히 8–10장). 땅에서 난 첫 질서가 상징과 그림자라면, 하늘에서 온 둘째 질서는 실체이자 성취이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라는 책의 구조 자체로도 '둘째의 우월성'을 드러낸다. 구약은 예표와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이다.

유월절이 보여 준 이 '둘째의 원리'는 다시 태어남의 교리에서 절정에 이른다. 첫째 출생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그 출생은 첫 사람 아담의 타락 아래 놓인 출생으로서, 죄와 사망의 통치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하나님 나라를 보거나 들어가려면 위로부터 주어지는 두 번째 출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도덕적 개선이나 종교적 열심의 강화가 아니라 피 아래 서는 믿음을 통해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새 생명의 창조이다. 유월절 밤에 어린양이 죽은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았고, 그 피가 문설주와 상인방에 뿌려져야 했듯이, 십자가의 객관적 성취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마음의 문설주에 적용될 때 비로소 구원의 안전으로 이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진리를 말씀하신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출 12:13)

우리는 모두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들이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원죄와 함께 태어나 첫째 아담의 세대 안에서 죄로 인한 사형 선고 아래 놓여 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롬 5:12)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첫 번째 탄생은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 수 없다. 우리가 '유월절 어린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우리는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얻는다.

이 둘째의 원리는 정체성과 삶의 방식의 변화까지 요구한다. 달력이 바뀌면 생활 방식도 바뀐다. 피 아래로 들어온 자는 즉시 누룩을 쓸어낸다. 이는 죄와 위선의 체질을 벗고 진실과 진리의 빵으로 사는 성화의 여정을 뜻한다. 이 여정은 성령을 따라 걷는 매일의 '두 번째 선택'이다. 첫 본성의 충동을 따

라 살 것인지, 새 본성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것인지의 갈림길에서, '둘째'를 택하는 습관이 성도의 일상 속에 새겨진다. 첫 질서는 본능과 관습의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지만, 둘째 질서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걷게 한다.

신학적으로 볼 때 '둘째'는 은혜의 우선성을 말한다. 장자권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와 작은 자를 들어 주권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신다. 이는 구원이 혈통이나 육신의 의지, 사람의 뜻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언한다. 목회적으로 볼 때 '둘째'는 소망의 언어이다. 출신이나 과거의 순서가 인생을 규정하지 못한다. 실패와 죄의 역사로 가득 찬 첫 족보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 족보가 열린다. 성도는 더 이상 과거의 서열과 낙인으로 자신을 해석하지 않고, 새 언약의 정체성으로 자신을 이해한다. 그래서 복음은 '다시'의 선언이며, 유월절은 '이제부터'의 시작이다.

결국 성경의 구속사는 첫째에서 둘째로, 옛것에서 새것으로, 그림자에서 실체로 옮겨 가는 은혜로운 전환의 역사이다. 하나님께서는 둘째를 통해 첫째를 구원하시고, 작은 자를 통해 큰 자를 섬기게 하시며, 십자가의 어리석음으로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러므로 유월절의 피 아래 선 모든 사람은 오늘도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살아간다.

나는 첫 출생의 운명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나는 둘째 출생의 은혜로 다시 시작한다.
둘째의 원리는 곧 구원의 원리이며, 은혜의 원리이다.

칭의에서 성화로

유월절은 끝이 아니라 출발이다. 피 아래 선 자는 즉시 누룩을 제거하는 삶

으로 나아간다. 칭의는 단번의 선언이지만, 성화는 매일의 순종이다. 구원은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고, 거룩함은 그 사건에서 흘러나오는 삶의 방향이다.

식탁의 신학: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

유월절 식탁에는 세 가지가 놓인다. 불에 구운 어린양, 누룩 없는 빵, 쓴 나물이다. 불은 심판과 대리적 형벌을, 누룩 없는 빵은 옛 누룩 곧 죄와 위선과 악의 제거를, 쓴 나물은 속박의 쓰라림을 기억하게 한다. 여기에 더하여 허리를 띠로 동이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손에 쥔 채 먹는 자세는 구원이 머무름이 아니라 출발임을 선포한다. 구원은 종착점이 아니라 여정의 시작이며, 곧 무교절의 삶, 다시 말해 거룩함을 향한 비움과 새 반죽으로 이어진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한다.

>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고전 5:8)

유월절은 칭의의 출발점이고, 무교절은 성화의 길이다. 피 아래 있는 안전은 우리를 느슨하게 만들지 않으며, 오히려 누룩을 제거하여 새 덩어리(고전 5:7)가 되게 한다. 식탁의 모든 요소가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먹는 자세조차 복음의 방향성을 가르친다.

유월절에서 무교절로: 구속의 증표에서 성화의 여정으로

구원은 문턱에서 끝나지 않는다. 피 아래 선 자는 누룩을 쓸어내며 광야의 여정을 시작한다. 이집트의 습관을 버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살아가는 훈련, 곧 말씀과 성령님의 양식으로 사는 일상적 순종이 뒤따른다. 유월절의 새 달력은 새로운 생활 방식을 요구한다. 구원이 사건이라면, 성화는 습관이다. 구원은 선물이고, 성화는 그 선물을 입고 걷는 훈련이다. 유월절로 시작된 여정은 무교절의 거룩함, 초실절의 부활 소망, 오순절의 성령 충만

으로 이어져, 마침내 가나안의 안식을 향해 나아간다.

구속의 달력으로 사는 삶

유월절은 달력을 바꾼다. 소유권이 바뀌고, 예배의 근거가 바뀌며, 시간의 중심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동한다. 피의 표지를 가진 백성은 새로운 시간표 속에서 산다. 신앙은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이며, 내면적이면서도 공적이다.

집과 공동체: 표지의 바깥과 안

피는 집 바깥에 뿌려져서 하나님께 보이는 표지가 되었고, 식사는 집 안에서 가족이 함께 참여하였다. 이 이중성은 오늘날 우리에게 공적 증언과 공동체적 참여로 이어진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복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교회 안에서는 주의 만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한다. 유월절 어린양의 뼈를 꺾지 말라는 규례가 십자가에서 성취되었듯, 주의 만찬의 빵도 찢기되 뼈가 꺾이지 않은 그 몸을 기념한다. 문설주와 상인방에 뿌려진 어린양의 피라는 표지는 밖으로 향한 신앙 고백과 안으로 향한 언약의 식탁을 동시에 세운다.

새로운 시작의 징표들: 정체성·예배·시간

유월절 이후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바뀌었다. 그들은 더 이상 파라오의 소유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였다. 예배도 달라졌다. 그들은 피 아래에서 모여 하나님께 나아갔다. 시간 또한 바뀌었다. 그들은 구속의 달력 안에서 살게 되었다. 다시 태어난 성도에게도 같은 징표가 나타난다.

첫째, 소유권이 이동하였다.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주께서 값

을 치르고 사신 존재이고, 이제 나의 삶은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나를 사셨으므로 나는 그분의 소유로 살아간다. 이 정체성의 변화는 삶의 중심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둘째, 예배도 재구성되었다. 이제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공로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 피의 공로를 기초로 하여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간다. 나의 상태나 감정이 아니라 이미 흘려진 그리스도의 피가 예배의 근거가 된다. 그래서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되고, 거리감이 아니라 친밀함이 된다.

>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의거하여 새롭고 살아 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히 10:19)

셋째, 시간의 재배치도 이루어진다. 인생의 중심이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업적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옮겨진다. 회개는 과거를 반복해서 들춰보며 그 안에 묶이는 일이 아니다. 회개는 십자가가 지금도 유효하다는 사실 앞에서, 오늘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다시 말해 회개란 어제에 매이는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의 빛 아래서 오늘을 다시 정렬하는 영적 재배치이다. 이 회개의 능력은 유월절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유월절은 정체성을 바꾸고, 그 바뀐 정체성은 삶의 방식 전체를 새롭게 이끈다.

우리가 새롭게 두 번째 태어나는 순간, 과거는 더 이상 최종 기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고(요 3장), 그분께서는 값 주고 우리를 사셔서 자신의 소유로 만드시는데(고전 6:19–20) 그 값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이다(벧전 1:18–19).

각 집의 어린양, 각 사람의 믿음

유월절은 집 단위로 치러졌다(출 12:3–4). 한 어린양이 한 집을 덮었다. 구

원은 개인의 믿음을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가정과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서 자라게 하신다. 부모의 신앙은 자녀에게 피의 표지를 배우는 자리를 마련하고, 교회는 주의 만찬으로 유월절의 은혜를 기념하고 선포한다. 주의 만찬은 희생을 반복하는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완성된 속죄를 기억하고 선포하는 집회이다.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고전 11:26)

신앙은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이다. 성도 각자는 바울의 고백처럼 스스로 믿고 고백해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 2:20)

유월절의 핵심 의미

유월절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어린양께서 새로운 시작을 여신 날을 보여 준다. 유월절은 일곱 명절 전체의 기초이며,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시작하시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날이다.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어린양을 준비하시고 그 피로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신 날이 어떤 날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준다.

성도의 삶이 시작되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성경의 대답은 분명하다. 유월절이 있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민족이 되는 것은 단순히 이집트 땅에 거한다고 해

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새로운 출생을 지닌 채 이집트를 떠나야 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야 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시내 산에 이르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비로소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였다.

유월절은 출발점이고, 시내 산 언약은 정체성의 확립이며, 가나안 입성은 약속의 성취이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제부터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말하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하겠는가? 유월절이 있어야 한다. 유월절의 핵심은 무엇인가? 어린양과 피이다.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유월절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곧 다시 태어난 삶의 시작이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한 번의 삶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성경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삶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삶 역시 분명한 '시작'이 있어야 한다. 우리 모두에게 육적인 출생의 날이 있듯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도 영적인 출생의 시작이 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구원받은 날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이다.

"나는 구원받은 날짜를 정확히 모른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확신은 내가 언제 결단했느냐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신 그 날, 그 사건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신의 근거이다. 내가 그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믿기로 결심했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언제 나를 위해 죽으셨느냐이다.

이 때문에 유월절은 일곱 명절의 기초가 되며, 동시에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자리이다. 구원이 시작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삶이 따라와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들로서, 그에 걸맞은 삶의 열매를 밖으로 드러내야 한다.

그래서 유월절 다음에는 반드시 무교절이 온다. 구원 다음에는 거룩함이

온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이다. 유월절이 시작이라면, 무교절은 그 시작 이후에 반드시 이어져야 할 삶의 방향이다.

도전의 말씀

당신은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믿는가? (요 1:12)

당신은 두 번째로 태어났는가? (요 3:3, 5)

당신에게는 유월절이 있는가? (요 5:24)

당신은 예수님을 우리의 어린양, 피를 흘려 주신 나의 어린양, 나의 구원자로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는가? (요 1:12)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은 다르다.

"그분은 4대 성인 중 한 분이었다", "이천 년 전에 살았다", "죄가 없었다고 하더라",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들었다." 이러한 지식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핵심은 이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나의 예수님이 되셨는가?

그분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있는가?

구원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이고, 정보가 아니라 만남이다.

'받는다'(receive)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배구에서 상대편으로부터 서브가 넘어오면 공은 이미 이쪽으로 온다. 그 순간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리시브이다. 받는 순간이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된다.

이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아래 놓인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심판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이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으며,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마음에 받아들인 적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것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이 없었던 것과 같다.

아무리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선하게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여전히 어디에 있는가? 이집트에 있다.

그러나 이집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 첫 출발이 무엇인가? 유월절이다. 어린양이 죽고, 피가 문설주에 뿌려져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사건이 있어야 그다음에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된다. 이것이 유월절의 의미이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두 번째로 태어난 일이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육적인 출생 말고, 위로부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출생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유월절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살다가, 어린양이 죽고 피가 흘려지고 그 피가 뿌려짐으로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우리의 유월절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분만이 나의 유월절 어린양임을 인정하며 그분을 받아들일 때 모든 것이 시작된다.

갈보리에서 이루어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

다시 묻는다. 당신은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믿는가? 당신은 두 번째로 태어났는가? 당신에게는 유월절이 있는가?

참된 삶은 두 번째로 태어날 때 시작된다. 하나님의 달력에서 그날은 '달들의 시작'이 된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양께 나아가 그분과 함께 한다면, 당신의 삶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 5:24)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
당신의 유월절은 언제였는가?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의 문설주에 뿌려졌는가?
이는 생사를 가르는 질문이며, 영원을 결정하는 질문이다.

결론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집트 탈출의 출발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달력에서는 일곱 명절 전체를 떠받치는 첫 기초였다. 그 밤에 흘린 어린양의 피는 맏아들을 심판에서 건져 낸 표식이었으며, 동시에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양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미리 보여 주는 예표였다. 유월절이 없으면 나머지 명절들은 모두 허공에 떠 있는 의식에 지나지 않는다. 피로 시작되지 않은 거룩함, 부활, 성령 충만, 영광의 소망은 성경이 말하는 구속의 질서와 부합하지 않는다.

성경은 유월절을 통해 구원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친다. 그 중심에는 '어린양의 피'가 있다. 흠 없는 어린양이 대신 죽어야 했고, 그 피가 실제로 문설주와 인방에 뿌려져야 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게 하시면서도 자신의 거룩한 요구를 만족시키시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보여 준다. 어린양의 죽음은 막연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죄의 삯은 사망이라는 의의 원칙 위에서 집행된 대속적 죽음이다. 피의 표지는 사람의 감정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에 따라 심판이 넘어간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드러낸다.

이 유월절의 구조 안에서 첫째 출생과 둘째 출생의 복음적 원리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첫째 출생 안에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와 사망 아래 놓여 있으며, 장자 심판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피 아래 선 자는 둘째 출생, 곧 위로부터의 새 탄생으로 옮겨진다. 유월절 밤에 피를 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듯이,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유월절은 단지 한 민족이 노예 상태에서 풀려난 사건이 아니라 죄인들이 첫 사람 아담 안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가는 구원의 모형이다.

이 모든 내용은 오늘날 성도 각자의 삶을 향한 개인적 질문으로 돌아온다. 유월절은 객관적인 역사 속 사건이면서 동시에 개인의 영적 출발점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월절 어린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피가 실제로 나의 문설주에 뿌려진 날, 즉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인 순간이 있는지가 핵심 질문이다. 구원은 집단적 정체성이나 가정 배경으로 대체될 수 없고, 각 사람이 '나의 유월절'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결국 유월절은 "성도의 삶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다. 참된 삶은 첫 출생이 아니라 둘째 출생에서 시작되며, 그 분기점에는 언제나 어린양의 피가 놓여 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인생에는 반드시 유월절이 있어야 한다. 그날의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실제로 적용된 사건이 존재하느냐가 중요하다. 유월절에 대한 이 모든 도전은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귀결된다.

"당신에게는 유월절이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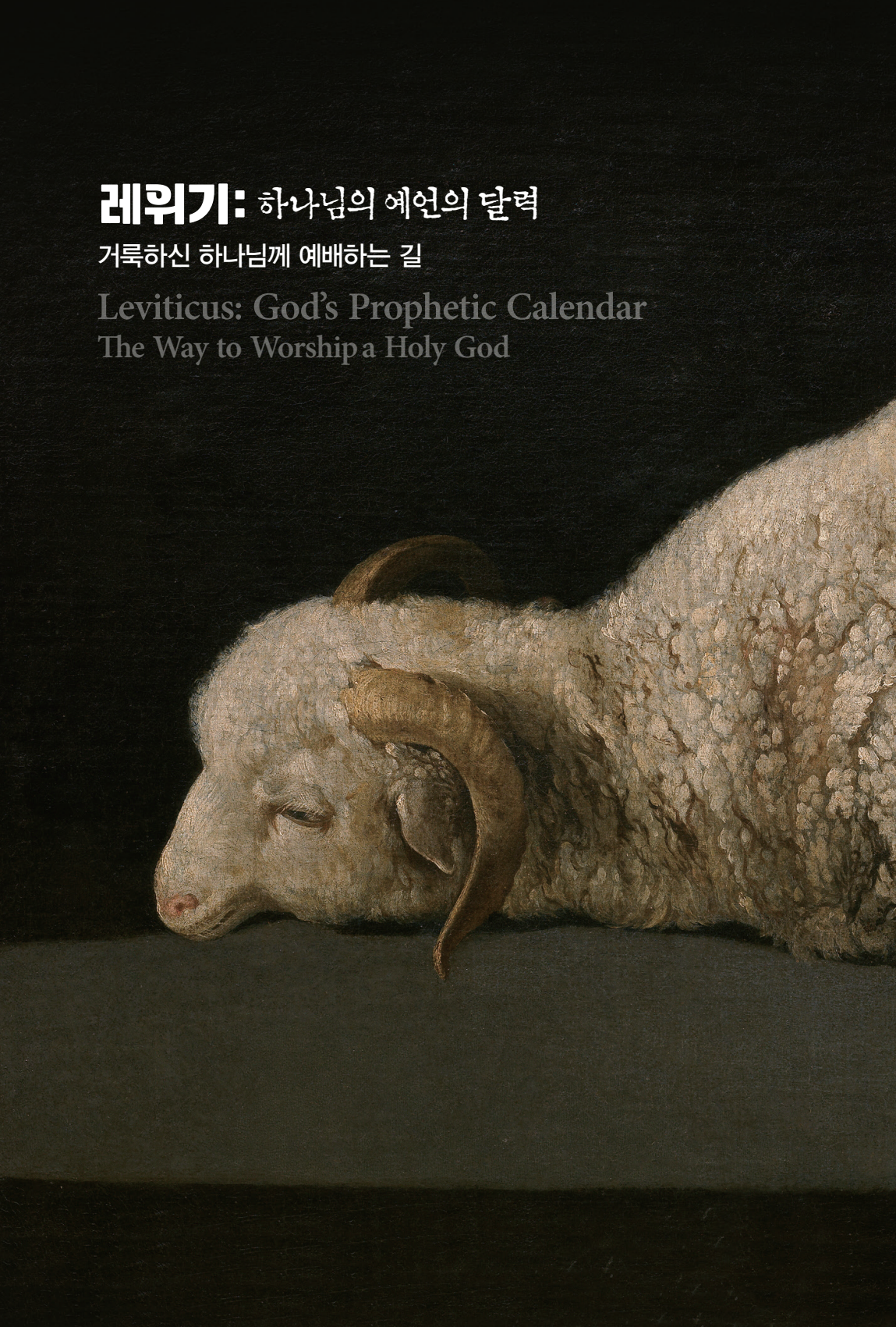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 하나님의 달력 위에서 자기 인생의 첫 페이지를 제대로 여는 출발이다.

레위기: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

Leviticus: God's Prophetic Calend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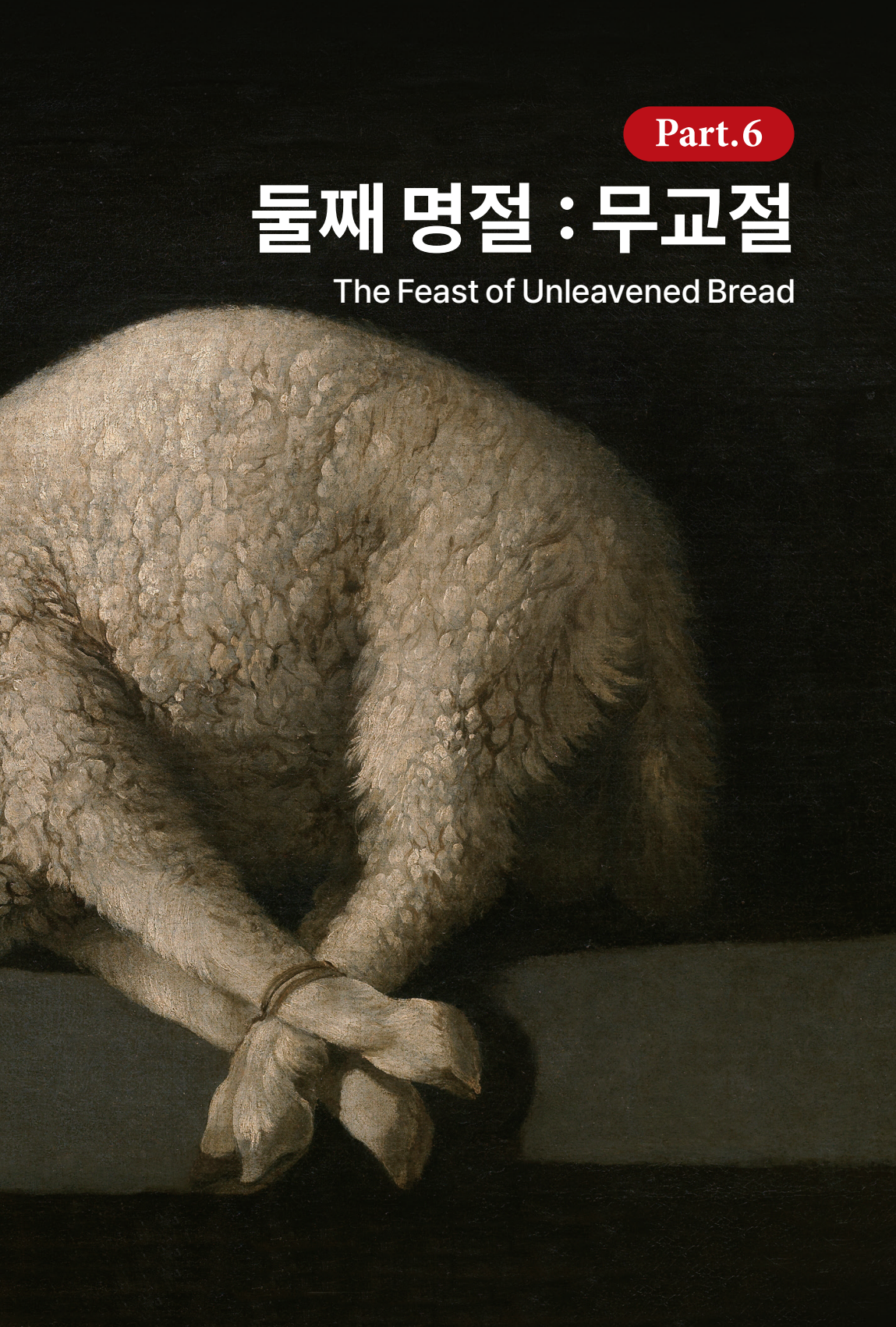
The Way to Worship a Holy God



Part.6

둘째 명절 : 무교절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제6장 둘째 명절: 무교절

같은 달 십오일은 **주**를 위한 무교절이니 너희는 반드시 이레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니라. 첫째 날에는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그날에는 아무 노역도 하지 말 것이며 너희는 이레 동안 **주**께 화제 헌물을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그날에는 아무 노역도 하지 말지니라. (레 23:6–8)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일곱 명절은 유월절에서 시작해 장막절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시작, 거룩한 삶, 부활과 성령 강림, 그리고 재림의 소망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시간 속에 새겨 둔 '하나님의 달력'이다. 이 가운데 첫째 명절인 유월절은 어린양과 그 피를 통해 죄인이 심판에서 구출을 받고, 첫째 출생에서 둘째 출생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출발점을 보여 주었다. 유월절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를 말한다면, 그 바로 다음에 놓인 둘째 명절 무교절은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 주는 명절이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이다. 시간상으로도 유월절과 사이에 공백이 없듯, 성도의 삶에서도 구원과 성화 사이에는 비어 있는 기간이 없다. 어린양의 피로 이집트를 떠난 백성은

곧바로 집 안의 누룩을 찾아 치우기 시작했고, 이는 구원받은 사람이 즉시 삶 속의 죄와 부패를 제거해 가야 함을 상징한다. 유월절이 단번에 일어난 구원의 사건이라면, 무교절은 남은 생애 동안 계속되는 거룩함의 과정이다.

이 장에서는 먼저 유월절과 무교절의 순서가 왜 '구원 이후 성화'라는 복음의 질서를 보여 주는지 살펴본다. 이어서 성경이 누룩을 통해 죄·위선·도덕적 타락·왜곡된 교리를 어떻게 경고하는지 정리하고, 성화를 위치적·실제적·완전한 성화라는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이 성도의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곧 "어린양을 먹는다."는 표현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먹는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적용 차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무교절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구원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성도의 일상과 교제, 그리고 거룩함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데 반드시 필요한 걸음이다.

무교절 - 성도들의 성화

이제 둘째 명절인 무교절을 살펴보려고 한다. 레위기 23장 6-8절이 보여 주듯이, 무교절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성화를 예표로 보여 주는 명절이다. 이 명절의 핵심은 누룩을 제거하는 데 있다.

성경 전체에서 누룩은 일관되게 죄와 악을 상징하므로, 누룩을 치우는 행위는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삶 속의 죄를 버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다시 말해, 무교절은 구원 이후에 시작되는 지속적인 정결과 순종의 삶, 곧 성화를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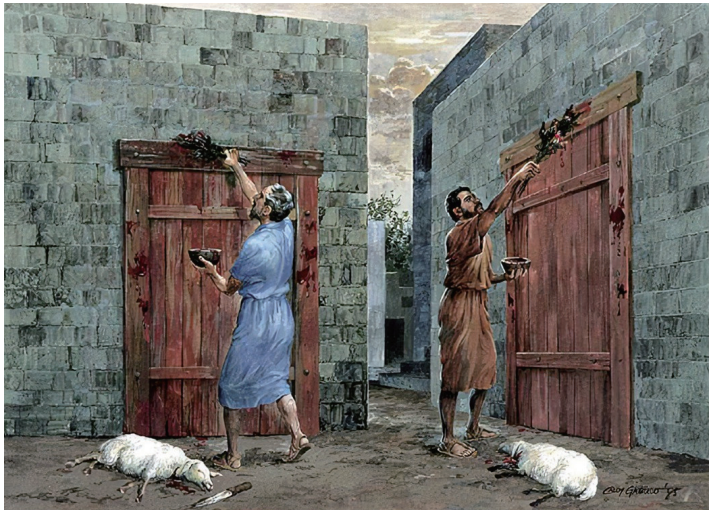
무교절은 유월절 직후 곧바로 시작된다. 유월절 어린양이 1월 14일 해 질 때 죽임을 당하고, 해가 지자마자 15일이 시작되므로 두 명절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없다. 이처럼 유월절과 무교절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연속된 사건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두 명절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묶어 언급하

기도 한다. 누가복음 22장 1절도 이를 반영하여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라고 기록한다.

유월절과 무교절의 관계

유월절과 무교절의 순서는 분명하다. 반드시 유월절이 먼저이고, 그다음이 무교절이다. 무교절이 먼저 올 수는 없다. "죄를 열심히 치우면 구원받지 않겠는가", "행실이 깨끗해지면 그때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생각은 성경적인 순서가 아니다. 시작은 언제나 유월절이다. 구원이 먼저이고, 그다음에 죄를 치우는 삶이 따른다.

죄를 아무리 제거해도 유월절이 없으면 여전히 이집트에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이다. 먼저 이집트를 떠나야 하며, 그다음에 누룩을 치워야 한다. 이집트에 머문 채 선한 일을 하겠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첫째는 유월절, 곧 구원이고, 그다음이 무교절, 곧 성화이다. 성화를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아무도 누룩을 치움으로써 구원을 받지 않는다. 구원을 받았기에 누룩을 치우는 것이다.



이집트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 두 명절은 시간적으로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유월절은 1월 14일에 지킨다. 이스라엘의 하루는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이므로, 14일 저녁에 어린양을 죽이는 순간 14일이 끝나고 곧바로 15일, 즉 무교절이 시작된다. 이는 성화가 구원받은 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자마자 즉시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즉, 구원과 성화 사이에는 공백 기간이 없다.

유월절은 하루만 지키는 명절이다. 어린양의 죽음은 단 한 번으로 충분하다. 이는 그리스도의 단번의 죽음을 예표로 보여 준다.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죄를 향해 한 번 죽으신 것이요, 그분께서 살아 계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 계시는 것이니 (롬 6:10)

히브리서 10장 10-14절 역시 그리스도의 희생이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진 사건임을 분명히 증언한다. 구원은 반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받으면 영원하다.

반면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켜진다. 누룩을 치우는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 집 안에서 누룩이 발견되면 큰일이 나듯이, 삶 속의 죄도 계속 살피고 제거해야 한다. 어린양은 한 번 죽고, 누룩은 계속해서 치워야 한다. 유월절은 삶에서 단 한 번 일어나는 구원의 사건을 보여 주고, 무교절은 구원받은 이후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성화의 삶을 보여 준다.

이 차이는 의미상으로도 분명하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 주는 명절이다. 반면 무교절은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 준다. 유월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기초이고, 무교절은 그 관계 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타낸다.

7일 동안 지켜지는 무교절은 완전한 기간을 의미한다. 이는 성도의 삶 전체가 성화의 과정임을 가르쳐 준다. 한 번 세워진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

지만, 그 관계 위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는 날마다 점검되고 다듬어져야 한다. 이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함께 가르쳐 주는 핵심이다.

구원과 성화: 관계와 교제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 그 아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형성된다. 이 관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끊고 싶다고 해서 끊을 수 있는 관계도 아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는 출생과 동시에 확정된다. 그러나 그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교제가 원활한 것은 아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교제는 원만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부모와 자식이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비슷한 삶의 방향을 공유하며, 서로 협력하고 존중할 때 교제는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서로의 집을 오가며 거리낌이 없고, 만남 자체가 부담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의 뜻을 거부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며, 스스로 다른 길을 선택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그 순간부터 자식의 마음속에는 부모의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결국 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멀어지게 된다. 관계는 여전히 부모 자식이지만, 교제는 원활하지 않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극단적인 예를 들어 보자. 어떤 사람이 살인이라는 중죄를 저질러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입장에서 그는 여전히 아들이고 딸이다.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제는 사실상 단절된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 자녀와의 교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 자녀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부모에게로 돌아오는 일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물론 인간 사회에서는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 관계와 교제가 왜곡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이 지으신 창조물 사이의 관계에서는 다르

다. 하나님에게는 잘못이 없다. 문제는 언제나 사람에게 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질 때, 그 원인은 언제나 인간의 죄에 있다.

구원과 성화의 본질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는 것이 곧 구원이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순간, 구원은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이는 아직 진행 중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확정된 사실이다.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다시 태어나며,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어 "죄가 많아졌으니 이제는 자녀가 아니다."라고 선언하시는 일은 결코 없다. 구원은 단회적이며, 그 효력은 영원하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신분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이것이 바로 성화이다. 무교절은 누룩이 들어 있지 않은 빵을 먹으라는 명령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책임과 의무를 가르친다. 어린양의 피로 구속받은 이후에도, 성도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삶의 방향이 있다. 이는 부모에게서 태어나 자녀가 된 후, 부모의 명예와 뜻을 존중하며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따르는 이치와 같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어려워진다. 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부담스러워지며, 교회와 말씀, 기도의 자리에서도 점점 멀어지게 된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갈망이 생기며,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는 일이 기쁨이 된다. 이때 교제는 점점 더 깊어진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변하지 않지만,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다. 죄가 쌓이면 관계 자체가 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교제는 반드시 불편해진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위축되고, 그 결과 신앙의 기쁨은 점점 흐려진다.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상징하며, 이는 단지 외적인 도

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과의 원만한 교제 속에서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교제의 회복

그렇다면 이 깨어진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다른 방법은 없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뿐이다. 하나님께서는 떠난 자녀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신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둘째 아들의 비유는 이를 잘 보여 준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받아 먼 나라로 떠나 모든 재산을 허비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기다린다. 이유는 단 하나이다. 그는 여전히 아들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 아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와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눅 15:21)

그 겸손한 회개 앞에서 아버지는 그를 정죄하지 않고, 반지를 끼워 주고 신을 신기며 잔치를 베푼다. 이것이 교제의 회복이며, 성화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죄를 지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려 한다. 요나가 그러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멀리 도망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죄는 언제나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뿐,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는 못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원이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과 같다. 그 관계 위에서 이루어지는 날마다의 사귐이 성화이다. 유월절이 관계의 시작이라면, 무교절은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교제의 회복과 유지이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과 성화의 질서이다.

누룩의 의미

성경에서 '누룩'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악과 죄, 그리고 부패한 교리의 상징으로 사용된다. 누룩은 결코 중립적인 상징이 아니다. 누룩이 스며드는 곳에는 반드시 부패가 일어나며, 그 영향은 서서히 퍼져 결국 전체를 변화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주의 만찬에서 사용하는 빵은 반드시 누룩 없는 빵이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도 발효된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어야 한다.

그래야 죄 없고 순결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바르게 나타낼 수 있다. 누룩은 본질적으로 거룩함과 양립할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누룩에 대한 경고

하나님께서는 무교절과 관련하여 매우 엄중한 경고를 주셨다.

> 이레 동안 너희 집에서 누룩이 발견되지 않게 할지니라. 누구든지 누룩 있는 것을 먹으면 바로 그 혼은 타국인이든지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이스라엘 회중에게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누룩을 넣은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너희 모든 거처에서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출 12:19–20)

여기에서 '끊어진다'는 표현은 단순한 징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육체적 죽음을 포함하며, 하나님과의 교제 및 하나님의 백성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상태를 가리킨다.

성경은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언한다.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으나 용서받았고, 모세는 살인을 저질렀으나 용서받았으며, 다윗은 살인과 간음을 범했으나

회개하여 용서받았다. 베드로 역시 주님을 부인했으나 회복되었다. 이들은 모두 죄를 지었지만, 회개를 통해 용서받은 성도들이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가지를 엄중히 경고한다. 성도가 삶 속에서 악을 제거하기를 의도적으로 거부할 때, 그 죄가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모든 불의가 죄이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느니라. (요일 5:16–17)

이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는 뜻이 아니다. 다시 태어난 성도는 결코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러나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의 징계로 끊어질 수 있다. 성경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삶(롬 8:13), 열매 맺지 못하는 삶(요 15:2), 성령님께 거짓말하는 죄(행 5:1–6),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반역(민 16:41–49), 혹은 심각한 도덕적 죄(고전 5:1–8)가 그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온 덩이를 뜨게 하는 누룩

그러므로 성도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숨겨진 죄까지도 고백하며 자신의 삶에서 오래된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 이것이 무교절에서 누룩을 치우라는 명령의 본래 의미이다.

세 가지 누룩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침 가운데 누룩을 자주 언급하시며, 성도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악의 원리를 밝히셨다. 성경이 경고하는 누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속이는 누룩 – 위선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 (눅 12:1)

'위선'이라는 말은 본래 연극배우를 가리키는 용어였다. 위선자는 실제 삶과 다른 모습을 의도적으로 연출하는 사람이다. 겉으로는 신앙적인 언어와 행동을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상태가 바로 위선이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선한 일을 행하는 종교적 위선을 강하게 책망하셨다(마 6:1).

중요한 점은, 연약함 자체가 위선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책임에 이르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은 위선이 아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서도 마치 이룬 것처럼 가장하는 태도가 위선이다(요일 1:6). 이러한 위선의 누룩은 순전함과 진실함의 무교병에서 성도를 멀어지게 한다.

2. 속되게 하는 누룩 – 도덕적 타락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막 8:15)

헤롯의 누룩은 도덕적 타락과 세속적 욕망을 상징한다. 헤롯의 삶은 비윤리적인 생활 방식, 권력에 대한 집착, 그리고 음행으로 드러났다(마 14:1–4; 눅 13:31–32).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누룩이다.

고린도 교회 역시 이 누룩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를 겪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도덕적 타락을 누룩에 비유하며 단호하게 명령한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고전 5:7)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위치적으로는 누룩 없는 자들이다. 그러나 실제 삶에

서는 오래된 누룩, 곧 악한 행실을 제거해야 한다. 이것이 실제적 성화이다.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후 7:1)

3. 교리의 누룩 – 진리의 왜곡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마 16:6, 11–12)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외적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율법주의였다.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천사와 부활, 영적 세계를 부정하는 합리주의였다(마 22:23, 29). 그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였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또 다른 형태의 교리적 누룩이 퍼졌다. 은혜로 의롭다 함을 받은 성도들이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이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전반에서 이 교리적 누룩을 강하게 반박한다(갈 2:19–21; 3:1–3; 3:25–26; 4:4–6).

이처럼 누룩은 단지 행위의 문제만이 아니라 도덕과 사상, 그리고 교리의 영역에까지 스며든다. 그러므로 성도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곧 위선과 세속성, 그리고 왜곡된 교리를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무교절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다. 이는 구속받은 자가 삶 전체에서 누룩을 제거하며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부르심이다.

성화란 무엇인가?

무교절은 구원 이후 성도의 삶 속에 남아 있는 더러움과 부패를 제거해 가는 과정, 곧 성화를 상징한다. 성화는 신학적으로 'sanctification'이라 불리며, 이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하기아조'(hagiazo)는 '구분하다', '분리하다'

는 뜻을 지닌다. 곧 성화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라고 부른다. 이 명칭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롬 1:7; 고전 1:2; 엡 1:1; 빌 1:1). 성도라는 말은 특별한 거룩한 업적을 이룬 소수의 인물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다. 성경에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모든 신자를 의미한다.

이를 분명히 보여 주는 예가 고린도 교회이다. 고린도 교회에는 음행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심각한 죄에 빠진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고전 1:2)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실제 삶에서는 거룩하지 못했지만, 신분상으로는 이미 거룩히 구별된 성도들이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들에게 오래된 누룩을 제거하라고 강하게 권면한다.

성화의 세 단계

성경이 말하는 성화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위치적 성화이다. 이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님에 의해 단번에 하나님께 구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살다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구분되어 이집트를 떠난 것처럼,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옮겨진다. 이 위치적 성화가 곧 구원이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벧전 1:2)이라 부르며, 바울 역시 성도들이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렀다."(살후 2:13)고 증언한다. 위치적 성화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분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분리해 두신 상태이다.

둘째, 실제적 성화이다. 이것이 바로 무교절이 강조하는 핵심이다. 실제적 성화란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삶 속에서 죄와 부패를 제거하며 점진적으로 거룩함을 이루어 가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살전 4:3)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살전 4:7)

위치적 성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선언하시는 일이라면, 실제적 성화는 성도가 평생에 걸쳐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말씀의 훈련을 통해 이루어 가는 삶의 과정이다. 성령님은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 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요 15:3)고 하신 것처럼, 말씀은 성화를 이루는 도구이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분리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 자라가게 된다. 이는 하나님과 동등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닮아 가는 삶을 의미한다.

셋째, 완전한 성화이다. 이는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진다. 성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든, 그때 우리는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된다.

성경은 반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레 11:44-45; 19:2; 20:7; 벧전 1:16)라고 명령하며,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같이 너희는 완전할지니라."(마 5:48)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루라는 요구라기보다, 모든 성도가 평생 붙들

고 나아가야 할 목표를 제시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거짓, 질투, 미움, 험담, 위선, 이기심과 같은 누룩을 끊임없이 제거해야 한다. 첫째 아담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확실한 소망을 제시한다.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질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굳건히 세우시게 하려 함이라. (살전 3:13)

사도 요한도 같은 소망을 전한다.

>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요일 3:2–3)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변화되며, 존재 전체가 성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화로운 몸이다. 성화는 위치적 성화, 실제적 성화, 그리고 완전한 성화로 이어진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구원의 성화가 있고, 이 땅에서 누룩을 제거하며 살아가는 삶의 성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성화가 있다. 이것이 무교절이 가르쳐 주는 성화의 전체 그림이다.

성화의 어려움

성화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이다. 구원은 자신의 죄인 됨을 깨닫고, 어떤 인간적인 가능성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결단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요구되는 것

은 부분적인 신뢰가 아니라 전적인 의탁이다. 다른 어떤 것에도 기대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길 때,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구원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옛 사람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옛 사람은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끈질기게 성도의 삶을 붙들고 저항한다. 이 점에서 구원은 단순하고 즉각적인 사건인 반면, 성화는 길고 어려운 과정이다. 출생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한 사람이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기까지는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과 같다.

때로는 오랜 시간이 흘러도 성숙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성화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늘날 교회가 겪는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 성화의 부재이다.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성도의 삶에서 성화가 약해질 때, 교회 역시 세상 앞에서 신뢰를 잃게 된다. 이로 인해 교회는 세상의 염려와 비판의 대상이 되고 만다.

성화가 중요한 이유는, 성도의 삶 속에 제거해야 할 누룩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이 누룩은 단지 행위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삶의 태도와 사고방식, 신앙의 방향, 그리고 교리 안에도 누룩이 스며들 수 있다. 잘못된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공동체 전체가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행위의 누룩뿐만 아니라 사상의 누룩, 교리의 누룩도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단정함과 절제, 삶의 전 영역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태도가 성화의 삶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매우 힘겹다. 사도 바울조차 로마서 7장에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다른 법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며,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라고 탄식하였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성화가 얼마나 치열하고 어려운 싸움인지를 잘 보여 준다.

그렇다고 해서 성화를 포기할 수는 없다. 성화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레 11:44–45; 19:2; 20:7; 벧전 1:16)

그러므로 성화에는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평생에 걸친 싸움이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은 짧지만, 성숙한 어른으로 자라기까지 부모의 헌신과 인내가 필요한 것처럼, 성도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훈련과 순종이 요구된다.

성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품이 변화되고, 옛 습관이 다루어지며, 죄에 대한 민감함이 깊어지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싸움이 계속되는 영역들이 남아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성화의 현실이며, 동시에 성화의 어려움이다.

그러나 바로 이 긴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다듬으시고, 누룩을 제거하시며, 점점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빚어 가신다. 성화는 어렵지만, 반드시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다.

성화의 실제적 방법: 말씀을 먹는다

그렇다면 실제적인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복잡한 논의를 이어 갈 필요는 없다. 성경은 이미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핵심은 유월절과 무교절의 규례 속에 담겨 있다.

어린양을 먹으라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과정이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피를 바른 후 그 어린양을 먹으라고 명령하셨다. 피는 생명을 구하는 표지였고, 어린양의 고기를 먹는 일은 그 구속받은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주께서는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출 12:8)라고 명령하셨다. 모세는 이 규례를 분명히 하여, 피로 구속받은 자들만이 어린양을 먹을 수 있으며, 외국인이나 나그네는 참여할 수 없다고 기록하였다(출 12:43-51). 이는 구속 이후에 주어지는 영적 양식의 질서를 분명히 보여 준다.

이 원리는 성도의 성화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어린양의 피로 구속을 받은 이후, 성도는 성화의 과정에서 반드시 '어린양을 먹어야' 한다. 물론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다.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베드로전서 2장은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설명한다. 사도 베드로는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권면한다. 이는 무교절에 누룩을 제거하라는 명령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어서 그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한다(벧전 2:1-2).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존재이다. 그러므로 새로 태어난 아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순수한 젖을 먹어야 한다. 불필요한 말과 혼합된 가르침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영적 성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말씀이 쌓일수록 분별력이 생기고, 무엇이 악한 누룩이며 무엇이 거룩한 삶에 합당한지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삶 속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능력이 자라나며, 점점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

거룩한 삶의 실천

유월절 어린양의 피가 뿌려진 집에서는 무교절 7일 동안 누룩을 찾고 제거하는 일이 계속되었다. 이는 구원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보여 준다. 구원 이후의 삶은 지속적인 점검과 정결의 과정이어야 한다.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서 평생 유아 상태로 머무는 것이 정상일 수 없듯, 구

원받은 성도 역시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 그 성장은 삶 속에 남아 있는 죄와 악의 흔적을 제거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구속받은 자들과 그들을 구속하신 주님 사이에 달콤하고 복된 교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 누룩을 치우지 않는 한,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는 어렵다. 구원은 이미 주어졌지만, 그 구원의 즐거움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만 깊이 누릴 수 있다.

따라서 무교절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분명하다. 하나는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린양을 먹는 것이다. 누룩을 제거하는 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반드시 어린양을 먹어야 한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먹는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에 대해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매우 강한 표현으로 말씀하셨다.

>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 6:53–54)

이 말씀은 종종 오해되지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결코 '주의 만찬' 자체를 직접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물론 주님께서 자신의 마지막 유월절과 무교절 밤에 주의 만찬을 제정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요한복음 6장의 문맥은 주의 만찬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요한복음 6장은 '생명의 빵'에 관한 설교이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있다.

주님께서는 설교의 결론에서 그 의미를 분명히 밝히신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 6:63)

요한복음 6장 51-5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을 먹으라는 말씀을 반복하신다. 그러나 63절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먹음'이 육적인 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임을 명확히 하신다. 즉,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실제로 그분의 육신을 먹어야 한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계시한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 1:1)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육신이 되신 말씀' 자체라기보다, 그분께서 선포하신 기록된 말씀, 곧 성경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주님께서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인 '말들'(words)이라고 표현하신 데서 분명히 드러난다.

말씀은 생명을 주고 보존한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며, 동시에 그 생명을 보존한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 5:24)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죄인이라도 영적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동시에 그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붙들고, 자라게 하며, 강건하게 하는 능력도 지니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젖'으로, 또 '단단한 음식'으로 묘사한다(벧전 2:2; 히 5:12–14). 대언자 예레미야 역시 이를 자신의 경험으로 증언한다.

>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으매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렘 15:16)

그러므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연구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영적 양식을 스스로 거절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자녀의 실제적인 성화와 영적 성장은 전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데 달려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반드시 성장하게 된다. 성장이 이루어질 때 선과 악을 분별할 힘이 생기며, 악한 것을 버릴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도 함께 자라난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곧 유월절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다. 이것이 무교절이 가르쳐 주는 참된 의미이며, 성화의 실제적인 길이다. 결국 무교절은 구원 이후의 삶이 무엇으로 유지되고 성장해야 하는지를 보여 준다.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시작된 구원의 삶은,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삶을 통해 성화로 이어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통해 성도에게 전하시는 메시지이다.

결론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유월절 바로 뒤에 두신 이유는, 구원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기 위함이다. 어린양의 피로 이집트를 떠난 백성은 곧바로 집 안에 남아 있는 누룩을 찾고 제거해야 했다. 이는 구원받은 성도가 즉시 삶 속의 죄와 부패, 위선과 타협을 제거해 가야 한다는 성화의 부르심을 상징한다. 유월절이 '한 번, 단번, 영원한' 구원의 사건이라면,

무교절은 '날마다, 평생에 걸친' 거룩함의 과정이다.


누룩이 없는 유월절 음식

성경은 누룩을 통해 성화의 실체를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겉으로만 신앙을 연출하는 위선의 누룩, 세상의 쾌락과 욕망에 휘말리는 도덕적 타락의 누룩, 은혜를 흐리게 만드는 율법주의와 세속적 합리주의, 그리고 왜곡된 교리의 누룩은 모두 성도의 삶과 교회의 순수함을 조금씩 갉아먹는다. 누룩은 처음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대로 두면 결국 전체를 부풀리고 변질시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시며, 구원받은 자가 이미 신분상으로는 '누룩 없는 자'이지만 실제 삶 속에서도 그에 합당하게 새 덩어리로 살아가야 한다고 요구하신다.

성화는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매일 반복되는 선택이다. 구원은 한 번의 믿음으로 관계가 세워지는 사건이지만, 성화는 그 관계 안에서 교제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과정이다. 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무너뜨리지는 못하지만, 그 자녀와 아버지 사이의 교제와 친밀함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그래서 무교절은, 이미 유월절을 통과한 자들에게 "이제는 누룩을 치우며 살라."고 촉구한다. 숨겨진 죄를 인정하고 버리는 회개, 위선 대신 진실함을 택하는 정직, 세상의 욕망 대신 하나님의 뜻을 좇는 절제,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거절하는 교리적 깨어 있음이 모두 이 싸움의 일부이다.

그러나 누룩을 치운다는 것은 단지 "하지 말라."라는 금지 조항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무교절은 누룩을 비워 내는 동시에, 어린양을 먹는 명절이다. 구속받은 자가 실제로 거룩함에 이르려면, 비워 낸 자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 성령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양심을 비추시고, 생각을 새롭게 하시며, 의지에 힘을 주실 때, 성도는 죄를 이겨 낼 수 있는 실제적 능력을 얻게 된다. 말씀을 먹지 않는 성화는 결국 결심과 의지만으로 버티려는 도덕주의로 흐르지만, 말씀을 먹는 성화는 안에서부터 사람이 바뀌어 가는 은혜의 길로 나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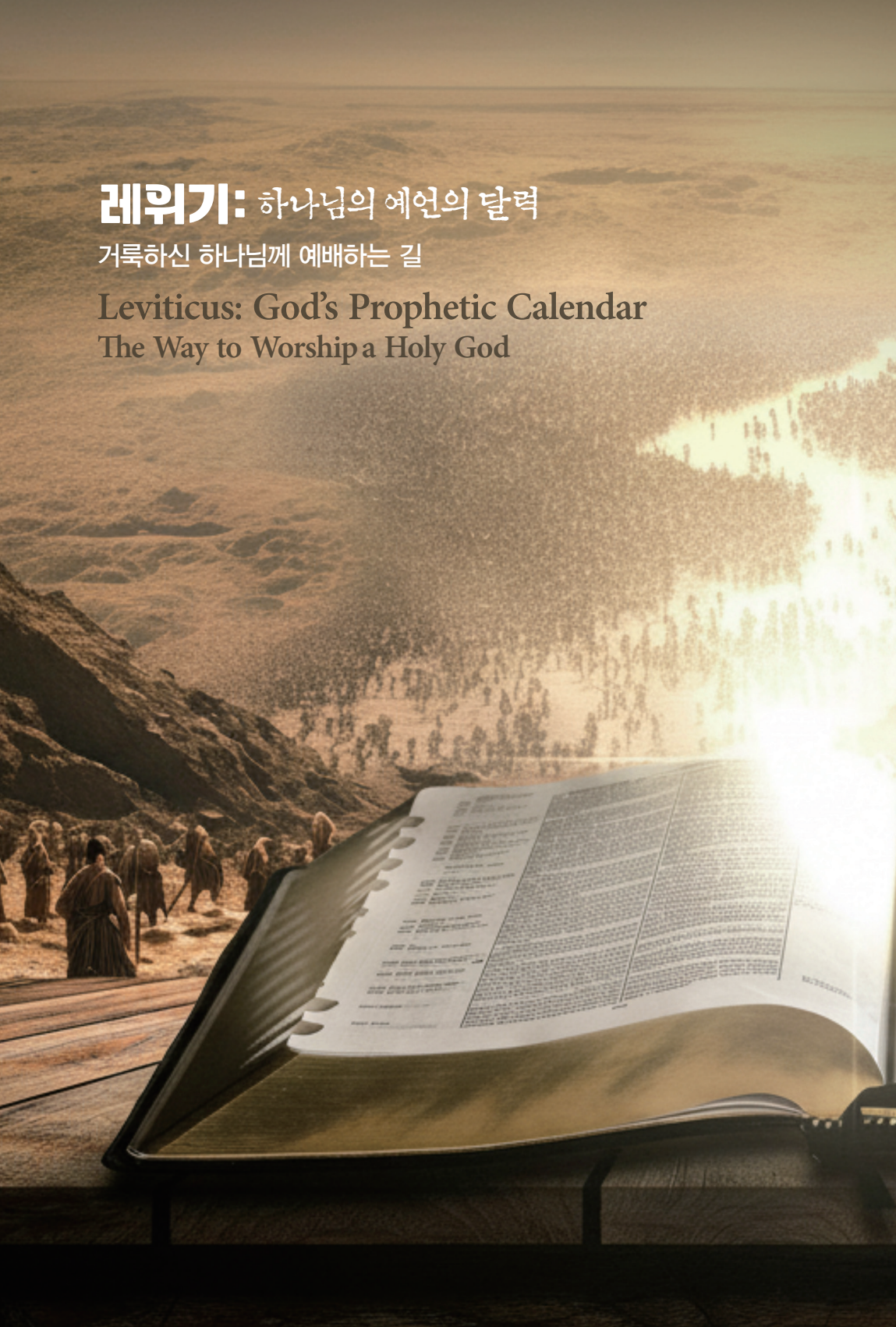
결국 무교절이 가르치는 핵심은 분명하다.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이미 구속받은 자는, 이제 그 어린양을 먹으며 누룩을 치우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다. 구원은 죄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성화는 죄의 습관과 세력에서 점점 자유롭게 한다. 이 과정은 느리고 어렵고 때로는 자주 넘어지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긴 여정을 통해 자기 백성을 다듬으시며, 마침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흠 없는 신부로 세우신다. 유월절이 "당신에게는 유월절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무교절은 "유월절 이후, 당신의 삶 속 누룩은 얼마나 치워졌는가? 그리고 오늘도 어린양을 먹고 있는가?"라고 묻는다.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함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길이다.

레위기: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

Leviticus: God's Prophetic Calendar

The Way to Worship a Holy God





Part.7

셋째 명절 : 초실절

The Feast of Firstfruits

제7장 셋째 명절: 초실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서 흔들되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지니라.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그 날 너희는 일 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숫양을 번제 헌물로 **주**께 드리되 그것의 음식 헌물은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십분의 이 *에바*가 될지니라. *그것은* 향기로운 냄새로 **주**께 드리는 화제(火祭) 헌물이며 그것의 음료 헌물은 포도즙 사분의 일 힌이 될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께 헌물을 가져오는 바로 그날까지 너희는 빵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푸른 *첫*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레 23:9–14)

앞에서 살펴본 대로, 유월절은 죄인이 어린양의 피 아래서 구원을 받고 이집트를 떠나는 출발점이며, 무교절은 그 이후 평생에 걸쳐 누룩을 치우며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화의 여정을 보여 준다. 이제 셋째 명절인 초실절은, 이렇게 구원받고 성화의 길을 걷는 성도에게 그 여정이 결코 허공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안전한 결말'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명절이다. 초실절은 첫

열매의 명절이며, 성도의 안전을 보증하는 핵심 단어는 부활이다.

초실절은 유월절과 무교절 한가운데인 니산 월 17일, 곧 유월절 어린양이 죽으신 후 사흘째 되는 날에 지켜졌다. 이날 이스라엘은 곡식 수확 전체를 대표하는 첫 단을 하나님께 흔들어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단을 받으시며 뒤이어 있을 온전한 수확 전체를 보증하셨다. 신약은 이 초실절 규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해 해석하면서, 그분을 '잠든 자들의 첫 열매'라 부른다.

이 장에서는 먼저 초실절의 시기와 규정을 통해 첫 열매의 원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지, 그리고 그 부활이 성도의 부활과 어떤 질서와 구조 속에서 연결되는지를 정리한다. 그다음에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두 출생과 두 사망이라는 대비를 통해 성도의 안전이 어디에 근거하는지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초실절이 오늘 성도의 삶과 사역에 주는 실제적인 위로와 도전을 살펴보고자 한다.

초실절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끝까지 안전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적 답을 분명히 붙드는 일이다.

초실절 - 성도들의 안전과 부활

초실절의 시기

구원 이후에는 평생에 걸친 성화의 여정이 이어진다. 그리고 성도들의 안전을 보여 주는 초실절, 즉 첫 열매 명절이 있는데, 이 명절은 1월 17일 하루이다. 1월 14일 유월절이 끝나는 그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이 지켜진다. 초실절은 그 기간 한가운데인 1월 17일에 위치한다.

시간상으로는 분명히 이 명절들이 서로 겹쳐 있으나, 이 세 명절은 각각 고유한 교리적·실제적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명절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골 2:17). 구약의 예표 그대

로 성취된 실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수확과 추수의 구분

초실절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용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추수'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적으로 정확하지 않다. 이스라엘의 농경 주기는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거두는 방식이다. 따라서 '추수'보다 '수확'이라는 표현이 정확하다. 일반적으로 추수는 봄에 심어 가을에 거두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이스라엘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수확'이 올바른 표현이다. 실제로 그들은 오늘날의 달력으로 약 5월경에 보리와 밀을 수확하였다.

초실절의 규정

레위기 23장 9–14절은 초실절의 규례를 기록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서 흔들되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지니라. (레 23:9–11)

안식일 다음 날은 토요일 다음 날, 곧 오늘날의 일요일에 해당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1월 14일 유월절에 죽으시고, 1월 17일 초실절 첫 열매 명절에 부활하셨다.

이 세 번째 명절과 그 앞의 다른 두 명절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가는 동안 지켜질 수 있

었던 반면에, 초실절과 그 이후의 다른 명절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을 정복한 뒤에야 기념할 수 있었다. 주께서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초실절을 지키라."(레 23:10)고 말씀하셨다. 광야에서는 곡물을 심고 거두는 일을 할 수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초실절을 지킬 수 없었다. 이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하여 소유해야 함을 확실하게 명령하셨다.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상속재산으로 주시는 땅에 네가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하고 그 안에 거할 때에 너는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네 땅에서 네가 가져갈 열매 곧 땅의 모든 열매의 처음 것을 취해 그것을 바구니에 담고 **주** 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려고 택하실 곳으로 가서 (신 26:1–2)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소유물을 갖고 그 땅에 거해야만 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하고 그로 인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원리는 그러한 성도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첫 열매의 의미

초실절은 1월 17일이고, 초실절 이후 50일에서 60일가량이 지나야 그때 비로소 본격적인 수확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초실절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인 수확에 앞서 첫 열매를 먼저 바치라고 명령하셨다.

첫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는가? 앞으로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풍성한 수확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 첫 열매는 양으로는 적지만, 장차 있을 큰 수확을 보증하는 표지이다. 하나님께 온전한 첫 열매를 가져다 바칠 때, 이후 이어질 풍성한 수확을 보증해 주신다는 뜻이

다. 이것이 첫 열매 명절, 즉 초실절의 핵심 의미이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첫 열매로 드리셨다는 사실 역시 같은 원리를 보여 준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단락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부활의 첫 열매

이스라엘 백성은 묵은 달력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여시면서 새로운 달력을 만들게 하셨다. 유월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탈출을 기점으로 7월을 1월로 바꾸시고 새 달력을 만드신 이유를 알 수 있다. 묵은 달력의 처음 여섯 달은 첫째 아담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소망이 없는 인간의 상태를 보여 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셨다.

첫째 아담은 죄와 죽음을 가져왔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와 영생을 가져왔다.

>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같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고전 15:22)

하나님께서 처음 여섯 달을 지워 없애시고 새로운 달력을 제정하셨을 때, 유월절 '어린양'이라는 기초 위에서 이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전 3:11)라고 기록하였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 "이달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되리라."(출 12:2)라고 하시며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셨다. 이제 이를 예수님의 사역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양으로 죽으셨다. 그러나 단지 죽으심으로 끝난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반드시 부활하셔야 한다.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바

로 초실절, 즉 첫 열매 명절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


윌리엄 아돌프 부그로 〈무덤가의 거룩한 여인들〉

갈보리에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양'이 죽임을 당하셨는데, 만일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참으로 큰 비극이 되었을 것이다(고전 15:14, 17–18; 히 2:14–18). 초실절, 즉 첫 열매 명절은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이어지는 결정적인 사건, 즉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을 보여 준다.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이 말하듯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면 부활의 첫 열매가 나타난 다음에는 무엇이 있다는 말인가? 그다음에는 반드시 부활의 큰 수확이 있다는 뜻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0–2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온 것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왔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같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자들이니라. (고전 15:20–23)

고린도전서 15장은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가

장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대표적인 장이다. 이 장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단한 사건으로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서 질서와 순서를 가진 역사로 제시한다.

성경이 말하는 첫째 부활에는 분명한 순서가 있다. 먼저 첫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수확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삭줍기가 있다. 이 세 단계 전체를 성경은 첫째 부활, 곧 생명의 부활이라고 부른다.

첫째 부활의 시작은 첫 열매이다.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는 반드시 풍성하고 확실한 수확이 뒤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은 장차 그분께 속한 자들의 부활이 필연적으로 이어질 것을 보증한다.

그다음 단계는 수확이다. 이는 교회 시대에 속한 성도들의 부활을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 말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며, 살아 있는 성도들은 변화되어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이 시점에서 부활하게 된다. 이 단계가 곧 알곡의 수확이다.

그러나 '첫 열매'와 '수확'으로 모든 단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성경은 마지막 단계로 이삭줍기를 언급한다. 이는 7년 환난기가 끝나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부활로서, 구약 시대에 죽은 성도들과 환난기 동안 순교한 성도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삭줍기까지 마쳐질 때에야 하나님의 밭에 속한 곡식이 모두 거두어진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은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이전에 부활하게 된다.

이처럼 첫째 부활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첫 열매 – 수확 – 이삭줍기라는 세 단계로 구성된 하나의 부활 체계이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시 함께 일어난 자들의 부활은 첫 열매이며, 교회 시대의 의로운 자들의 부활은 수확이고, 구약 성도들과 환난기 성도들의 부활은 이삭줍기에 해당한다. 이 세 부류는 시기와 역할은 다르지만 모두 첫째 부활에 속한다.

성경은 이 첫째 부활과 대비되는 또 하나의 부활을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둘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에는 오직 구원받은 자들만 참여하지만, 둘째 부활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만 참여한다.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며, 둘째 부활은 정죄의 부활이다. 이 두 부활은 성격과 목적, 그리고 결과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들은 천년 왕국이 끝난 이후에 크고 흰 왕좌 곧 하나님의 왕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의 결과로 그들은 마귀와 함께 영원무궁토록 불 호수에 던져진다. 또한 그들은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지만, 그것은 생명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 둘째 사망에 이르는 부활이다.

이와 같이 성경의 부활 교리는 단순한 위로의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질서 있는 계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구분되고 완성되어 드러난다.

두 출생, 두 사망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출생과 사망이라는 두 개념을 통해 분명하게 구분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두 번의 출생이 있다. 첫째는 육체로 태어나는 자연적 출생이며, 둘째는 위로부터, 곧 성령님에 의해 다시 태어나는 영적 출생이다. 그러나 사망은 한 번뿐이다. 그것은 육체의 죽음이며, 이 죽음은 영원한 멸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출생이 한 번뿐이다. 그는 육체적으로만 태어났을 뿐, 영적 출생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망은 두 번 경험하게 된다.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이며, 둘째 사망은 그 이후에 임하는 영원한 사망이다. 이 둘째 사망은 존재가 소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무(無)로의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의 영원한 분

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둘째 사망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결코 볼 수 없는 상태에 놓이는 것을 가리킨다.

이처럼 성경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출생의 횟수와 사망의 성격을 통해 명확하게 대비시키며, 두 삶의 결말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다른지 선명하게 보여 준다.

초실절의 두 가지 교훈

초실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소유권에 대한 원리이며, 다른 하나는 성도의 안전에 관한 진리이다.

첫째 교훈: 소유권에 대한 원리

초실절의 첫 번째 교훈은 소유권에 관한 원리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행위는, 단순한 헌납 행위가 아니라 모든 수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결과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신앙적 선언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백성은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이다. 성경은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이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그러하니*"(시 24:1),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은 주의 것이니라."(고전 10:26, 28)라고 분명히 말한다. 현재의 삶에서 사실상 인간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니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딤전 6:6–8)

사람은 많은 물질을 모을 수는 있으나,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현세에서 당장 그것들을 거두어 가지 않으실 수는 있으나, 결국 그분께서는 사람을 그것들로부터 거두어 가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땅과 수확 역시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위해 잠시 맡기신 것이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학 2:8)

이 점에서 초실절이 지닌 핵심 의미는 분명하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이다. 잘 익은 곡식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거두게 될 모든 수확이 자기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이스라엘에게 첫 열매 명절은 매우 중요한 신앙 행위였다. 잠언은 "네 재물과 네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잠 3:9)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유 가운데 첫 번째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 그분의 것임을 인정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우선권을 가지신다는 신앙 고백이다(잠 3:9; 마 6:33).

이 원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가 직업을 갖고 일하며 수입을 얻을 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금전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힘을 주셔서 공부하게 하시고, 직장을 얻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삶을 세우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을 위해 빵을 굽기 전에 반드시 먼저 첫 단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다. 이에 대한 주님의 명령은 분명하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께 헌물을 가져오는 바로 그날까지 너희는 빵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푸른 *첫*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레 23:14)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그 땅을 소유한 뒤에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다는 원리를 보여 준다. 사람이 소유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엡 1:3)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분께 드릴 수도 없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복들을 실제로 우리 것으로 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는 의미이다.

둘째 교훈: 신자의 안전

초실절의 두 번째 교훈은 신자의 안전이다. 성도의 안전은 단지 현세의 삶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성도의 부활과 미래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만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양으로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게 된다.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바로 부활이다. 부활이야말로 성도의 안전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선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안전 보장을 몸소 보여 주시기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분은 니산 월 14일에 죽으시고, 셋째 날인 니산 월 17일에 일어나셨다. 사도 바울이 "성경기록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 일어나셨다."(고전 15:4)라고 말할 때, 그는 분명히 레위기 23장 9–14절, 곧 초실절 규례를 포함한 구약 성경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리스도인의 안전 보장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지 않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 즉 '끝내 놓으신 일'(the finished

work)에 달려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보면,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복음 자체가 불완전해짐을 알 수 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죽음에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될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을 가진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예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넘겨지셨으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롬 4:25)라고 정확하게 말한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이 있다. 첫 열매가 있기 때문에 수확이 있다. 첫 열매가 없다면 수확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시며, 그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분과 함께 소수의 성도가 부활하였다. 이 소수의 부활은 무엇을 보증하는가? 장차 있을 엄청난 수의 부활, 곧 큰 수확을 보증한다. 바로 이 점에서 초실절, 첫 열매 명절은 성도의 안전과 직결된다.

결국 우리의 안전 보장은 우리의 신실함이나 지속성에 있지 않다.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사역에 달려 있다.

성령님의 첫 열매

그리스도인들의 안전 보장에 대해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일관된 증거를 제시한다. 그중 하나가 로마서 8장의 가르침이다.

사도 바울은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고 있다."고 말한다. 바울은 이어서 성도들 역시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소망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어서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자기가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겠느냐?"라고 말함으로써, 성도의 소망이 미래를 향한 확실한 기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롬 8:22-24).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양자 됨'은 장차 이루어질 사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것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성도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 최종 단계는 몸의 구속, 즉 부활이다. 그렇다면 이 미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무엇인가? 그 근거는 바로 바울이 말하는 성령님의 첫 열매, 곧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이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늘에 계시고, 성령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몸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이 땅 위에 계신다. 이는 성도의 구원이 단일한 보장이 아니라 이중 안전 보장 아래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하늘에 계신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분이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보증이시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봉인이심을 분명히 가르친다.

>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이 영께서는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엡 1:13–14)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활이 있으리라는 사실을 보증하시기 위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곳에서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고후 1:22)라고 말한다. 성령님의 내주는 성도의 구원이 결코 중단되거나 취소되지 않음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확증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령님의 첫 열매란,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수확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미리 보여 주시는 표지이다.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 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요 14:19)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 안

전 보장의 약속을 주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진리를 선언한다.

>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전 15:20)

여기에는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다. 신약 성경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첫 열매로 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그 첫 열매의 일부임을 가르친다.

>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약 1:18)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 속한 첫 열매가 된다. 이는 동시에 우리가 장차 이루어질 수확의 시작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분은 첫 열매를 통해 더 큰 수확을 이루시며, 그 구속의 역사를 계속 확장해 가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성도의 안전은 인간의 의지나 지속성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시고 끝까지 완성하실 구속의 계획 안에 확고히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

초실절은 유월절과 무교절 위에 세워진 세 번째 명절로서, 구원이 단지 이집트를 떠나는 사건과 누룩을 치우는 과정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부활과 영광이라는 안전한 결말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선포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곡식 수확의 첫 단을 먼저 자신께 가져오라고 명령하시고, 그 작은 첫 열매를 받으시면서 뒤이어 올 풍성한 수확 전체를 보증하셨다. 신약은 바로

이 초실절의 첫 열매를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잠든 자들의 첫 열매'라고 부르며, 그분의 부활이 단독 사건이 아니라 그분께 속한 모든 성도의 부활을 포함하는 구속사의 첫 단추임을 밝힌다.

이 관점에서 보면, 성경의 부활 교리는 단순한 개인적 위로가 아니라 구속사의 큰 구조를 보여 주는 계시임을 알 수 있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그 뒤에 그분께 속한 자들이 차례대로 일어나는 수확과 이삭줍기가 이어진다. 교회 시대 성도들의 부활과 변화, 구약 성도와 환난 성도들의 부활까지 포함된 이 첫째 부활은, 모두 생명의 부활이라는 하나의 범주 안에 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죽는 자들이 마지막 심판을 통해 둘째 사망에 이르는 둘째 부활은,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분리를 향한 부활이다. 그 결과,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고,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는다는 복음의 역설이 분명해진다.

초실절은 동시에 소유권과 안전에 관한 두 가지 교훈을 준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수확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이며, 나머지 모든 수확도 그분의 손에 달려 있다는 신뢰의 표현이다. 성도는 이 원리를 따라, 자신의 소득과 시간, 은사와 사역의 열매 가운데 처음 것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삶 전체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다. 동시에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성도의 구원이 인간의 결심이나 지속성에 달려 있지 않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그분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음을 증언한다.

이처럼 초실절은 '성도의 안전'이라는 주제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 주는 명절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유월절은 "이집트를 떠났는가?", 무교절은 "떠난 이후 누룩을 치우며 살고 있는가?"를 묻는다면, 초실절은 "그 여정의 끝이 무덤인가 부활인가?"를 묻는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무덤을 열고 일어나셨고, 성령님의 첫 열매가 우리 안에 보증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은 광야의 길이 아무리 길고 험해도 그 결말이 정해져 있음을 말해 준

다. 성도는 자신의 신실함이 아니라 이미 드려진 첫 열매와,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보증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간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라는 이 초실절의 메시지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끝까지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장 깊은 위로와 담대함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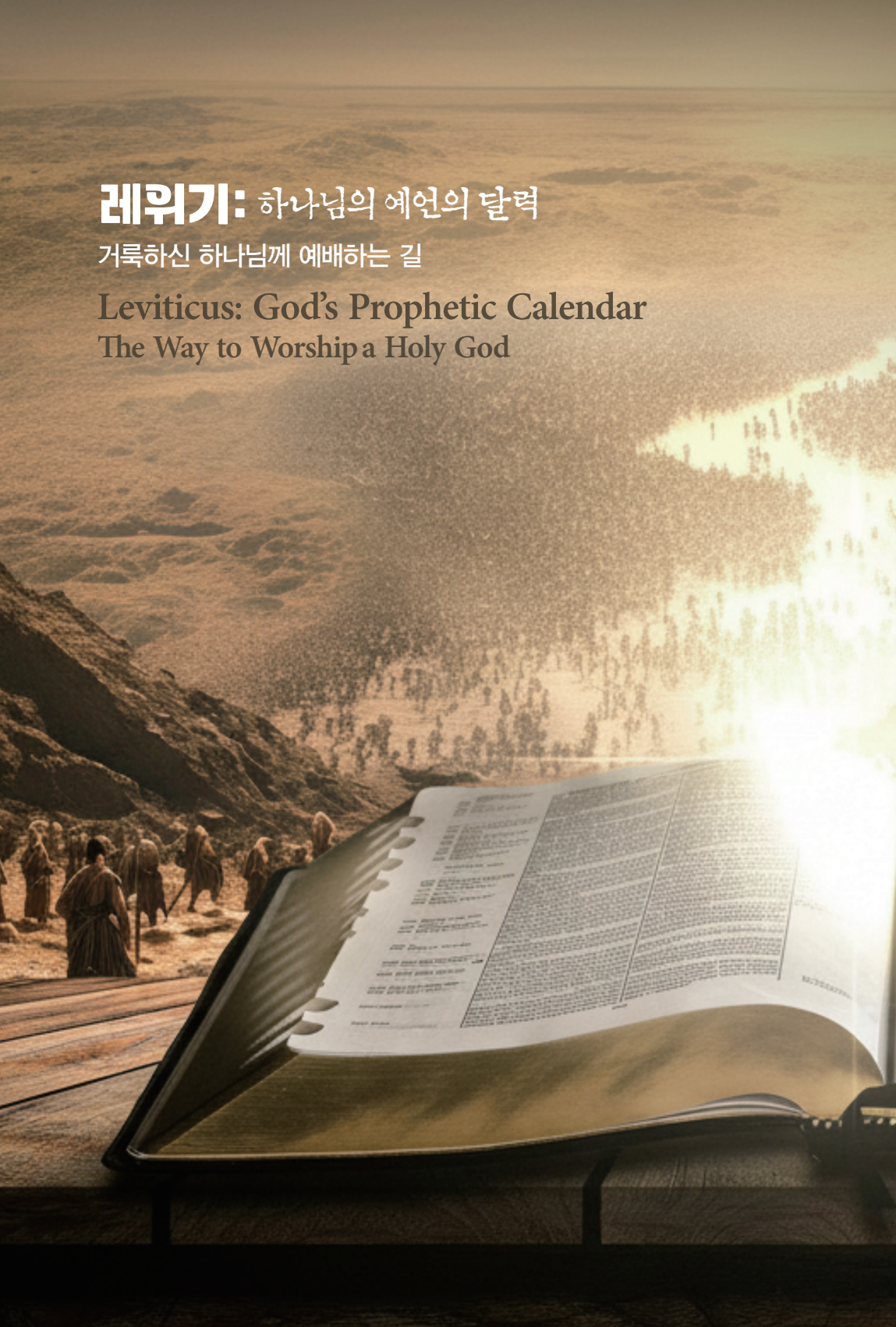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날에는 참으로 큰 수확이 있을 것이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던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시 126:5),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던 실패와 연약함의 흔적 위에도 하나님께서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지금은 씨를 뿌리는 계절이며, 눈물로 밭을 적시는 시간일지라도,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단을 품에 안고 서 계시기에, 성도는 낙심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오늘의 씨를 뿌린다. 이것이 초실절이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이며, 모든 성도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확고한 소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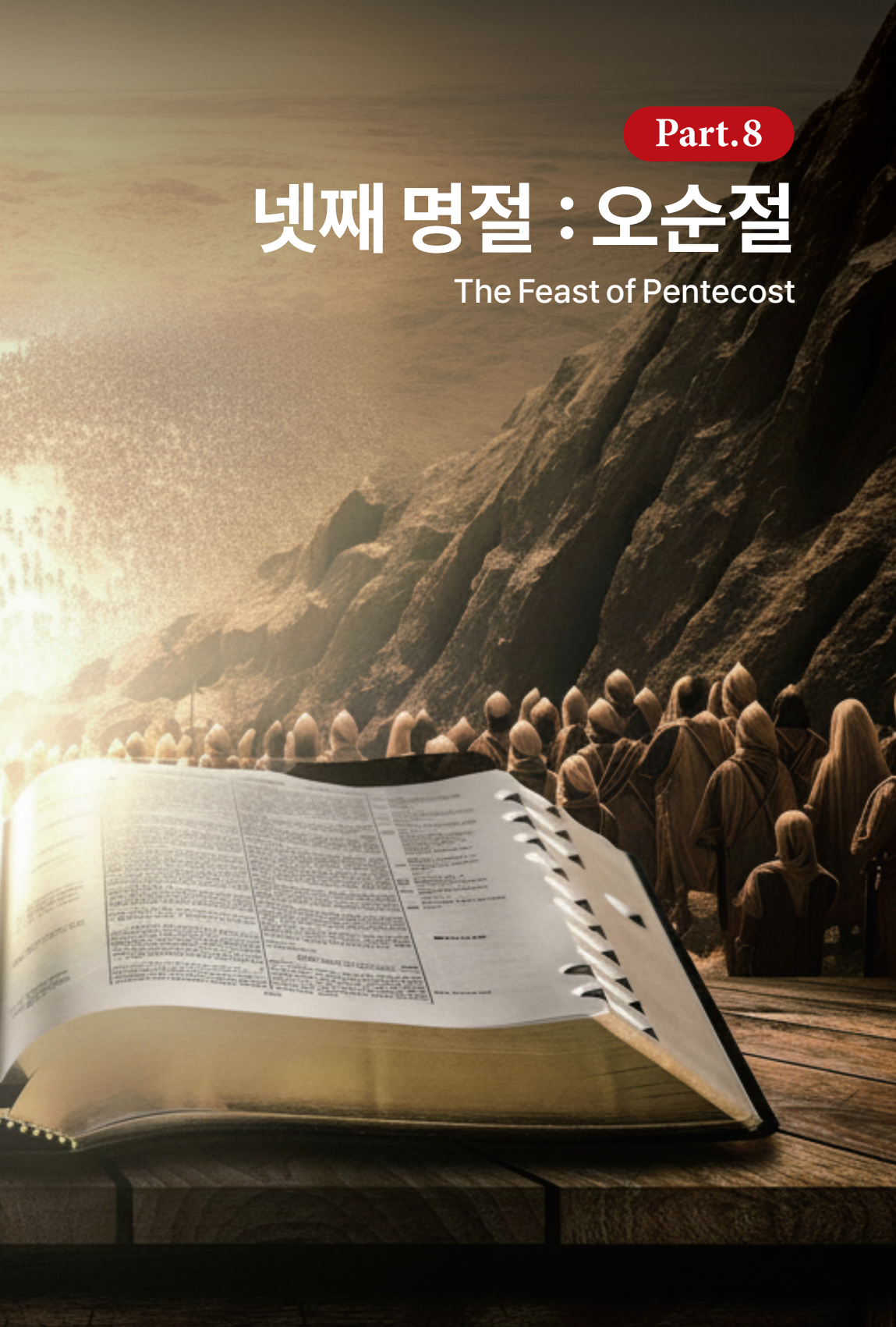
레위기: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

Leviticus: God's Prophetic Calendar

The Way to Worship a Holy God





Part.8

넷째 명절 : 오순절

The Feast of Pentecost

너희는 너희를 위해 그 안식일 다음 날 곧 너희가 요제 헌물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을 채우고 일곱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오십 일을 계수하여 새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너희는 너희 거처에서 십분의 이 *에바*로 만든 흔드는 빵 두 개를 가져올지니 그것들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들이며 그것들은 **주**께 드리는 첫 열매니라. 또 너희는 그 빵과 함께 일 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어린 수소 한 마리와 숫양 두 마리를 드리되 그것들을 그것들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과 함께 **주**께 드려 번제 헌물로 삼을지니 *그것은*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화제 헌물이니라. 그 뒤에 너희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죄 헌물로, 일 년 된 어린양 두 마리를 화평 헌물 희생물로 희생시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첫 열매의 빵과 어린양 두 마리와 함께 **주** 앞에서 흔들어 요제 헌물로 삼을지니 그것들은 **주**께 거룩하며 제사장을 위한 *몫이* 되리라. 바로 그날에 너희는 그것이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가 되도록 선포하고 그날에 아무 노역도 하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레 23:15–21)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일곱 명절은 유월절에서 장막절에 이르기까지 '구원 – 성화 – 부활 – 성령 강림 – 이스라엘 회복 – 메시아 왕국'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시간 속에 새겨 둔 '하나님의 달력'이다. 유월절은 어린양의 피로 이집트를 떠나는 구원의 출발을, 무교절은 그 이후 평생 누룩을 치우며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화를,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를 통해 성도의 최종 안전과 소망을 보여 주었다. 이제 넷째 명절인 오순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뒤 성령님을 보내셔서 전혀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시작하시는 사건을 가리키며, 교회 시대의 문이 열리는 지점을 보여 준다.

오순절은 초실절 이후 일곱 안식일을 채운 그다음 날, 곧 정확히 오십 일째 되는 날에 지켜졌다. 구약에서는 이날이 '주(週)들의 명절'로 불리며, 시내 산에서 율법이 주어진 사건과 연결된다. 신약에서는 동일한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3,000명이 구원받으며 교회가 형성되었다. 율법이 주어진 이후 3,000명이 죽은 사건과 복음이 선포된 오순절 날 3,000명이 살아난 사건의 대조는, 율법과 복음, 돌판과 마음 판,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이 장에서는 먼저 오순절의 시기와 명칭, 구약의 율법 수여와 신약의 성령 강림을 대조하여, 이 명절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어떤 전환점을 이루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레위기 23장의 '새 음식 헌물'과 누룩 있는 두 덩이 빵이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교회를 예표로 보여 주는지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순절에 시작된 성령님의 사역, 즉 성령 침례, 성령 내주, 성령 충만이 성도와 교회에 어떠한 정체성과 사명을 부여하는지 적용의 차원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오순절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교회는 누구이며, 무엇으로 살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일이다.

오순절 - 성령님의 강림

이제 우리는 일곱 개의 명절들 가운데 중간 명절인 오순절에 관하여 공부하

려고 한다. 오순절은 '성령님의 강림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다(레 23:15-21).

오순절의 의미와 시기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일곱 명절 가운데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명절이며, 성경에서는 흔히 '주(週)들의 명절'이라 불린다. 실제로 영어 성경은 오순절을 여러 차례 'the Feast of the Weeks'라고 부르며 언급한다(출 34:22; 신 16:10, 16; 대하 8:13). 이 명칭은 레위기 23장 15절에 기록된 "일곱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라."라는 규정에서 비롯된다.

오순절이 '주들의 명절'이라 불리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 명절은 초실절 이후 일곱 안식일이 모두 지난 뒤에야 비로소 도래하기 때문이다. 일곱 안식일은 곧 49일이며, 다시 말해 일곱 주가 완전히 채워진다는 뜻이다. 여기에 하루를 더하면 오십 일이 되며, 바로 그 날이 오순절이다. 이러한 이유로 오순절은 한글 성경에서 '칠칠절'(七七節)이라고도 불린다.

한편, '오순절'이라는 명칭 자체는 오십째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펜테코스토스'(Pentecostos)에서 유래한다. 이 명절이 초실절로부터 정확히 오십 일째 되는 날에 지켜졌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레위기 23장 15-16절은 이 명절의 계산 방식을 명확히 규정한다.

> 너희는 너희를 위해 그 안식일 다음 날 곧 너희가 요제 헌물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을 채우고 일곱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오십 일을 계수하여 새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그날 이스라엘은 새 음식 헌물을 주님께 드리도록 명령받았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정확히 오십 일이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오셨다. 그 전날도 아니고, 그다음 날도 아니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해 두신 달력에 정확히 맞추어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사도행전 2장 1절은 이 사실을 매우 의미심장하게 기록한다.

오순절 날이 충만히 찼을 때에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곳에 있었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오순절 날이 충만히 찼다."고 표현한다. 여기에서 '충만히'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순절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음을 가리킨다. 개역성경이 이를 '이미'라고 옮긴 것은 이 중요한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번역이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역시 동일한 원리를 증언한다.

그러나 때가 충만히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하나님의 달력 속에서 정해진 바로 그날, 다시 말해 그 전도 아니고 그 이후도 아닌 충만한 때에 이루어졌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강림 역시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정확히 오십 일이 지난 때에 일어났다. 이 모든 사건은 우연이나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표에 따라 진행되었다.

유월절은 반드시 초실절 이전에 있어야 했고, 초실절은 반드시 오순절 이전에 있어야 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기 전에 반드시 죽으셔야 했으며,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에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야 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 이후 승천하셨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 뒤, 유대인의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다.

이처럼 오순절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질서와 정확성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명절이며, 하나님의 시간표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언한다.

구약과 신약의 대조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는 예표와 실체가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성경을 깊이 공부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예

언의 달력 속에서 사건들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지 않고, 연대기적으로 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으며, 구약의 예표들이 신약에서 정확한 실체로 성취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 원리는 오순절에서 특히 분명하게 드러난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날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 장소는 시내 산이었으며, 출애굽기 19장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셋째 달에 시내 산에 이르렀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율법을 수여하셨다(출 19:1–2, 11). 다시 말해, 구약의 오순절은 율법 수여의 날이었다.

반면 신약 시대에는 동일한 오순절 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성령님을 주셨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달력에 따라 계획된 정확한 성취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동안에는 성령님께서 아직 제자들 가운데 거하시지 않았다. 요한복음 7장 39절은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

>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이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서 말하는 '영광을 받으심'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시는 전 과정을 포함한다.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뒤에 오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날을 성령 강림의 날로 미리 정해 두셨다. 이처럼 오순절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분명한 연결 고리이다.

이 대조는 더욱 깊은 의미를 드러낸다. 율법은 정죄하고 죽이는 직무를 수행한다. 실제로 율법이 수여된 직후,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했고, 그 결과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따르면 3,000명이 죽임을 당하였다. 다시 말해, 율법 수여 후 삼천 명이 죽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선포된 하나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

〈그림 5〉 구약 성경(예표)과 신약 성경(실체)의 대비



람을 살리는 능력이다.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따르면 3,000명이 구원받았다. 율법과 은혜, 율법과 복음이 무엇을 이루는지가 이 숫자의 대조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다.

새 음식 헌물: 교회의 형성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달력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레위기 23장 16절은 오순절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 일곱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오십 일을 계수하여 새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새 음식 헌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오순절 날 이 땅에 시작된 교회를 가리킨다. 오순절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한 날이었다.

사도행전 2장 1절은 일곱 명절 가운데 네 번째 명절인 오순절이 예표에서

실체로 성취되었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 우리 주님의 부활 이후 정확히 오십 일이 지난 그날, 성령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드리는 첫 열매'(레 23:17)라 불리는 새로운 것을 이 땅에서 시작하셨다. 그 새로운 것은 다름 아닌 교회이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침례자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며, 혹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 하나라고 말한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셨다.

이 질문에 대해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여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라고 고백하였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마 16:18)

여기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I will build my church)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예수님 당시 이미 교회가 존재했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가 장차 세워질 것임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교회의 시작 시점은 하나님의 달력 안에 이미 정해져 있었으며, 그것이 오순절에서 역사 속 실체로 명확하게 드러났다. 교회는 로마 카톨릭교회가 주장하듯이 사도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다. 베드로를 설립자나 기초로 삼는 교회는 죄인들에게 아무런 궁극적 소망을 줄 수 없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 의미는 분명해진다.

'베드로'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페트로스'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작은 돌을 의미하며, 이는 실제로 변덕스럽고 연약했던 이 사도를 잘 묘사한다. 반면 '이 반석'에 사용된 그리스어 '페트라'는 움직일 수 없는 견고한 바위를 뜻한

다. 성경 전체에서 이 반석은 일관되게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반석으로 선포하며(신 32:4, 15, 18, 30-31), 다윗은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라고 고백하였다(삼하 22:2; 시 18:2, 31, 46). 사도 바울 또한 이집트 탈출 사건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는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이셨느니라."(고전 10:4)라고 명확히 밝힌다.

결국 교회의 설립자이시며 기초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사도 바울의 선언은 이를 최종적으로 확증한다.

>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고전 3:11)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여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 속에서 예표와 실체를 겸손히 분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복음을 선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두 덩이 빵: 유대인과 이방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순절 날 교회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중요한 근거는 레위기 23장 17절에 제시되어 있다.

> 너희는 너희 거처에서 십분의 이 *에바*로 만든 흔드는 빵 두 개를 가져올지니 그것들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들이며 그것들은 **주**께 드리는 첫 열매니라. (레 23:17)

오순절 예식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두 덩이의 빵을 주님께 드리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한 덩이가 아니라 두 덩이의 빵을 요구하셨는가?

오순절은 교회에 대한 예언적 초상화이자 동시에 그 실체의 출현을 보여주는 명절이다. 두 개의 빵을 주님께 드리는 예식은 성령님의 크신 역사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 사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삼천 명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더해졌다는 사건을 통해 분명히 확증된다(행 2:41; 엡 1:22-23).

이 두 덩이의 빵은 교회 안에 포함된 두 부류의 사람들, 곧 믿는 유대인들과 믿는 이방인들을 가리킨다(엡 2:13-18; 고전 10:32 참조). 교회 시대 초기에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의 전적으로 유대인들이었다. 그러나 약 10년이 지난 후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처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이후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온 세상으로 확장되면서 유대인들의 지속적인 불순종과 더불어 교회의 구성은 점차 변화되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약 40년이 지난 주후 70년 무렵에는, 교회의 다수는 이방인이 되었고 유대인은 소수가 되었다. 오순절에 두 덩이의 빵을 드렸다는 사실은 교회라는 유기체가 처음부터 두 부류를 함께 포함하도록 계획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현재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을 세 부류로 구분하신다.

>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되 (고전 10:32)

첫째는 교회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둘째는 교회 밖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이며, 셋째는 교회 밖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다. 이 구분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에베소서 2장 13-15절은 이 진리를 분명히 선언한다.

>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 벽을 허무시고 원수 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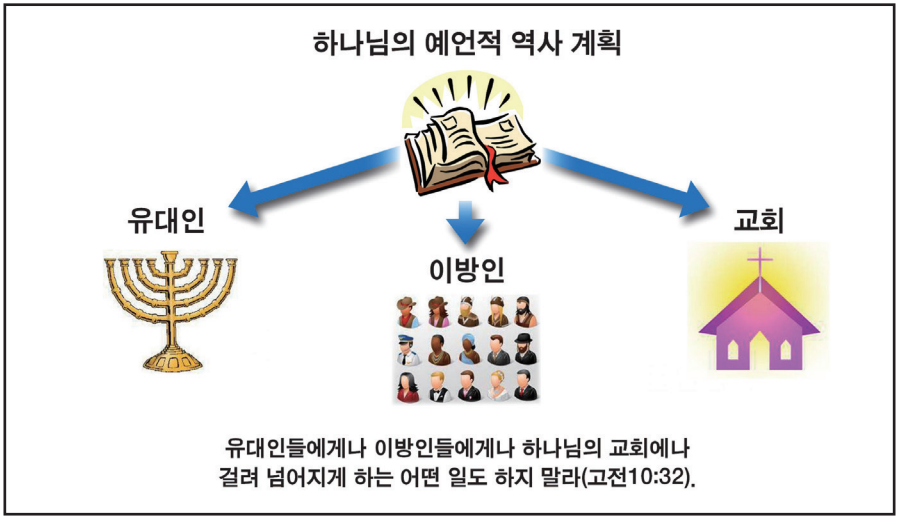
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실제로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 일은 구약 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신비였다. 에베소서 3장 6절은 이를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이 신비는 곧 복음에 의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구약 시대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있던 자들이었다. 그러나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두 부류가 하나의 몸으로 연합되는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였다. 이를 예표로 보여 주기 위해 오순절에는 새 음식 헌물을 드렸고, 그 헌물의 핵심이 바로 두 개의 빵이었다. 구약의 오순절은 메시아의 부활 이후 오십 일째 되는 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그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미리 보여 준 예언이었다.

〈그림 6〉 성경 예언 관련 세 부류의 사람들



누룩을 넣은 빵: 교회 안의 죄

오순절에 관한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이 두 덩이의 빵이 누룩을 넣어 구워졌다는 사실이다.

> 그것들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들이며 그것들은 **주**께 드리는 첫 열매니라. (레 23:17)

이미 무교절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성경에서 누룩은 죄와 악을 상징한다. 그렇다면 왜 오순절의 빵에는 누룩이 포함되어야 했는가?

이 두 덩이의 빵이 구속받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를 가리킨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록 그들이 구속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성도는 여전히 죄와 싸우는 존재이다. 교회 안에는 죄의 문제가 존재하며, 신약 성경의 모든 서신서는 이 사실을 외면하지 않고 반복해서 다루고 있다. 사도 요한은 이를 분명히 말한다.

>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일 1:8)

교회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기 전까지, 성도들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보게 되며, 그때 우리는 그분과 같아질 것이다(요일 3:2).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고(롬 8:29), 교회는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엡 5:27).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 누룩, 곧 죄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실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럴 필요는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날마다 자신을 드리는 신실한 종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지만, 동시에 충성된 제자들도 많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눈에 보이는 지상의 교회 안에 죄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함 속에서도 자신의 구속 사역을 중단하지 않으신다. 이는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는" 성령님을 통해 알 수 있다(요 16:7–8).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구속하신 사람들 가운데서도 매우 변덕스러운 인물이었지만,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는 그의 설교를 통해 삼천 명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그 결과 이들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동일한 성령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자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께서 오순절 날 이 땅에 임하심으로 교회가 형성되었다. 교회의 탄생과 함께, 구약 시대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현상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단순한 시대적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경륜 안에서 결정적인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현재의 교회 시대에는 특별히 주목해야 할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다.

첫째,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 계신다는 사실이다. 히브리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느니라. (히 1:3; 참조 8:1; 10:12; 12:2)

또한 그분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모든 성도를 위해 중보하신다. 그러

므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가 아니라 하늘 그 자체로 들어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계시기 때문이다(히 7:25; 9:24). 이 말씀들이 분명히 보여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대변자가 되신다.

둘째, 우리의 유월절 어린양이시며 부활의 첫 열매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령님을 통해 이 땅에서 거룩한 은혜의 사역을 계속하신다는 점이다. 이는 성령님의 오심과 내주를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성령님의 오심과 내주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께서 특정 인물들에게 임하신 적은 있었다.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의 영께서 삼손에게 임하셨다가, 그가 죄를 범할 때 떠나기도 하시는 모습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이처럼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임했다가 떠나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셨다. 재판관들의 통치 기간은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 준다(삿 3:10; 6:34; 11:29; 13:25; 14:6, 19; 15:14).

그러나 오순절 이전까지는 성령님께서 신자 안에 영원히 거하시지 않았다. 이것이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의 중요한 차이점이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성령님의 오심', 즉 어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는 일이 일어난다.

더 나아가,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한 번 오시면 영원토록 내주하신다. 이를 '성령님의 내주'(indwelling)라 부른다. 이는 유월절 어린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약속하신 바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 14:16–17)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에서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옮겨질 것을 미리 가르치셨다. 그리고 이 내주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셨다.

이로써 구약 시대에는 없었던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곧 다시 태어남이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분명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으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경험은 하지 않았다. 다시 태어남(born again)은 신약 시대에 들어와 분명히 계시된 진리이다.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 성령님의 내주가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단호하게 말한다.

>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롬 8:9)

어느 누구도 성령님 없이는 그리스도께 속할 수 없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며(살전 4:8), 성령님의 내주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증언하는 결정적 표이다.

>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이것에 의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일 3:24; 참조 고전 3:16; 6:19–20)

이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교회 시대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중보와 땅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대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 시대가 지닌 독특하고도 영광스러운 특징이다.

성령님의 침례

다시 태어나는 일은 성령님의 침례에 의해 일어난다. 성령 침례라는 개념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그들은 그러한 용어 자체를 들어 본 적도 없었다. 성령 침례란 성령님께서 한 사람을 온전히 사로잡으시는 사건으로, 성령님 안에 그 사람이 완전히 잠기거나,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전인적으로 채우시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일은 구약 시대에는 단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다. 침례자 요한조차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없었다.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주님의 죽음, 곧 유월절 어린양의 사건과 주님의 부활, 즉 첫 열매의 사건 이전에는 성령님의 침례가 아직 미래의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도 베드로의 증언에 따르면 성령님의 침례 사역은 오순절 날 처음으로 일어났다(행 11:15–17). 다시 말해 십자가 사건 이후, 더 정확히 말하면 오순절 사건 이후부터 성령 침례가 역사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현재의 교회 시대에 있어서 성령 침례는 일부 특별한 신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경험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모든 신자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고전 12:13).

성령님의 침례를 통해 성도는 성령님 안에 잠기게 되며, 이 사건은 단 한 번 일어난다. 그 이후로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의 몸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아 영원히 거하시게 된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이러한 개념 역시 구약 시대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유일하시며 살아 계시고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형성하셨다. 그 결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았고(고전 12:13), 그들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며(롬 8:9), 또한 성령님으로 봉인되었다(엡 1:13).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 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고전 12:13)

이처럼 성령 침례, 곧 성령님과의 연합은 교회 시대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사건이다. 성령 침례는 교회 시대 이전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며, 오직 교회 시대에만 존재하는 새로운 사역이다(행 1:5).

성령님의 충만

성경은 성도들에게 분명한 명령을 준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엡 5:18)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이 명령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어제도 충만해야 하고, 오늘도 충만해야 하며, 내일도 충만해야 한다. 성령 충만은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기에는 분명한 구분이 필요하다. 성령 충만은 명령이지만, 성령 침례는 명령이 아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에게 성령 침례를 받으라고 명령하거나 권면하는 말씀은 없다. 반면, 성령 충만은 모든 신자에게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삶의 태도이다.

성령님의 내주는 성령 침례 이후로 영원히 지속된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성도가 날마다 자신의 옛 사람을 부인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삶의 과정이다. 성령 충만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도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영적 상태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 오순절은 바로 이 새로운 구속의 질서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명절이다.

결론

오순절은 일곱 명절 가운데 정확히 가운데 놓인 네 번째 명절로서, 구속의 큰 흐름 속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이룬다. 유월절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무교절이 성화의 여정을, 초실절이 부활의 소망을 보여 주었다면, 오순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뒤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시작하신 날이다. 구약의 오순절이 시내 산에서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받은 날이었다면,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 판에 새 언약을 새기시는 시대가 열린 날이다. 율법이 주어진 직후 3,000명이 죽고, 성령님이 임하신 날 3,000명이 살아난 대비는, "율법은 정죄하고 죽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복음은 살리고 교회를 세운다."라는 진리를 분명히 드러내는 사례이다.

지난 약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오늘날처럼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접할 수 있었던 시대는 일찍이 없었다. 이는 단순히 기술과 문명의 발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순절을 통해 교회 시대를 여시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로 흘러가도록 시간과 구조를 미리 준비하셨기 때문이다. 오순절은 단지 성령 강림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그림자에서 실체로 옮겨 가는 분기점이기에 하나님의 달력 안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레위기 23장이 말하는 새 음식 헌물과 누룩 있는 두 덩이 빵은, 오순절에 태어난 교회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두 덩이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몸 안으로 함께 불려 들어오는 교회의 구성을 가리키고, 누룩은 교회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여전히 연약함과 죄의 현실 속에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교회는 완전해서 사랑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죄와 누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님의 역사로 보존되고 쓰임받는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누룩 때문에 실망하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해 복음과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를 보아야 한다.

오순절 이후의 시대는, 하늘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대제사장과 중보자로 앉아 계시고, 땅에서는 성령님께서 신자들 안에 내주하시며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이중 구조의 시대이다. 성령님의 침례로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고, 성령님의 내주와 봉인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확증되며, 성령 충만의 명령 속에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도록 부름받는다. 일부 구약 성도들은 성령님의 임하심과 떠나심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의 내주를 선물로 받았다. 이 사실은 구원의 안전이 인간의 의지나 성실에 달려 있

지 않고, 성령님의 봉인과 보증 위에 서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오순절은 단지 '안전 보장'의 날이 아니라 동시에 '사명 부여'의 날이다.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은 교회를 편안한 모임으로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의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였다. 그날 이후 복음은 특정 민족과 성전 공간에 묶이지 않고, 온 세상과 모든 민족을 향한 선포가 되었다. 현재의 교회 시대는 복음이 특정 지역이나 문화권에 갇히지 않고 전 세계로 확장되는 시대이며, 이 사명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교회에 맡겨진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모두 오순절의 은혜 위에 선 사람들이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교회 안에서 은사와 직분을 따라 섬기며,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증언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속을 바라보며, 장차 이루어질 영광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오순절은 현재의 사명과 미래의 소망을 동시에 붙들게 하는 명절이다. 바로 이 때문에 오순절의 의미가 과거의 한 사건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성령님께서 오신 그날에 시작된 교회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복음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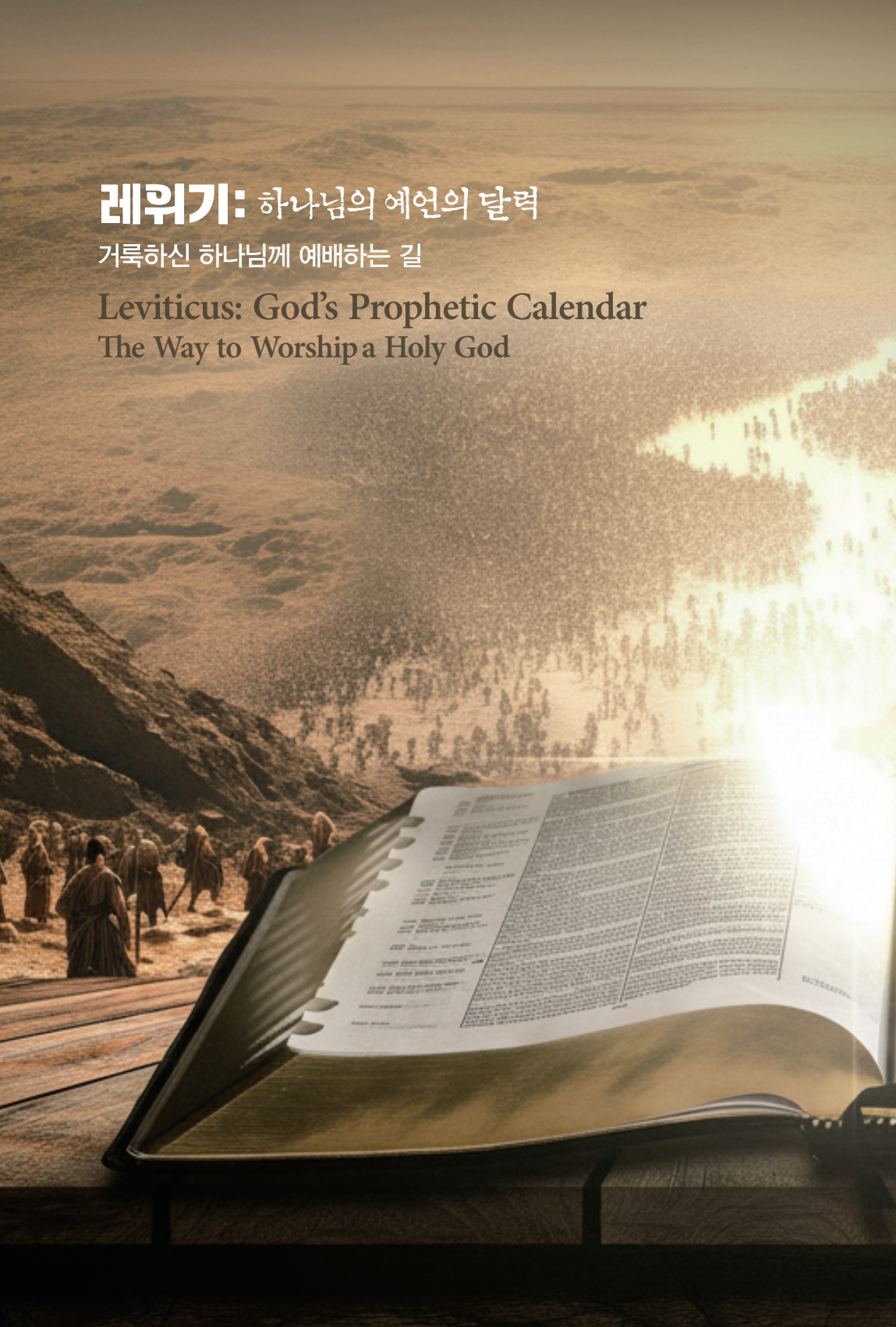
결국 오순절은 "이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들은 무엇으로 살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피와 혈통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고, 그들의 생명과 사역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유지된다. 그리고 그들의 존재 목적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다. 유월절에서 시작된 구속이 초실절의 부활과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지나 지금의 교회 시대까지 이어져 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성도는 자신의 삶을 우연한 날들이 아닌 하나님의 달력 속에 놓인 귀한 날들로 바라보게 된다. 오순절은 바로 그 시각을 열어 주는 네 번째 명절이며,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할 충분한 이유를 일깨워 주는 명절이다.

레위기: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

Leviticus: God's Prophetic Calendar

The Way to Worship a Holy God





Part.9

다섯째 명절 : 나팔절

The Feast of Trumpets

제9장 다섯째 명절: 나팔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일곱째 달 곧 그달 첫째 날을 안식일로 삼을지니 *이날은* 나팔들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거룩한 집회 *날*이니라.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역도 하지 말고 **주**께 화제 헌물을 드릴지니라. (레 23:23–25)

앞의 네 명절, 곧 유월절·무교절·초실절·오순절은 예수님의 초림 사역과 연결되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성령 강림과 교회의 시작에 이르기까지 이미 역사 속에서 성취된 사건들을 보여 주었다.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은 오순절 이후의 시대로 넘어가며, 마지막 세 명절 가운데 첫째인 다섯째 명절 나팔절이 '아직 남아 있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다음 장면을 가리킨다. 이 명절의 초점은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민족적 회복의 시작에 맞추어져 있다.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는 약 113일에 이르는 긴 공백이 있다. 이 기간에는 안식일 외에 별도의 거룩한 집회가 없었고, 이스라엘은 평범한 일상의 시간 속에서 다음 나팔 소리가 울리기를 기다려야 했다. 이 긴 간격은,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된 이후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 나가고 이방인의 충만함이 들

어오는 지금의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예표적 시간 구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시간이 차면 하나님의 달력은 다시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다루시는 국면으로 전환되는데, 이를 알리는 신호가 바로 나팔절이 예표로 보여 주는 나팔 소리이다.

이 장에서는 먼저 나팔절의 시기와 위치를 살피며,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의 공백이 교회 시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어서 이스라엘의 부분적인 눈멀음과 이방인의 충만함, 이스라엘 대체 신학의 오류, 땅의 백성(이스라엘)과 하늘의 백성(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서로 다른 경륜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7년 환난기와 '야곱의 고난의 때'를 개관하고, 세 가지 나팔(교회 휴거와 관련된 나팔, 환난기 일곱 나팔 심판, 이스라엘 재집결의 나팔)을 구분함으로써 나팔절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의 시작과 어떤 구조 속에서 연결되는지 살펴보려 한다. 나팔절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달력 속에서 교회와 이스라엘의 자리를 혼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에 끝까지 신실하신 분이심을 보는 눈을 갖는 일이다.

나팔절 - 이스라엘의 회복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나타나심을 예표로 보여 주는 명절이다(레 23:23-25). 이 명절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는 일곱째 달, 곧 7월 1일에 해당하며, 민간력으로는 한 해의 첫날, 즉 1월 1일이 된다. 민간력의 1월 1일은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날로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대략 9월 말경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에서 나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 날이었다.

이스라엘의 명절들은 계절적으로도 뚜렷이 구분된다. 오순절은 봄에 지켜졌으며(유대력으로는 셋째 달, 오늘날의 달력으로는 5월 말 무렵), 그 이후에 이

어지는 나팔절·속죄일·장막절은 모두 가을에 지켜졌다(유대력으로는 일곱째 달, 오늘날의 달력으로는 9월 말에서 10월 중순). 이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봄 명절에서 시작되어 가을 명절로 완성을 향해 나아감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의 기간이다. 하나님의 달력에서 유월절은 1월 14일,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초실절은 1월 17일에 해당한다. 초실절로부터 오십 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되므로, 오순절은 종교력 기준으로 대략 한 해의 67일째에 해당한다. 한편 유대인의 예언적 한 해는 360일이며, 나팔절인 7월 1일은 그 181일째에 해당한다. 따라서 오순절(67일째)부터 나팔절(181일째)까지는 대략 113일의 공백이 있으며, 이는 명절과 명절 사이에서 가장 긴 공백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어떤 거룩한 집회도 없었다. 오순절 이후부터 나팔절까지, 다시 말해 3월 초부터 7월 1일까지의 시간은 명절이 없는 공백 기간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기간 동안 일상 속에서 안식일만을 지키며 다가올 나팔절을 기다려야 했다. 대략 113일에 이르는 이 긴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의 달력 안에서 나팔이 울리기를 기다리는 기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나팔절은 하나님의 달력 안에서 기다림의 끝에 울리는 결정적인 신호이다.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의 교회 시대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놓인 이 긴 기간은 우연한 공백이 아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에서 이 간격은, 오순절에 시작된 교회가 이 땅에서 형성되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교회 시대 전체를 예표로 보여 준다. 이 기간은 심판이 시작되기 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베푸시는 은혜의 구간이다. 성경은 그 길이가 정확히 얼마나 될지를 밝히지



않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지금은 심판이 취소된 시대가 아니라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 두신 시대이며, 그 은혜의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달력은 다음 단계, 곧 나팔절이 예표로 보여 주는 국면으로 넘어간다.

사도 베드로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이행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벧후 3:8–9)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연하시는 것은 무능이나 변덕 때문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오래 참으심 때문이다.

주후 70년 성전 파괴 이후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흩어졌고, 그 이후 하나

님께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구속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다. 이 교회 시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의 한 지체가 된다(고전 10:32).

유대인의 방황과 교회의 형성

주 예수님께서는 주후 30년경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그 이후 교회가 형성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후 약 사십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 번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 그러나 그들이 끝내 돌이키지 않았을 때, 주후 70년경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였다.

성전의 파괴는 단순한 건축물의 상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적 차원에서 직접적인 언약 관계를 맺지 않으신다는 표지였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이로써 약 2천 년에 이르는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사도 바울은 현재 이 시대에 존재하는 사람의 범주를 세 가지로 구분한다.

>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되 (고전 10:32)

교회 시대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두 부류만 존재하였으나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새로운 부류가 나타났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직접적인 언약 관계를 맺고 계시지 않다고 해서, 유대인이 구원에서 배제되었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교회 시대에는 유대인도 이방인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남으로 구원을 받아,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의 한 지체가 된다.

이스라엘은 영구적으로 버려진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후,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관계를 중단하신 것처럼 보이는 기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상태가 결코 영구적인 폐기를 의미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는 것이라. (롬 11:25)

바울의 설명에서 핵심은 두 가지이다. 첫째, 이스라엘의 눈멀음은 전면적 상태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이는 지금 이 시대에도 유대인 개인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둘째, 이 눈멀음은 영구적인 상태가 아니라 명확한 시간적 한계를 가진다는 점이다. 그 한계가 바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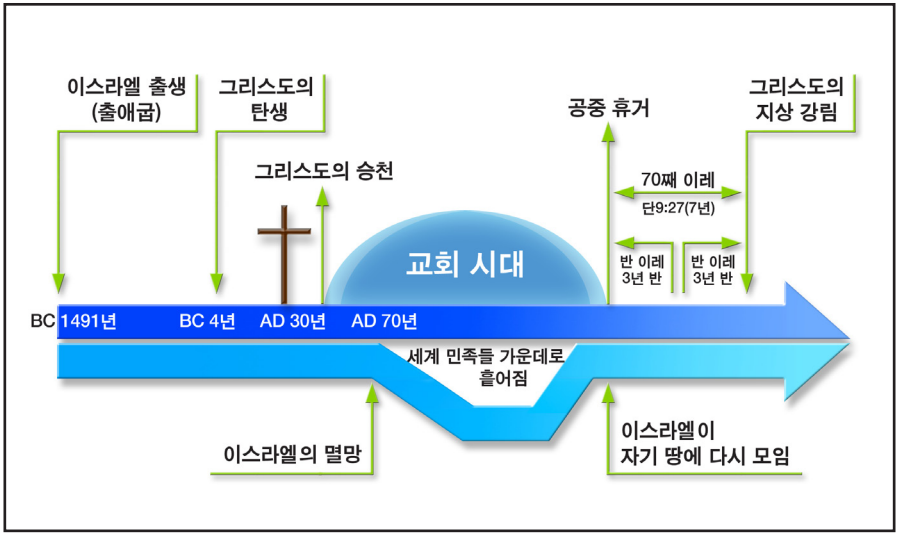
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신 말씀 역시 같은 구조를 갖는다. 주님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대인의 흩어짐을 예언하시면서, 그 상태가 끝없이 지속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셨다.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눅 21:24)

여기에서 "~할 때까지"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배척과 짓밟힘이 분명한 종료 시점을 가진 상태임을 뜻한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거되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속의 순서 안에서, 지금은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국면이 진행 중임을 보여 준다.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롬 11:1)

〈그림 7〉 교회와 이스라엘



따라서 현재의 교회 시대는 이스라엘의 폐기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간 단계라고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통해 교회를 형성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셨다. 성경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는 시점 이후,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다루시며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임을 일관되게 증언한다.

이스라엘 대체 신학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극도로 혼란스럽고 타락해 있던 중세 말기와 근대 초기, 특히 15–16세기에 이르러 유럽 사회에서는 사회적·정치적·종교적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전가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전염병, 경제적 불안, 사회적 혼란이 생기면 유대인들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그 결과 유대인들을 집단적으로 박해하거나 심지어 멸절시키려는 시도

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교회 신학자들, 특히 천주교 신학자들은 점점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이므로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대인들을 버리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더 이상 아무런 역할도 갖지 못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바로 이러한 사고 속에서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형성되었다.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란 무엇인가?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란, 구약 시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과 복이 이제는 영적인 교회로 완전히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는 신학이다. 이 신학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대상이 아니며 그 자리를 교회가 대신 차지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전통적인 천주교 신학의 기본 틀 가운데 하나이다.

천주교 신학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이해한다. 교황이 온 땅을 다스리며 교회의 세력이 확장되어 가는 과정 자체가 곧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왕국의 실현이라고 가르친다. 따라서 장차 이 땅 위에 실제로 도래할 천년 왕국은 없으며, 지금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질서가 바로 그 왕국이라는 논리이다. 이를 '무천년설' 이라 부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성경이 말하는 내용과 분명히 어긋난다.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틀린 이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불순종할 때 분명히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신다. 그러나 그 징계는 언제나 회복을 전제로 하며, 결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약에서 완전히 제거하셨다는 선언은 찾아볼 수 없다. 이스라엘이 현재 배척당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상태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 이 사실을 분명히 경고하셨다.

너희가 하늘의 별들같이 많았을지라도 네가 **주** 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므로 너희가 수적으로 적게 남으리라. **주**께서 너희로 인해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같이 그렇게 **주**께서 너희로 인해 너희를 멸하시고 망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네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끊어져 뿌리가 뽑히리라. **주**께서 너를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백성들 가운데로 흩으시리니… (신 28:62–64)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인해 흩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흩어졌으나, 1948년 5월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왔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스라엘 대체 신학은 역사적으로 큰 도전을 받게 된다.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그 백성은 아브라함의 실제 후손이며,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을 장차 성취할 바로 그 민족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이루실 계획을 결코 취소하지 않으셨다.

한국 교회와 이스라엘 대체 신학

이스라엘 대체 신학은 중세 천주교에서 시작되었으나, 놀랍게도 이러한 사상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으로도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오히려 이스라엘을 배척하고 유대인을 부정하는 신학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해석 차원을 넘어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스라엘 대체 신학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결코 취소하지 않으셨으며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점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롬 11:1)

성경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자신들이 배척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될 것을 분명히 증언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은 그때 온전히 성취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배척하는 신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하는 신학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취소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교회에 대한 약속 또한 결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문제는 단지 유대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가늠하는 신학의 핵심 문제이다.

유대인과 이스라엘

유대인의 역사는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브라함 이전에도 이 땅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존재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특정 민족을 선택해 두신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분께서는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부르셨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로부터 한 민족, 곧 유대인을 형성하셨다.

유대인은 구약 시대 약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위에 존재해 왔다. 특히 이집트 탈출 사건을 통해 그들은 다른 민족들과 분명히 구별된 독립된 민족으로 세워졌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바로 이 유대 민족의 역사와,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부르신 목적은 분명하였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마귀들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택하셔서 자신의 선택받은 백성, 거룩한 백성, 제사장 왕국이 되게 하셨다. 이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변 민족들로 하여금 참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땅의 백성과 하늘의 백성

나팔절이 왜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한 명절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어떻게 구분하여 다루시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교회 시대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교회에 속하게 된다. 동시에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과 이방인도 여전히 존재하며, 이 구분은 하나님께서 각 집단을 다루시는 방식이 서로 다름을 보여준다.

유대인은 땅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반면, 교회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로 물질적인 복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면 오래 살게 하시고, 풍성한 수확과 자손의 번성을 허락하셨다. 이러한 물질적 복을 통해 주변 민족들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땅의 백성에게 물질의 복이 주어진 이유였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교회는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약속하신 복은 본질적으로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이다.

>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엡 1:3)

그러므로 구약 시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물질적 복의 원리를 오늘날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는 해석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물질적으로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삶이 안정될 가능성은 커지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약속은 아니다. 구약

은 땅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이며, 신약은 하늘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점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나팔절이 가리키는 의미가 바로 이 땅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실행되는 국면이다. 교회 시대가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친히 다루시며,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속한 복들을 온전히 성취하실 것이다.

유대인의 회복과 야곱의 고난

그렇다면 성경은 유대인들의 회복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가? 성경의 일관된 증언에 따르면, 유대인들의 회복은 그들이 회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땅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된다. 에스겔서 36장 24-27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들 가운데서 모아 자신들의 땅으로 데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 당시 환호하는 유대인들

려오실 것을 말씀하지만, 이 귀환이 곧바로 영적 회심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성경은 유대인들의 회복 과정을 두 단계로 보여 준다.

첫째, 그들은 회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돌아온다(겔 36:24-27).

둘째, 그들은 회심에 이르기 전에 혹독한 심판을 통과하게 된다(겔 20:33-38; 22:19-22; 슥 13:8-9; 말 3:1-3).

회심하지 않은 상태의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극심한 심판의 과정을 허락하신다. 성경은 이 심판의 시기를 흔히 7년 환난기라 부른다.

이 7년 환난은 한 해를 360일로 계산한 일곱 해, 곧 2,520일로 구성된 기간이다. 다니엘서가 말하는 '칠십 이레' 가운데 마지막 한 이레가 바로 이 기간에 해당한다. 환난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에게 화평을 약속하며 언약을 맺는다.

그러나 다니엘서 9장이 밝히는 바와 같이, 그 이레의 중간 지점, 곧 3년 반이 지난 시점에 그는 언약을 파기하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 자신을 하나님이라 선포하며 그 정체를 드러낸다. 이후 남은 후반부 3년 반을 성경은 큰 환난(대환난)이라 부른다. 이는 창세 이후로 전무후무한 환난이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환난이다.

그때에 큰 환난이 있을 터인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결코 없으리라. (마 24:21)

이 환난기는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마련하신 정화의 과정이다.

그때에 네 백성의 자손들을 위해 서 있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

난의 때가 있을 터인데 그것은 민족이 존재한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단 12:1)

그 결과, 스가랴서 13장 8절이 증언하듯이 이스라엘 땅의 백성 가운데 삼분의 이가 죽임을 당하는 참혹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 예레미야서 30장 4-7절은 이 극심한 환난의 기간을 가리켜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부른다.

물론 여기에서 '야곱'은 곧 이스라엘을 가리키며,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이라 부르신 이후로 이 이름은 언약의 백성 전체를 상징한다. 따라서 야곱의 고난의 때란 곧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를 의미한다.

나팔과 함께하는 재림

마태복음 24장은 7년 환난기의 마지막 장면을 분명히 묘사한다.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겠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마 24:29-31)

7년 환난기가 끝나는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분은 예루살렘의 올리브 산에 내려오시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그날 이스라엘은 참된 회개 가운데 메시아를 받아들이게 되고, 주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그들을 직접 다스리실 것이다.

나팔절의 성취: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달력'에 기록된 나팔절은 하나님의 예언 계획 속에서 오순절 이

후에 이어질 다음 사건들을 분명하게 제시한다. 이 점은 초대 교회가 직면했던 중요한 논의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안디옥 교회의 요청으로 열린 예루살렘 회의에서,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증언하였다.

>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중에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처음으로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므온이 밝히 말하였는데 (행 15:14)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백성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준다.

그러나 이 말이 곧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야고보는 같은 자리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이방인 구원의 사역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무효화하거나 대체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 대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는도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 일 뒤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의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함과 같으니 (행 15:15–17)

야고보의 이 인용은 우연이 아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아모스 대언자의 예언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 그 날에 내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고 그것의 무너진 곳을 막으며 내가 그의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우고 내가 그것을 옛날과 같이 건축하리니 이것은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교도들 중에서 *남은 자들*을 소유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암 9:11–12)

이 예언은 이방인들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폐기하거나 배제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 오히려 이방인 구원과 이스라엘 회복은 하나님의 단일한 연속 계획 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의 의미

사도 바울은 이 모든 흐름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 이런 식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을 치워 버리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롬 11:26–27)

이 구절은 많은 사람에게 오랫동안 해석상의 어려움을 안겨 주었다. 바울이 말한 '온 이스라엘'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든 유대인이 구원받는다는 뜻인가? 그렇다면 언제, 어떤 조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가?

사도 바울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했을 때, 그는 결코 환난기 이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땅 위에 살아 있는 모든 유대인이 자동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구원받는다'라는 표현은 종종 '위험으로부터 구출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 용례는 신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난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순간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 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출 14:13)라고 말했다. 홍해를 건넌 뒤에는 "그 날 **주**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니"(출 14:30)라고 한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 빠지기 시작했을 때 외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마 14:30)라는 부르짖음 역시, 영혼의 구원이라기보다 죽음의 위기에서의 구출을 의미한다.

따라서 바울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한 말은, 이스라엘

이 환난기의 극심한 위험 가운데서 구출될 것을 의미한다. 주님께서 올리브 산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마 24:13)고 말씀하셨을 때 가리키신 구원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이다. 환난기의 끝까지 살아남는 모든 유대인들은 그 위기에서 구출을 받게 될 것이다.[1]

이 구원은 환난기의 끝에 이루어진다. 그 구출자는 물론 지상에 두 번째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많은 유대인들이 환난기에 멸망하지만, 끝까지 살아남은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 방식은 분명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배척했던 그분을 참된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며(사 53:4-6; 슥 12:10), 주께서는 야곱, 곧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을 제거하시고 그들의 죄들을 치우실 것이다(롬 11:26-27). 이 구원은 단지 영적인 차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과 육, 더 나아가 정치적 회복까지 포함하는 통합적인 구원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해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이다(사 27:9; 59:20-21; 렘 31:31-35).

나팔의 의미와 구분

나팔을 부는 행위는 사람이 임의로 만들어 낸 종교적 관습이 아니다. 나팔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룩한 수단이다. 성경에서 나팔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이다. 하나님께서는 나팔 소리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 소리는 산을 진동하게 하였다(출 19:13-20). 이후 나팔은 백성을 모으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며, 전쟁을 준비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민 10:1-10).

나팔 소리가 울리면 백성은 즉시 의미를 분별하였다. 나팔 소리는 적군의

1. 여기의 끝을 목숨이 다할 때까지로 이해하는 분들이 매우 많으나 마태복음 24장 13-14절의 앞뒤 문맥은 결코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침입을 알리는 경고이기도 했고,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모이라는 부르심이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팔을 부는 자가 분명한 소리를 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느냐? (고전 14:8)

하나님의 나팔은 결코 혼란을 일으키는 소리가 아니라 뜻과 목적이 분명한 소리이다.

하나님의 명절들은 서로 무작위로 나열되어 있지 않다. 그것들은 연대기적으로 정교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교회 시대가 끝나면,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은 나팔절로 나아간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 그다음으로 이어질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나타나심이다. 나팔절은 이 전환점을 예고하는 명절이다.

흩어졌던 유대인들의 재집결

대언자 이사야는 나팔절과 관련된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다.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날에 **주**께서 강의 수로로부터 이집트 시내에 이르기까지 타작하시고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 날에 큰 나팔 *소리*가 울리리니 아시리아 땅에서 멸망하게 된 자들과 이집트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께 경배하리라. (사 27:12–13)

이 예언은 흩어지고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모이게 될 것을 분명히 말한다. 유대인을 주요 독자로 삼아 기록된 마태복음 24장 31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결코 낯선 개념이 아니었다.

대언자 요엘 역시 같은 '그 날'을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금식하는 일을 거룩히 구별하고 엄숙한 집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으고 회중을 거룩히 구별하며 장로들을 소집하고 아이들과 젖 빠는 자들을 모으며 신랑은 그의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는 그녀의 골방에서 나오게 할지어다. (욜 2:15–16)

나팔절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며, 그들은 영광스러운 미래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세 가지 나팔 소리의 구분

하나님의 달력에서 오순절부터 나팔절까지의 기간, 곧 교회 시대와 7년 환난기와 관련하여 성경은 서로 다른 세 가지 나팔 소리를 구분하여 말한다.

첫째, 교회의 휴거와 관련된 나팔이다. 교회가 휴거될 때 나팔 소리가 울리는데(살전 4:16; 고전 15:51–52) 이 나팔 소리는 교회를 위한 것이다.

둘째, 7년 환난기에 일곱 나팔 심판으로 인한 나팔 소리이다(계 8–9장). 이 나팔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세상 위에 임하는 무서운 심판을 가져온다.

셋째, 나팔절의 나팔이다. 7년 환난기가 끝날 때,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모으시며 이 나팔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휴거는 교회를 위한 사건이며 나팔절은 이스라엘을 위한 사건이다. 두 사건 모두 나팔 소리와 관련되어 있지만, 시기와 목적은 서로 전혀 다르다. 휴거는 주님께서 자신의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 공중에 강림하시는 사건이며(살전 4:17), 나팔절은 주님께서 자신의 성도들과 함께 이 땅, 곧 올리브 산에 직접 내려오시는 사건이다(슥 14:4). 휴거는 나팔절보다 최소한 7년 앞서 일어난다. 나팔절은 그 시각을 열어 주는 다섯 번째 명절이다. 이 심판을 피할 길은 오직 하나이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 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라. (고후 6:1–2)

하나님의 달력이 나팔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지금, 모든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해야 한다.

유대인들을 향한 나팔절의 의미

나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새로운 시작은 심판 없이 주어지지 않는다. 혹독한 심판을 통과한 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다. 그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 바로 나팔절이다.

유대인들에게 나팔절은 일 년 중 가장 기쁜 기간의 서막이다. 모든 성회 가운데서도 기쁨의 색채가 가장 짙은 날이다. 이날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는 이사야서 60장과 61장을 읽으며, 메시아께서 왕으로 나타나시고 온 세계의 통치자로 오르실 날을 선포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의 초림은 아직 역사 속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음(초림)을 믿지만, 유대인들은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여전히 오실 이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해마다 나팔절, 곧 일곱째 달 첫째 날마다 이사야서 60장과 61장을 낭독하며 메시아의 도래를 소망한다. 나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다림을 폐하지 않으셨음을 보여 주는 표지와 같은 명절이다.

결론

나팔절은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에서 오순절 이후, 이스라엘을 향한 민족적 구원의 국면이 다시 열리는 신호이다. 교회 시대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하

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서 교회를 이루고 계시지만, 성경은 이 기간이 끝없이 계속되는 시대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롬 11:25)라는 분명한 한계를 가진 시기라고 말한다. 그 시점 이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다루시며, 그들에게 약속하신 언약들을 역사 속에서 성취해 가실 것이다. 나팔절은 바로 이 전환점, 곧 하나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고 그들을 향한 계획을 재개하실 시점을 예표로 보여 주는 명절이다.

이 회복의 과정은 정결하게 하는 심판을 거쳐 이루어진다. 성경은 7년 환난기, 곧 '야곱의 고난의 때'를 통해 이스라엘이 정결하게 되는 길을 분명히 가르친다. 환난기 전반부의 언약과 중간 지점의 배반, 후반부의 큰 환난 속에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넘어지지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남은 자들은 결국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된다. 그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롬 11:26)라는 말씀이, 영적·정치적·역사적 회복을 포함하는 실제 사건으로 나타나게 된다. 나팔절은 이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상징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음을 증언하는 표지이다.

휴거와 나팔절의 재림은 모두 나팔과 연결되지만, 대상과 시점과 목적이 서로 다르다. 교회의 휴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공중에서 주님 앞으로 모으는 나팔이며, 7년 환난기의 나팔들은 세상 위에 임하는 심판의 나팔이고, 나팔절과 연결된 큰 나팔은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땅으로, 다시 하나님께 모으는 나팔이다. 이 구분이 흐려지면 교회와 이스라엘, 하늘의 백성과 땅의 백성을 구분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뒤섞이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을 교회가 대체했다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구히 버리신 적이 없으며, 그들의 넘어짐조차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다가, 결국에는 다시 그들을 향한 긍휼로 돌아오실 것이라고 증언한다.

나팔절은 이러한 의미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가르친다. 첫째, 하나님의 언

약은 결코 취소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점이다. 둘째, 지금은 심판을 미루시며 교회 시대를 통해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때라는 점이다. 성도에게 나팔절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잊지 말라."라는 교리적 교훈이자, "하나님의 달력은 멈추지 않고, 정해진 날을 향해 정확히 나아가고 있다."라는 영적 경각심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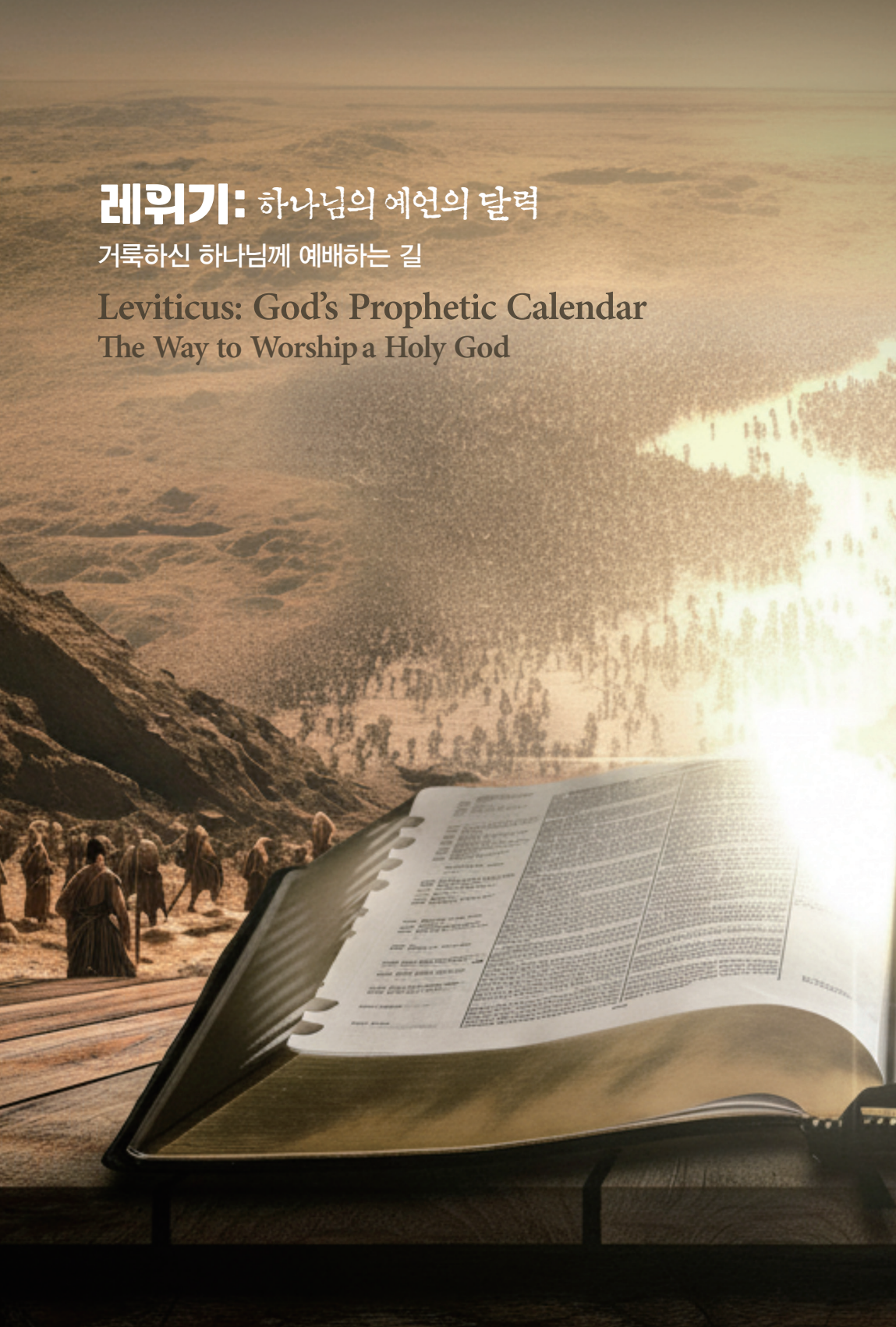
유월절에서 시작된 구속은 초실절의 부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지나, 나팔절이 예표로 보여 주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 왕국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성도는 자신의 삶과 시대를 우연한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시간표 속에 놓인 자리로 보게 된다. 나팔절은 그 시각을 열어 주는 다섯 번째 명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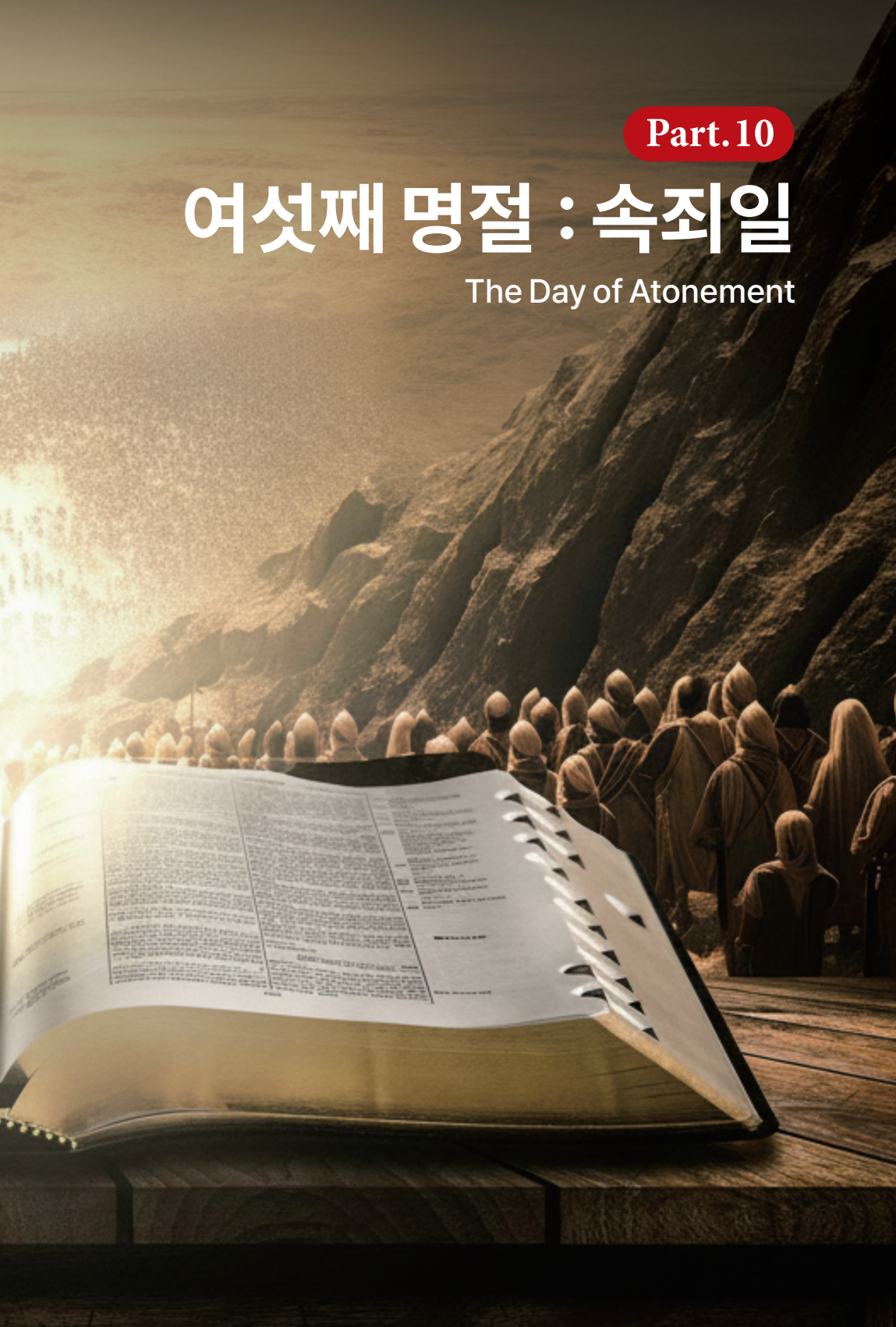
레위기: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

Leviticus: God's Prophetic Calendar

The Way to Worship a Holy God





Part. 10

여섯째 명절 : 속죄일

The Day of Atonement

제10장 여섯째 명절: 속죄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또한 이 일곱째 달 십일은 속죄일이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 *날*이 될지니라.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고 **주**께 화제 헌물을 드리며 바로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날은 너희를 위해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속죄일이니라. 어떤 혼이든지 바로 그날에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또 어떤 혼이든지 바로 그날에 무슨 일이든 하면 바로 그 혼은 내가 그의 백성 가운데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그날은 너희에게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고 그달 구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 너희의 안식을 실행할지니라. (레 23:26–32)

레위기 23장의 일곱 명절 가운데 앞의 네 명절은 이미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성령 강림과 교회의 시작 속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 뒤에 놓인 세 개의 가을 명절, 곧 나팔절·속죄일·장막절은 모두 일곱째 달에 집중되어 있으며, 교회 시대 이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민족적으로 다루실 마지막 구속 계획을 예표로 보여 준다. 이 가운데 여섯째 명절인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죄가 민족적으로 다루어지고 영적으로 깨끗하게 되

는 날을 가리키며,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된 속죄와 아직 남아 있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속죄를 함께 조명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속죄일은 일곱째 달 열째 날에 지켜지는 가장 엄숙한 날로, 이스라엘은 그날 자신들의 혼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레위기 16장과 23장은 이날에 대제사장이 수소와 두 염소의 피를 가지고 — 안으로 들어가 긍휼의 자리에 피를 뿌려 백성의 죄를 덮는 절차를 자세히 기록한다. 해마다 반복되던 속죄일 의식은 피 흘림 없이는 죄들의 사면이 없다는 원리를 보여 주면서도, 동시에 짐승의 피가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며 장차 올 더 크고 완전한 속죄를 기다리게 했다.

이 장은 먼저 구약 속죄일 규례와 두 마리 염소의 의미를 통해 '죄를 덮는 속죄'의 성격을 정리하고, 이어 히브리서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 영원한 속죄가 어떻게 이 모든 예표를 완성하셨는지 살펴본다. 그다음에는 그리스도인이 이미 완성된 속죄 안에서 어떻게 날마다 죄에서 돌이키며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지를 적용 차원에서 다룬다. 마지막으로 스가랴·예레미야·에스겔이 예언한 미래의 민족적 회개와 정결, 곧 이스라엘을 위한 '마지막 속죄일'이 어떻게 나팔절 이후 메시아 재림과 연결되는지 살펴본다. 속죄일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교회와 이스라엘 위에서 각각 어떻게 성취되는지, 또 '이미 끝난 속죄'와 '아직 남은 속죄의 적용'을 구분하는 데 핵심적인 의미를 지닌다.

속죄일: 이스라엘의 회개와 속죄

교회 시대의 끝과 이스라엘의 회복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일곱째 달 열째 날, 곧 7월 10일에 지켜지는 명절이다. 나팔절과 장막절 사이에 위치한 이날은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은 모두 현재 교회 시대 이

후에 있게 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여 준다.

교회 시대는 오순절에 시작되었다. 이 교회 시대는 7년 환난기가 시작되기 전에 교회가 부활하고 휴거되어 공중으로 채여 올라감으로써 끝나게 된다. 주님의 공중 강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교회는 휴거되어 주님 앞으로 올라가게 되고(고전 15:52; 살전 4:16), 이 땅에는 7년 환난기가 임한다. 환난기가 끝날 때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올리브 산에 강림하시는데, 이것이 나팔절의 성취이다.

교회의 휴거 이후 약 7년 뒤 울릴 다음 나팔은 유대인들을 그들의 땅인 팔레스타인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며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마 24:29–31)

그날에는 어떤 사람이나 국가도 유대인들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나팔절에 나팔 소리가 울리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이며, 온 땅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불러 그 땅으로 모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유대인들이 그 땅에 돌아가기는 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아직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은 상태, 즉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지 않은 상태로 모이게 된다. 영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은 채 땅으로 귀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절실한 것은 영적 부흥이다. 본토를 소유하며 적들로부터 보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나라가 영구한 평화와 보호를 누리기 위

해서는 먼저 회개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팔 소리 이후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수확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끝났으나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도다."(렘 8:20)라고 한탄하게 된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절이라는 기쁨의 명절, 수확의 감사와 같은 기쁨의 명절을 누리기 전에, 민족적으로 깨끗하게 되고 영적으로 회복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속죄일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속죄의 의미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 것과 초림 때 메시아를 배척한 모든 죄를 깨닫고, 자신들과 조상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하는 날이다. 그들은 자신의 불충성과 메시아 배척을 깨달을 때, 자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함을 깨닫게 된다. 깨끗하게 하는 것, 정결하게 하는 것, 민족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속죄일의 가장 큰 교훈이다.

'속죄'(atonement)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의 용어로 특히 레위기에만 48회나 나타난다. 신약 성경에서는 한 번 나타난다(롬 5:11). 이 영어 단어를 풀어 쓰면 'At-One-Ment'이며, 곧 죄로 인해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죄들의 용서를 통해 회복되고 화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분리가 있다. 분리된 것을 다시 하나로 회복하려면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죄가 그대로 남아 있는 한, 하나님과 우리는 결코 연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속죄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놓여 있던 죄의 장벽이 제거되어,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한다.

신약 성경에서 이 개념은 '화해'(reconciliation)라는 표현으로도 나타난다. 사실 '속죄'와 '화해' 혹은 '화목'은 결국 같은 의미이다. 서로 화해하게 되니까 원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바뀌게 된다.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죄로 인해 서로 떨어져 있던 관계가 회복되면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진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예수님께서 피

를 흘리신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해졌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므로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에 의해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롬 5:9–10)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신의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자신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골 1:21–22)

구약 시대의 속죄일 의식

레위기 16장: 속죄일의 핵심

속죄일의 의미와 중요성은 레위기 16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레위기 16장은 이스라엘 희생 제도의 중심이 되는 핵심 장(章)으로, 이 장에만 '속죄'라는 단어가 무려 15회, '피'라는 단어가 적어도 9회 나온다. 이는 속죄가 오직 피를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강조한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림으로*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혼을 위해 속죄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레 17:11)

피를 통한 속죄는 모세 율법 제도의 핵심이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에게 속죄일은 율법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 유대교 랍비들은 속죄일을 이야기할 때 간단히 '요마'(Yoma), 곧 '그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다

른 어느 날보다, 다른 어떤 예식보다 바로 이 속죄일에 죄 문제가 가장 적절하게 다루어졌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죄일은 가장 큰 행사였다. 바로 그날에 개인뿐만 아니라 전 국가의 죄악이 깨끗하게 되고 용서되었다.

그러나 주후 70년경 성전이 무너진 이후 그들은 이 의식을 더 이상 행할 수 없게 되었다. 속죄일 의식은 장소를 옮겨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예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성전에서만, 곧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모리아 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바로 그 모리아 산에 세워진 성전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정통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는가? 주후 70년 이후 성전이 무너진 채로 수 세기가 흐르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속죄의 길이 막힌 상태로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1967년 6일 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구시가지를 점령하고 성전 산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게 되자, 성전 회복이 현실로 다가오는 듯한 기대가 생겨났다. 이제 드디어 속죄를 위한 짐승의 희생을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그들 마음에 일었고, 그 기대는 그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 성전의 회복은 그들에게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막혀 있던 속죄의 길이 다시 열리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제사장의 두 가지 역할

속죄일에 제사장은 두 가지 일을 반드시 수행해야 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였고, 둘째는 백성을 위한 속죄였다. 이 순서는 결코 바뀔 수 없었다. 죄인인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서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에게 자신의 임의대로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엄중히 금하셨고, 매우 구체적이고 엄격한 지침을 주셨다. 대제사장은 일 년에 단 한 차례, 곧 속죄일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며, 그날에도 아무 준비 없이 들어가는 일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가 지성소(the most holy place 혹은 holy of holies)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첫 단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거룩한 예식이었다. 이를 위해 수소의 희생이 요구되었는데, 이는 대제사장 자신 역시 백성과 다르지 않은 죄인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절차였다. 자기 죄가 먼저 덮이지 않는 한, 그는 결코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죄 헌물로 자기 수소를 드려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해 속죄하고 (레 16:6)

제사장은 제사장 의복을 입기 전에 먼저 자기 몸을 씻어야 했다(레 16:4). 정결 의식이 선행되지 않으면 어떤 직무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목욕을 마친 뒤에야 비로소 그는 거룩한 의복을 입고, 자기 자신을 위한 희생물인 수소를 죽였다(레 16:11).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다.

그는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긍휼의 자리 앞에서 수소의 피를 일곱 차례 뿌렸다. 이는 대제사장 자신 역시 죄 아래 있는 존재임을 전제하는 의식이었다.

성막 안에는 여러 가구가 있지만 분명히 없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의자이다. 제사장은 앉지 않는다. 앉을 수 없다. 그의 사역은 반복되고 계속되며, 결코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죄가 계속 존재하는 한 희생도 멈출 수 없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우리의 대제사장, 주 예수 그리스도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를 이루시기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해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전혀 없으셨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그분 안에는 죄가 없으셨고(요일 3:5), 죄를 짓지 않으신 유일한 사람이셨기 때문이다(벧전 2:22).

다니엘서 9장 26절은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육십이 이레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그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 메시아의 죽음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기에 자신을 위해 속죄할 필요가 없으셨다. 이 점이 인간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이다.

히브리서는 이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에 의거하여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히 9:11–12)

여기에서 이스라엘 대제사장의 직무는 분명한 한계를 드러낸다. 이에 비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 한계를 어떻게 초월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나니… 그분께서는 저 대제사장들과 같이 날마다 먼저 자기 죄들로 인해 희생물을 드리고 그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해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드리실 때에 이 일을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히 7:25–27)

히브리서에 따르면,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한 번의 영원한 희생을 드리신 후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곧 속죄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속죄의 사역은 완성되었으며,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일이 완결되었다.

두 마리 염소의 의미

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를 마친 후에는 백성을 위한 속죄가 이어진다. 이를 위해 두 마리의 염소가 준비된다. 한 마리는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고, 다른 한 마리는 살려 두되 백성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한다. 이 전가는 안수를 통해 이루어진다.

레위기 16장은 이 절차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그는]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서 죄 헌물로 숫염소 새끼 두 마리와 번제 헌물로 숫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죄 헌물로 자기 수소를 드려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해 속죄하고 그 두 마리 염소를 취해 회중의 성막 문에서 **주** 앞에 그것들을 둘지니라. 아론은 그 두 마리 염소를 두고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주**를 위해 다른 제비는 속죄 염소를 위해 뽑을 것이며 아론은 **주**를 위해 제비 뽑은 염소를 가져다가 죄 헌물로 드릴 것이나 제비 뽑아 속죄 염소가 된 염소는 산 채로 **주**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기 위해 그것을 속죄 염소로 삼아 광야로 들여보낼지니라. (레 16:5–10)

이 두 염소 가운데 하나는 백성의 죄를 위한 희생물로 드리게 되고, 다른 하나는 백성의 모든 죄악을 짊어진 채 광야로 보내어지는 속죄 염소(scapegoat)가 된다.

먼저 죽임당한 염소의 피에 대한 의식이 있다.

> 그 뒤에 그는 백성을 위한 죄 헌물 염소를 잡고 그것의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가 그 수소의 피로 행한 것같이 그 피로 행하여 긍휼의 자리 위와 긍휼의 자리 앞에 그것을 뿌릴지니 (레 16:15)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으며 이 둘은 휘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대제사장은 휘장을 통과하여 지성소로 들어가되, 먼저 향을 태워 연기가 가득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앞을 가린 상태에서 나아간다. 그 후에 그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 휘장 안 지성소로 들어가 긍휼의 자리 위에 뿌린다.

피가 뿌려지는 그 자리가 바로 언약궤를 덮고 있는 '긍휼의 자리'이다. 언약궤 안에는 인간을 정죄하는 율법이 들어 있지만, 그 위에 피가 놓일 때 정죄는

중단되고 덮음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속죄의 방식이며, 긍휼의 자리의 의미이다.

이제 살아 있는 염소에 대한 의식이 이어진다.

> 아론은 살아 있는 염소의 머리에 두 손으로 안수한 뒤 그 염소에 대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법과 그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그들의 모든 범법을 자백하여 그것들을 염소의 머리에 두고 그 염소를 적합한 사람의 손에 맡겨 광야로 보낼 것이요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법을 자기 위에 짊어지고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아줄지니라. (레 16:21–22)

백성의 모든 죄는 이 살아 있는 염소에게 전가된다. 그 후 이 염소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 광야로 보내지며 다시는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는 무엇을 보여 주는가? 죄가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제거됨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속죄일의 두 염소는 하나의 메시지를 전한다. 죽임당한 염소는 피를 통해 죄가 덮여야 함을 보여 주고, 살아서 광야로 보내진 염소는 죄가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제거됨을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장면을 통해 속죄가 단순한 용서에 그치지 않고, 죄의 처리와 분리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예표로 보여 주신다.

구약 성경에서 '속죄'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파르'(kaphar)는 '덮다', '가리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구약의 속죄는 죄를 완전히 제거하기보다는 덮는 데 초점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은 잠정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그 죄 자체가 근본적으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이 때문에 속죄일 의식은 해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 죄가 일시적으로 덮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죄가 기억되었고 또다시 속죄가 필요했다.

>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있었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이 중단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히 10:1–4)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사라져 가는 속죄 염소를 바라볼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죄를 단지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멀리 옮기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다윗이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그분께서 우리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시 103:12)라고 고백했을 때, 그는 바로 이 속죄의 깊은 의미를 이미 깨닫고 있었다.

속죄일의 엄숙함

속죄일은 유대인들의 모든 날들 가운데 가장 엄숙한 날이었다. 이날은 금식하며 자신을 괴롭게 하는 날로, 백성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죄악을 내어놓고 깊이 회개해야 했다.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은 철저히 금지되었고, 이스라엘의 여러 명절 가운데서도 가장 근엄하게 자신을 낮추는 날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날에 대해 백성에게 분명한 명령과 책임을 주셨다.

어떤 혼이든지 바로 그날에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또 어떤 혼이든지 바로 그날에 무슨 일이든 하면 바로 그 혼은 내가 그의 백성 가운데서 멸절시키리니… 그날은 너희에게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고 그달 구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 너희의 안식을 실행할지니라. (레 23:29–32)

그러나 이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 자체로 백성의 죄가 용서되지는 않았다. 죄를 덮고 용서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식을 따라 그 뜻을 집행하는 도구일 뿐이다. 모든 속죄의 사역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구원은 어느 시대에서도 결코 사람의 행위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

또한 속죄일에 일을 멈추고 금식하며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도 그 자체로 죄를 용서하는 효력을 지니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용서를 얻기 위한 조건이나 공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백성이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취한 태도였다. 속죄일은 바쁜 일상을 멈추고 인간의 어떤 노력도 내려놓은 채,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보도록 정해진 하루였다.

속죄일은 일곱째 달 열째 날로,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다루어지고 덮였다는 사실이 확정되는 날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적으로 죄를 지었고, 그들을 대표하는 제사장 또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속죄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속죄일은 가장 엄숙한 날이면서, 동시에 안도와 소망이 함께 깃든 날이었다.

이를 일상의 상황에 비유하면 이해하기 쉽다. 잘못을 저질러 집에 들어가기조차 두려운 자식이, 부모로부터 먼저 "이미 용서했다, 들어오라."라는 말을 들을 때 비로소 마음 놓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과 같다. 속죄일이 바로 그러한 날이었다. 백성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었고, 모든 의식이 끝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확신 속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므로 속죄일은 인간의 어떤 행위로 죄를 해결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용서를 받아들이도록 정해진 날이었다. 백성은 아무런 행위도 할 필요가 없었고, 다만 자신을 낮춘 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은혜에 응답했을 뿐이다. 이 점에서 속죄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 주는 날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속죄

속죄를 위한 희생 헌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속죄를 통해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희생 헌물이 필요하다. 죄 없는 희생, 그리고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히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희생이 요구된다. 성경은 죄의 용서가 반드시 피 흘림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한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히 9:22)

따라서 핵심 문제는 이러한 죄 없는 피를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이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속죄를 위해 짐승의 피를 사용하도록 하셨다. 짐승은 선악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지는 존재가 아니므로 개인적인 죄가 없다는 점에서, 그 피는 상징적으로 '흠 없는 피'로 사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짐승의 피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일시적으로 덮을 수는 있었지만, 죄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는 불가능했다.

그 이유는 짐승이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인간의 죄에 상응하는 도덕적·존재적 가치를 지니지 못했기 때문이다.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므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완전한 대속이 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짐승의 희생은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실체가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참된 대속을 예표로 보여 주는 역할에 머물렀다. 그래서 구약에서 희생물을 드리는 일은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사람의 피는 어떠한가.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피도 다른 사람의 죄를 제거할 수 없다. 인간의 피는 본질적으로 불완전

하므로, 죄인이 스스로의 죄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 다른 죄인을 대신하는 대속물이 될 수는 없다. 죄 아래 있는 존재가 죄 아래 있는 다른 존재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천사는 어떠한가? 천사는 거룩한 영적 존재이지만, 육체를 가지지 않았기에 죽을 수도 없고 피를 흘릴 수도 없다. 속죄가 피 흘림을 전제로 하는 이상, 천사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를 이루는 존재가 될 수 없다.

결국 온 우주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며, 그대로 계시면 영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도 없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인격체이신 아들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구약에는 '친족 구속자'라는 개념이 있다. 구속하려면 반드시 친족이어야 하고,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이유는 바로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였다. 하나님께서는 참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와 같은 혈육이 되셨고, 그리하여 우리의 친족 구속자가 되실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죄 없는 삶을 사셨고, 죄가 없는 상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러나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성경은 이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5:21)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문자 그대로 죄 자체가 되셨다.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심판,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이 그분께 쏟아졌다. 그 고통의 깊이가 얼마나 컸는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이 한마디에 그대로 드러난다.

> 아홉 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그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마 27:46)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담당하셨고, 이로써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것이 구약의 모든 희생이 가리키던 완전한 속죄의 실체이다.

단 한 번 영원무궁토록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무궁토록 유효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 결과 더 이상 죄로 인한 희생 헌물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속죄와 화해가 이루어지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롬 5:1)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속죄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죄 자체를 제거하셨다. 구약 시대의 희생물은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 잠시 덮을 뿐이었기 때문에, 속죄일이 해마다 반복되어야 했다. 덮였던 죄는 다시 기억되었고, 또다시 희생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죄를 제거하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죄 때문에 희생 제물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

이 점에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분명한 전환이 존재한다. 더 이상 제단에서 희생물을 드릴 필요도 없고, 그러한 의식을 집행하는 제사장도 필요하지 않다. 그리스도의 단번 희생이 완전했기 때문이다. 신약의 예배는 희생을 반복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구속을 선포하고 감사하는 자리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단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이며, 희생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선포이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모든 예배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단번에 드려 완전한 희생물이 되셨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십자가 위에서 분명히 선언되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요 19:30)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이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희생 제사를 통해 제한되지 않음을 보여 주는 분명한 표지였다.

그리스도의 단번 희생으로 속죄는 완성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열렸다. 이제 우리는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라 완성된 구속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을 향한 교훈

속죄일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분명한 교훈을 준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여전히 죄를 짓는다. 오히려 예수님을 닮아 갈수록 삶 속에 존재하는 죄의 실상을 더욱 분명히 인식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기 힘이나 결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죄 권능에 날마다 의지하여 우리를 쉽게 얽어매는 죄를 벗어야 한다(히 12:1).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는 우리가 거룩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아무 공로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먼저 다가오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롬 5:8)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속하신 후에, 그 구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 없는 삶을 가장하는 삶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일 1:7)

그리스도의 피는 과거의 죄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모든 죄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므로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에 의해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은 우리가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롬 5:9–11)

속죄는 단지 죄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은혜이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우며, 동시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간다.

속죄일이 가르치는 최종 교훈은 분명하다. 구원은 단 한 번의 속죄로 완성되었고, 성화는 그 속죄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다.

미래 이스라엘의 민족적 속죄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 필요성

성경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마지막 속죄일이 있다. 이는 과거의 의식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장차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이스라엘 민족의 속죄의 날을 의미한다. 이날은 나팔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모이는 때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그 모임은 처음부터 회개와 믿음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아직 메시아를 온전히 인식하지 못

한 상태로 모이게 된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

> 이제부터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마 23:39)

메시아를 참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백성의 영적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 회복은 민족적인 속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성경은 온 세상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모이는 날이 올 것을 분명히 말한다. 그 모임은 단순한 귀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집합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장면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마 24:31)

이 사건은 나팔절 이후의 흐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나팔의 울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고, 그 후에 참된 회개와 속죄가 뒤따르게 된다. 이 마지막 속죄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 이후에 있으며, 그분께서 지상에서 통치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이루어질 것이다.

결국 마지막 속죄일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메시아를 바라보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날이다. 이때는 구약의 속죄일이 예표로 보여 주던 모든 의미가 역사 속에서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순간이며,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회복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다.

스가랴 12–13장: 민족적 회개와 속죄

대언자 스가랴는 장차 이루어질 미래의 속죄일, 곧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개와 정결에 대해 분명히 기록하였다. 그 예언은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시작된다.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의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자가 말하노라. 보라, 사방 모든 백성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대적하려고 에워쌀 때에 내가 예루살렘을 그 백성들에게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이 되게 하리라. (슥 12:1–2)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은 온 세상 가운데서 점점 더 부담이 되는 국가가 된다. 결국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 모이게 되고, 마지막에는 아마겟돈 전쟁의 국면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는 시도가 극에 달할 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가 또한 먼저 유다의 장막들을 구원하리니… 그 날에 **주**가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보호하리니 그들 가운데 연약한 자는 그 날에 다윗 같을 것이며 다윗의 집은 하나님 같고 그들 앞에 있는 **주**의 천사 같으리라. (슥 12:7–8)

이 대목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다. 바로 '그 날에'라는 말이다. 스가랴서 12장과 13장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이 표현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가리킨다.

또 그 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대적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고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로 인해 애곡하듯 그로 인해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리라. 그 날에 므깃돈 골짜기의 하닷림몬에서의 애곡과 같은 큰 애곡이 예루살렘에 있으리라. (슥 12:9–11)

특히 10절은 성령님을 통해 이스라엘이 죄들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을 분명히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셔서, 이 백성이 자신들의 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도록 일하신다.

또한 10절과 11절에 반복되는 '애곡'이라는 표현은 레위기 16장 29-31절과 23장 27-32절에 나오는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것', 곧 속죄일의 핵심 개념과 정확히 연결된다. 참된 회개와 죄에 대한 깊은 슬픔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님의 개입으로 나타나는 결과이다.

나팔절에 다시 모인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은 결국 속죄일이다. 그렇다면 "자기들이 찌른 나"(슥 12:10)는 누구인가? 바로 초림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찔려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재림의 날에 이스라엘은 자기들—실제로는 그들의 조상들—이 찌른 바로 그분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로 인해 애곡하듯" 통곡하게 된다.

외아들을 잃은 부모가 느끼는 극심한 슬픔과 같은 애곡이 민족 전체를 덮게 된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속죄일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스라엘은 주후 30년 이후 메시아를 거부한 채 하나님을 대적하며 흩어져 살았고, 오늘날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 있으나 여전히 민족적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마지막 때, 사방에서 민족들이 몰려와 멸망이 눈앞에 닥칠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구출하신다. 그러한 구출 이후에 그들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지만, 이 백성의 영적 상태는 여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회개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대신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신다.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신을 낮추며, 자기들이 찌른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애곡하게 된다.

> 그 땅이 애통하되 가족마다 따로 애통하리니 곧 다윗의 집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슥 12:12)

이러한 철저한 민족적 회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다음과 같이 선포하신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샘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리리라. (슥 13:1)

이것이 마지막 속죄일이다. 나팔절은 일곱째 달 첫째 날이고, 그로부터 열흘 후인 일곱째 달 열째 날이 속죄일이다. 그 마지막 속죄일에 이스라엘 온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민족적으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며,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회복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다.

일시에 이루어지는 정결

이 부분에서 말하는 '그 날'은 스가랴 14장 1절에 나오는 '주의 날'과 동일한 시간 개념이다. 이 표현은 스가랴 12장부터 14장까지 집중적으로 반복되며, 모두 약 열여섯 차례 등장한다(12:3, 4, 6, 8, 9, 11; 13:1, 2, 4; 14:4, 6, 8, 9, 13, 20, 21). 이는 단일한 역사적 순간이 아니라 주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심판과 회복을 이루시는 결정적인 시기를 가리킨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날, 믿음으로 나아오는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그 샘이 이미 열렸다. 동시에 그 사건은 예언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길도 열어 두었다. 장차 이스라엘을 위해 그 큰 속죄가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 날은, 이 민족에게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전환점이 된다. 그때에는 우상 숭배의 모든 형태와 각종 사악한 영들이 그 땅에서 완전히 제거된다.

대언자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이스라엘 온 민족이 자신들이 찔렀던 메시아 앞에서 슬퍼하며 회개하는 장면을 자세히 기록한다(렘 31:31–37; 겔 36:25–32). 이는 개인적 회개가 아니라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사건이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 및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 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렘 31:31–33)

그때에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새 마음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며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할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겔 36:25–28)

스가랴 대언자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속죄되는 '그 날'에 그 땅의 죄가 단 하루에 제거될 것이라고 선포한다.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수아 앞에 놓은 돌을 보라. 한 돌 위에 일곱 눈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그 땅의 불법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슥 3:9)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리게 될 그 샘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며, 이는 바로 '그들이 찔렀던' 메시아의 피로 이해될 수 있다. 스가랴 12장 10절의 '찔렀던'과 13장 1절의 '샘'은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예언적 흐름 안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정결이 미래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샘'을 그리스도의 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두 사건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미래에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할 그 샘은, 오늘날에도 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들의 용서와 깨끗함을 경험하도록 여전히 열려 있다.

다만 이 모든 일은 아무 고통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혹독한 심판이 먼저 임한다.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 스가랴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주가 말하노라. 그 온 땅에서 그 안의 삼분의 이는 끊어져 죽을 것이요, 삼분의 일만 그 안에 남을 것인데 내가 그 삼분의 일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은을 정제하듯 그들을 정제하며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 백성*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께서는 내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리라. (슥 13:8–9)

현재 이스라엘 땅에는 약 천만 명의 유대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장차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다. 그 가운데 삼분의 이가 죽는다면, 그 희생은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가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는 창세 이후로 없었던 큰 환난이다.

그때에 큰 환난이 있을 터인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결코 없으리라. (마 24:21)

여기에서 말하는 큰 환난은 이스라엘에게 닥치는 큰 환난이다.

그때에 네 백성의 자손들을 위해 서 있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을 터인데 그것은 민족이 존재한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단 12:1)

그러나 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삼분의 일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시며, 은을 정제하듯 정제하고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신다. 그렇게 믿음으로 단련을 견디며 속죄와 정결에 이른 유대인들만이 남게 되고,

바로 그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마지막 속죄일이 성취되는 방식이며,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적으로 완성되는 과정이다.

이스라엘의 밝은 미래

이스라엘에게는 분명한 밝은 미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함부로 비난하는 일에 신중해야 한다. 또한 각 나라 역시 이 특별한 민족을 정죄하는 일에 조심해야 한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단순히 한 국가를 반대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거스르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교도 민족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며 맺으신 무조건적인 약속은, 이후 아브라함 언약으로 분명히 형식화되었고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대언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질 날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불법을 찾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유다의 죄들을 찾을지라도 그것들을 찾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겨 놓는 자들을 내가 용서할 것이기 때문이라. (렘 50:20)

이날은 이스라엘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으로 자신들이 배척했던 메시아를 바라보며 애곡하고 회개하는 날이다. 곧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라고 외치며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순간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오랫동안 깨어져 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는 마침내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회복될 것이다.

이 회복은 인간의 정치적 노력이나 외교적 해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구속의 경륜이 마침내 성취되는 결과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굳게 서 있다.

결론

속죄일은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에서 이스라엘의 죄가 공식적으로 다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을 가리키는 핵심 명절이다. 구약에서 해마다 반복되던 속죄일 의식, 곧 대제사장이 수소와 두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 긍휼의 자리에 피를 뿌리고, 살아 있는 염소에게 백성의 죄를 안수하여 광야로 보내던 규례는 죄가 피로 덮여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쳤다. 동시에 수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해마다 죄를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한계를 드러내며, 장차 올 더 크고 온전한 속죄를 기다리게 하였다.

이 예표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완성되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셔서 친족 구속자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단 한 번 피를 흘리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분의 희생은 자기 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대속이었고, 그 결과 반복되는 제사와 성전 제단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증언하면서, 속죄가 이미 완전하게 끝났음을 선포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이 완성된 속죄 위에 서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분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으며, 그 피가 지금도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 없다고 가장하는 삶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이미 주어진 속죄의 능력에 의지하여 날마다 죄를 벗어 버리는 삶이다. 과거의 죄는 단번에 용서받았고, 현재의 연약함과 넘어짐 또한 동일한 피 안에서 처리되며, 장차 영화의 날에는 죄 자체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에는 아직 이스라엘을 위한 '마지막 속죄일'이 남아 있다. 나팔절의 나팔 소리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 땅으

로 모이고, 7년 환난과 '야곱의 고난의 때'를 통과한 뒤,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실 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찌른 메시아를 바라보고 민족적으로 애곡하며 회개하게 될 것이다. 그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을 위해 열리고, 그 땅의 불법이 하루에 제거되며, 남은 자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 땅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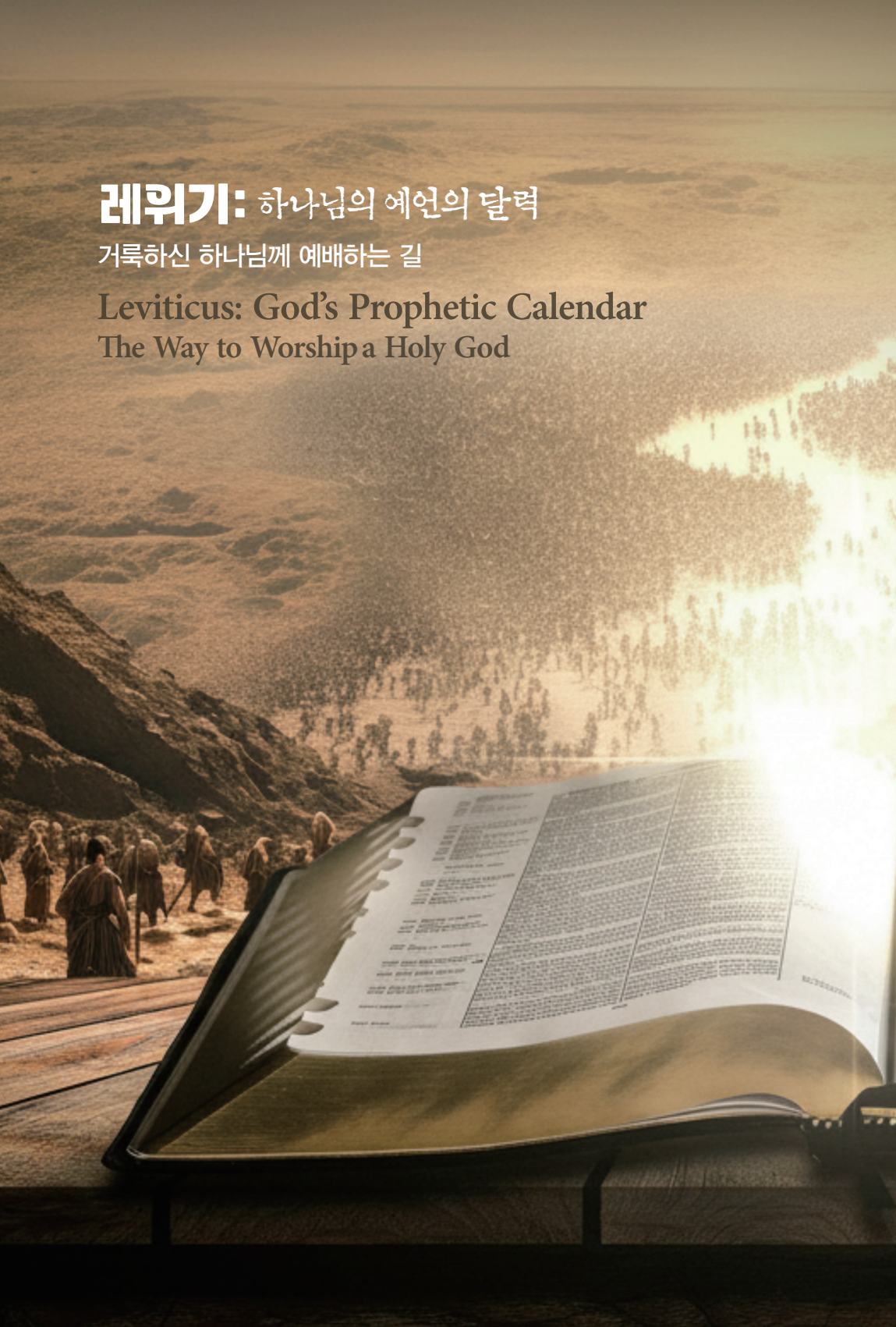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증언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식으로 약속하신 회복과 속죄를 반드시 이루신다. 동시에 지금은 이미 이루어진 속죄가 값없이 선포되는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다. 미래의 마지막 속죄일을 기다리는 동안, 각 사람에게 주어진 책임은 분명하다. 이미 열려 있는 이 속죄의 샘,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화해한 자로서 거룩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레위기: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

Leviticus: God's Prophetic Calendar

The Way to Worship a Holy God





Part. 11

일곱째 명절 : 장막절

The Feast of Tabernacles

제11장 일곱째 명절: 장막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일곱째 달 십오일은 이레 동안 **주**를 위한 장막절이 되리라. 첫째 날에는 거룩한 집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역도 하지 말라. 너희는 이레 동안 **주**께 화제 헌물을 드릴 것이며 여덟째 날에도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가 있으리니 너희는 **주**께 화제 헌물을 드릴지니라. 그것은 엄숙한 집회이므로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역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주**의 명절들이니 너희는 그것들을 선포하여 거룩한 집회 *날*로 삼고 **주**께 화제 헌물을 드리되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과 희생물과 음료 헌물을 각각 그 *해당하는* 날에 드리라. *이것은* **주**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외에 너희의 모든 자원 헌물 외에 너희가 **주**께 드리는 것이니라. 또한 너희가 땅의 열매 거두기를 마치는 일곱째 달 십오일부터 너희는 이레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키되 첫째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니라. 너희는 첫째 날에 좋은 나무들의 가지와 종려나무들의 가지와 무성한 나무들의 가지와 시내의 버들을 취한 뒤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이레 동안 기뻐할지니라. 너희는 *한* 해에 이레 동안 그것을 **주**께 명절로 지킬지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그것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은 초막에 거할지니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

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그들을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 자손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주**의 명절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밝히 알렸더라. (레 23:33–44)

하나님의 일곱 명절은 유월절에서 장막절에 이르기까지 구속의 역사를 시간 속에 새겨 둔 하나님의 달력이다. 앞선 명절들이 구원의 시작과 성화, 부활, 성령 강림을 보여 주었다면, 마지막 명절인 장막절은 그 모든 과정이 끝난 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완성을 가리킨다. 그래서 장막절은 이스라엘의 명절 가운데 가장 높은 절정이자, 한 해의 종교력을 마무리하는 결론의 명절이다.

장막절은 곡식과 포도즙을 거두어들인 뒤 이레 동안 지키는 수확절로서,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기뻐하라고 명령받은 명절이다. 동시에 이 명절은 '초막절'이라고도 불리듯, 이스라엘이 집을 떠나 초막에 거하며 광야의 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교육적 명절이기도 하다. 장막절의 기쁨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 위에 세워진 기쁨이다.

또한 장막절은 예언적 의미를 지닌다. 이스라엘을 향한 나팔절의 부르심과 속죄일의 회개와 정결을 거친 뒤에 장막절이 이어지는 순서는, 회개와 속죄 이후에야 참된 기쁨이 주어진다는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 준다. 더 나아가 스가랴는 장차 왕께서 통치하실 때 민족들이 장막절을 지키며 경배하게 될 것을 예언함으로써, 장막절이 메시아 왕국의 기쁨과 거룩함을 내다보는 명절임을 밝힌다.

따라서 이 장은 먼저 장막절을 '수확절'이라는 관점에서 살피고, 이어서 초막에 거하는 규례가 신명기에서 강조되는 "기억하라."라는 주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본다. 다음으로 장막절이 예표로 보여 주는 미래 천년 왕국에서의 경배와 거룩함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성도가 과거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죄들의 용서 뒤에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며, 장차 올 완전

한 장막절을 소망하는 삶을 적용 차원에서 다루려 한다. 장막절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구속의 끝이 무엇인지,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기쁨과 거룩함의 완성이 어디를 향하는지 분명히 보는 일이다.

장막절: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심

이스라엘의 명절 중 마지막 명절인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총 수확절로서 대단히 중요한 명절이다. 신명기 16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 너는 네 곡식과 포도즙을 거두어들인 뒤에 이레 동안 장막절을 지킬 것이며 너는 네 명절에 기뻐하되 너와 네 아들딸과 남종과 여종과 네 성문들 안에 있는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가 *기뻐할지니라*. 너는 **주**께서 택하실 곳에서 이레 동안 **주** 네 하나님께 엄숙한 명절을 지킬지니라. **주** 네 하나님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의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니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기뻐할지니라. (신 16:13–15)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타작하고 포도즙 틀에서 포도를 짜내어 포도즙을 얻는다. 이렇게 곡식과 포도즙을 모두 거두어들인 후, 이스라엘 백성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현대 달력으로는 대략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장막절을 지켰다.

이 명절은 여러 면에서 미국의 추수 감사절이나 한국의 추석과 유사하다. 미국에서는 매년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 감사절로 지키는데, 이는 청교도들이 새 땅에 정착한 뒤 첫해 가을에 거둔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렸던 데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 추수 감사절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푸신 것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되새기는 데 있다. 그래서 이 절기는 항상 축제와 기쁨이 넘치는 시기이다.

한국의 추석 역시 이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 씨를 뿌리고 재배한 오곡백

과를 모두 거두어들인 뒤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명절로서, 이때는 모든 수확을 마친 후의 기쁨이 충만한 시기이다.

구원 계획 완성의 상징

장막절은 이스라엘의 일곱 명절 가운데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명절로서, 주님께서 정하신 모든 예정된 기간들을 완성하는 명절이다. 그러므로 장막절은 일곱 명절 전체를 마무리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결론이 된다. 레위기 23장 36절은 이날을 '엄숙한 집회', 곧 거룩한 집회로 부르지만, 여러 학자들은 이 표현을 폐회, 다시 말해 모든 명절을 마치는 공식적인 마무리로 이해해 왔다.

이스라엘 백성의 일곱 명절은 1월 14일 유월절에서 시작하여,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켜지는 장막절로 끝을 맺는다. 장막절이 끝나면 그 해의 종교력은 완결된다. 이러한 점에서 장막절은 이스라엘의 달력에서 단순히 하나의 명절이 아니라 한 해 전체를 정리하고 완성하는 정점의 명절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장막절을 '하나님의 달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시간적 위치와 예언적 의미 속에서 교회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목적이 최종적으로 완성됨을 보게 된다. 사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정대로 진행되며, 구속받은 모든 자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된다. 장막절은 바로 그 모임을 상징하는 명절이며, 하나님의 달력에 기록된 모든 구속 사건들을 집약하여 보여 준다.

장막절에 이르기까지의 명절 순서를 살펴보면 그 의미는 더욱 분명해진다. 먼저 나팔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다. 이어지는 속죄일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은 회개하며 자신을 낮추고 속죄를 받는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기쁨의 명절인 장막절이 찾아온다. 회개 없는 기쁨은 없고, 속죄 없는 축제도 없다. 장막절의 기쁨은 앞선 모든 명절의 성취 위에 놓여 있다.

장막절은 또한 '땅의 열매들'을 한 해의 마지막에 거두어들이는 명절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 12:24)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밀알이셨다. 그분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마지막 국면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모두 자신에게로 모으실 것이다. 동시에 그분의 원수들 또한 심판을 위해 모아질 것이다. 장막절이 한 해의 끝에서 땅의 모든 열매를 거두어 들이는 명절인 것처럼, 하나님의 예정된 구속의 마지막 장면에는 인류의 최종적인 모임이 있게 된다.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한 알곡들과, 사악한 마귀의 편에 속한 쭉정이들이 모두 구분되어 모이게 된다.

이처럼 장막절은 단순한 과거의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성에 이르는 종착점을 예표로 보여 주는 명절이다. 그것은 회개와 속죄를 지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마지막 장면을 우리 앞에 보여 준다.

장막절의 이중 목적

초막에 거하는 의미

장막절은 또한 '초막절'이라고도 불린다. 레위기 23장 42절은 이 명절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은 초막에 거할지니 (레 23:42)

이 명절이 초막절로 불리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거주하던 집을 떠나 일곱 날 동안 텐트와 같은 형태의 초막에서 생활했기 때문이다. '초막'(booths)은 견고한 집이 아니라 좋은 나무들의 가지, 종려나무 가지, 잎이 무성한 나무의 가지, 그리고 버드나무 가지를 엮어 만든 임시 거처였다(레 23:40).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일주일 동안 자기 집을 떠나 이런 연약한 처소 안에 거해야 했다. 평소 안정된 집에서 살던 사람들이, 해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일부러 불편하고 허술한 초막에서 생활해야 했던 모습을 떠올려 보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백성에게 초막에서 거하도록 명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이 명령은 단순한 전통이나 의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담긴 교육적 명령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 생활을 통해, 백성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자 하셨다.

과거를 기억하라

장막절은 이스라엘이 과거를 기억하도록 주어진 때였다. 신명기 31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매 칠 년의 끝에 엄숙히 면제년 의식을 지킬 때, 장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 네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분 앞에 나타나려고 올 때에 너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 율법을 낭독하여 그들이 듣게 할지니라. 백성들 곧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네 성문들 안에 있는 네 나그네를 함께 모아 그들이 듣고 배우고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하게 할지니 이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그들의 자손들이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 소유할 땅에 사는 동안 듣고 **주** 너희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니라. (신 31:10–13)

장막절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먼저 초막의 기원을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

성은 급히 이집트를 떠나 광야에서 사십 년을 방황하였다. 견고한 거처를 지을 만한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급하게 나뭇가지 등을 엮어서 얼기설기 만든 임시 초막에서 거주해야 했다.

그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열매들과 나뭇가지를 이용해 만든 초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며 머물던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호와 공급을 기억하게 하였다. 레위기는 이를 명확히 밝힌다.

>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은 초막에 거할지니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그들을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 자손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레 23:42-43)

장막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돌보시고 예비하셨는지를 다음 세대에게 생생하게 가르치기 위해 제정된 명절이다. 광야 사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흩어지지 않게 하여 하나의 민족으로 보존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조상들이 광야에서 야영 생활을 하며 초막에서 뜨거운 햇볕과 차가운 밤의 서리를 견뎌야 했던 어려움을 되새기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배우게 된다. 또한 평소 누리던 의복과 음식과 집과 편안함을 잠시 내려놓음으로써,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왔는지 역시 깨닫게 된다. 따라서 이 명절은 단순한 역사 기념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세대에서 세대로 새롭게 기억하게 하는 교육적인 명절이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스라엘 백성이 사십 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외적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의심과 불순종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들을 위해 정하신 목적지, 곧 약속의 땅으로 끝내 그들을 인도하셨다.

광야 생활 중 이스라엘 백성은 수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다. 이집트에서 어린양의 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의 삶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 곧 성화의 길이 얼마나 어렵고 치열한지를 그대로 보여 준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분명한 경고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평과 반역의 역사를 자세히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불평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언약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만약 인간이었다면 "이제 너희는 스스로 알아서 하라."라고 말하며 돌아섰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다. 그분은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셨으며, 바로 그 언약 때문에 끝까지 그들을 붙드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초막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기억하도록 주어진 명절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백성이 잊지 않기를 원하셨다. 신명기 8장 2절은 이를 분명히 밝힌다.

> 너는 **주** 네 하나님께서 이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네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려 하는지, 지키려 하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신 8:2)

사람은 편안한 환경에 오래 머물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다. 그래

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집을 떠나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햇볕도 맞고 밤의 냉기도 견디게 하셨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몸으로 기억하게 하셨다. 초막을 치라고 명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장막절은 유대인의 연중 명절 가운데 가장 큰 절정에 해당하였다. 온 가족이 매년 일주일 동안 임시로 만든 처소에서 함께 지내며, 자기들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다시 생각하였다. 이스라엘의 광야 사십 년은 언제나 한 가지 진리를 상기시킨다. 그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셨다. 그러므로 장막절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과거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깊은 신앙의 시간이었다.

신명기의 '기억하라'

모세는 신명기 전반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거듭 권고한다. 신명기는 말 그대로 '기억의 책'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신명기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핵심 명령은 바로 "기억하라."라는 말씀이다. 신명기라는 이름 자체도 '두 번째'를 뜻하는 'Deuter'와 '율법'을 뜻하는 'nomy'의 합성어로,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광야 여정이 시작될 때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첫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 이제 사십 년이 지나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시점에 남아 있던 사람들은 둘째 세대였다. 모세는 이들에게 다시 율법을 선포하였고, 이것이 바로 신명기이다.

모세가 이들에게 특별히 강조한 핵심은 하나였다. 기억하라는 명령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셨는지, 그들의 부모 세대가 얼마나 불평하고 불순종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구원을 잃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의미였음을 기억하라고 강조하였다.

그래서 신명기 전반에는 "기억하라."라는 명령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오직 너는 스스로 조심하고 힘써 네 혼을 지켜서 네 눈이 본 일들을 잊지 말고…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가르치라. (신 4:9)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맺은 그분의 언약을 잊지 말고… (신 4:23)

네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을 때에 **주** 네 하나님이… 너를 거기서 데리고 나왔음을 기억하라. (신 5:15)

너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고 (신 6:12)

너는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들과 판단의 규범들과 법규들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주** 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할지어다. (신 8:11)

오직 너는 **주** 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분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니… (신 8:18)

네가 광야에서 어떻게 **주** 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는지 기억하고 잊지 말라. (신 9:7)

네가 이집트 땅에서 노예였던 것과 **주** 네 하나님께서 너를 구속하신 것을 너는 기억할지니라. (신 15:15)

네가 이집트에서 노예였음을 너는 기억하고… (신 16:12)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의복, 음식, 집, 건강, 즐거움—을 기억하며, 장막절 기간 동안 일주일 내내 초막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도록 명령받았다.

이러한 기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의 핵심을 고백하게 된다. 자신들

의 반복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셨다는 고백이다.

이는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시청각 교육이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이처럼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진 신앙 교육으로 가득 차 있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그들의 실패와 회복, 번영과 심판을 통해 무엇을 따라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감사하며 찬양할 때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인도되고 양육되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기억은 신앙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다.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교훈

이러한 가르침은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매우 실제적인 교훈을 준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조용히 앉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의 과거 모습을 돌아보는 일은 신앙에 큰 유익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비천했던 시작과 죄로 가득했던 과거를 감추고 싶어 한다. 과거의 참된 모습을 숨기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높이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특히 현재의 모습이 과거보다 더 존경받을수록, 우리는 더욱 과거를 덮어 두려는 유혹을 받는다. 그러나 대언자 이사야는 전혀 다른 방향의 권면을 제시한다.

> 의를 따르며 **주**를 찾는 자들아,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저 반석을 보라. 너희가 거기서 쪼개져 나왔느니라. 저 구덩이의 구멍을 보라. 너희가 거기서 파헤쳐져 나왔느니라. (사 51:1)

우리는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시작은 반석이 아니라 죄의 구덩이였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솔직

하게 고백한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시 51:5)

그러나 그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그분께서 또한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 수렁에서 나를 끌어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나의 걸어 다니는 것을 굳게 세우셨도다. (시 40:2)

우리 각자는 때때로 멈추어 서서,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장막절이 바로 그러한 시간을 제공했던 명절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인생이 어려웠던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으로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며, 결국 많은 일들을 완성하게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이를 쉽게 잊어버리면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심지어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셨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건져 주셨다. 그러므로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은 현재의 어려움 앞에서도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나를 건져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이번 문제도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상이며, 감사 속에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

현재를 즐거워하라

이 마지막 명절은 백성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시간이었다. 레위기 23장 40절은 이를 분명히 말한다.

> 너희는 첫째 날에 좋은 나무들의 가지와 종려나무들의 가지와 무성한 나무들의 가지와 시내의 버들을 취한 뒤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이레 동안 기뻐할지니라. (레 23:40)

초막에 거하는 생활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안에서 과거를 떠올리며 슬퍼해서는 안 되었다. 오히려 기뻐해야 했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그들을 지켜 주셨고,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셔서 곡식이 넘치고 포도즙이 풍성한 해를 보내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막절은 본질적으로 기쁨의 명절이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절들이 질서 정연하게 배열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속죄일이 먼저 오고, 그다음에 장막절이 온다. 이 순서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참된 기쁨은 언제 오는가? 속죄일 이후에 온다. 이스라엘 백성이 일 년 중 가장 슬퍼하며 가장 자신을 괴롭게 하는 날은 7월 10일, 곧 속죄일이었다. 그날은 금식하며 자신을 낮추고, 죄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는 날이었다.

죄의 용서를 받는 과정은 결코 가볍지 않다. 깊은 슬픔과 고통을 지나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무엇이 있는가? 바로 그다음에 장막절이 기다리고 있다. 그 장막절에서 이스라엘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모든 일을 기억하며 기뻐하였다.

속죄일에 그들은 자신을 괴롭게 했고(레 23:27, 29, 32), 자기 죄에 대해 깊이 슬퍼하였다. 죄가 깨끗하게 되고 용서받기 전까지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었다. 죄는 언제나 기쁨을 가로막는다. 반대로 기쁨은 언제나 정결함과 죄의 용서 뒤에 따라온다.

다윗의 삶이 이를 분명히 보여 준다. 다윗은 죄를 범했을 때 기쁨을 잃었다. 그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간청하였다.



범죄한 뒤에 나단의 책망을 받으며 근심하는 다윗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시 51:12)

다윗은 구원을 잃지 않았으나 기쁨을 잃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죄로 인해 흐려질 때 기쁨은 사라진다. 그러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관계가 회복될 때, 기쁨은 다시 살아난다. 장막절은 유대인의 모든 명절 가운데 가장 기쁜 명절이었다.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명절을 통해,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분명히 보여 주셨다.

숫자 777의 의미

장막절은 그 구조 자체로도 깊은 의미를 지닌다. 장막절은 일곱째 달에, 일곱 번째 명절로, 칠 일 동안 지켜진다. 곧 777이다. 성경에서 숫자 7은 하나님의 숫자이며, 완성과 충만을 의미한다. 이 완전의 숫자가 세 번 겹치는 명절이 바로 장막절이다. 따라서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기쁨이 넘치는 명절이었다.

이 완전의 숫자가 세 번 겹친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과 참된 기쁨의 절정을 이 명절 안에 담아 두셨음을 보여 준다. 이는 장차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을 예표로 보여 준다. 그때 구원은 분명히 성취되며, 모든 일이 절정에 이르고, 그 결과로 참된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게 될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것이다.

장막절의 미래 성취: 천년 왕국

예수님의 재림과 올리브 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도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장막절의

성취가 이루어진다. 이스라엘에게 천년 왕국이 임하면, 그 왕국의 질서 안에서 지켜지는 대표적인 명절이 바로 장막절이다. 장막절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된 이후의 기쁨과 안식,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상징하는 명절이 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스가랴서를 살펴보자. 앞에서 스가랴서 13장에서 이스라엘의 삼분의 이가 심판 가운데 죽게 될 것을 보았다. 이어지는 스가랴서 14장 4절은 재림의 장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 그 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서실 것이요, 올리브 산이 그것의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이 구절의 주체는 누구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곧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올리브 산에서 올라가셨듯이, 재림하실 때에도 동일한 장소인 올리브 산에 내려오신다. 이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승천의 장면과 정확히 호응한다.

구약 성경에서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 곧 주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을 드러내신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는 더 크고 아들은 그보다 작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분명한 오해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권능과 위엄과 전능하심의 모든 면에서 동등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이시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께서도 하나님이시다.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한국 교회 안에서는 종종 존칭을 안 쓰고 그분을 단순히 '예수'라고만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신학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다. 성경은 그분을 결코 가볍게 호칭하지 않으며,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부르듯이 동일하게 '예수님'이라고 불러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위인이나 종교적 지도자가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신성과 위엄은 우리의 말속에서도 존중되어야 하며, 이

사실은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구별된 세 위격이시지만, 본질적으로는 한 하나님(one God)이시다. 이 진리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여 일관되게 계시된다.

스가랴 14장을 보면 이 점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1절에서 "보라 **주**의 날이 오리니"라고 선언하고, 3절에서는 "그때에 **주**께서 나가사"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다고 말한다. 이어지는 4절에서 "그 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서실 것"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 말하는 '그분'은 바로 3절에 언급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즉, 스가랴의 예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올리브 산에 서시는 사건을 말하고 있다. 이 예언은 신약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천사들은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것처럼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오시리라.

그리고 12절은 그 장소가 분명히 올리벳 산, 곧 올리브 산이었음을 기록한다.

> 그 뒤에 그들이 올리벳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더라.

예수님께서는 올리브 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그 동일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증언하였다(행 1:11–12). 즉, 예수님의 승천 장소는 올리브 산이었고, 재림 역시 그와 동일한 장소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재림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동일 인격으로 혼동하는 말이 아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분명하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위격적으로는 구별되시지만, 본질적으로는 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적 고백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단순히 한 위대한 인물이 다시 나타나는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주의 날'로 예언된 바로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왕으로 오셔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사건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붙드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이다.

이 사건 이후, 스가랴 14장 9절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한 **주**만 계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이는 천년 왕국이 시작되며, 예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의미이다.

만국이 지키는 장막절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스가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예루살렘을 대적하러 왔던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아 있는 모든 자가 참으로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군대들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슥 14:16)

마지막 때에 모든 민족들이 장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한 명절 준수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성되는 날에, 민족들 전체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복종하게 됨을 뜻한다. 장막절은 더 이상 이스라엘 한 민족만의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 위에 확립되었음을 선언하는 왕국의 명절이 된다.

천년 왕국 시대에는 유대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환난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 한국인, 일본인, 그리고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들 역시 모두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해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막절을 지켜야 한다.

이 장면은 인류 역사의 종착점을 보여 준다. 한때 하나님을 대적하던 민족들마저 메시아의 통치 아래 들어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며 예루살렘에서 함께 경배하게 된다. 장막절은 바로 이러한 보편적 왕국의 도래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완성을 증언하는 명절이다.

그렇다면 땅에 남아 있는 민족들 가운데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히 경고한다.

>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누구든지 그 왕 곧 군대들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들에게 *그분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만일 이집트 가족이 올라가지 아니하고 오지 아니하면 비를 받지 못할 것이며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교도들을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이 *그들에게* 있으리라. (슥 14:17–18)

이처럼 장막절은 하나님의 달력에 기록된 일곱 명절 가운데 마지막 절정을 이루는 명절이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장막절은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왕권을 기쁨으로 인정하며 나아오는 표지가 된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은 반드시 이 명절을 지켜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행위가 된다. 성경은 이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완성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거룩함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레위기 전체를 관통한다. 레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함을 말하는 책이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정결한 새와 부정한 새, 나병과 유출,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끊임없이 구분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구조이며 메시지이다.

실제로 레위기에서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총 94차례 반복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레 11:44–45; 19:2; 20:7, 26; 21:8)

레위기의 핵심은 단순한 규례의 나열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 주는 데 있다.

이 거룩함은 장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모두 완성될 때, 곧 장막절이 예표로 보여 주는 마지막 시점에 이르러 땅 위에서 완전히 실현된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진다.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 땅을 가득 채우게 된다.

스가랴서 14장 20절은 그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 날에는 말방울들에 **주**께 거룩한 *것*이라 *새겨질* 것이요, **주**의 집에 있는 솥들은 제단 앞의 대접들과 같을 것이며

무엇이 거룩해지는가? 원래 속된 것으로 여겨지던 것들까지도 거룩해진다. 음식을 삶고 나무를 때던 솥, 밑이 그을리고 더러워 보이던 그 솥까지도 성전의 거룩한 대접들과 동일하게 여겨진다.

이어지는 21절 말씀은 더욱 분명하다.

참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군대들의 **주**께 거룩한 *것*이 되리니 희생물을 드리는 모든 자들이 와서 그 솥들 중에서 취해 그 안에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군대들의 **주**의 집에 더 이상 가나안 사람이 있지 아니하리라.

고기를 삶는 솥, 일상생활의 가장 평범한 도구까지도 거룩하게 된다. 그을음이 묻은 바닥까지도 거룩함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 이상 제한된 공간에만 머무르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을 덮게 됨을 보여준다. 레위기가 말하던 거룩함이 마침내 땅 위에서 온전히 실현되는 때가 바로 이 장막절이 완성될 때이다.

일곱 개의 거룩한 명절 가운데 마지막인 장막절이 완결된 후, 하나님의 거룩함은 마침내 빛을 발하게 된다(슥 14:20–21). 그 왕국 시대에는 주님을 향한 성결이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된다.

또한 스가랴서는 한 가지 놀라운 선언을 덧붙인다.

그 날에는 군대들의 **주**의 집에 더 이상 가나안 사람이 있지 아니하리라. (슥 14:21)

왜 이러한 말이 나오는가?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철저히 멸시하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만을 골라 행했던 민족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오래 참으셨으나, 결국 심판하셨다. 이 말씀은 천년 왕국 시대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자는 조금도 그 거룩한 영역 안에 머물 수 없다는 선언이다. 단지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완전하게 통치하는 시대의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

결국 일곱 개의 거룩한 명절들 가운데 마지막인 장막절이 완성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은 성전 주변에서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더 나아가 장막절을 지키러 오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충만하게 드러난다. 이것이 바로 천년 왕국의 모습이며, 레위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 온 하나님의 거룩함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실현되는 때이다.

〈그림 8〉 만물의 회복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러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올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행3:19-21).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에 녹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느니라(벧후3:12-13).

창세기는 죄와 사람의 타락을 보여 주며 계시록은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 준다. 위의 성경 말씀대로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된다. 주님의 재림 이후에 이 땅에는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열리며 이 기간에 구약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창12:2-3; 창15:18-21; 시2; 사11; 겔40-48; 슥14 등)이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이때에 팔레스타인 땅은 지구의 중심이 되며 아브라함의 씨인 히브리 민족은 민족들 중에서 으뜸가는 민족이 된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 기간을 '다시 나게 하는 때'라고 말씀하셨다(마19:28). 이 기간이 끝나고 신구약성경의 모든 예언이 옛 땅에서 성취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며(벧후3:10-13; 계21:1)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가오는 영원 안에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생애와 하나님의 달력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언제 탄생하시고, 언제 죽으시며, 언제 부활하셨는지를 살펴보자.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절들은 우연히 배열된 명절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정확히 맞물려 있는 하나님의 구속 일정표이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죽으셨는가? 유월절에 죽으셨다.

언제 부활하셨는가? 초실절에 부활하셨다.

성령님은 언제 강림하셨는가? 오순절에 강림하셨다.

장차 예수님께서는 언제 다시 오시는가? 나팔절에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신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언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약 33년 반을 이 땅에서 사셨다. 예수님께서 1월 14일 유월절에 죽으셨다면, 그 시점에서 33년 반을 거슬러 올라가면 도착하는 시점은 7월 15일, 곧 장막절의 첫날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장막절에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고, 그 뒤에 반년을 더 사신 뒤 유월절에 죽으셨다.

따라서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장막절에 태어나셨다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이것은 단순한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 자체가 그 의미를 뒷받침해 준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기에서 '거하시매'로 번역된 말은 그리스어로 '스케노오'(skenoo)로, 곧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dwell' 혹은 'tabernacle'로 번역하는데, 이는 장막절을 영어로 'Feast of Tabernacles'라 부를 때 쓰는 단어와 어원이 같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4절은 단순히

'함께 사셨다'는 의미를 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는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12월 25일이 아니라 가을, 곧 장막절 무렵에 태어나셨음을 시사한다(오늘날의 달력으로는 대략 10월 중순경).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장막절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고, 정확히 유월절에 죽으셨으며, 초실절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성령님은 오순절에 능력으로 임하셨다. 장차 예수님께서는 나팔절에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땅에 오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다.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달력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신 구속의 일정표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달력에 따라 자신의 일을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명절들은 결코 사소한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 주는 계시이다.

결론

장막절은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에서 마지막에 놓인 일곱째 명절로서, 유월절에서 시작된 구속 계획이 완성에 이르는 종착점을 보여 준다. 이스라엘은 해마다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하며 이집트를 떠나 광야에서 지내던 시절을 기억했고, 자기들의 불순종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세대에서 세대로 가르쳤다. 동시에 곡식과 포도 수확을 마친 뒤 한 해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함으로써, '속죄일 이후에 오는 기쁨'이라는 복음의 질서를 몸으로 배우도록 부름받았다.

신약 성도에게 장막절은, 과거의 죄와 비천함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교훈과, 이미 받은 구원과 지금까지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라는 부르심을 함께 준다. 우리의 시작이 죄의 구덩이였음을 인정할 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반석

과 풍성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더 깊이 고백하게 되고, 이것이 현재의 순종과 기쁨을 지키는 힘이 된다. 속죄 없는 기쁨이 없듯이, 회개와 죄들의 용서 없이 참된 장막절의 기쁨은 있을 수 없다. 속죄일 뒤에 장막절이 오듯,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거할 수 있다.

장막절은 동시에 미래를 향한 예언적 시선을 열어 준다. 스가랴서는 주께서 올리브 산에 다시 서시고, 온 땅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날이 오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민족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해마다 올라와 왕이신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선포한다. 그때에는 말방울과 솥까지 "**주**께 거룩한 *것*"이라 불릴 만큼, 하나님의 거룩함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그리고 그 왕국에 들어온 모든 민족의 일상까지 덮게 된다. 장막절은 이렇게 천년 왕국에서 만국이 왕께 경배하며 기쁨과 성결 가운데 사는 시대를 미리 보여 주는 왕국의 명절이다.

무엇보다 장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도 깊이 연결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요한복음의 선언은, 문자 그대로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이 장막절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사건을 가리킨다고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죽으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으며,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셨고, 장차 나팔절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셔서 장막절이 예표로 보여 주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왕국"을 이루실 것이다. 그날 이후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초막에서 잠시 사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완전한 장막절의 기쁨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

따라서 장막절은 성도들에게 세 방향의 시선을 동시에 열어 주는 명절이다. 과거를 향해서는 광야의 초막과 같은 나그네 삶 속에서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현재를 향해서는 이미 베푸신 속죄의 피 위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게 하며, 미래를 향해서는 왕께서 다시 오셔서 함께 거하실 영원한 장막절, 곧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왕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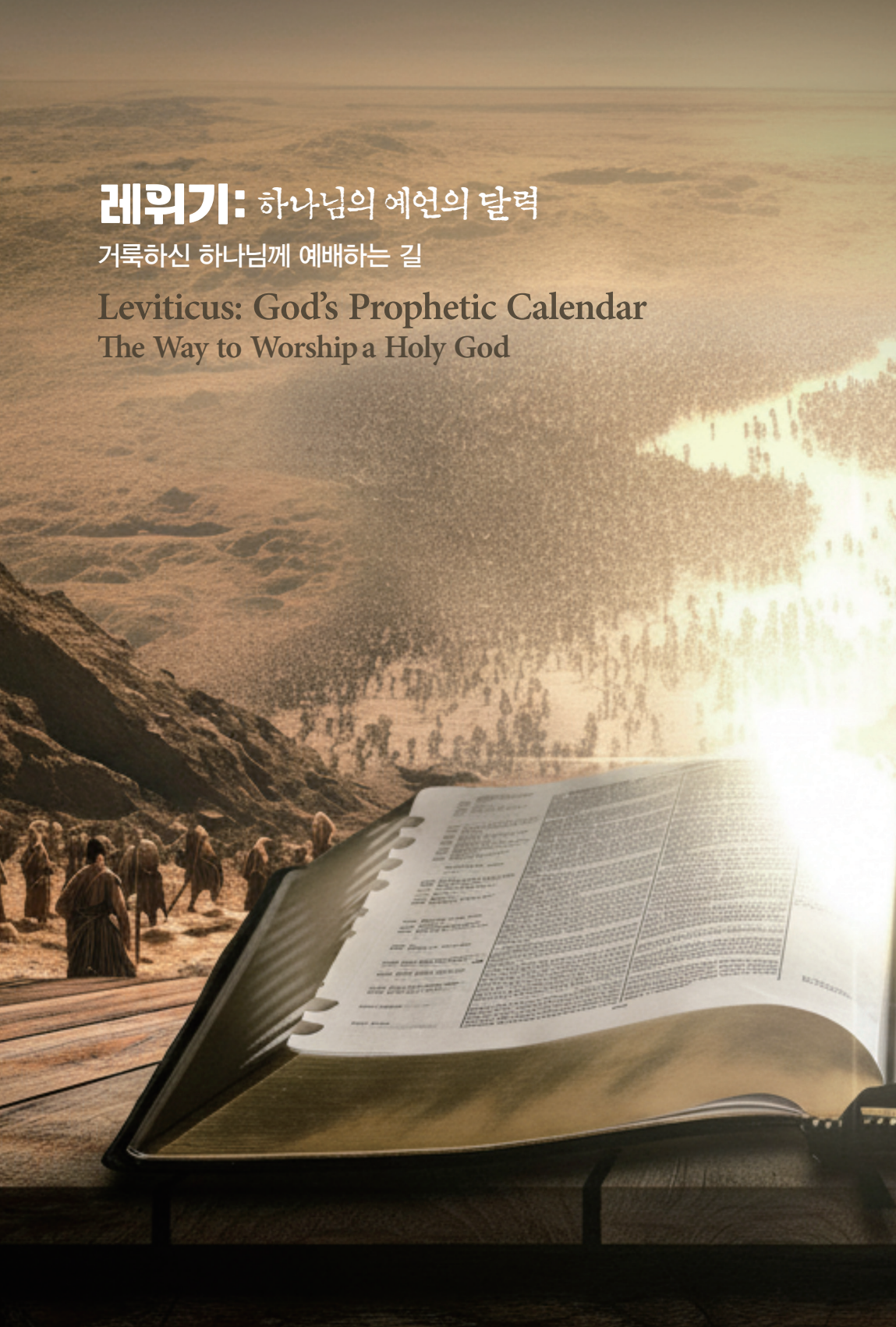
하나님의 달력에서 일곱 번째 명절이 완성될 때, 구원은 부족함 없이 완전해지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기쁨은 더 이상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현실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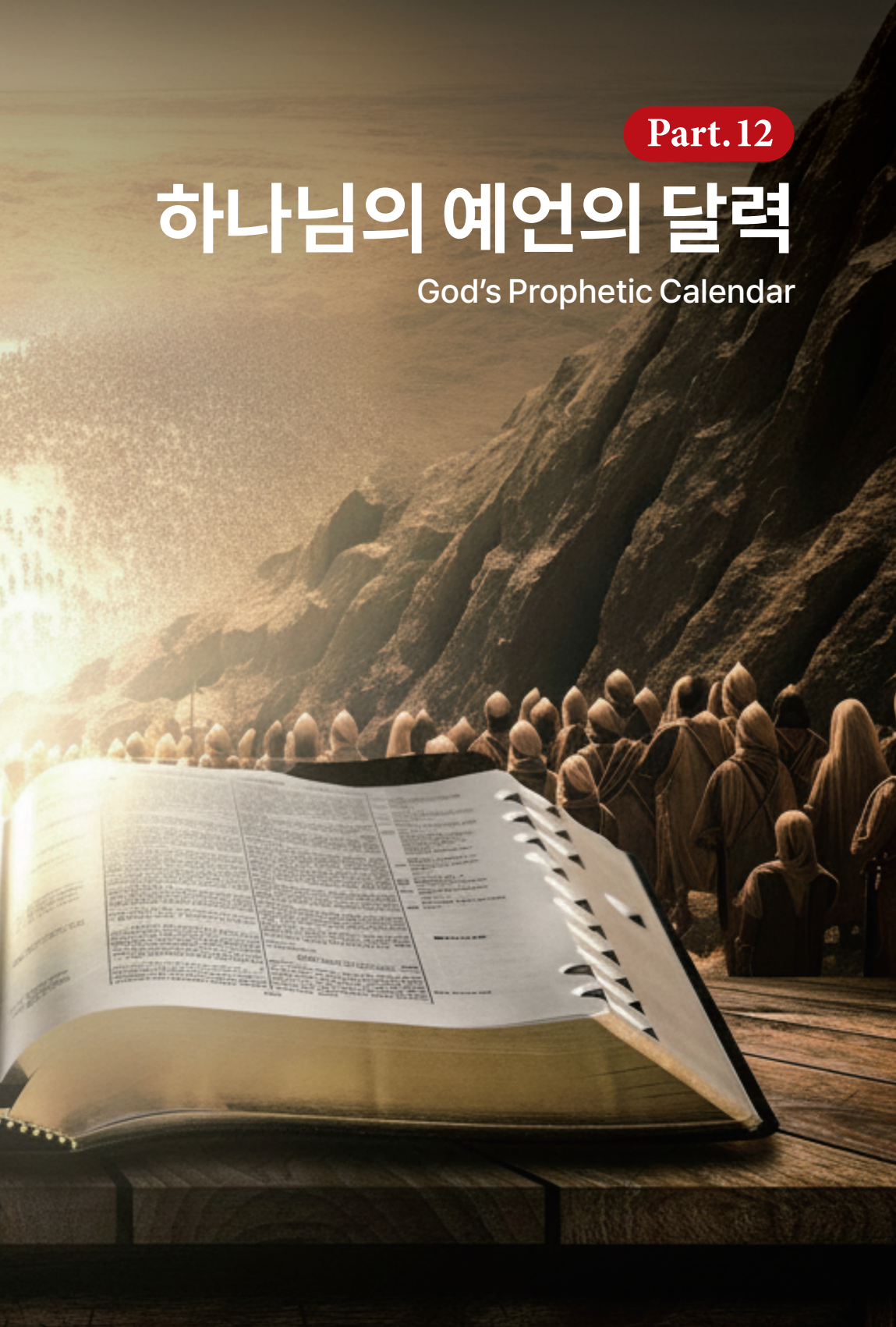
레위기: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

Leviticus: God's Prophetic Calendar

The Way to Worship a Holy God





Part. 12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

God's Prophetic Calendar

제12장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

레위기 23장은 단순한 명절 규정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어떻게 구원으로 이끄시고 완성하시는지를 일곱 명절 안에 압축해 놓은 예언의 달력이다. 유월절에서 장막절에 이르기까지의 일곱 명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 부활, 성령 강림, 그리고 재림과 이스라엘 회복, 메시아 왕국과 영광까지를 질서 정연한 한 흐름으로 보여 준다.

앞의 네 명절은 이미 역사 속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된 사건들이 되었고, 뒤의 세 명절은 아직 남아 있는 미래의 구속 사건들을 가리키며, 이 모든 순서는 역사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표를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증언한다.

이 장에서는 먼저 일곱 명절 각각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교회와 이스라엘, 그리고 천년 왕국과 어떤 구조 속에서 연결되는지를 간단히 되짚어 본다. 이어서 이스라엘과 교회의 '두 시간표'를 구분함으로, 정해진 날에 성취될 이스라엘의 명절들과 날짜가 주어지지 않은 교회의 휴거를 혼동할 때 어떤 심각한 오류가 생기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을 공부하는 목적이 날짜 계산이나 호기

심 충족이 아니라 오늘을 더 거룩하고 깨어 있게 살도록 하는 데 있음을 정리하면서, 이 책 전체가 전해 온 "하나님께서는 계획대로 이루시고 성도는 그 계획 안에서 준비된 삶을 산다."라는 메시지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이미 성취된 네 명절: 그리스도의 초림

1. 유월절 – 칭의의 완성

첫째 명절인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어린양의 피 아래 있던 집만이 죽음에서 보호받았던 사건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로 보여 준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 없고 점 없는 희생물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죗값과 형벌과 죄책을 한 번에 담당하셨다.

어린양이 죽음으로써 백성이 살아나는 구조는 "의인이 죽고 죄인이 사는" 대속의 원리를 보여 주며, 곧 칭의의 기초가 된다. 칭의란 인간이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사건이다. 이 선언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쌓이는 과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단번에 이루어지는 순간적 사건이며, 그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유월절은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출 12:13)라는 약속처럼,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게 하는 유일한 근거가 오직 피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준다.

2. 무교절 – 성화의 시작

구원받은 즉시 유월절 바로 다음 날 시작되는 무교절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서 시작되는 성화의 의미를 보여 준다. 무교절은 집안 곳곳에서 누룩을

찾아 철저히 치워 버리는 명절로,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부스러기까지 제거해야 했다. 이는 구원 이후에도 남아 있는 죄의 습관과 옛 사람의 잔재들을 평생에 걸쳐 제거해 가는 성화의 삶을 상징한다. 칭의는 단번에 완전히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는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큰 구원'에는 단지 지옥 형벌에서의 구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실제로 거룩해져 가는 삶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이 과정 속에서 성도는 생각과 말과 행동의 누룩을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해 하나씩 치워 나간다. 거룩함이 없는 기쁨은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아니며, 죄를 붙든 채 누리는 쾌락은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거짓 기쁨일 뿐이다. 무교절은 성도가 "이미 구원받았으니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태도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이제 거룩함에 이르라."는 부르심 아래 살도록 가르친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자신의 마음과 생활 속 누룩을 살피고 치워야 하며, 이것이 평생에 걸쳐 계속되는 과제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맡기신 거룩한 부르심이다.

3. 초실절 – 부활의 보증

초실절은 유월절과 무교절 사이, 안식일 그다음 날에 첫 곡식 단을 가져와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 드리는 명절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날을 예표로 보여 준다. 이 명절은 먼저 청지기직에 대한 교훈을 준다.

첫 열매는 수확 전체를 대표하는 가장 좋은 부분이었고,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행위는 수확의 소유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삶의 첫 부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생 전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청지기 의식을 배운다. 동시에 초실절은 미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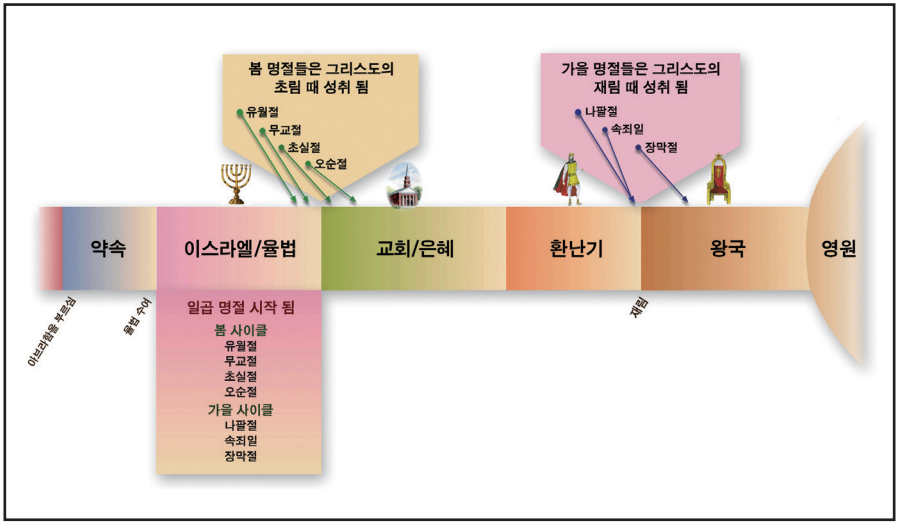
농부가 첫 단을 거두면 뒤이어 올 수확 전체를 기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은 그분께 속한 모든 자들이 그와 같은 부활에 반드시 참여하게 됨을 보장한다.

부활은 단순한 위로의 개념이 아니라 구속사의 구조를 이루는 핵심으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첫 열매) – 교회 성도들의 부활과 변화 – 구약·환난 성도들의 부활이라는 큰 수확과 이삭줍기의 질서를 드러낸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과 눈물, 손해와 순교의 자리 안에서도 헛되지 않은 수고와 반드시 올 영광스러운 수확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다.

4. 오순절 – 성령님의 임재

오순절은 초실절 이후 일곱 안식일, 곧 49일을 채운 그다음 날, 정확히 오십 일째 되는 날에 지켜지는 명절로, 구약에서는 '주들의 명절'로 불리며 곡식 수확의 마침과 첫 열매의 감사가 결합된 날이었다. 이날에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셨고, 신약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약 열흘이 지난 시점, 곧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전혀 새로운 공동

〈그림 9〉 이스라엘의 명절들의 예언 성취



체인 교회가 탄생하였다. 따라서 오순절은 구속 역사에서 '돌판에 기록된 율법의 시대'에서 '성령님께서 마음 판에 기록하시는 은혜의 시대'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이다.

이날 성령 침례가 처음으로 일어나 믿는 자들이 한 몸 안으로 연합되었고, 성령님의 내주와 봉인이 시작되어, 다시 태어난 모든 성도 안에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거하시는 시대가 열렸다. 동시에 오순절은 성령 충만을 통해 교회가 안락한 공동체가 아니라 증인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날이다.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성도들은 더 이상 자신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처럼 오순절은 성령님의 임재, 교회의 형성, 그리고 복음 증거의 사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구속사적 새 장을 여는 명절이다.

미래에 성취될 세 명절: 그리스도의 재림

5. 나팔절 –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

나팔절은 일곱째 달 첫날, 나팔 소리로 한 해의 마지막 국면을 여는 명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무대 중심에 서게 되는 시점을 예표로 보여 준다. 이날은 단순히 나팔을 부는 종교 행사나 새해 알림이 아니라 오랜 세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게 되는 예언적 전환점이다. 교회 시대 동안 마치 '역사 무대의 한편으로 물러선 듯' 보였던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께서 다시 민족적 차원에서 언약을 집행하시기 시작하는 시그널이 바로 이 나팔 소리이다.

이 사건에 앞서 약 7년 전, 교회는 공중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휴거를 받게 되는데, 이 나팔은 교회를 부르시는 나팔이며, 이스라엘의 명절인 나

팔절과는 대상과 시점과 목적이 구별된다. 나팔절과 연결된 나팔 소리는 특히 이스라엘을 향한 것으로, 세대와 대륙을 넘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모으는 신호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다. 주님께서 다시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역사 주변부에서 방황하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서 본래 주어진 자리를 회복하는 민족이 된다.

이처럼 나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마지막 국면, 곧 속죄일의 민족적 회개와 장막절의 왕국 기쁨으로 이어지는 결론부로 들어감을 선포하는 명절이다.

6. 속죄일 – 이스라엘의 회개

그러나 이 모든 기쁨과 회복 앞에는 반드시 먼저 다루어져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 속에서 저질렀던 가장 결정적인 죄, 즉 자기들 가운데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여 결국 찔러 죽인 죄 문제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참된 회복과 영광은 언제나 죄에 대한 정직한 직면과 깊은 회개, 애통을 통과한 뒤에 온다. 죄를 외면한 채 기쁨만을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질서가 아니며,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리에는 결코 참된 기쁨이 머물 수 없다.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은 마침내 자신들이 그동안 무시하고 배척해 온 바로 그 메시아를 분명히 바라보게 된다. 이는 단순히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하는 정도의 역사적 반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민족 전체가 자기 책임을 인정하고 가슴을 찢는 차원의 영적 사건이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외아들을 잃은 부모처럼, 처음 난 자를 잃어버린 집처럼 통곡하게 하시며, 온 민족이 깊은 회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자신들이 찌른 그분을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과 애통이, 바로 속죄

일이 예표로 보여 준 마지막 시대의 성취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라는 고백은, 이스라엘이 한때 거부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참된 메시아요, 왕으로 영접한다는 신앙의 선언이다. 이 고백이 입술에서 흘러나올 때, 오랫동안 긴장과 단절 아래 놓여 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적 관계는 비로소 회복된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대언자들을 통해 약속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는 이 민족 안에서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 성취되는 순간이다.

이처럼 속죄일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면서 동시에 가장 복된 날이 된다. 죄를 직면하고 애통하는 시간은 쓰라리지만, 바로 그 과정을 통과한 뒤에만 장막절의 기쁨과 왕국의 영광이 뒤따라오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도 회개 없는 영광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성경이 보여 주는 질서는 분명하다. 기쁨은 반드시 애통을 지나며, 영광은 반드시 회개의 문을 통과한다. 이 변하지 않는 원리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반복될 것이며, 그 질서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7. 장막절 – 하나님의 통치 완성

속죄 이후에 장막절이 온다. 이 순서는 결코 우연한 배열이 아니라 언제나 먼저 죄를 다루시고 그다음에야 기쁨과 영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질서를 상징한다. 이스라엘의 명절 순서에서 속죄일이 애통과 회개의 날이라면, 장막절은 그 회개와 용서 위에 세워지는 기쁨과 안식의 명절이며, 이 구조는 최종적인 구속 완성의 모형이 된다. 장막절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거하시며 통치하심이 완전히 실현되는 명절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신다."라는 말씀의 예표이며, 하나님의 임재와 왕권이 더 이상 믿는 자들 안에서만 숨겨진 방식으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전 세계 앞에서 나타나는 때를 가리킨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왕권이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나 소수의 고백에 머무르

지 않고, 모든 민족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현실이 된다. 스가랴서 14장이 묘사하듯, 예루살렘을 대적하던 민족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 왕이신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온 땅의 왕이 되셨음을 만국이 인정하는 눈에 보이는 행위다. 그 결과 하나님의 거룩함은 성전과 제단 주변을 넘어서, 도시의 골목과 집 안의 부엌, 심지어 말방울과 솥에까지 미친다. "말방울들에 '**주**께 거룩한 *것*'이라 새겨지고, **주**의 집에 있는 솥들은 제단 앞의 대접들과 같게 되며,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군대들의 '**주**께 거룩한 *것*'이 된다."는 말씀은, 평범하고 속된 것처럼 보이던 일상 영역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함 아래 편입되는 상태를 그림처럼 보여 준다.

가장 일상적인 도구와 공간까지도 하나님의 소유와 용도 속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도달하는 최종적인 상태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실현된 모습이다.

실천적 경고

유대인과 교회: 두 개의 시계

하나님의 예언적 달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명히 구분해야 할 사실이 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서로 다른 시간표로 움직인다는 점이다.

유대인들은 역사의 시계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예언적 시간표를 세상에 드러내신다.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일곱 명절 중 뒤의 세 명절 —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 은 이스라엘 민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미래의 사건들이다. 나팔절에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모으실 것이다. 속죄일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찌른 메시아를 바라보며 통곡하고 회개할 것이다. 장막절에 천년 왕국이 시작되며 만국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장막절을 지키게 된다.

반면 교회는 휴거를 기다린다. 휴거는 이스라엘의 명절과는 전혀 다른 사건이다.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나팔은 공중에서 울리는 나팔이며, 그 소리와 함께 교회가 휴거된다. 이는 이스라엘의 나팔절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러나 휴거는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그 임박성은 항상 현재형이다.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으며, 십 년 후일 수도 있다. 우리는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휴거의 임박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명절은 정해진 날짜가 있지만, 교회의 휴거는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다미 선교회의 실패에서 배우는 교훈

그러나 과거에 이 둘을 혼동하여 큰 혼란을 일으킨 사례가 있다. 1992년 10월, 다미 선교회에서 날짜를 정해 놓고 특정일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했던 일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이 지목한 날이 바로 나팔절이었다.

그들도 무작정 날짜를 정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연구한 결과였다. 레위기 23장의 명절들을 연구하고, 나팔 소리와 함께 휴거가 일어난다는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나팔절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결론을 내렸다.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였다. 나팔절이라는 정해진 날짜가 있고, 성경에 나팔 소리가 언급되



1992년 당시 휴거를 선포하는 다미 선교회 사람들

어 있으니 둘을 연결시킨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치명적인 오류는 이스라엘의 나팔절과 교회의 휴거를 혼동한 데 있었다. 이스라엘을 위한 명절의 나팔과 교회를 위한 휴거의 나팔은 전혀 다른 것이다. 결국 그들의 예언은 빗나갔고, 많은 사람에게 신앙적 상처를 남겼다. 직장을 그만두고, 재산을 정리하고, 가족 관계가 파괴되는 비극이 일어났다. 이는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한 결과였다.

다미 선교회의 실패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을 연구하되, 그것을 근거로 날짜를 계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연구는 신앙의 유익이 되지만, 날짜 계산은 쉽게 오류와 혼란으로 이어지게 된다.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에는 분명한 날짜들이 기록되어 있다. 1월 14일 유월절, 1월 17일 초실절, 오순절의 성령 강림 등 이미 성취된 사건들의 날짜가 있다. 또한 미래에 성취될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라는 명절들도 있다. 이것들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예언적 의미를 가진 명절들이다.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어떤 순서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실지 깨달을 수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하고 유익한 공부이다.

그러나 정확한 날짜를 계산하여 교회의 휴거나 그리스도의 재림 시점을 예측하려는 시도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긋는다.

>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 (마 24:36)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한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 심지어 아들도 모른

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날을 안다면 5월 24일이나 10월 28일 같은 어떤 특정한 날짜로 제시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날짜를 모른다.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 이것이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이다.

휴거의 임박성과 성도의 책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답은 명백하다. 죄를 치워 내면서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물론 우리는 나팔 소리가 나면 올라간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이를 분명히 말한다.

>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살전 4:16–17)

그러나 그 나팔 소리가 언제 울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을 준비된 자로 사는 것이다.

농부가 매일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정성껏 돌보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영적 삶을 가꾸어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읽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 하루 동안 지은 죄가 있으면 저녁에 그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무교절의 교훈처럼 날마다 누룩을 치워 내야 한다. 이것이 성화의 삶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때 오시든지, 차를 몰고 갈 때 오시든지, 설거지를 할 때 오시든지, 회사에서 일할 때 오시든지, 일상의 어떤 순간이든 상관없다. 언제 나팔 소리가 나든지 우리는 분명히 올라간다.

중요한 것은 순간의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가 하는 사실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그분의 약속대로 반드시 주님께 들려 올라가게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약속대로, 우리는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다.

>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지 집주인이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마 24:42–44)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가르친다. 깨어 있다는 것은 날짜를 계산하며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다.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죄를 치워 내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이 진정으로 깨어 있는 삶이다.

결론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일곱 명절은 이스라엘의 옛 종교력 안에 흩어져 버린 과거의 명절이 아니라 유월절에서 장막절까지 일관된 구속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이다. 유월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칭의, 무교절에서 평생에 걸친 성화의 여정, 초실절에서 부활의 보증, 오순절에서 성령님의 임재와 교회의 시작이 이미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듯이,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을 통해 예고된 이스라엘의 회복과 민족적 회개, 메시아 왕국의 기쁨 또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역사는 방향 없이 흘러가는 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과 과정과 끝을 이미 정해 놓으신 구속의 여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교회는 서로 다른 시간표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일곱 명절, 특히 뒤의 세 가을 명절은 이스라엘 민족과 직접 연결된 예언적 사건들의 날짜를 보여 주지만, 교회의 휴거는 어느 날·어느 시각인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임박한 사건으로 남겨져 있다. 날짜가 정해진 명절과 날짜가 숨겨진 휴거를 혼동하면, 과거의 잘못된 재림 날짜 운동처럼 혼란과 상처를 낳는다.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을 통해 '순서와 구조'는 분명히 알 수 있지만, '날짜와 시각'은 계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성경적 겸손이다.

그렇기에 예언을 아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언이 요구하는 삶의 태도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가르친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확신 위에 서서, 날마다 삶의 누룩을 치워 가는 성결의 길을 걸어야 한다. 초실절의 부활 소망과 오순절의 성령님의 내주와 능력 안에서 나팔 소리가 언제 울리든 준비된 자로 서 있어야 한다.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이 보여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회개 없는 영광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죄를 다루신 뒤에 기쁨과 왕국의 영광을 주신다. 그러므로 예언을 아는 자는 날짜를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자신의 죄를 처리하고 화평 가운데 발견되도록 힘쓰는 사람이다.

결국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은 한 가지 고백으로 귀결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며, 사람의 불순종과 실패 속에서도 자신의 구속 계획을 중단하지 않으신다. 이미 성취된 네 명절이 그 증거이고, 남은 세 명절도 동일한 신실하심 아래 놓여 있다. 따라서 성도의 자리도 분명하다. 언제 울릴지 모르는 나팔 소리를 두려워하며 날짜를 추측하는 자리가 아니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도록" 오늘 믿음과 거룩함과 감사로 사는 자리이다. 이 책이 소개한 일곱 명절의 전체 틀은 바로 그러한 삶으로 성도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달력이다.



부록

1. 그리스도의 지상 천년 왕국

2. 유대인은 누구인가?

3.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에 일어난 사건들

부록 1



그리스도의 지상 천년 왕국

Christ's Earthly Millennial Kingdom

이 부록은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일곱 명절이 단순한 이스라엘의 명절 목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교회 시대와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천년 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까지를 포괄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임을 다시 상기시키며 시작한다. 유월절·무교절·초실절·오순절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 강림 안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고, 나팔절·속죄일·장막절은 교회 시대 이후 이스라엘과 직접 관련하여 성취될 미래 사건으로 남아 있다. 이 가운데 마지막 명절인 장막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천년 왕국,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거하시며 통치하시는 시대의 예표로 제시된다.

이 부록은 특히 '장막절 이후에 무엇이 오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면서, 그 왕국에서 그리스도께서 온 땅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사탄이 결박되며, 전쟁과 불의와 질병이 크게 제약되고, 자연과 인간 사회가 본래의 질서로 회복되는 면면을 통해, 장막절이 가리키는 '땅 위의 완전한 통치와 기쁨의 시대'가 어떤 모습일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데 이 부록의 목적이 있다.

천년 왕국

앞선 장에서 우리는 장막절이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는 명절이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장막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시기 위해 정해 두신 결정적인 시간을 가리킨다. 성경은 이 미래의 때를 만물이 본래의 질서로 회복되는 시간으로 묘사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이러한 간구가 담겨 있다.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마 6:10)

이 기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요한계시록은 그 왕국이 반드시 올 것을 선언한다.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계 11:15). 그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마 6:10).

그러나 오늘날의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 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아직 이 땅에 임하지 않았다는 분명한 증거이다. 성경이 말하는 '하늘의 왕국'은 장차 실제로 이 땅 위에 도래할 왕국이다.

수 세기 동안 인류는 전쟁과 범죄와 질병과 굶주림이 없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어 왔다. 놀랍게도 성경은 그런 세상이 실제로 올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그 왕국의 도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울 수 있다. 마지막 장막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천년 왕국을 세우심으로 성취된다.

이 장막절은 모든 것이 완전해지고 궁극적으로 회복되는 때를 의미한다. 마태복음 24장이 말하는 '유례없는 환난의 때'가 끝난 후, 예수 그리스도께

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셔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마 24:29–30). 이는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타락 이후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복과 번영의 시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사건이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 이 밝은 미래를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행 3:20–21)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회복하시기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과 교회가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 자신의 달력 속에 특정한 시간을 정해 두셨다. 이는 구약의 대언자들이 반복해서 증언한 예언들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들은 메시아의 사역이 완성되고, 그분의 왕국이 최종적으로 성취될 미래의 시간을 바라보며 기록하였다.

하나님의 대언자들은 이 땅에서 살다 모두 죽었다. 그들 자신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으나,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다. 대언자 이사야는 그 영광스러운 회복의 날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 **주**께서 속량하신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으로 오겠고 자기 머리 위에 영존하는 기쁨을 둔 채 *와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사 35:10)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반역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시작될 것을 선포하는 수많은 예언들 가운데 하나이다. 장막절이 가리키는 미래는 바로 이날이며, 하나님의 달력은 이 완성을 향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

천년 왕국은 어떤 곳인가?

오늘날의 세상과 비교할 때, 천년 왕국은 어떠한 모습일까? 그 왕국 안에서의 생명과 삶은 어떤 상태일까? 성경은 이 미래의 왕국을 단순한 이상향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현실로 묘사한다. 성경이 말하는 '더 나은 세상'이란 무엇인지, 왕국 시대에 이루어질 열 가지 중요한 특징을 살펴보자.

1. 그리스도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신다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한 **주**만 계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슥 14:9)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통치하신다.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가 이 왕을 섬기게 되며(단 7:14), 예루살렘은 그리스도 왕국의 수도가 된다(사 2:3). 이 왕국은 인간이 만든 정치 체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 정치의 형태를 띤다.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왕좌에 오르신다.

2.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통치자가 되신다

역사를 돌아보면 헤롯 대왕이나 히틀러와 같은 악명 높은 통치자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잔인하고 이기적인 권력자들이 끊임없이 등장해 왔다. 설령 가장 뛰어난 지도자라 할지라도 불완전함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 그러나 왕국 시대에는 완전한 통치자가 다스리신다.

주께서 우리의 재판자시요, **주**께서 우리의 입법자시요, **주**께서 우리의 왕이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사 33:22)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재판관이시며, 완전한 입법자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왕이시다. 오늘날의 대법원, 국회, 대통령의 기능이 모두 그분 안에 완전하게 통합된다.

3.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공평과 의로 다스리신다

왕국 시대의 통치는 정의와 공의 위에 세워진다.

[그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의로 재판하고 땅의 온유한 자들을 위해 공평으로 꾸짖으며 자기 입의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의 숨으로 사악한 자를 죽이며 의를 자기 허리띠로 삼고 신실함을 자기 콩팥 *주위*의 띠로 삼으리라. (사 11:4–5)

그리스도의 모든 판단과 명령은 공정하고 의로우며, 불의나 편파는 존재하지 않는다.

4. 땅에 평화가 있다

그분께서 땅끝까지 전쟁들을 그치게 하시나니 곧 활을 꺾고 창을 동강내며 병거를 불태우시는도다. (시 46:9)

오늘날과 달리 왕국 시대에는 군대가 필요 없다(사 2:4). 전쟁은 과거의 일이 되며, 평화의 통치자께서 왕좌에 계시기 때문이다(사 9:6).

5.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게 된다

오늘날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와 다양한 신관이 존재한다. 그러나 왕국 시대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주님께서 친히 땅을 다스리시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신다(사 2:3). 거짓 종교는 허용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은 왕이신 그리스도께 경배하게 된다. 그때에는 "주를 알라."고 권면하는 선교사가 필요 없다. 온 세상이 주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렘 31:34; 사 11:9).

6. 사탄이 돌아다니며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없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왕국 시대가 천 년 동안 지속됨을 여섯 차례나 반복해 강조한다. 이 기간 동안 사탄은 무저갱에 갇혀 더 이상 세상을 미혹하지 못한다(계 20:1-3). 아담 이후 줄곧 문제를 일으켜 온 사탄의 영향력은 이 시기 동안 완전히 차단된다.

7. 척박한 땅이 비옥하게 된다

광야가 옥토가 되고 사막에 꽃이 피게 된다(사 32:15; 35:1-2). 하나님께서 풍성한 물을 공급하심으로 메마른 땅이 생명을 품게 된다(사 35:6-7).

8. 질병과 아픔이 사라진다

오늘날에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왕국 시대에는 "내가 병들었노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사 33:24). 귀머거리가 듣고 눈먼 자가 보게 되며, 백성들은 놀라운 건강을 누리게 된다(사 29:18; 35:5-6).

9. 사람의 수명이 현저히 늘어난다

왕국 시대에는 인간의 수명 자체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회복된다. 성경은 그때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아이가 백 세에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 65:20)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백 세는 노인의 나이에 해당하지만, 왕국 시대에는 백 세가 아직 어린 나이로 여겨질 만큼 수명이 크게 연장된다.

또한 성경은 이때 '사람의 날수가 나무의 날수와 같을 것'(사 65:22)이라고 말씀한다. 수백 년을 사는 나무들이 있는 것처럼, 왕국에 사는 사람들의 수명도 매우 길어질 것이다. 많은 이들이 천년 왕국 전 기간을 살아가게 되

며, 인간의 생명은 창세기 초기의 장수 시대를 연상하게 하는 수준으로 회복된다. 성경에 기록된 가장 장수한 인물인 므두셀라는 969세를 살았는데(창 5:27), 왕국 시대의 수명은 지금의 기준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게 된다.

물론 왕국 시대에도 죄에 대한 심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왕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고의로 거역하는 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징계가 따른다(사 65:20). 그러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순종하며 의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은 오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처럼 왕국 시대의 장수는 무분별한 생명 연장이 아니라 의와 순종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이다.

이는 단순히 수명이 연장된다는 차원을 넘어, 타락 이전에 가까운 인간 삶의 회복을 보여 준다. 왕국 시대는 죽음의 압박이 크게 완화되고, 생명이 풍성히 유지되는 시기이며, 이는 그리스도의 공의롭고 완전한 통치가 가져오는 결과이다.

10. 자연 생태계의 변화가 생긴다

이러한 자연계의 변화는 이사야서 11장 6-9절과 65장 25절에 매우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오늘날의 현실을 떠올려 보라. 지금 이리와 양을 함께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독사와 어린아이를 나란히 두면 그 결과는 자명하다. 그러나 성경은 천년 왕국에서는 짐승 세계 자체가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맹수의 본능은 사라지고, 창조 세계 전반에 걸쳐 조화와 질서가 회복된다. 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창조 질서가 타락 이전의 상태에 가깝게 회복되는 실제적인 변화를 가리킨다.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 "지금이 이미 왕국 시대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교회가 곧 왕국이며, 왕국이 이미 영적으로 실현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성경 전체의 증언과 맞지 않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왕국 경륜의 특징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오늘날 온전히 실현되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온 땅을 공의로 다스리고 있는가? 전쟁과 범죄와 질병이 사

라졌는가? 사탄이 결박되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이 모든 일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을 다스리실 때에만 성취될 일들이다.

한마디로 왕국 시대는 땅 위에서 가장 이상적인 조건이 구현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전쟁과 범죄, 질병과 가난으로 병든 오늘날의 세상과 달리, 그때에는 의와 평화가 지배하는 새로운 질서가 세워진다. 모든 사람은 완전한 정부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며, 불의와 억압이 아닌 공의와 진리가 사회의 기초가 된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언약의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 면에서 그 시대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으로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다.

장막절과 천년 왕국

장막절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와 결코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스가랴 대언자의 예언을 살펴보기에 앞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스가랴가 기록한 이 예언들은 역사 속에서 아직 성취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를 단지 영적인 상징이나 비유로만 해석하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 성경은 분명히, 장차 메시아의 왕국이 실제로 도래할 것이며, 문자 그대로 천 년 동안 이 땅에서 의와 평화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임을 말한다.

그때 이스라엘은 다시 민족들 가운데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팔레스타인 땅, 곧 가나안 땅은 지정학적으로도 세계의 중심지가 된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이스라엘은 회복되며, 온 땅은 영광스러운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

스가랴는 이러한 사건들을 모호하게 기록하지 않았다. 그는 장차 실제로 일어날 장엄한 사건들을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예언하였으며, 그 모든 것을 장막절과 직접 연결하고 있다.

스가랴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예루살렘을 대적하러 왔던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아 있는 모든 자가 참으로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군대들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이 받을 벌과 이집트가 받을 벌이 이러하리라. (슥 14:16–19)

이 예언은 장막절이 단순한 유대인의 종교 명절이 아니라 메시아의 왕국 통치 아래에서 온 세계가 참여해야 할 보편적인 경배의 명절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보수적인 성경학자들은 올리브 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서 온 세상의 주와 왕이 되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 예수님께서는 대언자적 사역의 절정인 올리브 산 설교(마 24–25장)를 이 산에서 선포하셨고, 유월절 후 주의 만찬을 제정하신 뒤에도 제자들과 함께 이 산으로 돌아가셨다(마 26:30). 마지막으로 그분은 제자들을 베다니, 곧 올리브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축복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셨다(눅 24:50–51). 그리고 성경은 그분께서 바로 그 산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증언한다. 스가랴는 메시아의 재림 장소까지 정확하게 예언한 것이다.

스가랴는 이 왕과 그분의 왕국을 장막절과 연결한다. 그렇다면 왜 왕국 시대에는 여러 명절 중 특별히 장막절만이 지켜지는가? 이에 대해 주석가들은 다양한 설명을 제시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에 있는 처음 여섯 명절은 이미 질서 있게 성취되었거나 교회 시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반면 일곱 번째 명절인 장막절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유일한 명절로서, 미래의 왕국 시대를 가리킨다.

둘째, 스가랴는 메시아께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실 때 사람들이 장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하였다(슥 14:16–19). 메시아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사 9:6)라는 이사야의 예언은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으며, 이는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와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예언들은 '하나님의

달력'에 따라 점진적으로 그 윤곽이 드러난다.

그때에는 모든 민족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킬 것이다. 그 왕께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슥 14:17). 지금의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강제로 경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해와 비를 주시는 은혜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마 5:45).

그러나 장차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때를 이미 정해 두셨다. 그날에는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되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게 될 것이다(빌 2:9-11).

미래의 천년 왕국 시대에 유월절이나 초실절, 오순절이 더 이상 지켜지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명절들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교회 시대와 관련된 명절들이기 때문이다. 반면 장막절은 다가올 그리스도의 지상 왕국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명절이며, 일곱 명절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에서 최종적인 완성을 가리킨다.

그날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회복되고, 자연계를 포함한 만물이 본래의 질서로 돌아가며,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의 아들을 영접한 이방 민족들이 이 왕국에 참여하게 된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장막절이 예표로 보여 주는 천년 왕국의 영광이다.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그 왕국에 들어가도록 허락받는 사람은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뿐이다. 이 점은 성경이 일관되게 증언하는 분명한 원칙이다. 이 원칙은 이스라엘의 역사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이스라엘에게 메시아 왕국을 주시기 위해 오셨으나, 그들은 마음을 강퍅하게 하여

온 민족이 그분을 거절하였다. 이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여러 차례 책망과 저주를 선언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라고 외치며 자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까지 황폐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다.

그 뒤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세상 끝의 표적들에 대해 질문하자, 주님께서는 24장과 25장을 통해 천년 왕국 직전에 있을 큰 환난과 그 후에 이어질 민족들의 심판을 설명하셨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는 큰 환난이 끝난 뒤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나누는 심판을 의미한다. 이는 교회 시대의 일반적 심판이 아니라 왕국 입성 여부를 결정하는 종말론적 심판이다.

그때 왕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것이다.

> 오라,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때*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마 25:34)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전혀 다른 선언이 내려진다.

>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마 25:41)

이 동일한 원리는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반복된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이 모든 사악한 자들을 모아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질 것이라 하셨고(마 13:41–42), 또한 의인들과 악인들을 가려 악인들을 불타는 용광로에 던질 것이라 말씀하셨다(마 13:49–50).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왕국이 시작될 때 땅에 남아 있는 자들은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악인들, 곧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제거되고, 의인들만이 왕국에 들어간다. 그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될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요 왕으로 받아들였다."

왕국에서 거룩함이 완성된다

레위기의 중심 주제는 성결이다. '거룩하다'는 말은 레위기 전체에서 총 94차례나 반복되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라고 끊임없이 요구하신다(레 11:44–45; 19:2; 20:7, 26; 21:8). 일곱 개의 거룩한 명절 가운데 마지막 명절인 장막절이 완결될 때, 이 거룩함은 마침내 땅 위에서 온전히 드러난다.

스가랴는 그 종결 장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 그 날에는 말방울들에 **주**께 거룩한 *것*이라 *새겨질* 것이요,… 참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군대들의 **주**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날에는 군대들의 **주**의 집에 더 이상 가나안 사람이 있지 아니하리라. (슥 14:20–21)

왕국 시대에는 주님을 향한 성결이 이스라엘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중심 주제가 된다. 거룩함은 성전과 제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람의 일상과 가정의 기구, 음식을 만드는 솥과 그릇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주**께 거룩한 *것*"으로 구별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에서는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의 구분 없이, 삶 전체가 거룩함의 빛 아래 놓이게 된다. 그날에는 모든 것이 문자 그대로 거룩해진다.

그러나 사람은 여전히 실패한다

그럼에도 천년 왕국 시대에 인간의 죄성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는다. 그 기간 동안에도 많은 아이들이 태어날 것이며, 천 년이라는 시간은 그들이 성장하여 성인이 되고, 방대한 인구를 이루기에 충분하다. 오늘날처럼 기아와 질병으로 아이들이 죽는 일은 없겠지만, 그들이 죄 없는 존재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첫째 세대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둘째 세대가 자동으로 구원받지는 않는다. 오늘날에도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구원을 대신하지 못하듯이, 왕국 시대

에도 구원은 개인적인 믿음의 문제이다. 성경은 구원이 혈통이나 육신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요 1:13). 부모는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믿음의 결단은 각 개인이 해야 한다.

사람이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죄성이다. 다윗은 이를 고백하며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시 51:5)라고 말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왕국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러므로 왕국 경륜에 태어난 사람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행 16:30–31). 왕을 신뢰하고, 그분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허락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겠지만, 모두가 그러하지는 않을 것이다. 겉으로는 왕께 순종하는 듯 보이면서도, 마음으로는 그분을 거부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막 7:6).

그러나 왕국 시대에도 불순종은 존재하며, 그에 대한 심판은 즉각적으로 집행되지 않는다. 왕께서는 불순종한 자들을 곧바로 제거하지 않으시며(사 65:20),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오기를 거부한 자들도 즉시 멸하지 않으신다(슥 14:16–17). 이처럼 왕국 경륜에서는 죄의 결과가 즉각 드러나지 않는다.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천 년이 끝난 뒤에 발생한다. 천 년이 차면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잠시 풀어 주신다(계 20:7). 놀랍게도 그때 수많은 사람이 다시 사탄을 따른다. 그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고 성경은 말한다(계 20:8).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으나, 그들은 믿지 않았다. 오히려 천 년이 끝나는 순간,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반역이 드러난다. 사탄은 인간의 죄성을 이용하여 그들을 모아 왕께 대항하게 만든다.

이 마지막 반역은 인간의 죄성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본성의 문제임을 최종적으로 증명한다. 빛 가운데서도 죄를 선택하는 인간의 실상이 그때 완전히 폭로된다.

하나님의 심판과 주요 교훈

그러나 마귀를 따르는 자들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들은 즉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계 20:9).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반역을 단번에 평정하시지만, 반역의 대가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사람들을 미혹하던 마귀는 결국 불 호수로 던져진다(계 20:10). 그곳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처소이다(마 25:41). 이렇게 하여 인류 역사를 혼란과 죄로 몰아넣던 존재는 완전히 제거된다.

이 왕국 경륜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첫째, 사람은 자기 잘못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문제를 남 탓이나 환경 탓으로 돌려 왔다. 이브는 뱀을 탓했고(창 3:13), 아담은 이브를 탓했다(창 3:11-12). 책임을 회피하고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태도는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모습이다.

그러나 왕국 경륜에서는 이러한 변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사회나 환경, 제도나 타인에게 전가할 수 없다. 오늘날 사람들은 흔히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은 본래 선한데 사회가 사람을 망가뜨렸다. 가난과 열악한 주거 환경, 불공정한 제도와 나쁜 교육이 문제다. 환경만 바꾸면 사람은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왕국 경륜에서는 이 논리가 완전히 무너진다. 그때의 정부는 완전한 정부이므로 정부를 탓할 수 없다. 교육 환경 역시 최고의 상태이기에 무지함을 핑계로 삼을 수 없다. 온 땅이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므로 "몰라서 그랬다."라는 말도 성립하지 않는다(사 11:9). 더 나아가, 사탄의 유혹을 탓할 수도 없다.

그 기간 동안 사탄은 결박되어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한다. 결국 왕국 경륜에서 비난의 화살은 다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사람 자신이다. 책임은 전적으

로 개인에게 있다.

둘째, 사람의 궁극적인 문제는 죄이다

왕국 경륜은 예레미야서 17장 9절의 말씀을 가장 분명하게 증명한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오?

사람의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다.

왕국 경륜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준다. 최선의 환경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풍요로운 음식과 의복, 안정된 주거 환경, 질병 없는 삶, 이상적인 사회 제도, 완전한 교육 등 이 모든 것이 갖추어져도 사람의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 왕국 경륜은 인간의 죄성이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본성의 문제임을 드러낸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마음을 그분께 맡길 때, 외적인 환경은 더 이상 그의 기쁨을 빼앗지 못한다. 반대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면, 아무리 이상적인 환경 속에 살아도 참된 만족은 없다. 마음이 바르면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어떤 환경도 해답이 되지 않는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 왕국 경륜 역시 이전의 모든 경륜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궁극적인 문제는 죄"라는 진리를 증언한다. 죄는 언제나 인간이 직면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다.

왕국 경륜에 들어가면 이 진리는 더욱 분명해진다. 사회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좋은 정부도 구원자가 되지 못한다. 완벽한 환경이나 제도, 교육 역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이것들이 유익할 수는 있지만, 사람의 마음 깊은 곳

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마지막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결정적으로 부족한 요소가 하나 있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구원 관계였다. 죄의 문제 앞에서 인간이 붙들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인생은 짧고 죽음은 확실하다.

문제의 원인은 죄에 있고, 해결책은 그리스도께 있다.

이 진리는 왕국 경륜의 끝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리스도의 재림

과거를 돌아볼 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 반 동안 이 땅에 거하셨다는 사실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이 행성 지구는 바로 그 시간 동안 그분께서 계셔야 할 장소였다. 그 이유를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밝힌다.

> 그래야 했다면 그분께서 세상의 창건 이래로 반드시 자주 고난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시려고 이제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히 9:26)

그리스도의 초림은 우연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정확한 시점에 이루어진 구속의 중심 사건이었다. 죄를 없애기 위한 단 번의 희생은 바로 이 땅에서, 바로 그분의 육체 안에서 성취되어야 했다.

그러나 미래를 바라볼 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아직 남아 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지상에 오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 안에서,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이 땅은 그분께서 계셔야 할 장소가 된다. 히브리서는 이 재림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히 9:27–28)

그 왕께서 내려오신다.

요한계시록은 이 장엄한 순간을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계 11:15)

이 약속은 아직 역사 속에서 성취되지 않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미래의 사건이다. 얼마나 오래 기다려 온 왕국인가. 얼마나 고대하던 왕의 오심인가. 믿는 이스라엘과 믿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무릎을 꿇는 그날은 참으로 복된 날이 될 것이다.

사도 요한은 이 왕을 다음과 같이 찬송한다.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 1:5–6)

오늘날 성경의 예언들이 주후 70년경 예루살렘이 로마 사람들에 의해 파괴될 때 모두 성취되었다고 잘못 이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성경의 예언을 전부 과거의 사건으로 돌리며, 실제로 이루어질 미래의 성취를 기대하지 않는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왕국에 관한 예언들을 해석할 때 이러

한 태도가 두드러진다. 신학적으로 이들은 흔히 '과거주의자들'(Preterists)이라 불린다.

이들이 자주 근거로 삼는 구절이 바로 다음 말씀이다.

>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마 16:28)

이 구절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왕국에 임하시는 사건을 가리킨다. 그러나 과거주의자들은 이 말씀이 주후 70년에 전부 성취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주후 70년에 이 땅에 재림하여 왕국을 세우러 오신 적이 없다. 성경 전체의 증언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에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건들이 있다. 최소한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실 때에는 실제로 땅에까지 내려오시며, 모든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보게 된다(마 24:25-30; 계 1:7).

>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마 24:30)

그러나 주후 70년에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때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둘째, 그때에는 유대인들이 땅의 모든 나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 사실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반복해서 예언되어 있다(사 43:5-7; 렘 16:14-15; 23:7-8; 31:7-10; 겔 11:14-18; 36:24; 마 24:31). 그러나 주후 70년에는 회

복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이 잡혀 죽임을 당하거나 전 세계로 흩어지는 비극이 일어났다.

셋째,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에는 땅에서 전쟁이 그친다(시 46:9; 사 2:4; 미 4:3; 슥 9:10).

> 그분께서 땅끝까지 전쟁들을 그치게 하시나니 곧 활을 꺾고 창을 동강 내며 병거를 불태우시는도다. (시 46:9)

그러나 주후 70년은 평화의 시대가 아니라 로마 군대에 의한 참혹한 전쟁의 시기였다.

넷째, 그때에는 왕국이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되며, 메시아께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 통치하신다(행 1:6; 사 9:7; 렘 23:5-6; 눅 1:32-33). 그러나 주후 70년에는 예루살렘이 파괴되었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어떤 왕도 왕좌에 앉아 다스리지 않았다.

다섯째, 그때에는 유대인들이 크게 구출을 받고 복을 받는다(렘 30:7-9; 겔 34:25-31). 그러나 주후 70년에는 구출과 복이 아니라 메시아를 거절한 데 따른 심판과 저주가 임하였다.

여섯째,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성소, 곧 성전이 그분의 백성 가운데 세워진다(겔 37:26-28; 40:5-43:27). 그러나 주후 70년에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유대인들은 더 이상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

일곱째, 그때에는 제사장들이 다시 섬기며 짐승의 희생이 재개된다(겔 44:1-46:24). 그러나 주후 70년 이후에는 로마에 의해 성전이 무너졌고, 희생 제도는 완전히 중단되었다.

여덟째,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에는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을 열두 지파의 수대로 나누어 소유한다. 이 분배는 여호수아 시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며, 에스겔서 47장 13절부터 48장 29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주후 70년에는 유대인들이 땅을 분배받기는커녕, 오히려 전 세계로 추방되었다.

아홉째, 그때에는 예루살렘을 향한 평화의 기쁜 소식이 선포된다(사 52:7-10). 그러나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에 임한 것은 평화의 소식이 아니라 파괴와 멸망의 소식이었다.

열째,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땅에 충만하게 된다(사 35장). 사막이 옥토가 되고,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며, 질병과 위험이 사라진다. 그러나 주후 70년의 현실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과 탄식뿐이었다(사 35:10과 비교).

이와 같이, 주후 70년경에 성경의 예언들이 모두 성취되었다는 과거주의자들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들이 근거로 제시했던 마태복음 16장 28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곧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17장을 함께 보아야 한다.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몇 사람"(마 16:28)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키며(마 17:1), 그들이 목격한 광경은 왕권을 가지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화였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가리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재림)"이라고 증언하였다(벧후 1:16-18). 변화산에서의 주님의 변형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왕권을 가지고 권능 가운데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실 일을 보여 주신 예표였다. 아직 왕국은 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 왕국은 반드시, 문자 그대로, 역사 속에 도래할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

이러한 메시아의 천년 왕국이 마침내 끝난 뒤에는, 더 크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이 이어진다. 곧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시간과 공간의 모든 질서가 완전히 새롭게 된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도시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고, 그곳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최종적인 처소가 된다. 더 이상 임시적인 거처나 나그네의 삶이 없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안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

요한계시록은 이 장엄한 장면을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계 21:1)

여기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다'는 말은 단순한 개조나 수리가 아니라 죄와 저주로 오염된 옛 창조 질서가 완전히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신다는 뜻이다. 더 이상 바다가 없다는 표현 역시 혼돈과 분리, 위험과 불안을 상징하던 모든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보여 준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죄도 죽음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거처이다.

이 장면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다.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계 21:5)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마침내 절정에 이르렀음을 선포한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인간의 영혼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선언은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실패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증한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 말들을 기록하라."라고 명하신다. 이는 성도들이 이 약속을 확신 가운데 굳게 붙들게 하려는 뜻이다.

이 모든 계시의 마지막 장면에서,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돌린다.

>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 22:20–21)

여기에서 '속히'라는 말씀은 시간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고 지체 없이 이루어진다는 약속이다. 이에 대한 성도의 마땅한 반응은 계산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간절한 소망과 기도의 외침이다.

>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계 22:20)

이 고백은 성경의 마지막 말이지만, 동시에 영원의 시작을 향한 문이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은 더 이상 믿음으로만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뵙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최종 목적이며, 모든 성도가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영광스러운 결말이다.

결론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일곱 명절은 유월절에서 장막절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교회 시대와 이스라엘의 회복, 천년 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한 장의 달력처럼 압축하여 보여 준다. 유월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시작된 칭의, 무교절에서 날마다 누룩을 치워 가는 성화, 초실절에서 부활의 보증, 오순절에서 성령님의 임재와 교회의 탄생이 이미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듯이,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이 가

리키는 이스라엘의 회복, 메시아 왕국,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마지막 기쁨 역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 모든 흐름은 역사가 우연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에 따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증언하며, 그 달력에는 아직 마지막 장이 남아 있다.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께서 온 땅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사탄이 결박되며, 의와 평화가 사회와 자연과 인간 삶 전반에 넘치는 가운데, 마침내 옛 하늘과 옛 땅이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 레위기 23장의 명절들 속에 예표로 담겨 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전한 결말에 이른다.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계 21:5)라고 선언하시며,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함께 거하는 영원한 장막절이 시작된다.

이 영원한 결말 앞에서 성도에게 요구되는 태도는 분명하다. 역사가 하나님의 달력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알고, 그 구속의 질서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분명히 인식하는 일이다. 또한 날짜를 계산하기보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벧후 3:14)라는 권면대로 오늘을 준비된 삶으로 살아가는 일이 성도의 마땅한 응답이다. 성경은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 하시는 주님의 약속과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라는 성도의 응답으로 끝난다(계 22:20). 이것이 구속사의 흐름을 이해한 성도가 품어야 할 가장 자연스러운 소망이며, 이 책이 독자에게 남기려는 결론이기도 하다.

부록 2



유대인은 누구인가?

Who Are the Jews?

이 부록에서는 유대인이 누구인가를 성경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이 중요한 주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나팔절 이후의 여러 명절과,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 왕국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인류를 막연하게 하나로 묶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서 분명하고 명확한 구분을 제시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이 시대의 사람들을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라는 세 부류로 구분한다. 이는 단순한 민족 분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다루시고, 각 집단에 서로 다른 시간표와 약속을 적용하시는 방식을 보여 준다.

유대인은 땅을 무대로 삼은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그의 씨에게 주시고, 그 땅에서 자신의 통치를 드러내고자 하셨으며, 이스라엘을 신정 국가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실제 정치와 사회를 지배하는 현장이 되게 하셨다. 교회는 하늘에 속한 부르심의 백성이다. 땅에서 시작되었으나 본질과 목적지는 하늘에 있으며, 유대인과 이방인을 초월한 새로운 창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몸이다. 이방인은 구속의 대

상이지만 언약의 직접적 주체는 아닌 민족들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통해 베푸시는 복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 세 부류의 경계를 흐리면 레위기 23장의 명절들, 특히 나팔절 이후 환난과 재림, 왕국에 대한 성경의 시간 질서를 바르게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이 구분은 종말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 기본 전제가 된다.

유대인의 기원과 역사

유대인의 시작: 아브라함 언약

그 역사의 출발점은 주전 약 1921년경,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한 민족을 세우기 시작하신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아브라함 이전에는 성경적 의미에서의 '유대인'도, '이방인'도 존재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써 역사는 분명한 분기점을 맞는다. 바로 그 순간부터 역사는 무작위의 흐름이 아니라 구속을 향한 선택의 역사로 방향이 정해졌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이라는 중심축을 세우시고, 그 축을 따라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기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열 번 나타나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하나님의 현현'(Theophany)이라 부른다. 이 열 번의 나타나심에서 반복하여 강조된 내용은 한 가지였다. 바로 언약을 주시고, 이미 주신 언약을 거듭 확인하시는 일이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장면 중 하나가 창세기 13장이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제 네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

라. 네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일어나 그 땅을 그것의 세로 방향과 가로 방향으로 지나가며 걸으라. 내가 그 땅을 네게 주리라. (창 13:14–17)

하나님께서는 사방을 가리키시며,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모든 땅을 그와 그의 씨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선언하셨다. 여기에서 '영원히'라는 표현은 이 약속이 일시적이거나 조건부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 준다.

이 약속은 창세기 15장에서 더욱 엄숙하게 확증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하늘을 보게 하시며,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네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 보라."(창 15:5)라고 말씀하시고 "네 씨가 그와 같으리라."라고 선언하셨다. 바로 이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며 (창 15:6)

이어 창세기 15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공식적으로 맺으시며, 그 땅의 경계를 분명히 규정하신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그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네 씨에게 주었노니 (창 15:18)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약속들은 무조건적 언약이었으며, 이후 그의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확증되었다. 이삭에게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체류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행할 것이며…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창 26:2–4)

야곱에게도 같은 약속이 주어졌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내가 네게 말한 것을 친히 다 행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 28:15)

이로써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단지 개인에게 국한된 약속이 아니라 민족적이고 역사적인 언약임이 분명해졌다.

이후 성경에는 '유대인'이라는 명칭이 등장하게 된다. 이 용어의 기원 역시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래 '유대인'은 유다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 이전 단계에서는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히브리'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처럼 유대인의 역사는 혈통 이전에 부르심과 언약으로 시작된 역사이며, 그 출발점에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신 사건이 놓여 있다.

이스라엘의 역사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에게서 야곱이 태어났다. 야곱에게서 열두 아들이 나왔으며, 이들이 훗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되었다. 이 열두 지파가 요셉을 따라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게 된 경위는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처음에는 보호와 번영 속에서 살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며 심하게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 시점에 모세가 태어났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속해 내셨다. 이집트 탈출 사건은 단순한 민족 이동이나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신 구속 행위였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자신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내

셨다. 이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 곧 영광을 히브리 전통에서는 '쉐카이나 영광'(Shekinah Glory)이라 부른다. 이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표징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았다. 율법이 주어짐으로써 이스라엘은 단순한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로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약 1,500년 전의 일이다. 구약 성경의 상당 부분은 바로 이 신정 국가 이스라엘의 역사, 곧 순종과 실패, 징계와 회복의 반복된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왕국이 세워졌으나 결국 분열되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하였다. 한편 남왕국 유다는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을 버텼으나, 결국 바빌론에 의해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에스겔서는 매우 중요한 장면을 기록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다. 시내 산에서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지속적인 불순종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이다.

유다는 70년간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후 일부가 귀환하여 성전을 다시 세웠다. 그러나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를 보내지 않으셨다. 이 기간은 흔히 '400년 침묵기'로 불린다. 계시가 중단된 시대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던 시간이었다.

이 긴 침묵의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시며 다시 역사 속에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 이후

BC 4년경,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리고 AD 30년경,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 부활하셨다. BC 4년부터 AD 30년까지, 약 33년 반에 이르는 이 기간이 예수님의 초림 시대이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이스라엘을 역사에서 제거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약 사십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셨다. 사도행전 초반부를 살펴보면, 사도들의 설교 대상은 거의 전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다.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이것을* 확실히 알지니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행 2:36)

그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이스라엘이 배척하고 죽인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이며, 그러므로 회개해야 한다는 촉구였다.

사도행전 3장에서도 베드로는 같은 맥락에서 외친다.

>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러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올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실 터인데 (행 3:19–20)

이 말씀은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것이라는 메시지였다.

이미 교회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 만일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곧바로 재림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내 민족적인 차원의 회개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결과 주후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Titus, AD 39–81)가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졌다. 유대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 전 세

계로 흩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과 역사에 기록된 디아스포라의 시작이다.

이후 약 1,9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땅도, 국가도 없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이 흩어짐조차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 포함된 과정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잠시 멈춘 상태로 미래의 회복을 기다리게 된 것이다.

왜 성경의 3분의 2가 유대인에게 할애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약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써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곧 유대 민족을 역사 속에 공식적으로 세우기 시작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로 다시 약 2,000년이 지났다. 이 기간 동안 겉으로 보기에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중심 무대를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이렇게 큰 분량을 왜 유대인들에게 할애하셨는가? 왜 인류 전체의 역사 가운데서 한 민족의 이야기를 이처럼 길고 자세하게 기록하셨는가?

성경을 따라가면 그 이유가 분명해진다. 성경 전체를 조망해 보면, 성경의 약 3분의 2는 구약이며, 구약은 거의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언약을 다룬다.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의 분량을 기준으로 보면, 구약은 약 1,800페이지이고 신약은 약 600페이지이다. 다시 말해 성경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하나님의 역사 기록이다.

더 나아가 구약 성경의 처음 약 2,000년, 곧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역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압축되어 기록되어 있다. 이 짧은 분량 안에 인류 초기 약 2,000년의 역사가 담겨 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함께 이스라엘 중심의 역사가 시작되고, 구약 성경 전체는 거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무대를 유대 민족을 중심으로 펼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을 보존하시

며, 구원자를 보내시고, 마침내 재림의 영광까지 연결되는 큰 그림을 그려 오셨다. 신약 시대가 마무리될 때, 하나님의 달력은 다시 구약의 예언들을 향해 맞추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예언들은 다시 유대 민족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성취된다. 따라서 유대인에 대한 이해 없이는 성경의 종말론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

유대인의 특별함

역사의 기적: 보존된 민족

유대인들의 민족 역사는 인류 역사상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독특하다. 유대인들은 억압받고 짓밟히며 포로가 되어 여러 나라로 끌려가 흩어졌지만, 그럼에도 자신들을 정복했던 모든 민족보다 오래 살아남아 오늘까지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해 왔다. 다른 민족이었다면 아마 정복자들에게 완전히 흡수되거나 민족적 정체성을 상실했을 것이다. 지금까지 유대 민족이 보존되어 왔다는 사실 자체는 역사의 기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유대인들의 상징으로 자주 언급되는 표적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 주신 '불타면서도 소멸되지 않는 떨기나무'이다. 불이 붙으면 타서 사라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지만, 그 떨기나무는 그렇지 않았다. 이 표적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이해되어 왔다. 불길에 타면서도 사라지지 않는 그 나무처럼, 끊임없는 심판과 고난의 불길 속에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는 민족의 모습이 바로 그 떨기나무와 닮아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본 민족

인류 역사상 유대인들만큼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눈으로 목격한 민족은 없었다. 신명기 4장 7절에서 모세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르며 구하는 모든 일에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것같이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그렇게 가까이 모신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며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어린양의 피를 통해 구속의 길을 여셨다. 홍해의 물은 갈라져 벽이 되었고, 요르단 강 역시 갈라졌다. 광야에서는 만나가 내려왔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하며 인도하였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들이 양뿔 나팔을 불자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고(수 6:1-27), 전투가 끝날 때까지 태양과 달이 중천에 머물러 서 있기도 했다(수 10:12-14).

주의 천사는 그들 주위에 진을 치고 그들을 보호하였으며, 단 하룻밤 사이에 185,000명의 아시리아 군사를 멸하여 이스라엘을 구해 내셨다(왕하 19:35). 이 모든 사건은 이스라엘이 추상적인 신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민족임을 증언한다.

위대한 인물들을 배출한 민족

또한 유대인들만큼 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배출한 민족도 찾아보기 어렵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위대한 지도자이자 입법자인 모세, 이집트와 바빌론의 최고 권력층에서 활동했던 요셉과 다니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 지혜의 상징인 솔로몬이 모두 이 민족에서 나왔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대언자들을 동시에 배출한 민족 역시 유대인 외에는 없다.

무엇보다도,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갈릴리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배출한 민족은 오직 유대 민족뿐이다. 주후 1세기에는 사도 바울만큼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 없었고, 20세기 이후에도 세계의 학문·경제·정치·문화의 흐름을 만들어 온 인물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이처럼 유대 민족이 역사 속에서 놀랍도록 보존되고 영향력을 발휘해 온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고, 지금도 그 사명이 유효하다는 전제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신 이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유대인을 선택하셨는가? 성경은 이 선택이 우연이나 민족적 우월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에 따른 것이었음을 밝힌다.

첫째, 한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기 위함이다. 유대 민족이 선택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상 가운데 오직 한 하나님께서 계심을 증언하기 위함이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택하여, 삶과 역사 전체를 통해 시청각적으로 보여 주고자 하셨다. 다시 말해 "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며 다른 모든 신들은 참 신이 아니다."라는 진리를 개념이 아니라 실제 역사와 삶 속에서 보여 주고자 하셨다.

이 사실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분명히 선언된다.

>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보며 감탄하도록 의도하셨다.

> 내가 이날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을 가진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신 4:8)

둘째,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며 전수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시, 곧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 넘겨주도록 이스라

엘을 택하셨다. 로마서 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유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면 유대인에게 어떤 이점이 있느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은데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이는 결코 작은 특권이 아니었다. 성경은 전부 유대인들을 통해 기록되었으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글자도 손상하지 않기 위해 극도의 정성과 경외심으로 보존해 왔다.

셋째, 구원자를 보내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통해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유대인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친히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요 4:22)

넷째, 세상의 소금으로서 도덕적 부패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유대 민족이 세워진 또 하나의 목적은 세상의 도덕적 부패를 억제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마 5:13)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1차 대상은 바로 유대인이었다. 소금은 맛을 내기 이전에, 부패를 막는 작용을 한다.

세상이 지금과 같이 극심하게 타락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유대 민족이 소금으로서의 역할, 곧 자기들의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이 다시 그 맛을 회복할 때까지 세상의 타락은 계속 심화될 것이며, 결국 민족들의 부패로 인한 악취가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실 것이며, 바로 그때 유대인들은 회심하여 다시 소금으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현재와 대체 신학

현재 유대인의 상태

오늘날 유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나 불기둥이 없다. 과거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희생 제단도, 희생 헌물도 없으며, 제사장 직분 역시 작동하지 않는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지만 유월절 어린양을 잡지 않는다. 속죄일을 지키지만 속죄를 위한 피를 흘리지 않는다. 모든 희생 헌물은 이미 오래전에 중단되었다.

그들에게는 왕도 없고 재판관도 없으며,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저자도 더 이상 없다. AD 70년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후로 유대인들은 성전 없이, 제사장 없이, 제사 없이 살아왔다. 그들의 종교 생활은 외형과 전통은 남아 있으나, 그 핵심이었던 피 흘림을 통한 속죄는 사라졌다. 이는 단순한 제



프란체스코 하예즈 〈예루살렘 성전 파괴〉

도의 변화가 아니라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린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그들의 조상들에게서 이미 예표로 나타난 바 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배척하고, 그를 붙잡아 은 스무 개를 받고 팔아넘겼다. 요셉은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이집트에서 파라오 다음 자리에 앉아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 훗날 그는 형제들 앞에 다시 나타나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자로 자신을 드러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참된 요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분을 붙잡아 은 서른 개를 받고 넘겨주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으나, 지금은 하늘에서 자기 아버지의 왕좌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요셉이 때가 차자 형제들 앞에 다시 나타났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장차 유대인들에게 다시 나타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날에 그들은 자신들이 거절했던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였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대체 신학 반박

그렇다면 왜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까? 유대인들이 단지 이방 민족들에 의해 역사 속에서 밀려났기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교회에 의해 대체되었기 때문인가?

주후 313년 이후, 천주교회와 그로부터 갈라져 나온 일부 프로테스탄트 교파들은 공통적으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이른바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가르쳐 왔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났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 계획이 분명히 남아 있음을 반복해서 증언한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다시는 자기들의 땅을 회복하지 못하는가?

그들은 왕과 수도, 국가적 정체성을 영원히 잃어버린 것인가?

그들의 현재 상태는 우연한 역사적 결과가 아니라 이미 성경에 예언된 과정이 아닌가?

호세아 대언자는 이스라엘의 이 독특한 상태를 정확히 예언하였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물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거하다가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주**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구하며 마지막 날들에 **주**와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이라. (호 3:4–5)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장기간 정치적·종교적 중심을 잃은 상태로 존재할 것을 예언하면서도, 그 상태가 영구적이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그 뒤에'라는 말은 회복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을 전제한다.

예수님 역시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눅 21:24)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이다. 예루살렘이 짓밟히는 기간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정해진 한시적 시간이며, 무기한 폐기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로마서 11장에서 더욱 분명하게 설명한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는 것이라. 이런 식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롬 11:25–27)

바울은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신비'라고 부른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버림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방인 구원의 시대가 완성될 때까지 의도적으로 가려진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맺으신 언약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시 다루실 것이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이나 교회에 의해 하나님의 계획 밖으로 밀려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 있으며, 정해진 때가 이르면 다시 한 나라로 회복될 것이다. 지금의 공백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기다림의 기간이다.

교회 시대와 구분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 하나님의 인류 역사 경영은 본격적으로 교회 시대로 전환되었다. 이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공동체였다. 혈통이나 민족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가 교회의 본질이다.

교회는 오순절에 시작되어 휴거로 끝난다. 휴거가 일어나는 순간 교회 시대는 종결되며,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도 마무리된다. 이때 종료되는 것은 성령님의 존재가 아니라 교회 시대에 특징적으로 주어진 성령님의 '내주'(indwelling) 사역이다.

이 점을 분명히 구분하지 않으면 심각한 혼란이 생긴다. 성령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은 계셨고, 환난기에도 계시며, 천년 왕국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신다. 다만 모든 신자 안에 영구적으로 거하시는 내주 사역은 교회 시대에만 주어진 독특한 은혜이다.

따라서 휴거로 교회 시대가 끝난다는 말은, 성령님의 사역이 중단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성령님의 사역 방식이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미이다. 이 구분을 놓치면 환난기 구원, 성령님의 역할,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과 교회가 하나님의 인류 역사 경영 안에서 서로 다른 정체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땅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교회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는 이 땅에서 시작되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공동체이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하였다.

>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엡 1:3)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영적으로는 메시아를 거부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났다는 뜻은 아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시 이스라엘 중심의 경륜으로 전환된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이며, 임의로 재해석할 수 없는 분명한 구조이다.

유대인의 미래

나팔절과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교회가 휴거되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다시 분명하게 유대 민족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때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흩어져 있던 자리에서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되며, 민족들 가운데서 머리가 되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현재 이 세상은 민족적·정치적으로 이방인들이 주도하는 질서 아래 있으며, 성경은 이 시대를 가리켜 '이방인들의 때'라고 부른다(눅 21:24). 그러나 이방인들의 때는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차면 반드시 끝을 맞이하게 된다.

이 전환점과 깊이 연결된 상징이 바로 나팔이다. 성경에서 나팔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개입, 소집, 그리고 시대 전환을 알리는 신적 신호이다. 특히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는 장면에서 나팔은 반복적

으로 등장한다. 나팔은 흩어진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호출이며,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는 표지이다.

나팔절은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일곱 명절 가운데 다섯째 명절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절이다. 앞의 네 명절—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관련되어 이미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다. 반면 뒤의 세 명절—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어 미래에 성취될 명절들이다. 따라서 나팔절은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명절이지, 교회와 관련된 명절이 아니다.

일부 사람들은 나팔절을 교회의 휴거와 직접 연결시킨다. 그러나 이 주장은 성경적 근거가 없는 해석이다. 교회의 휴거는 환난기 이전에 일어나는 사건인 반면, 나팔절은 7년 환난기가 끝난 이후의 국면과 연결된 명절이기 때문이다.

다니엘의 예언에 따르면, 7년 환난기는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지는 한 이레 동안의 언약으로 시작된다(단 9:27). 이 언약으로 환난기가 시작되고, 그 중간에 성전이 더럽혀지며, 후반부 3년 반의 대환난이 이어진다. 그리고 정확히 그 기간이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환난기는 종결된다.

나팔절은 바로 이 지점, 곧 7년 환난기를 통해 이방인들의 때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한 직접적인 통치를 선언하시는 재림 이후의 국면과 연결된 명절이다. 나팔 소리는 환난으로 들어가라는 신호가 아니라, 환난이 끝났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왕권이 공개적으로 선언되었음을 알리는 소리이다. 이로써 나팔절은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모이고, 민족적 정화가 이루어진 이후,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턱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선언이다. 이것이 나팔절이 예언적으로 차지하는 정확한 위치이다.

유대인 회복의 과정

유대인들의 장래를 논할 때 우리는 억측을 피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우

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내용을 모두 모아서 논리정연한 순서로 배열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매우 단순하며 그 결과 역시 확실하다.

성경은 유대인의 회복을 분명히 예언한다. 아모스서 9장 14-1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포로 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피폐한 도시들을 건축하여 거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세우고 그것들의 포도즙을 마시며 또한 동산들을 만들어 그것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내가 그들에게 준 그들의 땅에서 그들이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네 하나님께서 말하노라. (암 9:14-15)

어떤 이들은 유대인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들은 그 후에도 그 땅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다. 이 약속은 그들이 더 이상 자기들의 땅에서 쫓겨나지 아니하리라는 것이다. 이 일은 미래에 있을 완전한 회복을 가리킨다.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되돌아온 일은 첫째 회복이었고 지금 이 성경 구절은 둘째 회복에 관해 말하고 있다.

> 그 날에 [천년 왕국이 오는 때에] 주께서 다시 자신의 손을 두 번째 세우사 자신의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 곧 남겨질 자들을 되찾으시되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되찾으실 것이요, 또 그분께서 민족들을 위해 기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며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땅의 사방에서부터 함께 모으시리라. (사 11:11-12)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만 회복된 적이 있었다. 그 회복은 바빌론에서의 귀환이었다.

유대인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는 동쪽에서 나왔지만 장차

돌아올 때에는 북쪽과 모든 나라들로부터 나올 것이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날들이 오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께서 살아 계신다, 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을 북쪽 땅과 또 그분에 의해 그들이 쫓겨나서 *머물던* 모든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께서 살아 계신다, 하고 말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다시 데려가리라. (렘 16:14–15)

이방인들의 때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눅 21:24)

이사야서 43장 5–7절도 같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네 씨를 동쪽에서부터 데려오고 너를 서쪽에서부터 모으리라.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할 것이요, 남쪽에게 이르기를, 붙잡아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데려오고 내 딸들을 땅끝들에서 데려오라, 하리니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해 그를 창조하였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사 43:5–7)

이처럼 성경은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다시 모이리라는 사실을 예언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첫 단계를 보고 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국가로 재건되었다. 이는 단순한 정치 사건이 아니라 예언적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그러나 이 회복은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유대인들의 회복 과정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회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옴
(2) 심판과 정화

(3) 삼분의 일만 생존함
(4) 야곱의 고난(큰 환난)
(5) 자기들이 찌른 자를 바라보며 애곡함
(6) 메시아의 재림
(7) 한 민족이 하루에 회심

이 모든 과정의 마지막에 유대인들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단 하루 만에 태어나게 된다(즉, 회심하게 된다).

누가 그러한 일을 들었느냐? 누가 그러한 일들을 보았느냐? 땅이 *열매를* 내기 위해 하루에 만들어지겠느냐? 혹은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자기 아이들을 낳았도다. (사 66:8)

이스라엘의 회개와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등에 대해서는 스가랴서 13-14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천년 왕국에서의 유대인

7년 환난기가 끝난 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올리브 산에 발을 디디시며 이 땅에 재림하신다. 이 재림은 은밀하거나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라 온 세상이 목격하는 공개적이고 물리적인 강림으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다.

그때에는 7년 환난기를 통과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유대인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고, 이방 민족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 모두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시기를 지나 생존한 자들이 남아 있게 된다.

주님께서는 이 살아남은 자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대로 '양과 염소의 심판'을 행하신다. 이는 교회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환난을 통

과한 이방 민족들을 대상으로 한 심판이다. 믿지 않고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한 자들은 영원토록 마귀와 함께 거하도록 심판을 받게 되며, 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은 살아 있는 몸 그대로 이 땅에 들어가 천 년 동안 지속되는 천년 왕국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천년 왕국이 시작되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남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그 왕국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그 안에서의 위치는 동일하지 않다. 이때 유대인들은 민족들 가운데 머리가 되는 위치에 서게 된다. 이때는 구약 성경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언약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순간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집트 사람들의 재물을 취하였듯이, 마지막 때에 그들이 본토로 돌아올 때에도 이방 민족들의 재물을 취하게 될 것이다(사 60:9; 61:6). 이는 약탈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속에서 주어지는 회복과 보상의 결과이다. 이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모든 것을 실제로 소유하고 차지하게 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의 경계는 나일 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이다. 열두 지파가 각각 기업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다시 세워지며, 메시아께서 직접 통치하신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사해를 치유하고, 땅은 회복되며, 사람의 수명은 연장된다. 그 결과 땅의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통해 복을 받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복의 통로로 세우셔서 민족들에게 복을 베풀고자 하신 계획이다. 에스겔서 40–48장은 이 천년 왕국 시대에 세워질 성전과, 그 성전으로부터 시작되어 이스라엘과 그 주변 온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질서를 상세히 보여 준다.

천년 왕국 이후와 영원

그러나 천년 왕국이 곧바로 영원의 완성은 아니다. 천년 왕국이 끝날 무렵,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다. 천 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던 마귀가 잠시 풀려난다. 왕국 기간 동안 마귀는 결박되어 있어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했

지만, 이 기간이 끝나면서 제한된 시간 동안 다시 활동할 기회를 얻게 된다.

천년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에는 여전히 첫 사람 아담의 본성을 지닌 채 육신을 입은 이들이 있다. 이들은 구원받은 상태이지만,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까지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천년 왕국 기간에도 믿음에 따른 선택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마귀가 다시 풀려나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킨다.[1] 이는 가장 이상적인 환경 속에서도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얼마나 깊은지를 드러내는 마지막 반역이다. 천 년 동안 메시아의 완전한 통치 아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택을 한다.

그러나 이 반역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개입하시어 이 마지막 반역을 완전히 종결시키신다. 마귀는 불 호수에 던져지고, 더 이상 인류를 미혹하지 못한다.

그 이후에야 비로소 모든 역사의 마지막 장이 열린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하나님의 인간 구속 경륜은 시간의 영역을 넘어 완전한 영원으로 들어간다. 이때에는 더 이상 죄도, 죽음도, 눈물도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영원한 상태가 시작된다.

결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유대인을 이 땅 가운데 세우셨다. 유대인의 선택은 단순한 민족 편애나 역사적 우연이 아니라 한 사

1. 여기에서 언급된 곡과 마곡 전쟁은 에스겔 38–39장에 기록된 곡과 마곡 전쟁과는 다른 사건이다. 에스겔서의 곡과 마곡 전쟁은 천년 왕국 이전, 이스라엘의 회복 초기에 일어나는 전쟁인 반면, 여기에서 말하는 곡과 마곡의 반역은 천년 왕국이 끝난 후, 사탄이 잠시 풀려난 뒤에 일어나는 인류 역사상 최종적인 반역 사건이다(계 20:7–9).

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언약 속에 이미 포함된 민족적·역사적·구속사적 선언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라."(창 12:3)라는 원칙을 더해 주셨는데, 이것은 감정적 표현이나 일시적 약속이 아니라 유대 민족을 향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역사적·언약적 원리이다. 이 언약 때문에 유대인은 멸절되지 않고 보존되어 왔고, 그들을 둘러싼 복과 저주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세계사 속에서 계속 증언되고 있다.

이 장에서 살펴본 유대인의 정체성과 선택의 목적, 현재의 상태, 그리고 장차 있을 회복은 모두 하나의 일관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놓인 요소들이다. 이 토대가 바로 세워질 때에야 비로소 나팔절과 재림, 환난과 왕국에 대한 성경적 조망이 균형 있게 완성된다.

신약 시대가 마무리될 때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시 구약의 예언들에 정확히 맞추어 작동하기 시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곧 주의 날과 직접 연결된 예언들은 다시 유대 민족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성취되며, 그 예언적 성취의 신호탄이 바로 나팔절이다. 나팔절은 단순한 유대인의 종교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새로운 국면이 열렸음을 알리는 표식으로, 교회 시대가 마무리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전환점이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예언적 시간표의 중심에 놓여 있으며, 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 일은 곧 하나님의 구속 경륜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부록 3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에 일어난 사건들

Events in God's Appointed Times

모세가 **주**의 명절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밝히 알렸더라. (레 23:44)

또한 너희의 즐거운 날과 너희의 엄숙한 날들에 또 너희의 달들이 시작되는 때에 너희는 너희의 번제 헌물 위와 화평 헌물 희생물 위에 그 나팔들을 불지니 이로써 그것들이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되리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민 10:10)

성경을 비판하는 이들은, 성경 저자들이 사건과 예정된 명절 달력을 일치시키기 위해 본문 곳곳에 임의로 날짜를 부여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오랜 세월에 걸친 연구와 지난 한 세기 동안 축적된 고고학적 발견들은 성경 기록의 역사성과 연대의 신뢰성을 강하게 뒷받침하며, 성경의 기사들이 실제 역사에 기초한 정확한 기록이라는 사실을 지지한다. 따라서 성경에 나타나는 날짜들은 임의적인 상징 장치가 아니라 특정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난 정확한 날짜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정밀하게 배열

된 시간표의 일부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이 해마다 지켜야 할 일곱 명절을 '주의 명절들'로 선포하면서, 이것들을 단순한 종교 행사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표, 곧 예언의 달력으로 제시한다. 각 명절은 어느 달·며칠에, 어떤 방식으로 지켜져야 하는지까지 세밀하게 정해져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시간 속에 정밀하게 새겨 넣으셨음을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탈출 이후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며, 매해 정해진 때에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 명절들'을 제정하셨다. 매주 안식일이 주어졌고, 해마다 지켜야 할 일곱 명절로 유월절·무교절·초실절·오순절·나팔절·속죄일·장막절이 정해졌다. 각 명절은 이집트에서의 구출, 광야 생활, 수확과 같은 역사적 사건을 기념한다. 동시에 그 너머에 있는 예언적 실체를 가리키도록 설계되었다. 예를 들어, 유월절 어린양이 희생되고 그 피로 백성이 보호받은 사건은, 갈보리에서 하나님의 어린양이 십자가에서 희생되시고 그 피로 죄인이 구원받는 사건을 미리 보여 준다. 이처럼 각 명절의 '기념'은 언제나 장차 올 '성취'를 향한 그림자이며, 역사 속 사건과 예언적 성취가 서로를 비추는 구조를 가진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먹는 것·마시는 것·거룩한 날·월삭·안식일 문제로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골 2:17)라고 선언한다. 이는 명절과 새달, 안식일이 단지 율법주의적 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장차 일어날 사건들을 미리 가리키는 예언적 표지로 성도들에게 주신 것임을 보여 준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미래에 관한 중대한 사건들과 명절들이 정교하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것을 이끄시며 시작부터 끝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 앞에서 심오한 경외감을 품게 된다.

여기에서는 '거룩한 모임'으로 선포된 이스라엘의 일곱 연례 명절을, 신학적 해석에 앞서 먼저 역사적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려 한다. 특히 명절들이 집중된 유대 달력의 세 달, 곧 니산(1월)·시반(3월)·티쉬리(7월)에 주목하여,

니산 월 일일(종교력의 신년)을 포함한 그 달의 중요한 날들과 각 날에 실제로 일어난 성막과 성전 봉헌, 이집트 탈출과 홍해 도하, 율법 수여와 오순절의 성령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초실절 부활 등의 사건들을 함께 살펴볼 것이다. 처음 네 명절(유월절·무교절·초실절·오순절)은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나타나심으로 정해진 날짜에 성취되었고, 남은 세 명절(나팔절·속죄일·장막절)은 주님의 재림 시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성취될 것으로 믿어진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서 각 명절과 니산 월 일일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을 차례로 확인하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신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고 정확한지를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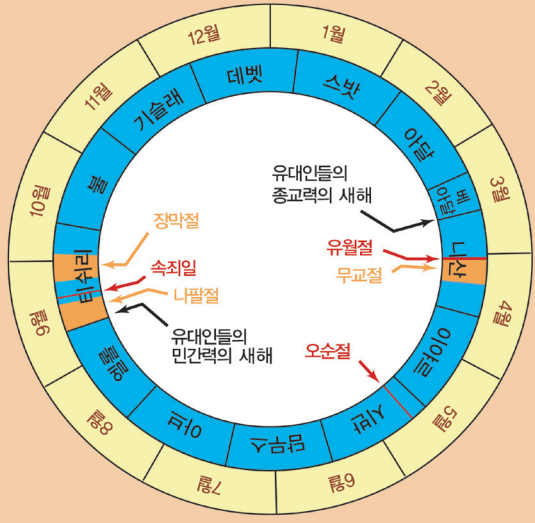
I. 니산 월 일일(종교력의 신년)

니산 월의 첫째 날이 담고 있는 핵심 주제는 유대 민족을 위한 새로운 시작과 예식을 통한 정결함이다. 이집트 탈출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탈출 이전까지 가을에 지켜 오던 정월 초하루를 더 이상 기준으로 삼지 말고 봄에 해당하는 니산 월의 초하루를 새해의 시작으로 삼으라고 명령하셨다. 이 니산 월은 현재 사용하는 달력으로 대략 3월에서 4월경에 해당한다(출 12:2, 그림 참조).

이 변화는 단순한 달력 조정이 아니라 구속을 중심에 둔 시간 체계의 전환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탈출이라는 구속 사건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의 시간을 새롭게 정의하셨으며, 그 출발점을 니산 월의 첫째 날에 두셨다.

니산 월 초하루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미 네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들 모두 정결과 새로운 출발이라는 공통된 의미를 지닌다. 더 나아가, 이날과 관련된 또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 아직 미래에 성취될

〈그림 10〉 유대인들의 달력



종교력의 달	명절	계절 특성과 수확물
1. 니산	14 유월절 15-21 무교절 17 초실절	봄비(신11 :14) 홍수(수3:15) 여리고의 보리가 익음
2. 이야르	14 둘째 유월절 (민9:6-12)	밀 수확 보리 수확(룻1: 22) 엘룰월까지 건기
3. 시반	6 오순절(칠칠절)	
4. 담무스	17 예루살렘으로 인한 금식	고온기 시작
5. 아브	9 성전 파괴로 인한 금식	시내가 마름 맏물 포도 수확(레26:5)
6. 엘룰		포도 수확(민13:23)
7. 티쉬리	1 나팔절 10 속죄일 15 장막절	씨 뿌리는 시기 이른 비 시작(욜2:23) 쟁기질 시작
8. 불		밀과 보리 파종 우기
9. 기슬래	25 성전 봉헌절 (요10:22,29)	겨울 시작 산에 눈이 내림
10. 데벳	10 예루살렘 포위로 인한 금식	가장 추운 달 우박과 눈(수10:11)
11. 스밧		날씨가 온화해짐
12. 아달	13 에스더의 금식 14-15 부림절	천둥과 우박이 자주 발생함 아몬드 나무에 꽃이 핌
13. 베아달		윤달

매월 초하루는
월삭(New moon)
절기로 지킴

것으로 남아 있다. 이처럼 니산 월 첫째 날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며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새 시작의 원리를 드러내는 중요한 표지로 자리 잡고 있다. 다음은 이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요 사건이다.

1. 이집트 탈출 당시 광야에서 성막을 봉헌함

이집트에서 탈출한 뒤 둘째 해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모세는 성막의 구조와 모든 기구를 만드는 일에 대해 주어진 하나님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고, 마침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달 첫째 날에 성막을 세웠다"(출 40:17). 이 날짜는 니산 월 초하루로, 새해의 시작과 정결함을 상징하는 날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이 완성되면 친히 임하셔서 그 성막을 가득 채우실 것이며, 그분의 임재의 영광, 곧 '쉐카이나 영광'(Shekinah Glory)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며 그들을 인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출 40:2, 33-34). 실제로 성막이 세워진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덮었고,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며 그 여정을 친히 인도하신다는 가시적인 표지가 되었다. 이 사건은 니산 월 첫째 날이 단순한 달력상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새롭게 시작되는 날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

2.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정결하게 함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과 유다는 분열 왕국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여러 왕이 차례로 나라를 다스렸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우상숭배에 빠져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유다 왕 히스기야는 예외적인 인물이었다. 성경은 그에 대해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다." 고 증언한다. 그는 통치 제일년 첫째 달에 주의 집 문들을 열고 그것들을 보수하며 성전 정결을 시작하였다(대하 29:2-3).

이 성전 정결 작업이 시작된 지 정확히 2주일 후, 온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

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다(대하 30:1). 니산 월 초하루에 시작된 이 회복의 사역은,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고 민족 전체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불러 모으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

3.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행을 시작함

주전 457년 니산 월 초하루에, 유대인의 지도자 에스라는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 있던 자들 가운데 일부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한 귀환의 여정을 시작하였다. 성경은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 그가 첫째 달 첫째 날에 바빌론에서 떠나 올라오기 시작하여 그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 위에 계셨으므로 다섯째 달 첫째 날에 예루살렘에 왔으니 (스 7:9)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에게 이미 먼저 돌아온 포로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고, 율법에 기초한 공동체를 다시 세우도록 명하셨다.

> 너 에스라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법들을 아는 모든 자들을 행정관과 재판관으로 세워 그들이 강 건너에 있는 온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너희는 그것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가르치라. (스 7:25)

이후 약 13년이 지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에스라와 합류하게 된다.

4.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림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라는 공식적인 명령을 내렸다. 로버트 앤더슨 경(Sir Robert Anderson)이 그의 저서 「다가오는 통치자」(The Coming Prince)에서 제시한 바에 따르면, 이 명령은 니산 월 초하루인 주전 445년 3월 14일에 내려진

것으로 계산된다(느 2:1-8).

이날은 단순한 행정 명령의 날짜가 아니라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아우르는 다니엘의 '칠십 이레' 예언이 시작되는 시점으로서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단 9:24-27).

5. 천년 왕국 시대의 성전을 정결하게 함

마지막으로 니산 월 초하루와 관련된 사건은 아직 미래에 성취될 예언적 사건이다. 장차 이스라엘에 성전이 재건될 때(마 24:15; 살후 2:3-4; 계 11:1-2), 니산 월 초하루에 성전 정결 의식이 행해질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다. 대언자 에스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천년 왕국을 바라보며, 그 왕국의 성전과 거룩한 명절들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였다. 에스겔서 45장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첫째 달 곧 그달 첫째 날에 너는 흠 없는 어린 수소 한 마리를 취해 성소를 정결하게 할지니라. (겔 45:18)

이처럼 성경은 정월 초하루, 곧 니산 월 초하루에 일어난 여러 중대한 사건을 일관되게 기록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일부는 이미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고, 또 하나는 장차 성경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니산 월 초하루는 언제나 정결함과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로 여겨져 왔다.

II. 니산 월 십일

니산 월 십일과 관련된 주제는 거룩하게 함이다. 이날은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앞두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 유월절 어린양을 취하도록 명령을 받은 날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달 십일에 각 사람이 어린양을 취하되"라

고 말씀하셨다(출 12:3). 즉, 니산 월 십일은 단순한 준비의 날이 아니라 구속을 위한 희생이 공식적으로 구별되어 지정되는 날이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 니산 월 십일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네 가지 중요한 사건은 모두 구별됨, 정결함,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향한 준비라는 공통된 주제를 담고 있으며, 유월절의 성취와 메시아 사역을 향한 중요한 예표이다. 이 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1. 이집트 탈출 당시 유월절 어린양을 성결하게 함

니산 월 십일에 일어난 성경적 첫 번째 사건은, 이집트 탈출이 시작되던 해에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양을 취한 일이다. 이날 이스라엘이 흠 없는 어린양을 취한 행위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었다. 이는 곧 이집트의 신들과 파라오의 권세에 맞선 공개적이고 의도적인 신앙적 항거였다.

유월절이 지켜지기 나흘 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십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그 어린양에 대하여 집안사람이 너무 적으면 그와 그의 집 옆의 그의 이웃이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양에 대하여 계산할지니라. 너희의 어린양은 흠 없고 일 년 된 수컷이 될지니라. 너희는 양들이나 염소들로부터 그것을 취하고 같은 달 십사일까지 그것을 간직할 것이요, 저녁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 전체 군중이 그것을 죽일지니라. (출 12:3–6)

이렇게 구별된 어린양은 니산 월 십사일 저녁, 유월절에 희생되어야만 했다. 이 어린양은 단지 역사적 사건의 중심에 있던 짐승이 아니라 훗날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 주는 완전한 상징이었다. 사도 바울은 이 의미를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힌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고전 5:7)

2. 이스라엘이 요르단 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감

니산 월 십일과 연결된 두 번째 사건은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다. 사십 년간의 광야 유랑을 마친 이스라엘은 마침내 요르단 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성결을 통과한 뒤에 주어지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였다.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이적들을 행하시리라. (수 3:5)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이 기사는 홍수가 일어나는 계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르단 강이 그들이 건너려는 지점 위로 흐르지 못하도록 하셨는지를 설명하면서 계속 이어진다.

(수확할 때에는 요르단이 항상 그것의 모든 둑에서 흘러넘치므로) 궤를 멘 자들이 요르단에 다다라서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서 잠기니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물들이 일어서며 솟아올라 사르단 옆의 도시 아담으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 무더기 위에 쌓이고 평야의 바다 곧 염해로 내려가던 물들은 모자라서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를 똑바로 마주 보며 건넜더라. (수 3:15–16)

성경은 이 사건의 정확한 날짜를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백성이 첫째 달 십일에 요르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에 있는 길갈에 진을 치매 (수 4:19)

이는 홍해를 건넌 이후 정확히 사십 년이 지난 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된 백성이 마침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 순간이었다.

3. 유월절 어린양 그리스도께서 종려 주일에 배척을 당하심

주후 30년 니산 월 십일은 종려 주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고대하던 메시아로서 자신을 공식적으로 나타내신 날이다. 이날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메시아를 영접할 최종적인 기회의 날이었다(눅 19:44).

예루살렘의 일부 백성과 제자들은 그분을 왕으로 맞이했으나, 종교·정치 지도자들과 대다수의 군중은 그분을 거부하였다. 그 결과 다니엘서 9장 26절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는 "끊어지게" 되었다.

이 거절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국 체포되어 심문을 받으신 후,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는 니산 월 십일에 택해진 유월절 어린양이 나흘 뒤에 희생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정확히 그 예언의 시간표에 따라 희생되신 사건이었다. 유월절 어린양의 그림자는 이날 완전히 실체가 되었다.



미하이 문카치 〈갈보리〉

4. 에스겔의 천년 왕국 시대의 성전에 관한 이상

니산 월 십일은 과거 그리스도의 초림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아직 미래에 성취될 예언적 사건과도 연결되어 있다. 대언자 에스겔에게 주어진 장엄한 환상 계시가 바로 그것이다.

> 우리가 포로 된 지 이십오 년째 되는 해 즉 그 도시가 공격을 받은 뒤 십사 년째 되는 해 곧 그 해의 시작에 그달 십일 바로 그날에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나를 거기로 데려가시니라. 하나님의 환상 속에서 그분께서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사 심히 높은 산 위에 나를 놓으셨는데 그 곁에는 남쪽으로 도시의 형태 같은 것이 있더라. (겔 40:1–2)

에스겔은 곡과 마곡의 침공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구원을 본 뒤, 이어서 장차 세워질 천년 왕국 시대의 성전을 보게 된다. 이 환상 계시는 이스라엘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온전히 소유하게 될 미래를 보여 준다. 그러나 이 사건 역시 성결을 통과한 이후에야 이루어진다. 니산 월 십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속을 위한 준비와 거룩하게 구별됨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

Ⅲ. 니산 월 십사일: 유월절

유월절은 언제나 봄에 해당하는 첫 번째 보름날에 지켜졌다. 성경적 달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정하신 하루의 시작은 해가 질 때부터였다.

>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니라. (창 1:5)

이 기준에 따라 유월절은 니산 월 십사일 저녁, 곧 해가 질 무렵 시작되며 동시에 십오일로 넘어간다.

첫째 달 십사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요. (레 23:5)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지키는 모든 명절 가운데 가장 깊은 의미를 지닌 명절이라 할 수 있다. 지난 약 3,500년 동안 유대인들은 가족 단위로 모여, 하나님께서 430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출하신 사건을 기억해 왔다. 다음은 유월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요 사건이다.

1.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대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심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그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네 씨에게 주었노니 (창 15:18)

선택된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자기 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되었다. 그러나 그 약속 앞에는 여러 장애물이 놓여 있었다. 그 땅은 이미 강대한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에게는 상속자가 없었으며 그의 아내 사라도 출산의 시기를 지난 상태였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정해진 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약속하셨다(창 18:14).

주께서는 이 첫 번째 유월절과 연결된 날을 통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확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암소와 염소와 수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취하라고 명하시고, 새를 제외한 짐승들은 반으로 나누게 하셨다. 아브라함이 이에 순종했을 때 깊은 잠이 그에게 임하였다. 이 언약 체결 사건이 니산 월 십사일, 곧 유월절과 연결된 날이었음을 출애굽기 12장 40절은 분명히 확인해 준다.

한편 이집트에 거하던 이스라엘 자손의 체류 기간은 사백삼십 년이었더라.

니산 월 십사일에 있었던 이집트 탈출은 정확히 430년 전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주어진 바로 그날에 이루어졌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였다(창 15:13–14). 이 언약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피 흘림과 희생이 필요했고, 그것은 훗날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로 보여 주신 것이다.

그분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확실히 알라. 즉 네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 땅 사람*들을 섬기겠고 그 *사람*들이 사백 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산을 가지고 나오리라. (창 15:13–14)

죄로 말미암은 '영적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언약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육체의 죽음과 피 흘림이 필요하였다.

2. 이집트 탈출 당시의 유월절 만찬

이 밤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처음 난 것들을 치는 '파멸시키는 자'를 보내셔서 열 가지 재앙 중 마지막이자 가장 두려운 재앙을 내리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유월절 어린양의 희생과 그 피를 문기둥과 상인방에 바름으로써 보호를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지 정확히 430년 후, 그다음 날 아침에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불러내셨다.

사백삼십 년이 끝나는 때에 바로 그날 **주**의 모든 군대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왔으므로 그것은 *주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으로 인하여 **주**를 위해 많은 것들을 지켜야 할 밤이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그들의 대대로 지켜야 할 **주**의 그 밤이니라. (출 12:41)

3. 가나안 땅에서의 첫 유월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 너희 가운데 모든 사내아이는 할례를 받을지니 이것은 나와 너희와 네 뒤를 이을 네 씨 사이의 언약 곧 너희가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너희 포피 살을 베어 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있는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창 17:10–11)

이 명령을 받은 즉시 아브라함은 자기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였다(창 17:23).

이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규례들을 주실 때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는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셨다. 유월절은 단순한 민족적 기념일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구별된 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명절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야에서 사십 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는 동안 태어난 남자들은 어느 누구도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된 여호수아는, 할례와 유월절 참여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직후 "예리한 칼을 만들어 포피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였다"(수 5:3, 8). 이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언약적 정결함을 회복해야 했음을 보여 준다.

그 후 니산 월 십사일 저녁,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서 그들의 첫 번째 유월절을 기념하였다. 이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십사일 저녁에 여리고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다음 날에 그 땅의 묵은 곡식을 먹되 바로 그날에 누룩 없는 납작한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들이 그 땅의 묵은 곡식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수 5:10–12)

이는 광야의 유랑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안에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이스라엘은 구출받은 백성에서 머무는 백성이 아니라 약속을 상속받는 백성으로 전환되었다. 이 유월절은 과거의 구원 사건을 기념함과 동시에,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선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는 명절이었다. 이집트에서의 유월절이 속박에서의 구출을 기념했다면, 가나안에서의 첫 유월절은 약속의 성취와 안식의 시작을 예고하는 표지였다. 이는 장차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왕국을 세우실 때, 구원받은 백성이 참된 기업 안으로 들어가게 될 그날을 미리 보여 주는 예표적 사건이었다.

4. 율법책이 발견됨

분열된 유다 왕국을 다스린 많은 왕 가운데서 요시야 왕은 가장 의로운 왕들 중 하나로 꼽힌다. 그는 겨우 여덟 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으나,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서 바른길을 걸었다.

> 요시야는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팔 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삼십일 년 동안 통치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여 자기 조상 다윗의 길들로 걷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아직 어릴 때에 곧 자신의 통치 제팔년에 자기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하였으며 제십이년에 산당들과 작은 숲들과 조각한 형상들과 부어 만든 형상들을 제거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기 시작하였더라. (대하 34:1–3)

요시야는 통치 제십팔년에 이르러, 이전 왕들이 방치해 두었던 주의 성전을 보수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에 착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매우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다.

> 그들이 **주**의 집에 들어온 돈을 가져갈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해 준 **주**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대하 34:14)

발견된 율법책의 말씀이 왕 앞에서 낭독되자, 요시야는 그 말씀 앞에 깊이 찔림을 받고 즉각 언약을 맺는 결단을 내렸다.

또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를 따라 걸으며 그분의 명령들과 증언들과 법규들을 지키고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들을 이행하기로 **주** 앞에서 언약을 맺은 뒤 (대하 34:31)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된 후 요시야가 가장 먼저 실천한 순종의 행동 가운데 하나는 니산 월 십사일에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다.

또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주**께 유월절을 지키니 그들이 첫째 달 십사일에 유월절 어린양을 잡으니라. (대하 35:1)

이는 오랜 세월 형식과 관습으로만 남아 있던 명절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살아난 순간이었다.

5. 두 번째 성전의 봉헌

기원전 536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 있던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들이 목격한 현실은 참담하였다.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하나님의 집은 불태워졌고 성벽은 허물어졌으며, 궁궐들과 귀한 기구들마저 모조리 파괴되었다. 그 폐허의 모습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고, 도시는 여전히 심판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대하 36:19).

그럼에도 귀환한 포로들은 주전 520년경부터, 이미 그 땅에 이주해 와 있던 사마리아 사람의 지속적인 방해 속에서도 성전 재건에 착수하였다. 약 5년에 걸친 시련과 하나님의 도우심 끝에 성전은 아달 월, 곧 유대 달력으로 열두째 달에 완공되었다. 그리고 주전 516년 니산 월 십사일, 에스라와 대제사장 여

호수아의 지도 아래 재건된 성전이 하나님께 봉헌되었고 그날 유월절이 지켜졌다.

>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자손이 첫째 달 십사일에 유월절을 지켰으니 이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함께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게 되매 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들인 제사장들과 자기들을 위해 유월절 어린양을 잡았기 때문이더라. (스 6:19–20)

이 유월절 준수는 단순히 명절을 형식적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 심판과 포로의 시간을 지나서도 자신의 언약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역사 속에서 다시 확인하는 사건이었다.

6.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월절 어린양이 희생된 뒤, 유월절을 위해 준비된 큰 다락방에 함께 모였다. 그러나 그날 저녁에 이루어진 식사는 그들이 이전에 경험해 왔던 그 어떤 유월절 만찬과도 본질적으로 달랐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의미를 더 이상 과거의 구원 사건에 머물게 두지 않으시고, 자신을 중심으로 새롭게 밝히 드러내셨다.

> 또 그분께서 빵을 집어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준 내 몸이니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라. (눅 22:19–20)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는 이 말씀은 유월절 식사가 그리스도 자신의 몸과 피를 가리키는 언약적 표징으로 완성되었음을 선언하는 말씀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의 지하 동굴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든, 그분의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희

생을 기억하며 모여 왔다.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고전 11:26)

Ⅳ. 니산 월 십오일: 무교절

첫째 달 십사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요, 같은 달 십오일은 **주**를 위한 무교절이니 너희는 반드시 이레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니라. 첫째 날에는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그날에는 아무 노역도 하지 말 것이며 너희는 이레 동안 **주**께 화제 헌물을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그날에는 아무 노역도 하지 말지니라. (레 23:5–8)

무교절은 유월절과 동일한 명절이 아니라 유월절이 끝남과 동시에 이어지는 별도의 명절이다. 이 명절은 니산 월 십오일부터 이십일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속된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만을 먹어야 했는데, 이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급히 떠나오느라 빵 반죽에 누룩을 넣어 발효시킬 시간조차 없었음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유월절 밤, 주님께서 이집트의 처음 난 것들을 치시기 위해 '파멸시키는 자'를 보내어 이집트 전역을 치게 하신 그 밤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체 없이 떠날 준비를 갖추어야 했다. 그 결과 반죽은 부풀지 못했고, '누룩 없는 빵'이 그들의 음식이 되었다. 이 누룩 없는 빵은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이집트에서의 고된 노예 생활과 속박을 기억하게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속박의 삶이 자유의 삶으로 전환되었음을 증언하는 표징이었다. 바로 이 결정적인 전환의 사건을 성경은 '이집트 탈출', 곧 출애굽이라 부른다. 이 무교절 기간에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

1. 이집트 탈출(출애굽)의 시작

사백삼십 년이 끝나는 때에 바로 그날 **주**의 모든 군대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왔으므로 (출 12:41)

바로 무교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미리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불러내셨다. 열 가지 재앙을 모두 겪은 뒤에야 이집트의 파라오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었다. 신명기 16장 3절에는 무교절에 먹는 빵을 '고난의 빵'이라 부르며, 그 빵이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의 기억을 담고 있음을 말한다. 이 빵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억압과 고난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 이 빵은 동시에 그들이 이방인의 나라 이집트에 속했던 누룩, 곧 죄와 속박을 뒤에 남겨 두고 떠나왔음을 기억하게 하는 표징이 되었다. 누룩이 없다는 사실은 속박에서 자유의 상태로 옮겨졌음을 뜻한다.

2.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무교절의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가 지닌 의미와도 닮아 있다. 십자가는 본래 죽음과 비극의 상징이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와 부활의 상징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다(요 6:35). 그분의 삶과 사역에는 빵이라는 상징이 깊이 스며 있다. 그분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이라는 지명 자체가 히브리어로 '빵의 집'을 뜻한다는 사실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어느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 12:23–24)

이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내적 고뇌와 사명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밝히셨다.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그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라. (요 12:27–28)

빵의 재료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반드시 죽음과 장사를 거쳐야 하셨다. 그분께서는 니산 월 십사일, 곧 유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 장사되셨으며, 그로부터 3일 뒤 첫 열매 명절인 초실절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는 무교절과 초실절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

V. 니산 월 십칠일: 초실절

유대인들의 일곱 명절 가운데 세 번째 명절인 초실절은 니산 월 십칠일에 지켜졌다. 이 시기는 봄철에 가장 먼저 익는 곡식들을 거두어들이는 때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명절을 통해 이스라엘이 단지 첫 열매만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운 손길로 매일 주어지는 모든 선물, 곧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이 본래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를 원하셨다.

이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너는 네 땅에서 난 첫 열매의 처음 것을 **주** 네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올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것의 어미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출 23:19)

니산 월 십칠일에 지켜진 초실절에는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깊은 네 가지 사건이 일어났으며, 이 사건들은 모두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1.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 산에 정착함

대홍수로 인해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온 인류가 멸망한 뒤, 노아의 가족을 실은 방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아라랏 산에 이르기까지 끝없는 물 위를 떠다녔다. 이 여덟 명의 생존자들은 인류의 극심한 죄악과 폭력, 그리고 타락의 결과로 땅 위의 모든 생명이 완전히 파멸된 현실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었다.

성경은 그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계속 악할 뿐임을 보시고는 (창 6:5)

노아와 그의 가족은 거의 일 년 동안 다시 땅을 밟을 수 있을지 알지 못한 채 물 위를 떠다녔을 것이다.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르다가 마침내 방주가 바위 위에 안착하는 순간을 느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감사가 넘쳤을지는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창세기는 노아의 방주가 땅에 안착한 날이 정확히 니산 월 십칠일이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 일곱째 달 곧 그달 십칠일에 방주가 아라랏의 산들 위에 안착하였으며 (창 8:4)

그러므로 노아의 자손들은 바로 이날에 홍수 이후 처음으로 안전하게 땅에 이르게 되었고, 그 결과 그들은 심판 이후에 남겨진 인류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 사건이 여러 세대에 걸쳐 기억되어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원래 이스라엘을 포함한 대부분의 고대 국가들은 오늘날의 태양력으로 볼 때 대략 9–10월경에 해당하는 가을을 한 해의 시작으로 삼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탈출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의 달력을 여섯 달 앞당기도록 명령하셨다. 즉, 이집트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기적적으로 구출하신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전에는 일곱 번째 달이었던 니산 월—현대 달력으로는 3–4월경—을 첫째 달로 삼으라고 분부하셨으며(출 12:1–2), 그 결과 새해의 시작이 가을에서 봄으로 옮겨졌다.

모세는 창세기 8장 4절에서 노아의 방주가 이집트 탈출 이전에 사용되던 옛 달력으로는 7월 17일에 아라랏 산에 안착했다고 기록하였는데, 이 날짜를 새 달력으로 환산하면 정확히 첫째 달 니산 월 17일이 된다. 이날은 훗날 초실절로 지정된 날과 정확히 일치한다.

2. 이스라엘이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넘

유월절 밤에 이집트의 파라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 마침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도록 허락했을 때, 장정들만 60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무리가 자유를 향해 길을 나섰다. 그들은 홍해 근처에 이르러 광야에서 야영할 준비를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뒤를 돌아보았을 때 이집트 군대가 몰려오며 일으키는 먼지를 보게 되었다. 바로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으로 모세에게 원망의 말을 쏟아냈다.

> 또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우리에게 나았으리라, 하였더라. (출 14:11–12)

그때의 상황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참으로 절망적이었다. 그들 뒤에는

적군이 있었고, 앞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어 보이는 홍해라는 거대한 장벽이 가로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처지는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종종 반복된다. 큰 싸움과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고 확신하며 전진하다가도, 앞에 놓인 길이 평탄할 것이라 여기는 순간 예상치 못한 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바로 그 절박한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가 된다.

겁에 질린 수많은 군중이 모세를 에워싼 가운데, 모세는 오직 한 가지 확실한 도움을 백성 앞에 선포하였다.

>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 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이후로는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잠잠히 있을지니라, 하니라. (출 14:13–14)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앞에서 죽음의 바다였던 홍해의 물을 갈라 놓으셨고, 이스라엘의 무리는 갈라진 물 사이를 건너갔다. 그들은 이집트의 속박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얻은 백성이 되었으며, 니산 월 십칠일, 곧 첫 열매 명절(초실절)에 '부활한 국가'로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간 첫 열매가 되었다.

3.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첫 열매를 먹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랑하던 사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자라나는 백성을 먹이시기 위해 만나라는 초자연적인 음식을 예비해 주셨다. 성경은 그들이 요르단 강을 건넌 뒤 니산 월 십사일에 유월절 만찬을 먹었다고 기록한다.

>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십사일 저녁에 여리고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다음 날에 그 땅의 묵은 곡식을 먹되 바로 그날에 누룩 없는 납

작한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들이 그 땅의 묵은 곡식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수 5:10–12)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들이 땅의 소산인 묵은 곡식을 먹은 니산 월 십오일 바로 다음 날, 십육일에 만나가 완전히 그쳤다는 사실이다. 첫 열매 명절(초실절)인 니산 월 십칠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더 이상 만나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백성은 그 해에 거두어들인 첫 열매, 곧 가나안 땅의 첫 열매를 먹기 시작하였다.

이집트 탈출 이래 사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연에서 난 여러 종류의 음식을 처음 맛보았을 때, 그들의 기쁨이 어떠하였을지는 가히 헤아리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매해 이 시기에 초실절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있다.

4.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사탄과 로마 사람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요구하던 바리새인들은 기뻐했으나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분을 바라보며 단지 패배와 죽음만을 느꼈다. 그러나 그 죽음에는 큰 목적이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라고 말씀하셨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뿌리를 내릴 때, 이는 곧 새로운 생명으로 변한다.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죄와 사탄에 대해 승리하시기 위하여 죽으셔야만 했다.

니산 월 십칠일에 일어난 가장 중대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 사건은 단지 한 인물의 부활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모든 성도의 부활을 보증하는 사건이며,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부활의 첫 열매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전 15:20)

예수님께서는 먼저 스스로 죽음을 이기심으로써 장차 부활할 모든 성도의 첫 열매가 되셨고, 자신의 몸으로 이 명절의 의미를 완성하셨다. 그 순간에 일어난 일들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더라. (마 27:51–53)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는 자신의 권능이 오직 자신에게만 국한되지 않음을 분명히 보이시기 위해, 바로 이 초실절에 구약의 성도들 가운데 많은 이들을 함께 일으키셨다. 다른 고대의 기록들 역시 죽은 자들이 기적적으로 되살아난 사건을 언급하고 있으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오백 명이 넘는 산 증인들과 더불어 이 사실은 복음이 급속히 퍼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전 15:4–6).

하나님께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보다 더 강력하게 보여 주는 장면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부활의 순서는 분명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첫 열매이시고, 그다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며(고전 15:23), 그 후에는 그분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죽음을 보지 않을 성도들이 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전 4:16–17)

그리고 마침내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리라. (고전 15:54)

VI. 시반 월 육일: 오순절

이스라엘이 지켜야 했던 일곱 명절 가운데 넷째 명절은 첫 열매 명절이 지난 뒤 정확히 오십 일 후에 이루어졌다. 이 명절을 가리키는 '오순절'이라는 말은 헬라어 펜테코스트(Pentecost)에서 왔으며, 그 어근인 펜타(penta)는 '오십'을 뜻한다. 이 명절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샤브옷'이라 불렀는데, 이는 여름 수확이 마무리되었음을 기념하는 명절이었다. 또한 이 명절은 '제만 마탄 토르테누(Zeman Matan Toratenu)'라고도 불렸는데, 그 뜻은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수여된 때'이다. 곧 오순절은 단순한 농경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사건을 기억하는 날이었다.

이 오순절은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 반드시 지켜야 했던 세 개의 큰 명절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한다.

너희는 너희를 위해 그 안식일 다음 날 곧 너희가 요제 헌물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을 채우고 일곱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오십 일을 계수하여 새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바로 그날에 너희는 그것이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가 되도록 선포하고 그날에 아무 노역도 하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레 23:15–16, 21)

두 개의 중요한 사건이 시반 월 육일에 일어났고 각 사건은 시대에 따른 하

나님의 특정한 계시를 보여 주고 있다. 즉, 구약 시대에는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의 율법을 주셨고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을 주셨다.

1. 주께서 십계명을 주심

이집트를 떠난 후 이스라엘 백성은 라암셋에서 시내(사이나이) 광야에 이르기까지 오십 일의 여정을 마쳤다. 그리고 유대인의 달력으로 셋째 달인 시반 월 삼일에 시내 산에 도착하였다. 이스라엘은 시내 산 기슭에서 사흘 동안 머물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이때 주께서는 모세를 통해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하며 셋째 날을 대비하게 하라. 셋째 날 **주**가 온 백성의 눈앞에서 시내 산에 내려오리라. (출 19:10–11)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자신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후 시반 월 육일 곧 오순절에 자신의 율법을 주심으로써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셨다.

오순절에 율법이 주어진 이후부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의 전체 기간은 흔히 '율법 시대'라 불린다. 이 시기는 인류에게 도덕률이 명확히 제시된 시기이며,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율법을 주신 사건은 새로운 계시를 따라 살아가야 할 영적 새 시대의 시작을 의미한다.

유대인 랍비들의 전승 역시 시반 월 육일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다고 가르친다. 유대인의 통계연감 또한 "역사적으로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토라)을 주시기 위해 시내 산에 나타나신 날을 기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유대인의 명절들 – 그 안내와 주석」이라는 책은 오순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오순절은 시반 월 육일에 지켜지며 이 명절은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인 율법을 주심을 기념한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에 백성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물들을 설명하신 뒤에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너희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는 네 밭모퉁이를 수확하면서 깨끗이 거두지 말고 네 수확물의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며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 그것들을 남겨 둘지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레 23:22)

이 오순절에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는 룻기가 낭독된다. 룻기에는 이방 여인 룻과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수확 중에 곡식을 남겨 두라고 명한 보아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 룻기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룻이 이르되, 나더러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묵으시는 곳에 나도 묵으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 1:16)

룻기는 다윗 왕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룻과 보아스의 후손임을 보여 주며 마무리된다(마 1:5-6). 한편, 유대 전승에 따르면 다윗 왕은 오순절에 태어나 오순절에 죽었다.

2. 주께서 성령님을 주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첫 열매 명절 이후 정확히 오십일이 지났을 때, 120명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기다리며 '한곳에 같이' 모여 있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성령님의 침례를 받으리라고 미리 말씀하셨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오순절 날이 충만히 찼을 때에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곳에 있었는데 (행 2:1)

시반 월 육일인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고, 그때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행 2:4). 이전까지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제자들은 바로 이 오순절에 특별한 영적 권능을 지닌 증인들로 변화되었다. 그 결과 그들은 강대한 로마 제국조차 막지 못했던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운동을 일으켜 타락한 이방 세계를 향해 담대히 나아갔다.

성령 강림 이후 불과 며칠 만에 3천 명의 유대인들이 믿음에 이르렀다. 신뢰할 만한 기록들에 따르면, 혹독한 박해와 고문, 대량 학살 속에서도 70년이 채 되지 않아 1,000만 명에 이르는 신자들이 지하 그리스도 교회에 속하게 되었다.

시내 산 기슭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율법에 기초한 새로운 관계를 제시하신 그 오순절이,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뒤 오십 일이 지나 이루어진 교회, 곧 그리스도의 신부와 성령님과의 연합이라는 오순절과 정확히 대응된다.

VII. 티쉬리 월 일일: 나팔절

나팔절은 가을, 곧 오늘날의 달력으로 9–10월경에 해당하는 티쉬리 월 초하루에 지켜진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동쪽 지역에서 새달이 처음 관측되면 파수꾼들이 산에서 산으로 나팔을 불어 신호를 전달하였다. 이 신호는

차례로 이어져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도달하였고, 그때 대제사장은 숫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어 새해가 시작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

중동 지역의 다른 문화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시 이집트 탈출 이전에는 티쉬리 월 초하루를 한 해의 시작으로 삼았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나팔절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의미를 지닌 날이다.

(1) 새해의 시작,
(2) 과거를 기억하는 날,
(3) 심판의 날,
(4) 숫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부는 날.

이날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는 이사야서 60-61장이 낭독된다. 이 본문은 주께서 왕으로 나타나시며 온 세상의 통치자로 영접받으실 날, 곧 오랫동안 고대해 온 그날에 대한 소망을 선포한다. 나팔절에는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이미 역사 속에서 일어났으며, 또 하나의 사건은 앞으로 미래에 성취될 것이다.

1.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새 제단에 첫 헌물을 드림

기원전 536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해도 된다는 칙령을 내렸다. 그는 또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 바빌론 사람들이 성전에서 약탈해 간 금과 은으로 된 기구들, 모두 5,400여 점을 돌려보내도록 명령하였다. 그 결과 42,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 도시들에 다시 정착하게 되었다. 이들이 귀환한 뒤 가장 먼저 행한 일은 하나님의 희생 제단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다. 성경은 그 장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도시들에 있다가 백성이 한 사람같이 예

루살렘에 함께 모이니 그때에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들인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헌물을 제단 위에 드리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더라. (스 3:1–2)

성전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에, 제사장들은 구정인 티쉬리 월 초하루에 주께 번제 헌물을 드리기 시작하였다. 이때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히브리어로는 '예수아'가 새로 세운 제단 위에 첫 헌물을 주께 드렸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예수'(Jesus)에 해당하는 이름이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장차 오실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는 인물로 이해할 수 있다.

2. 에스라가 귀환한 포로들에게 율법책을 낭독함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은 외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였다. 성전이 세워진 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할 필요를 분명히 인식하였다.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물 문 앞 거리에 함께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말하매 일곱째 달 첫째 날에 제사장 에스라가 남자들과 여자들의 회중과 이해력이 있어 들을 수 있는 모든 자들 앞으로 율법*책*을 가져와 물 문 앞 거리 앞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들과 여자들과 이해할 수 있는 자들 앞에서 그 안의 것을 낭독하매 온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느 8:1–3)

이 나팔절은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받아들이며, 말씀에 기초한 공동체로 새롭게 출발하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3.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

요엘 대언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주의 날'이 나팔절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다음은 요엘이 전한 예언이다.

> 너희는 금식하는 일을 거룩히 구별하고 엄숙한 집회를 소집하여 그 땅의 장로들과 모든 거주민들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으로 모아 **주**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날로 인해 슬프도다! **주**의 날이 가까이 왔으며 그날이 전능자에게서 나온 멸망같이 오리라. (욜 1:14–15)

이어 요엘은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할 주의 날을 더욱 분명하게 묘사한다.

>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기 때문이니라. 그날이 매우 가까이 왔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이 끼고 짙은 어둠이 덮인 날이라. *이날은* 아침이 산들 위에 퍼지는 것 같으니 *이는* 크고 강한 백성 *때문이라*.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없었고 그것 이후에도 많은 세대의 여러 햇수에 이르도록 다시는 없으리라. (욜 2:1–2)

대언자 예레미야 역시 주님의 날과 나팔의 이미지를 결합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너희는 유다에서 밝히 알리며 예루살렘에서 널리 알려 이르기를, 너희는 그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고 또 소리 내어 외치며 함께 모여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요새 도시들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해 군기를 세우라. 물러가고 머물지 말라. 내가 북쪽에서 해악과 큰 파멸을 가져오리라. (렘 4:5–6)

이러한 예언의 배경을 더욱 보완해 주는 근거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있다. 다니엘서 9장 27절과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따르면, 7년 환난기의 후

반부인 3년 반의 대환난은 적그리스도가 새로 세워진 성전을 더럽히는 사건으로 시작되며, 정확히 1,260일 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끝난다. 그때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는 최종적으로 패망하게 된다.

나팔절은 성경적으로 '주의 날'의 도래를 선포하는 명절로서, 단순한 연례 명절이 아니라 경고와 소집,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날로 반복하여 사용되어 왔다. 요엘과 예레미야가 묘사한 '주의 날'이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는 날로 나타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대환난의 종결과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아마겟돈에서의 최종 심판이 나팔절의 신학적 성격, 곧 심판을 알리는 나팔과 왕의 도래와 가장 잘 부합한다고 이해해 왔다.

여러 대언자들의 증언을 종합할 때, 나팔절이 아마겟돈 전쟁과 연관된 '주의 날'과 연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비록 성경이 날짜를 명시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으나, 나팔절이 '주의 날'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이 해석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패턴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 온전한 성취는 오직 시간이 드러내 줄 것이다.

VIII. 티쉬리 월 십일: 속죄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또한 이 일곱째 달 십일은 속죄일이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 *날*이 될지니라.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고 **주**께 화제 헌물을 드리며 바로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날은 너희를 위해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속죄일이니라. 어떤 혼이든지 바로 그날에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또 어떤 혼이든지 바로 그날에 무슨 일이든 하면 바로 그 혼은 내가 그의 백성 가운데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그날은 너희에게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고 그달 구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 너희의 안식을 실행할지니라. (레 23:26–32)

'욤 키푸르'(Yom Kippur)로 알려진 속죄일은 유대인들의 달력에서 가장 엄숙한 날이다. 이날은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죄를 두고 애곡하는 날로서, 바로 티쉬리 월 십일에 일 년에 오직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주님의 영광이 거하는 성전 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히 9:7). 그는 특별히 지은 아마 옷을 입고 희생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긍휼의 자리에 그 피를 뿌렸다. 이날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스물네 시간 동안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지난 한 해 동안 범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만 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속죄일의 의미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에 의거하여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 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위들로부터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히 9:12–14)

속죄일은 매해 반복되어야 했다. 그런데 일곱 안식년을 일곱 번 채운 뒤 맞이하는 오십 번째 해는 특별히 '희년', 곧 기쁨의 해로 구별되었다. 레위기 25장은 이 희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너는 너를 위해 일곱 안식년을 셀지니 칠 년이 일곱 번이므로 일곱 안식년 기간이 너를 위해 사십구 년이 되리라. 그때에 너는 일곱째 달 십일에 희락의 나팔 소리가 울리게 하고 너희는 그 속죄일에 두루 너희 온 땅에 나팔 소리가 울리게 할지니라. 너희는 그 오십 번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온 땅 전역에서 온 땅의 모든 거주민들에게 해방의 자유를 선포하라. 그것은 너희에게 희년이 되리니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소유로 돌아가고 너희 각 사람은 자기 가족에게 돌아갈지니라. (레 25:8–10)

희년의 속죄일에는 다른 해의 속죄일과 달리 모든 빚이 탕감되었고, 노예들

은 자유를 얻었으며, 팔려 나갔던 각 가족의 땅, 곧 상속물들이 원주인에게 되돌려졌다. 그러므로 희년은 단순한 회복을 넘어, 완전한 자유와 새 출발을 선포하는 해였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께서 지불하신 대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5:21)

속죄일에 지성소 안에서 뿌려졌던 그 희생의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기 위해 단 한 번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최종적 희생을 예표로 보여 준다. 이 속죄일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두 사건이 일어났으며, 장차 한 사건이 더 이루어질 것이다.

1. 아론이 이집트 탈출 이후 광야에서 처음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함

티쉬리 월 십일에 광야에서 대제사장 아론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희생물을 취하였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처음으로 속죄일을 지키라고 명하신 때의 사건이었다. 이집트 탈출 이후에 맞이한 첫 번째 속죄일은 레위기 16장 1-28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셨다.

이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즉 일곱째 달 곧 그달 십일에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고 결코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너희 나라 사람이든지 너희 가운데 체류하는 타국인이든지 그리할지니라. 그 날에 제사장이 너희를 위해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이로써 너희가 너희의 모든 죄에서 떠나 **주** 앞에 정결하게 되리라. 그날은 너희에게 안식하는 안식일이 될지니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되 영원한 법규에 따라 그리할지니라. (레 16:29-31)

2. 이스라엘이 1973년의 욤 키푸르 전쟁에서 구출됨

1973년 속죄일, 곧 티쉬리 월 십일에 아랍 군대들은 아무런 경고도 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였다. 십만 명이 넘는 이집트 병사들이 시내(사이나이) 사막을 넘어 수에즈 운하의 '바르레브' 방어선을 지키고 있던 약 삼천 명의 이스라엘 병사들을 공격하였다. 수적 우세를 점한 이스라엘의 적들은 즉각적인 섬멸 대신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해 공격을 멈추는 치명적인 판단을 내렸다. 그 사이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셨고, 성경에 기록된 다른 결정적인 순간들처럼 이 전쟁에서도 전세는 역전되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시리아와 이집트를 상대로 한 전쟁에서 생존과 승리를 이루었다.

3. 미래에 이스라엘이 그들이 배척한 메시아를 보고 애통할 것임

아마겟돈 전쟁을 예언한 뒤, 대언자 스가랴는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에게 부어 주실 초자연적인 은혜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로 인해 애곡하듯 그로 인해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리라. 그 날에 므깃돈 골짜기의 하닷림몬에서의 애곡과 같은 큰 애곡이 예루살렘에 있으리라. (슥 12:10–11)

이어 스가랴는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샘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리리라. (슥 13:1)

아마도 이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참된 화해가, 하나님께서 속죄를 위해 정하신 바로 그날, 곧 티쉬리 월 십일의 속죄일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날에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거부해 왔던 그 메시아께서 선택하신 민족의 구원자로 나타나 영접을 받으실 것이다.

에스겔 대언자 역시 이스라엘의 대회복이 이루어질 그날을 다음과 같이 예언한다.

> 그때에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새 마음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며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너희의 모든 불법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또한 너희를 도시들에 거하게 하리니 피폐한 곳들이 건축되리라. (겔 36:25, 33)

IX. 티쉬리 월 십오일: 장막절

장막절은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매해 예루살렘에 직접 올라가 참석해야 하는 세 명절 가운데 마지막 명절이다. 히브리어로 '수코트(Sukkot)'라 불리는 이 장막절은 시내 광야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절로서, 속죄일로부터 닷새가 지난 티쉬리 월 십오일에 시작된다. 이 명절은 한 해의 수확이 마무리되는 시기, 곧 오늘날의 9–10월경에 지켜졌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불렸다.

>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일곱째 달 십오일은 이레 동안 **주**를 위한 장막절이 되리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은 초막에 거할지니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그들을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 자손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레 23:33–34, 42–43)

이 명절은 7일 동안 지켜졌으며, 그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사십 년 동안 장막, 곧 임시 거처에서 살았던 삶을 기억하기 위해 나뭇가지로 만든 초막에 거해야 했다. 또한 장막절의 7일 동안 매일 흠 없는 열네 마리의 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는데, 이는 이 명절이 얼마나 큰 기쁨과 풍성한 감사의 명절이었는지를 보여 준다(민 29:15, 32). 비록 그리스도의 탄생일에 대해 성경이 명확한 날짜를 제시하지는 않지만,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묘사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요 1:14)라고 기록한다. 여기에서 사용된 '거하시매'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장막을 치셨다(tabernacled)'는 뜻으로,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막절 기간에 태어나셨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표현으로 이해되어 왔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곧 니산 월 십사일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나이는 역사적 자료들이 뒷받침하듯이 약 서른세 살 반이었다.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로부터 반년 전인 가을 명절, 곧 장막절이 시작되는 티쉬리 월 십오일에 탄생하셨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사십 개가 넘는 중요한 사건들이 하나님의 명절들과 정확히 맞물려 일어났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역시 같은 패턴을 따라 장막절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만일 이 가정이 옳다면, 주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대한 사건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주께 경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했던 세 개의 명절과 정확히 일치했음을 알 수 있다. 곧 그분께서는 장막절인 티쉬리 월 십오일에 탄생하셨고, 유월절인 니산 월 십사일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위로자 성령님께서는 시반 월 육일인 오순절에 권능 가운데 교회 위에 임하셨다. 장막절에는 이처럼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이 이미 성취되었고, 하나의 사건은 아직 미래에 남아 있다.

1.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

주전 1004년, 티쉬리 월 십오일 장막절에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공식적

으로 봉헌되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실제로 임재하셨음을 보여 주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역대기하는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그때에 솔로몬이 **주**의 언약궤를 다윗의 도시 곧 시온에서 가지고 올라오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파들의 모든 우두머리들 즉 이스라엘 자손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니 그런 까닭으로 일곱째 달의 명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왕에게 모이고 (대하 5:2–3)

> 또한 노래하는 자들인 레위 사람들 곧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흰 아마 *옷으로* 차려입고 심벌즈와 비파와 하프를 가진 자기 아들들과 형제들과 함께 제단의 동쪽 끝에 서 있었으며 제사장 백이십 명이 나팔로 소리를 내면서 그들과 함께하였더라.) 나팔 부는 자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주**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서 한 *사람*처럼 한 소리를 내서 *사람들이* 듣게 하였으며 그들이 나팔과 심벌즈와 악기를 연주하고 소리를 높여 **주**를 찬양하여 이르되,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하매 그때에 그 집 곧 **주**의 집이 구름으로 가득 찼으므로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해 서서 섬길 수 없었으니 이는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집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더라. (대하 5:12–14)

> 그때에 솔로몬이 *우두머리들을 시켜* **주**의 언약궤를 다윗의 도시 곧 시온에서 가지고 올라오게 하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파들의 모든 우두머리들 즉 이스라엘 자손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왕에게 모으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명절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왕상 8:1–2)

2.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통적으로 성탄절로 지켜지는 12월 25일이 아니라 가을 명절인 장막절에 탄생하셨음을 암시한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상적인 수태 기간이 약 사십 주임



을 고려할 때 예수님의 잉태 시점은 오늘날의 태양력으로 12월 25일 무렵이 된다.

이 점은 로마 카톨릭교회가 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채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성경적 근거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실제로 12월 25일의 성탄절은 이방 종교의 풍습과 결합된 날짜로, 세속 권력과 타협한 교회가 받아들인 전통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3. 천년 왕국의 도래

마지막으로, 장막절과 관련된 최종적인 사건은 아직 미래에 남아 있다. 군대들의 주께서 재림하셔서 오랫동안 고대되던 평화의 천년 왕국을 시작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에, 장막절에 대한 마지막 예언이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한 **주**만 계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예루살렘을 대적하러 왔던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아 있는 모든 자가 참으로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군대들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슥 14:9, 16)

스가랴서는 장막절을 지키지 않는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를 것임도 분명히 경고한다(슥 14:16–21). 이는 장막절이 단지 이스라엘만의 명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온 세계가 기념해야 할 명절임을 보여 준다.

이방 민족들에게 장막절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오늘날 대부분의 이방인들은 이 명절과 그 의미를 거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성경은 장막절에 인류 역사 전체를 뒤흔드는 결정적 사건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사탄의 인류 파멸 계획이 완전히 좌절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나라들이 심판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바로 그 사건이 장막절과 맞물려 있다. 이때 마지막 재난에서 구원받은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을 영원히 기념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소망은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의 신앙 속에 살아 있다. 지금도 전 세계 유대인 회당에서는 장막절이 되면 스가랴서 14장 1–21절을 낭독하며, 메시아께서 자기 백성을 박해자들로부터 최종적으로 구원하시고 천년 왕국을 세우실 날을 기다리고 있다. 장막절은 과거의 기억을 넘어, 메시아 왕국의 완성을 향한 전 세계적인 소망의 명절이다.

결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유월절에서 장막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명절들과 그 날짜 위에 새겨진 사건들은 우연한 겹침이 아니라 구속 역사를 시간 속에 새겨 놓으신 하나님의 의도적인 설계이다. 아브라함 언약과 이집트 탈출, 광야 성막 봉헌과 성전 재건, 율법 수여와 성령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안에 담겨 있다.

나아가 미래에 성취될 나팔절의 심판, 속죄일의 민족적 회개, 장막절의 왕국 완성까지, 이 모든 사건이 유대인의 달력과 명절이라는 틀 안에서 정밀하게 배열되어 있다. 이러한 패턴은 성경의 날짜들이 임의로 꾸며진 장치가 아

니라 하나님께서 실제 역사 위에 놓으신 시간의 표지판임을 증언한다.

이 명절들과 관련된 사건들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끝을 아시고, 정하신 날에 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선명해진다. 이미 성취된 네 명절이 그 증거이고, 남은 세 명절도 같은 신실하심 아래 놓여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절들을 연구하는 일은 단순한 연대기적 흥미나 상징 풀이가 아니라, 말씀의 신뢰성과 예언의 확실성을 확인하고 동시에 "주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긴박감 속에서 오늘을 준비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는 일이다.

이 부록이 보여 준 시간표의 정밀함은 성도를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이끄는 증거이며, 동일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인생도 그분의 구속 계획 안에서 정해진 때에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한다.

King James Bible 1611

킹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 에디션



한영대역 관주성경 스터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작은 성경 비교 신약 성경

1611년 킹제임스 바이블
인류 역사 최고의 성경!

(없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거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력 하에서 중세 암흑시대를 살았던 민초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지만, 성경을 번역한 죄로 화형당한 선조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왕의 명령에 의해 탄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세상을 비춘 진리의 빛 1611년 킹제임스 영어 성경.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 원어의 단어들을 그대로 일대일 대응시켜 번역한 성경입니다.
- 지난 400년 동안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입니다.
- 영어권에서 모든 성경과 모든 신학 서적의 표준이 된 성경입니다.
- 전세계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읽히고 번역된 성경입니다.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운율이 유지되어 영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 용어 색인이 가능하도록 모든 중요 단어를 통일하였습니다.
- 역사성과 현실성을 인정하여 번역하였습니다.
- 원어와 영어의 감동 그대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마제스티 에디션은 30년 동안 번역/교정하여 완성한 성경입니다.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본 출판사는 생명의말씀사 온라인서점에서 '8대 성경 출판사'로 꼽히며, 흠정역 성경은 첫 출간 때부터 베스트 성경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www.KeepBible.com NAVER 사랑침례교회 검색

바른 신앙을 위한 크리스천의 필독서!

성경 바로 보기 라킨 외/ 정동수 역
그림과 도표 등 알기 쉬운 자료들이 컬러로 수록된 책. 라킨의 책과 부록들로 성경 신자의 필수 지식을 담아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책. 세대주의(경륜)에 관한 책 합본.

구원 바로 알기 정동수
누구나 꼭 알아야 할 영혼 구원의 이유와 방법과 바른 구원에 관한 진리를 쉽게 설명한 책으로 불신자는 물론 구원의 개념이 명확치 않은 모든 크리스천을 위한 내용. 강의 MP3포함.

천주교 시리즈 3권 우드로우, 릭 존스, 로이드 존스 외
천주교의 유래/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는 책으로 기원과 교리는 물론 장차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까지 알게 해주는 책. 3권 중 한 권만으로도 그 심각성과 문제점을 잘 알 수 있다.

킹제임스 시리즈 3권 사무엘 깁, 버튼 외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답변서/ 입문서

역사 : 성경의 기록과 보존 과정, 번역 과정, 번역상의 문제와 오류 등을 짚어 준다./ 답변서 : 100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킹제임스 성경의 오해를 풀고 왜 오류가 없는지 밝힌다./ 입문서 : 길라잡이 역할, 흠정역 사용자들의 생생한 체험담 수록.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레이시 외
레이시 목사, 디한 박사 등의 책이 합본으로 담긴 책. 피의 성분과 성경적 원리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담은 책. 예수님 피의 복음이 왜 필요한지 알려주는 책.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레이시
레이시 목사의 천국 지옥에 관한 저서 2권 합본. 철저히 성경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개념 설명. 놀라움과 두려움을 넘어 희망과 소망을 주며 전도에 대한 위급함을 일깨우는 책.

천사와 UFO 바로 알기 정동수
천사와 네피림, 마귀의 천사들의 땅속 음모와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해 속시원히 풀어주는 흥미로운 책.

오순절 은사운동 바로 알기 유인 외
유인 목사의 저서와 부록들로 구성해 사도행전을 오해해서 생기는 은사운동의 양상과 폐해를 파헤치고, 체험 주의 은사운동의 신비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참된 믿음을 알려 주는 책.

행위 종교와 은혜 복음 잭슨 외/ 고정인 역
모든 것을 끝낸 복음과 행위로 이루어가는 불완전한 종교를 대비하여 구원의 영원성과 완결성을 일러스트와 함께 설명한 책.

성경의 역사: 어둠 속의 등불 핀토/ 정동수 역
성경의 언어, 성경의 영감, 그리고 성경의 보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의 섭리 등 성경의 모든 역사와 바른 성경의 뿌리, 기타 역본들의 실체를 한눈에 보여 주는 책.

이슬람교 바로 알기 클라우드 외/ 박용찬 외 역
테러와 우상숭배의 종교 이슬람의 정체 및 마지막 때의 역할을 분석한 책. 한국 이란인교회 이만석 목사의 글 등 부록에 수록.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잭 맥엘로이
불신자들과 확신 없는 교인들에게 다른 종교들을 모두 비교해 기독교와의 차이점을 알리면서, 영혼을 온전히 살릴 수 있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변증한 책.

세상을 바꾼 책 킹제임스 성경(1611)
그리스도예수안에 편저/ 김용묵 외 역
영어성경의 역사와 함께 킹제임스 성경의 탄생 과정을 소개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지면으로 볼 수 있도록 소개한 책.

왜 안 하는가? 정동수
사도신경, 주기도문, 축도, 새벽기도, 통성기도, 구약의 십일조, 일천 번제, 열린 예배와 록 음악, 방언/신유, 축사 등을 신약교회에서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책.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김재욱/ 정동수 책임감수
유대인의 역사, 세계 정세, 다니엘서 해석, 배교 현황 등을 통해 말세의 징조를 돌아보고 시각 자료를 통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한 책. 바른 성경 해석과 베리칩 등 종말론 총정리!

재림과 휴거 시리즈 2권 모리스, 정동수 외
역사와 영원의 파노라마/ 바로 알기

창조과학의 아버지 헨리 모리스 박사가 성경을 추적한 종말 분석서와 재림과 휴거에 관한 기본 지식을 모은 두 권의 시리즈.

에스라성경사전/지도 2권 정동수 외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는 데 필요한 용어 색인 사전, 낱말 풀이 사전, 다양한 지도 및 선도 등을 제공한다.

킹제임스 흠정역
한영대역/ 스터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다른 한국어 성경들은 물론, 기타 킹제임스 한글 번역본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정확한 번역본 흠정역!!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이 되고 있다. 한영대역은 영문 원본과 대조할 수 있고, 스터디 바이블은 에스라 성경사전과 지도 및 선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큰글자 성경과 작은 성경도 있다.

박사 성경
현대 역본 성경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번역의 대본인 본문이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 등과 다르다는 데 있다. 박사 성경은 NIV같이 소수 사본에 근거한 신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는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 표시하여 누구라도 문제를 쉽게 볼 수 있게 하였다.

비교 성경
이것은 한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개역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KJV), NIV 신약 성경을 4개의 열에 병행해서 배열하여 누구라도 쉽게 4개의 성경을 비교/분석할 수 있게 한 성경이다.

개역성경분석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 온 개역성경이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 주고 왜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가를 보여 준다.

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추천 참고도서

●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한영대역, 스터디, 큰글자, 박사, 신약성경 등) 그리스도예수안에(www.KeepBible.com)
2.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S. 깁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구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100가지 질문과 대답') S. 깁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구 '킹제임스 성경 길라잡이') B. 버튼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5. 킹제임스 성경 변호 E. 힐즈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6.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 D. 웨이트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7.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T. 홀랜드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8. 개역성경분석 정동수 저, 그리스도예수안에(사랑침례교회 무료 요청)
9.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 K. 파이퍼 저, 이황로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10. 신약분석성경(한/헬/영 대역판)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1. 뉴바이블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2. 우리말 성경 연구 나채운 저, 기독교문사
13. New Age Bible Versions, Gail Riplinger(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4. Final Authority, William P. Grady(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5. Did the Catholic Church Give Us the Bible?
    David W. Daniels(www.Chick. com 혹은 www.amazon.com)

● 천주교

1.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R. 존스 저, 정동수 박노찬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천주교의 유래 R. 우드로우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M. 로이드 존스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무엇이 다른가? F. 리데나워 저, 생명의말씀사
5. 교황 대신 예수를 선택한 49인의 신부들 R. 베닛 & M. 버킹엄 저, 이길상 역, 아가페
6. 종교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 F. 리데나워 저, 정창영 역, 생명의말씀사
7. 무모한 신앙과 영적 분별력 맥아더 저, 안보헌 역, 생명의말씀사
8. 로마 카톨릭 사상평가 로레인 뵈트너 저, 이송훈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9. 천주교도 기독교인가? 유선호 저, 하늘기획
10. A Woman Rides the Beast Dave Hunt(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1. Babylon Religion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Queen of All Jim Tetlow(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뉴에이지 운동

1. 천사와 UFO 바로 알기(구 '천사는 있다', 'UFO는 있다') 정동수 편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뉴에이지 신비주의 – 이교주의와 뉴에이지 운동의 현재 김태한 저, 라이트하우스

● 오순절 은사 운동

1. 오순절 은사 운동 바로 알기 W. 유인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무질서한 은사주의 존 맥아더 저, 이용중 역, 부흥과개혁사
3. 사단은 성도를 어떻게 속이는가? 제시 펜 루이스 저, 전의우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4.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 창조와 진화

1. 1318 창조과학 A to Z 김재욱 저, 생명의말씀사
2. 창세기연구(상,하) 헨리 M.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3. 기원 과학 한국창조과학회, 두란노
4. 놀라운 창조 이야기 듀안 기쉬 저, 국민일보
5. 밝혀진 만물 기원과 창조 신비(창조과학시리즈1) 데니스 피터슨, 나침반
6. 숨겨진 공룡의 비밀 듀안 기쉬, 서용연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7. 자연과학과 기원 이웅상 외 저, 한국창조과학회
8.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 이은일 저, 두란노
9. 가자! 신비한 공룡의 세계로 폴 테일러 저, 송지윤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10. 고대 한자 속에 감추어진 창세기 이야기 넬슨 외 저, 전광호, 우제태 역, 기독교출판공동체
11. 심판대의 다윈 제2판 : 지적설계논쟁 필립 E. 존슨 저, 이승엽 이수현 역, 까치
12. 젊은 지구 J. 모리스 저, 홍기범 조정일 역, 한국창조과학회
13. 창세기에 답이 있다 (구 '신앙 대 신념') 켄 함 & 폴 테일러 저, 한국창조과학회
14. 재창조는 없다 정동수 외, 그리스도예수안에(근간)

● 기타

1. 설교와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저, 정근두 역, 복있는사람
2.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3.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4.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 호라티우스 보나 저, 생명의말씀사
5. 윌밍턴 종합성경연구 1,2,3 H. L. 윌밍턴 저, 박광철 역, 생명의 말씀사
6. 하나님이 주신 보장된 삶 빌 길햄 저, 유상훈 역, 도서출판NCD엔시디
7.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헨리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8.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9.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0.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1.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존 맥아더 저, 생명의 말씀사
12. 칼빈주의 비평 데이빗 클라우드 외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개역성경에서 삭제된 구절들

	성경 구절	개역성경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마17:21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2	마18:11	(없음)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3	마23:14	(없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위장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4	막9:44	(없음)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5	막9:46	(없음)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6	막11:26	(없음)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7	막15:28	(없음)	이로써,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고 말하는 성경기록이 성취되었더라.
8	눅17:36	(없음)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9	눅23:17	(없음)	(이는 그 명절이 되면 필히 빌라도가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더라.)
10	행8:37	(없음)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11	행15:34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라는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12	행28:29	(없음)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13	롬16:24	(없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4	요일 5:6~7	6 … 물과 피로 임하셨고 7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6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7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개역성경은 7절을 빼고 원래 6절의 전반부는 6절에, 후반부는 7절에 넣음.)

표준새번역, 공동번역, NIV, NASB 등도 위의 구절들을 빼거나 또는 원래 없는 것처럼 괄호나 각주 처리함.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24:35)

KEEP BIBLE 무료 PDF 책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소개

성경바로보기

요한계시록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www.KeepBible.com NAVER 성경지킴이

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9 788995 158784

ISBN 978-89-951587-8-4

03230

값 8,000원

개역성경 분석

〈표준새번역·공동번역·NIV·NASB 등 포함〉

성경은 단 두 종류뿐이다!!

당신의 성경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육체 밖에서	**욥기 19:26** 육체 안에서
(없음)	**사도행전 8:37** (있음)
짐승의 혼	**전도서 3:21** 짐승의 영
삼위일체 삭제	**요한일서 5:7-8** 삼위일체 하나님 있음
계명성	**이사야 14:12** 루시퍼
해골	**누가복음 23:33** 갈보리

당신의 성경, 어느 쪽인가?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그리스도
예수안에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레위기 맥 잡기

레위기는 결코 소홀히 지나쳐도 되는 책이 아니다. 이 책은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통일된 계시임을 깨닫게 하며, 복음의 뿌리를 더욱 견고히 붙들게 하는 책이다. 레위기를 읽는 일은 곧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해 가는 여정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동시에 경험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이다.



첫째, 구약의 레위기는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미리 보여 주는 예표의 성격을 지닌 책이다. 둘째,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주님의 명절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이미 성취된 것들과, 장차 재림 때 성취될 것들로 구분되며, 모든 명절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셋째, 성경 말씀은 매우 정확하며 하나님께서는 인간 역사의 모든 일들을 그분 자신의 패턴에 따라 일관성 있게 주관하신다. 넷째, 성도들의 영적 양식이 균형 있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신구약 성경 모두가 함께 읽히고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레위기는 더 이상 생소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레위기를 통해 예배가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 저자 서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편만 읽으라고 성경 전체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로마서뿐만 아니라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도 읽어야 합니다. 고린도전후서에 영감을 주신 동일한 저자께서 역대기상하에도 똑같은 영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말라기서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일부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 사무엘 깁, 레위기를 읽고 공부해야 할 이유

KEEP BIBLE
무료 PDF 책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소개

킹제임스 성경
무료 PDF와 앱

정동수 목사
주요 설교·강해

값 22,000원

9 788992 485746
ISBN 978-89-92485-74-6